박 사 학 위 논 문

현대 국어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오 새 내

2006년 6월 일

한 영 권 선생님께

오 새 내 올림

朴 榮 順 교수지도
박 사 학 위 논 문

현대 국어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6월 일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오 새 내

오새내의 문학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함.

2006년 6월 일

위원장 ________________ ㉮

위 원 ________________ ㉮

위 원 ________________ ㉮

위 원 ________________ ㉮

위 원 ________________ ㉮

- 목 차 -

1.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 1
1.2. 선행 연구 검토 ······························ 5
1.3. 분석 대상 자료와 분석 방법 ······························ 13

2. 이론적 배경 ······························ 23
2.1. 언어 변이 형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 24
2.2. 언어 변이의 분석 방법론 ······························ 29
2.3 도시방언 평준화 모형과 언어사회유형론 ······························ 34

3.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어중경음화의 변이 현상 ······························ 44
3.1. 20세기 수도권 지역 출신 화자들의 어중 경음화 경향 분석 ······························ 47
3.2. 사회적 요인에 의한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 변이 양상 ······························ 63
3.2.1 제보자의 성별과 어중경음화 ······························ 72
3.2.2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과 어중경음화 ······························ 76
3.2.3 제보자의 최종 학력과 어중경음화 ······························ 86
3.2.4 제보자의 연령과 어중경음화 ······························ 91

4. 복합어 내부 ㄴ삽입의 변이 현상 ······························ 119
4.1. 20세기 수도권 지역 출신 화자들의 ㄴ삽입 현상 실현 경향 분석 ······························ 122
4.2. 사회적 요인에 의한 ㄴ삽입 현상의 변이 양상 ······························ 110
4.2.1 제보자의 성별과 ㄴ삽입 현상 ······························ 137
4.2.3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과 ㄴ삽입 현상 ······························ 138
4.2.3 제보자의 최종 학력과 ㄴ삽입 현상 ······························ 140

4.2.4 제보자의 연령과 ㄴ삽입 현상 ······ 145

5.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변이 현상 ······ 159

5.1. 20세기 수도권 지역 출신 화자들의 ㄴㄹ연쇄의 변이 실현 경향 분석 ······ 162
5.2. ㄴㄹ연쇄와 한자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 173

6. 연령과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해석 ······ 177
7. 결론 ······ 189

참고문헌 ······ 192

<부록 1>

(1) 제보자 현재 거주지(도시별)와 경음화 실현 교차표 ······ 197
(2) 서울지역 거주자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 교차표 ······ 200
(3) 수도권 도시별 제보자 출생지와 어중 경음화 실현 교차표 ······ 202
(4) 서울지역 출생자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출생자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 교차표 ······ 206
(5) 제보자의 부계 선대 거주지(도시별)와 어중 경음화 실현의 교차표 ······ 209
(6) 제보자의 부계 선대 거주지(지역별)와 어중 경음화 실현의 교차표 ······ 211
(7) 제보자의 모계 선대 거주지(도시별)와 어중 경음화 실현의 교차표 ······ 213
(8) 제보자의 모계 선대 거주지(지역별)와 어중 경음화 실현의 교차표 ······ 215
(9) 제보자의 연령과 어중 경음화 변이형 실현 비율 ······ 217
(10) 제보자의 출생 시기와 어중 경음화 변이형 실현 비율 ······ 221
(11) 제보자의 세대와 어중 경음화 변이형 실현 비율 ······ 225

<부록 2>

(1) 제보자의 연령과 ㄴ삽입 현상 변이형 실현 비율 ······ 236
(2) 제보자의 출생 시기와 ㄴ삽입 현상 변이형 실현 비율 ······ 238
(3) 제보자의 세대와 ㄴ삽입 현상 변이형 실현 비율 ······ 241
(4) 제보자 거주지(도시별)와 ㄴ삽입 실현 교차표 ······ 247
(5) 제보자 거주지(지역별)와 ㄴ삽입 실현 교차표 ······ 249
(6) 제보자 출생지(도시별)와 ㄴ삽입 실현 교차표 ······ 251
(7) 제보자 출생지(지역별)와 ㄴ삽입 실현 교차표 ······ 254

(8) 제보자의 부계 선대 거주지(지역별)와 ㄴ삽입 변이형 교차표 ······ 259
(9) 제보자의 모계 선대 거주지(도시별)와 ㄴ삽입 변이형 교차표 ······ 261
(10) 제보자의 모계 선대 거주지(지역별)와 ㄴ삽입 변이형 교차표 ······ 264

< 그림 차례>

(그림 1) 언어 변이의 형성에 대한 심리언어학의 초기 모형 ······ 25
(그림 2) Preston (2000:26)의 언어변이 형성 모형 ······ 26
(그림 3) Cutillas -Esponosa의 삼중 문법 모형 ······ 28
(그림 4) Trudgill의 사회 방언 삼각형 모형 ······ 35
(그림 5) Inoue의 도쿄 신방언 형성 삼각형 모형 ······ 36
(그림 6) 언어 변화의 S -곡선 모형 ······ 112
(그림 7) Janda & Joseph(2003:76)의 생성문법 기반 세대 간의 언어차이에 의한 언어 개신 모형 ···· 179
(그림 8) Downes의 연령대별 표준어 사용 증감모형 ······ 182
(그림 9) 충주방언의 단모음 '외, 위'와 '에, 애'의 변별 정도 꺾은선 그래프 (박경래(1993)의 자료로 다시 그림) ······ 183
(그림 10) Coulmas(2005:54)의 가상의 3세대에 걸친 언어변화의 모형 ······ 184

<표 차례>

(표 1) 본고의 어중경음화 분석 대상 전체 어휘와 전체 어중경음화 빈도 ······ 47
(표 2) 어중경음화 다수 변이형 ······ 49
(표 3) 성별에 따른 어중 경음화 실현 경향 ······ 56
(표 4) 연령별 어중 경음화 실현 경향 ······ 57
(표 5) 제보자들의 세대별 어중 경음화 실현 경향 ······ 59
(표 6)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어중 경음화 실현 차이 ······ 61
(표 7) 제보자의 최종 학력별 어중경음화 실현 경향 ······ 62
(표 8)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전체 어휘별 어중경음화 실현 경향 분석표 ······ 65
(표 9) 어휘별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에서 제보자의 성별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 항목 ······ 72
(표 10) 제보자들의 거주지에 따라 어중경음화 실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 항목77
(표 11) 제보자 거주지/ 출생지별 어중경음화 실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 항목 · 79
(표 12)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중 경음화 변이형 목록 82
(표 13)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제보자의 거주지와 출생지별 어중 경음화 다수 변이형 목록 ······ 84
(표 14) 제보자의 최종 학력에 따라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 항목 ······ 86
(표 15) 제보자의 연령에 따라 어중 경음화 실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 항목 92

(표 16)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들의 연령과 한자어와 고유어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유형 분류표 100
(표 16-①) 어중경음화 발산형 그래프 모음 ······ 101
(표 16-②) 어중경음화 수렴형 그래프 모음 ······ 106
(표 16-③) 어중경음화 교차형 그래프 모음 ······ 107
(표 16-④) 어중경음화 무교차형 그래프 모음 ······ 113
(표 17) 본고의 ㄴ삽입 분석 대상 어휘와 전체 ㄴ삽입 빈도 ······ 123
(표 18) ㄴ삽입 다수 변이형 ······ 124
(표 19) 제보자의 성별에 따른 ㄴ삽입 실현 경향 ······ 125
(표 20) 제보자의 연령별 ㄴ삽입 실현 경향 ······ 126
(표 21) 제보자의 세대별 ㄴ삽입 실현 경향 ······ 127
(표 22)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ㄴ삽입 실현 경향 ······ 128
(표 23) 제보자의 최종 학력에 따른 ㄴ삽입 실현의 경향 ······ 129
(표 24)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전체 어휘별 ㄴ삽입 현상 실현 경향 분석표 ······ 131
(표 25) ㄴ삽입 변이형 실현에서 제보자의 성차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어휘 항목 136
(표 26)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들의 지역적 배경에 따라 ㄴ삽입 실현에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의 유의확률 일람표 ······ 138
(표 27) 제보자 최종 학력에 따라 ㄴ삽입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 항목 ······ 140
(표 28) 제보자의 연령에 따라 어중 경음화 실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 항목145
(표 29)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들의 연령과 ㄴ삽입 현상의 변이형 실현 유형 분류표 ······ 149
(표 29-①) ㄴ삽입의 발산형 그래프 모음 ······ 150
(표 29-②) ㄴ삽입의 교차형 그래프 모음 ······ 152
(표 29-③) ㄴ삽입의 무교차형 그래프 모음 ······ 154
(표 29-④) ㄴ삽입의 다교차형 그래프 ······ 157
(표 30)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 대상 어휘와 전체 유음화 실현 빈도 ······ 162
(표 31) 제보자의 성별에 따른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 실현 경향 ······ 167
(표 32) 제보자의 연령별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 실현 경향 ······ 168
(표 33) 제보자의 세대별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 실현 경향 ······ 169
(표 34)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 유음화와 비음화 실현 경향 ······ 170
(표 35) 제보자의 최종 학력에 따른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 유음화와 비음화 실현 경향 ······ 170
(표 36) ㄴㄹ연쇄 한자어 변이형 실현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 항목들 ······ 174
(표 37) 본고 제보자 집단의 세대별 어중경음화와 ㄴ삽입 실현의 전체적인 경향성 ······ 185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20세기 수도권 지역 출신 거주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수의적인 음운 현상으로 보았던 몇 가지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들을 언어 사용자들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를 사회언어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은 고유어 사잇소리 환경에서의 어중 경음화 현상, 한자어 내부에서 유성음과 무성음 연쇄의 어중 경음화 현상, 고유어와 한자어에서의 ㄴ삽입 현상,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에서의 유음화 또는 비음화 현상이다. 이 현상들은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음운론적 정보만으로 해당 단어의 발음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어휘 항목의 발음에 둘 이상의 변이형(variant)이 예측되는 음운 현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세기 수도권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1)의 ㄱ-ㄹ의 예에 대해 둘 이상의 변이형을 실현할 수 있다.

(1) ㄱ. 봄소식 : [pomsoɕik],[poms'oɕik]
  ㄴ. 교과서 : [kjokwasɜ]. [kjok'wasɜ]
  ㄷ. 솜이불 : [somibul], [somnibul]
  ㄹ. 늑막염 : [niŋmagjɜm],[niŋmaŋɲɜm]
  ㅁ. 신선로 : [ɕinsɜnno], [ɕinsɜllo]

(1-ㄱ)의 예는 고유어 복합어의 형성에서 사잇소리가 개재되는 사잇소리에 의한 경음화, (1-ㄴ)의 예는 한자어 내부에서 유성음 뒤에 경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의 예이다. (1-ㄱ)과 (1-ㄴ)은 선행음이 유성음이기에 단어 내적으로는 후행자음을 경음화할 음성적 동기는 없다. 그런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언어 사용자들은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 합성어를 이루는 (1-ㄱ)의 어휘의 경우 어중에서 경음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1-ㄴ) '교과서'에 대한 어중경음화 변이형은 실제로 이 지역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변이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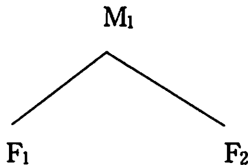
(1-ㄷ)과 (1-ㄹ)은 단어가 형성될 때, 선행 자음이 장애음이고 후행 모음이 'ㅣ'모음이거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일 경우에 후행 음절의 초성에 ㄴ이 삽입되는 ㄴ삽

입 상에 대한 예이다. ㄴ삽입 현상이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1 -ㄷ)과 (1-ㄹ)의 [somibul], [niŋmagjɜm]의 변이형을 듣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지역에서는 해당 어휘에 대해서 ㄴ삽입 현상이 실현된 변이형과 실현되지 않은 변이형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1-ㅁ)은 한자어 안에서 선행 음절의 종성 자음이 'ㄴ'이고 후행 음절의 초성 자음이 'ㄹ'인 경우 선행 음절의 종성 자음을 유음화하거나 후행 음절의 초성 자음을 비음화하여 발음하는 현상이다. 이 지역의 언중들은 유음화된 변이형과 비음화된 변이형을 모두 사용한다.

(1)에 해당하는 현상들은 모두 변이 현상(vari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변이 현상은 하나의 의미(M)에 둘 또는 이상의 형식(F)이 존재하는 현상이다.

(2) 변이의 정의(Anttila 2002:210)



음운 변이는 하나의 음운형에 둘 또는 그 이상의 표면음성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표면음성형의 차이는 언어 내적인 관점에서 의미 분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변이는 투명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 내외적으로 다양한 층위(stratification)를 설명해야 하며 그 층위 내에서도 다양한 정도성(degree)을 인정해야 한다. 언어변이가 지닌 다양한 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언어변이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

언어 변이를 언어 내적 층위에서 다루면 음운론적 변이, 형태론적 변이, 통사론적 변이, 의미론적 변이 등의 언어 내적 변이(internal vari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 외적 층위에서 다뤄지는 언어변이는 언어 또는 방언 간의 접촉에서 나타나는 언어 외적 변이(external variation, contact- based variation)와 언어 사용과 관련이 있는 언어 사용자와 언어 사회의 속성을 고려하는 사회적 요인/비언어적 요인에 의한 언어 변이(social/extralinguistic vari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요인에 의한 언어 변이는 상대에 대한 태도, 언어 사용의 영역(register), 개인의 발화 스타일에 따라 화자 내적 변이(intraspeaker variation)와 언어 사용자 집단 내부에서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화자간 변이(interspeaker vari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화자간 변이는 언어 사용자의 연령, 성, 종교, 사회적/지역적 위치에 따라 언어 변이가 나타나고, 또 이를 기준으로 언어변이를 분류할 수 있다고 보는 사회인구학적(sociodemographic) 변이와 화자

간의 관계, 화자 간의 변이형 조정(accommodation), 집단 내 화자의 정체성, 사회망(social network), 사회 구조에 따라 언어 변이의 유형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실행 기반 변이(practice-based vari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언어 변이를 언어학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언어를 인간의 사회적 행동으로 보고, 인간의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론과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론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언어학적 전통과 관련이 있다(Meillet 1996/1997:40, 조태린 2005). 이러한 학문적 전통은 사회언어학의 학문적 전통이기도 하다.

본고는 20세기 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이 언어 내적 변이와 언어 외적 변이, 사회적 변이와 모두 관련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변이 현상의 실현 양상을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 성격, 그리고 언어 사용자들이 살고 있는 언어 사회의 성격에 따라 파악하여 유형화하고, 이 유형화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고는 한국어의 몇 가지 형태음운론적 변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를 위해 양적 연구 방법론(quantitative method)과 질적 연구 방법론(qualitative method)을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의 양적 연구 방법론의 적용 대상 자료는 2003년도에 국립국어원의 김선철 학예연구사와 권미영, 황연신 연구원이[1] 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20대에서 70대 성인 남녀 349명의 발음을 조사하여 구축한 자료의 일부인 어중 경음화 102개 어휘 항목(고유어 64개, 한자어 38개), ㄴ삽입 61개 어휘 항목(고유어 35개, 한자어 26개),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 20개 어휘 항목에 대한 변이형 실현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제보자들의 형태음운론적 변이형 실현과 사회적 요인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제보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최종학력별로 13개 사회적 요인을 설정하여 통계분석방법론 중 교차분석방법론(Cross tabulation)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카이제곱검정방법론(chi-square test)을 으로 검증하였다. 본고는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파악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20세기 수도권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서 어떤 언어적, 사회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이 결과를 사회언어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고에서 자료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제보자 집단별 변이형 실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이론적 배경은 사회언어학이다. 본고는 제보자들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의 실현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언어학에서 변이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variation theory)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언어 사용자나 언어 사회가 단일한 언어적 체계가 아닌 다양한 언어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변이형을 실현한다는 다중 문법 이론(multiple grammars theory), 언어 사회의 구조 변화와 언어 변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언어사회유형론(linguistic and social typology),

---

1) 본고의 작성을 위해 자료 열람을 허락해 주신 국립국어원 김선철 학예연구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인구 집중과 관련된 코이네화 이론(koineization), 집단 내 언어 행동의 융합과 분화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조정(accommodation)과 동조성(conformity)이론을 적용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고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2장 이론적 배경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장에서는 고유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잇소리 현상과 한자어의 어중 경음화를, 4장에서는 ㄴ삽입 현상에 대해 다루고, 5장에서는 ㄴㄹ연쇄에서 나타나는 유음화와 비음화를 다루며, 6장에서는 사회적 요인인 연령이 변이의 실현에 사회언어학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며, 이를 어떻게 사회언어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끝으로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7장 결론에서 제시할 것이다.

1.2. 선행 연구 검토

수도권 지역의 화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사잇소리 환경에서의 고유어의 어중경음화, 한자어 내부 유성음과 무성자음 연쇄에서의 어중경음화, ㄴ삽입 현상, 한자어의 ㄴㄹ연쇄에서의 유음화와 비음화에 대한 선행 연구는 방언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 음성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 형태론 또는 음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1.2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통해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살펴보고, 형태음운론적 변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살펴볼 연구는 방언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다. 방언은 화자 집단의 성격에 따라 전형적인 변이형(typical variety), 전통적인 변이형(traditional variety), 불현듯이 나타난 변이형(emergent variety)로 하위분류를 할 수 있다(McMahon 2006). 전형적인 변이형은 특정한 지역에서 다수의 화자들이 사용하는 변이형이고, 전통적인 방언은 전통적인 방언학의 이상적 제보자들이 사용하는 변이형이고, 불현듯이 나타난 변이형은 그간의 방언연구에서 개신형, 이른바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변이형, 전형적인 변이형과 전통적인 변이형에서 나타나지 않는 변이형들을 아울러서 가리키는 말이다. 기존의 연구를 이 분류 방식으로 구분해 본다면 음성학적 접근과 형태음운론적 접근은 전형적인 변이형과 불현듯이 나타난 변이형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전통적인 방언학적 접근은 전통적인 변이형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2]

본고에서 다루는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해 서울 지역 화자들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변이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1997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처음 조사하였다(담당 연구

2)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방언과 지역방언을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들이 사용하는 변이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방언 자료와 지역방언 자료를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사회방언 자료와 지역방언 자료를 모두 고려하는 이유는 '수도권 지역 출신으로 되도록 인구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본고의 분석 대상 자료가 지닌 지역적 배경과 제보자 집단의 출신 배경 때문이다.

Milory(1998:161)에서는 특정 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회 방언에 대해 "도시 사람들의 언어는 '수정되어진' 정도만큼 수정된 토속 방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지역적 배경에 의한 언어분화가 계속 진행되는 정해진 구역에서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언어분화가 일어나서 지역방언이 '수정'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본고는 이 입장에 동의한다. 본고의 제보자 집단의 성격상 수도권 지역의 도시화, 산업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태어난 제보자들이 사용하는 변이형은 지역방언에 가까우며, 도시화,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에 태어는 제보자들이 사용하는 변이형은 사회방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회방언과 지역방언의 구분에 대해 설명하는 박경래(2001:209)에서도 사회방언연구방법론과 지역방언연구방법론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 차용한 McMahon(2006)의 경우는 스코틀랜드 지역어의 변종으로 지역방언자료와 사회방언자료를 모두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도 본고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어의 다양한 역사적 변종들(서울 토박이말의 변이형, 경기도 방언집에 실린 변이형, 본고의 분석 대상 자료인 국립국어원(2003)의 자료, 이른바 서울말을 근간으로 한 표준 발음 자료)을 고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방언과 지역방언을 아우르는 McMahon의 분류방식을 사용한다.

원 최혜원). 제보자들은 최소 3대에서 최대 700년 이상 대대로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부에서 살아온 60대 중반 이상 90대 화자 29명이다. 1997년의 조사 항목 중 본고의 주제와 일치하는 것은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경음화 28개 어휘 항목(나그네길, 등교길, 배삯, 신부감, 오라버니댁, 잉어과, 코방귀, 눈사람, 달동네, 땅금, 땡별, 말장난, 물뱀, 물장구, 밀방망이, 백지장, 버선발, 봄소식, 산들바람, 시골사람, 얼떨결, 이빨자국, 인기척, 장바구니, 토종닭, 피란길, 혼사길, 후유증), ㄴ삽입 11개(감언이설, 검열, 이상야릇하다, 낯익다, 막일, 밭이랑, 밭일, 백열등, 색연필, 업신여기다, 한여름), ㄴㄹ연쇄의 한자어 9개(상견례, 선릉, 신선로, 음운론, 전라, 청산리, 춘란, 환난, 판단력) 기타 관련 어휘 5개(서오릉, 동구릉, 태릉, 비누방울, 장마비)이다.3)

국립국어원(1997)의 특징은 일부 어휘를 제외하고 해당 어휘 항목에 대해 제보자의 다수가 특정 변이형을 발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의미에 연결되는 다양한 변이형들의 출현 가능성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불균등하며, 제보자 집단의 성격과 집단의 구성원들이 주로 실현하는 대표변이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질 집단에서 변이형은 제보자의 다수가 실현하는 다수형(majority)과 소수형(minority)으로 구분된다.4) 또한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은 선행음과 후행음의 성격이나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성격, 즉 언어 내적인 요인에 의해 일관되게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3대에서 700년 이상 대대로 서울 중심부에 살아온 사람들의 발음과 이른바 서울말을 근간으로 한 표준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준다.

두 번째로 살펴볼 연구는 음성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다. ㄴ삽입 현상에 대해 다룬 국립국어원의 최혜원· 권미영· 황연신(2002)의 보고서, 본고의 분석 대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형태음운론적 변이현상을 다룬 국립국어원(2003)과 국립국어원(2003)이 책으로 출간된 김선철(2006), ㄴ삽입의 선호도에 대한 설문 조사인 국경아· 이호영· 김주원(2004)이 있다. 이 연구들은 수백 명의 제보자들의 발음을 대상으로 양적 조사를 실행하고, 변이형을 기술하고, 변이형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이 연구의 대상 제보자들은 대체로 서울 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거주한 사람들로 제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제보자 집단에 대해 선행연구자들은 수도권 지역 방언의 '전형적인 변이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사이시옷 표기는 모두 국립국어원(1997)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4) 본고에서 제시하는 다수형/다수 변이형의 개념은 말 그대로 언어 조사 자료의 제보자, 언어 연구 대상 자료의 제보자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양적 다수성을 지닌 어형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수형의 개념 역시 언어 조사 자료의 제보자, 언어 연구 대상 자료의 제보자의 소수가 사용하는 어형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고의 다수성과 소수성의 기준은 70:30의 ±10으로 제보자의 70-80% 이상이 해당 변이형을 사용한다면 그 변이형을 다수형으로 파악하였고, 제보자의 20-30% 이하가 해당 변이형을 사용한다면 그 변이형을 소수형으로 파악하였다.

음성학 기반 연구의 특징은 20세기 수도권 지역 제보자들의 변이형 실현이 제보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연령이 성별, 사회적 지위,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과 같은 다른 사회적 요인보다 변이형 실현에 차이를 보이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며,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음성학적 자료구축에 의한 분석 결과로 수도권 지역에서 제보자의 연령이 변이형 실현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밝혀냈지만 이 결과에 대해 사회언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언어학 연구자들의 해석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연구는 음운론과 형태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음운 현상 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김창섭(1996)은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고유어의 어중 경음화를 유형화한 연구이다. 김창섭(1996)에서는 단어를 구성하는 선행형태소와 후행형태소의 통사 및 의미관계에 의해 사잇소리 실현이 예측된다고 보고 중세국어의 통사적 속격이 사잇소리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통사적 구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즉 선행 형태소와 후행 형태소 사이에 '-의'를 넣어 보는 것이 사잇소리에 의한 어중경음화 현상을 예측하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 사이시옷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선행 형태소와 후행형태소의 병렬구성(손발, 논밭, 눈비, 물불 등)을 상정한다. 김창섭(1996)의 사잇소리에 의한 어중경음화의 유형화는 병렬구성과 비속격적('-의'가 들어가지 않는) 관형 구성의 경우 평음으로, 속격적('-의'가 들어가는)관형 구성의 경우 경음으로 나눌 수 있다. 속격적 관형구성은 중세국어에서 속격 ㅅ이 개재될 수 있는 복합어의 환경이다. 김창섭(1996)의 내용이 포함된 사잇소리에 의한 경음화의 유형화는 배주채(2003)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김창섭(1996)에서의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어중경음화를 보는 관점은 이 현상이 일종의 음운 변이 현상이며, 다양한 언어외적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현대국어의 이른바 '이상적인 화자'일지라도, 사이시옷의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한다(김창섭 1996:48)"는 표현은 이 음운 현상의 수의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의 사용 빈도라는 측면에서 실제 언어 자료에서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어중경음화의 질서를 파악하려는 접근 방식이 있다.

이봉원(2002)에서는 언어 사용이 언어 구조를 형성한다는 사용 기반 이론으로 어중경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봉원(2002)에서는 경음화 현상의 예외성을 어휘적 다양성의 문제로 파악하고, 특정 어휘의 복합어 구성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구성 내 단위의 결속력이 높아져서 경음화가 유지, 강화되며, 언어 사용에 의해 통시적으로 경음화의 실현빈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하세경· 문양수(2005)는 김창섭(1996)의 기준으로 사잇소리가 발생하는 어휘들을 분류하고, 비속격구성에서도 사잇소리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비속격구성이라고 해도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경음화가 일어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른바 비속격구성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변이형에 대한 빈도 중심의 설명이다. 이 논문에서 빈도를 뽑은 근거는 KAIST CONCORDANCE PROGRAM의 한국어용례색인 말뭉치이다.

사잇소리 현상의 실현과 빈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연세 한국어 사전>에 수록된 32,000여개의 합성명사 발음정보를 바탕으로 사잇소리 현상 실현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하세경(2006)이다. 변이를 보이는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하세경(2006)의 설명은 빈도와 유추이다. 구성요소를 공유하는 빈도가 높은 합성명사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를 유추하여 다른 요소와 결합할 때에도 사잇소리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사잇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선행 요소가 후행 요소의 속성 역할을 하는 '비명소리'라는 어휘에서 어중경음화가 실현된다면, 이는 '소리'가 결합되는 다른 합성명사들에서 사잇소리가 실현되는 예가 많다는 설명이다. '코뿔소'의 경우 어중경음화가 일어나는 원인도 한자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음 뒤 설정음의 경음화 현상의 유추 결과로 해석한다.

이봉원(2002), 하세경· 문양수(2005), 하세경(2006)의 접근은 사잇소리 현상이 언어 내적 구조만으로 예측할 수 없는 현상임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의 언어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이봉원(200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용빈도의 변화는 언어 변화와 관련성이 있다. 세대가 다른 사람들의 언어 사용의 변화는 사용 빈도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

문제는 사용빈도의 분석 기반이다. 이봉원(2002)와 하세경· 문양수(2005)의 빈도 분석의 근거는 KAIST CONCORDANCE PROGRAM의 한국어용례색인 말뭉치이고, 하세경(2006)의 빈도 분석의 근거는 <연세 한국어 사전>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언어 사회의 언어 현상을 대상으로 변이형의 사용 빈도를 측정한다면 언어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변이형의 사용 빈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빈도를 사용한 양적 접근의 정교화를 위해서는 언어 사회의 특성에 관련된 요인들 - 구성원들의 성, 연령, 지역적 배경,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언어 사용의 유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복합어의 경음화의 빈도 상승이 단지 그 어휘의 사용빈도가 올라가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의 설명보다 특정 언어 사회의 특정한 성격을 가진 언어 집단에서 특정 복합어의 경음화의 빈도가 다른 성격을 가진 언어 집단에 비해 높다고 설명하고, 그 이유를 언어 내적 요인과 언어 집단의 언어 사회 내적 위치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빈도 효과의 설득력이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어중에 유성음과 무성음이 연쇄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한자어의 어중경음화의 유형화에 대해 알아본다. 김성련(1995)에서는 한자어 내부의 경음화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통시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경음화의 원인을 동국정운(東國正韻)에서의 이영보래(以影補來) 'ㅭ'에서 찾고, ㄹ종성한자음이 원래 입성운으로 촉급하게 끝맺는 소리여서 한자음의 'ㄹ'음에는 후행음을 경음으로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

는 김성련(1995:120-121)에서 스스로 지적한 바와 같이 후행음에 /ㄱ,ㅂ/이 올 경우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설명할 방법은 없다. 김성련(1995)의 설명 방법은 한자음의 음절말음이 유음이고 후행음이 동일한 조음위치자질을 가진 무성폐쇄음일 경우에 경음화가 일어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약 기반 이론을 도입하여 한자어의 어중경음화를 설명하려 한 오새내(2000)에서는 표준발음법 제 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ㅅ,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에 대해 한자어의 어중경음화를 동일한 조음 위치를 가진 자음의 연쇄를 막는 이화(異化)현상으로 보고, 이 이화 현상의 배경에는 동일한 조음위치의 분절음들이 연속하는 것을 막는 언어 보편적 원리인 필수굴곡원리(obligatory contour principle)가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필수굴곡원리는 한자어의 어중경음화를 실현시키는 제약 중 하나로, 이 외에도 한자어의 어중경음화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한자음이 지닌 보수성, 무성폐쇄음 'ㄷ,ㅅ,ㅈ'과 유음 'ㄹ'이 역사적으로 모두 동일한 조음위치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역사적으로 한자어의 음절말 'ㄹ'에 후행음을 경음화하는 특징이 있었다는 것, 현대 국어에서는 후행음을 경음화하는 한자어의 음절말 ㄹ의 특성이 동일조음위치가 반복될 경우에 조음방식을 바꾸는 필수굴곡원리에 의한 제약의 위계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선행음과 후행음의 조음위치가 일치하는 한자어의 어중경음화에 대해서는 음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설명은 어중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이 된다. 즉, 예외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것이다.

선행음과 후행음의 조음위치에 관계없이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어중경음화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봉원(2002)와 안소진(2005)가 있다. 이론적 기반이 상이하지만, 실제 언어 자료에서 관찰되는 빈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 기반 이론에 근거를 둔 이봉원(2002)에서는 한자어의 어중경음화가 음운론적 환경이나 형태론적 환경에 따른 현상이라기보다는 방언의 특정 어휘의 어형이 잦은 사용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한자어 발음 정보를 바탕으로 한 안소진(2005)에서는 특정 한자 형태소가 경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은 경음화의 결과가 아니라 경음 정보가 본래부터 그 한자 형태소의 발음 정보이며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자어의 어중경음화가 역사적인 현상이며, 경음화가 나타나는 어휘(또는 형태소)에서는 반복적으로 경음화가 일어날 뿐 어떤 규칙에 의해 설명할 수 없는 음운 현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해석이 실제 사회의 한자어 어중 경음화 자료에 대한 설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ㄴ삽입 현상의 유형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ㄴ삽입 현상에 대한 양적 연구 자료는 두 차례 발표된 적이 있다. 하나는 국립국어원의 최혜원· 권미

영· 황연신(2002)의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국경아· 이호영· 김주원(2004)의 논문이다. 보고서와 논문 모두 부록에 조사 결과와 전체 제보자 중 ㄴ삽입 현상을 실현시킨다고 파악된 제보자의 수가 제시되어 있다.

최혜원· 권미영· 황연신(2002)는 고빈도 어휘에서의 ㄴ삽입 현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5개 단어(단일어 17개, 파생어 9개, 합성어 7개, 구 19개, 보조사 '-요'가 첨가된 단어 3개)의 발음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대상자는 수도권 지역에서 부모 세대부터 거주한 20대에서 70대 성인 남녀 204명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ㄴ삽입 현상을 후행 모음, 단어의 구조(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구)에 의해 유형화하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연령에 의한 차이만 밝혔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부록은 344쪽의 원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음성기호로 전사된 각 어휘 항목의 발음에 대한 총 전사 목록과 각 어휘의 발음에 대한 연령별, 출생지별, 학력별로 변이형을 보이는 제보자의 수를 정리한 표가 들어 있다.[5] 보고서의 본문에는 ㄴ삽입 현상에 대한 어휘별 분석은 없다. 그러나 부록의 빈도표를 보면 ㄴ삽입 현상의 음운 변이가 사회적 요인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경아· 이호영· 김주원(2004)은 ㄴ삽입현상에 대한 선호도를 단어, 성별, 연령별로 183개 단어를 서울에서 출생, 성장, 거주한 20대에서 70대 남녀 167명을[6] 대상으로 우편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우편조사의 응답 내용은 이 논문의 부록에 어휘별로 연령별, 성별 선호도 제보자의 수가 여섯 쪽의 표로 정리되어 있다.

제보자의 발화를 분석한 최혜원· 권미영· 황연신(2002)에서도, 제보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변이형을 적어서 제출한 국경아· 이호영· 김주원(2004)에서도 젊은 층에서 ㄴ삽입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ㄴ삽입 현상의 세력은 점점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국경아· 이호영· 김주원(2004)에서는 '익숙함'을 음운 변이 실현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는데 농경어(밭이랑, 논이랑, 논임자, 땅임자)일 경우 젊은 층의 ㄴ첨가 선호도가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즉, 익숙하지 않으면 철자발음을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한자어 합성어에서 ㄴ첨가 선호도가 올라가고, 선행음이 유음과 경구개

---

5) 이 보고서에서 20대에서 70대 수도권 지역의 성인 남녀 204명에게 조사한 음운 현상은 단모음과 이중모의 음가, 모음의 길이, 외래어의 경음화, 외래어의 비음화와 유음화, 외래어의 변이음, 외래어의 경음화, 그리고 고유어와 한자어의 ㄴ삽입 현상이다. 이 보고서의 부록에 실린 제보자 분포표에 의하면 분석 결과에 대해 제보자의 연령, 성별, 제보자의 출생지, 제보자의 현 거주지, 아버지의 출생지, 어머니의 출생지, 제보자의 직업, 제보자의 최종 학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6) 국경아 이호영· 김주원(2004:40)에서는 조사 대상자를 '서울토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의 서울토박이의 기준은 '부모의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는 고려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생, 거주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표준말이 대대로 서울에서 살아온 서울 토박이들의 말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 서울에서 사용되는 교양 있는 서울 토박이들의 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모의 고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비음이면 선호도가 낮아지고 치경비음과 양순비음의 경우 선호도가 올라간다고 하여, 선호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하고 있다.

최혜원· 권미영· 황연신(2002)과 국경아, 이호영, 김주원(2004)은 대규모로 구축된 양적 자료로 가치가 높다. 다만 조사한 내용들이 ㄴ삽입 현상을 실현시키는 사회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고도 남을 만한 자료인데, 제보자 집단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언어학적 접근이 미진하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ㄴ삽입 현상에 대한 양적 접근들은 20세기 수도권 지역 출신 언어 사용자들이 '연령'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따라 ㄴ삽입 현상의 변이형에 대한 언어 분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연령이 ㄴ삽입 현상의 언어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령이라는 사회적 요인 외에 ㄴ삽입 현상의 유형화가 가능한 다른 사회적 요인은 없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령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항상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변이현상은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음화가 유음화에 비해 새로운 형식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진호(1998)에서는 젊은 층일수록, 근래에 만들어진 단어일수록 유음화보다는 비음화의 경향이 강하다고 하고 있으며, 배주채(2004)에서도 유음화가 고형이고 비음화가 신형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이동석(2005) ㄴㄹ연쇄에서 비음화 실현을 젊은 층으로 내려올수록 강해지는 현상으로 보고, 그 이유가 현상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화자의 연령에 따라서 ㄴㄹ연쇄에서 유음화 현상을 적용시키는 경향과 비음화 현상을 적용시키는 경향의 비율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도 연령이 주된 변인으로 지적된다. 이동석(2005)에 의하면 선릉의 발음으로 [설릉]은 전통적인 발음법을, [선능]은 최근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20대 대학생 200명에게 ㄴㄹ연쇄의 한자어 어휘목록 50개를 주고 실제 발음을 조사한 이근영(2005)의 결론은 유음화가 전통적인 형으로, 비음화가 새로운 형이라는 것이다. 본래 유음화가 실현되던 발음들이 형태소를 고정화하려는 노력에 의해 비음화된 형태로 발음되면서 두 가지의 발음 현상을 갖게 되고, 현재의 ㄴㄹ연쇄의 발음은 두 가지 발음 현상이 나타나는 과도기적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근영(2005)의 자료는 사회언어학적 분석은 아니지만, 사회언어학의 시각으로 자료를 다시 읽었을 때 많은 사실을 보여준다. 우선 유사한 성격의 언어사용자 집단(20대 화자) 내부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실현한 변이형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유음화 또는 비음화로 통일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이 집단에서 유음화로 실현되는 어휘들은 대체로 유음화가 나타나고, 비음화로 실현되는 어휘들은 대체로 비음화가 나타난다. 또한 이들의 비음화와 유음화로 어휘의 신형과 구형을 판단하기 이전에 관찰 시점에서 비음형, 또는 유음형을 예측할 수 있는 어형들이 존재한다. 조사 대상인 20대 화자들도 26개의 어휘에서 80% 이상 유음형으로 발음하였다.

ㄴㄹ연쇄에서 나타나는 유음화와 비음화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 자료의 근거는 이근영(2005)를 제외하고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표기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가 실제 언어 사회에서의 실현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이근영(2005)의 경우는 신형이 비음화이고 구형이 유음화라고 했으나, 조사 대상 어휘 중 제보자의 80% 이상이 비음화로 실현한 '생산량, 상견례, 입원료, 공권력, 결단력'이 제보자의 80% 이상이 유음화로 실현된다고 파악된 '진료, 신림동, 언론, 논리적'과 같은 단어보다 더 새로운 어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른바 표준어 사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한자어에서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에 대한 문제는 ㄴㄹ연쇄의 한자어의 발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특정 사회 집단에 따라 이 유음화와 비음화의 변이양상에 혹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서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집단의 성격과 집단 구성원의 연령에 따라 유음화와 비음화의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적 입장에서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에 대한 유형론과 언어 내적 질서를 파악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사잇소리 환경에서의 고유어의 어중경음화, 한자어 내부 유성음과 무성자음 연쇄에서의 어중경음화, ㄴ삽입 현상, 한자어의 ㄴㄹ연쇄에서의 유음화와 비음화의 변이 현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이 변이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고자 했는지 살펴보았다. 생성음운론의 연구, 국어사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 사용빈도에 대한 사용기반이론에 의한 연구, 발음실태에 대한 양적접근에 의한 연구에서도 모두 지적된 것은 본고에서 다룰 형태음운론적 변이현상들이 언어 내적인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ㄴ삽입 현상이나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경우처럼 언어 외적 요인인 '연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를 언어 변이의 주요 원인으로 상정하고 사회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한 경우도 볼 수 없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ㄴ삽입 현상의 경우는 특정한 언어 사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양질의 양적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요인과 언어 사용의 연관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다수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다량의 양적 자료를 구축한다고 해도 해석에 필요한 요인에 대한 설명은 단어 구조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언어 자료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은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본고는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의 검토 내용을 통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논문의 본론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3. 분석 대상 자료와 분석 방법

본고는 20세기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현재 살고 있는 언어사용자들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의 유형화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양적 연구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를 사회언어학적 언어 변이 이론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양적-질적 연구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적 연구를 위한 본고의 이론적 배경은 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본고의 분석 대상 자료와 양적 분석 방법론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양적 연구 방법론은 언어 변항과 사회적 변항의 범주적인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사회언어학의 기본적인 방법론이다. 양적 연구 방법론은 변이형의 실현 유형과 다양한 언어적, 사회적 요인들과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분석은 언어의 통시적 변화를 반영하는 공시적인 변이들의 출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Bailey 2002:115).

문제는 개인연구자의 입장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양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용량의 언어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연구자가 양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은 기존에 구축된 언어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언어자료를 이용하는 사회언어학적 분석은 개인 연구자가 양적 연구 방법론(Quantitative paradigm)을 사용하여 언어 현상의 사회언어학적 분석을 할 때 매우 유용하다. 사회언어학 연구를 위한 언어 자료에는 말뭉치(구어, 문어, 역사 자료, 음성 자료), 다양한 목적으로 구축된 언어 조사 자료, 발음 사전(pronouncing dictionaries) 등이 있다(Bauer 2002: 98).

본고에서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들의 유형화를 위해서 양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는 자료는 2003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자료의 일부이다. 2003년에 국립국어원의 음성학 연구자들인 김선철, 권미영, 황연신 팀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나서 현재 거주하는 20대에서 70대 화자 350명의 발음에 대한 녹취조사를 실시했다. 2003년 조사에서 녹취한 음운 현상들은 복합어 내부, 유성음에 후행하는 장애음의 어중 경음화, ㄴ삽입, 장단음,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 겹받침의 발음, 이중모음 /위/, /의/의 발음, 경계 뒤의 ㅎ의 발음, 용언 활용시 이중 모음화, '삐치다'의 발음, '수-(雄)' 결합형의 자음 덧나기가 실현되는 265개 어휘 항목의 변이음에 대해 음성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의 조사 항목으로는 국립국어원에서 2002년에 펴낸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 수록되어 있는 일반 어휘 58,438개와 고유명사 16,856개 가운데, 두 개 이상의 변이형이 존재하는 발음이 두 가지 이상으로 쓰이고 있는 고빈도 어휘 256개에 용언의 활용형 9개를 더하여 총 265개의 어휘의 발음이다. 1차 면접 조사자들인 국어학, 언어

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5명의 조사원이 각각 서울과 그 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사람 70명씩 제보자를 섭외하였다. 조사자들은 제보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문장에 어휘 항목 240개가 포함된 질문지를 자연스럽게 읽게 하고, 25개는 간접 질문법을 이용하여 발화하게 하였다. 질문지 전문은 국립국어원(2003:156-165)에 수록되어 있기에 본고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제보자들이 발화된 음성은 DAT(Sony 사의 TCD-D100)와 핀마이크(Audio-Technica AT850B)를 이용하여 녹음하고 녹음 결과를 조사원들이 반복 청취하여 국제음성기호(IPA)로 정밀전사하고, 전사 결과는 박사과정 이상 음성학 및 음운론 전공자 2명이 검수하였다.[7]

이렇게 구축된 조사 결과의 빈도분석 결과는 2003년에 175쪽의 보고서로 출간되었고, 단행본으로는 김선철(2006)으로 출간되었다. 두 책 모두 변이음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요인을 연령, 성별, 학력 세 가지 요인만으로 전체 256개 어휘 중 35개 단어에 대해 제보자의 빈도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분석 결과는 수도권 지역의 도시인들의 음운 변이 현상에서 성별, 학력별 차이보다는 세대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점, 해방 이전 출생자(60대 이상)와 해방 이후 출생자(50대 이하)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어떤 분기점이 아닌가(국립국어원 2003:92)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사회언어학의 시각에서 국립국어원의 2003년도 조사는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음운 변이 현상에 대해 제보자의 사회적 요인과 변이 실현의 특성을 동시에 파악한 대규모의 조사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출간된 보고서에서는 서울과 그 주변 수도권 화자들의 평균적인 발음 경향이 제시되어 있을 뿐 본격적인 사회언어학적 분석이나 특정 연령대, 성별, 특정 학력군의 발음 특징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 지역 화자들의 발음에 대한 사회적 요인의 해석 부분은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 자료에 제시된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의 일부를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양적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재분석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의 실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을 위하여 상기한 자료의 일부인 제보자 349명의 어중경음화 102개 어휘 항목(고유어 64개, 한자어 38개), ㄴ삽입 61개 어휘 항목(고유어 35개, 한자어 26개),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 20개 어휘 항목에 대한 변이형 실현 자료에 한정하여 (1)의 사회적 요인을 설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은 명목(성별, 지역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순위, 등간 자료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회의 가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 분석 기법으로 두 변수간의 독립성과 관련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한 변수에 속한 빈도수와 다른 변수에 속한 빈도수를 함께 분석하여 두 변수 사

7) 이 조사 방법은 국어원(2003:1-4)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는 교차분석방법은 형태음운론적 변이형의 실현 여부와 제보자의 사회적 특성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관련성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수치화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교차분석의 검증은 카이제곱(Chi-square) 검증을 사용하였다. 카이제곱 검증은 실제빈도(실제 조사를 통해 측정한 빈도수)와 기대빈도(특정 집단의 분포가 전체 인구 집단의 분포와 동일하다고 간주한 빈도수)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변수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통계 분석 기법이다. 교차분석과 검증기법에 대해서는 개별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각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의 사회적 요인은 국립국어원(2003 : 166-175)에 실린 제보자의 성별, 학력별, 연령별 제보자의 수(인원수)와 질문지, 제보자의 성별, 나이, 선대 거주지와 최종 학력, 출생지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8]

(1) 본고의 사회언어학적 분석을 위한 사회적 요인들과 구분 기준

A. 제보자의 개인적 배경

① 성별 : 남, 여

② 연령

i. 연령대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ii. 출생 시기 :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iii. 세대 : 해방 이전 세대(1945년 이전 출생자), 한국전쟁 세대(1945-1955), 전후복구 세대(1955-1965), 산업화 세대(1965년 이후 출생자)

B. 지역적 배경

⑤ 도시별 제보자 현 거주지 : 서울, 인천, 경기, 기타

⑥ 도시별 제보자 출생지 : 서울, 인천, 경기, 기타

⑦ 도시별 선대 거주지(부계) : 서울, 인천, 경기, 기타

⑧ 도시별 선대 거주지(모계) : 서울, 인천, 경기, 기타

⑨ 제보자 거주지 : 서울, 서울제외

⑩ 제보자 출생지 : 서울, 서울제외

⑪ 선대 거주지(부계) : 서울, 서울제외

⑫ 선대 거주지(모계) : 서울, 서울제외

C. 사회적 배경

⑬ 제보자 학력 : 초졸, 중졸, 고졸, 대졸

---

8) 본고의 제보자 정보표는 국립국어원(2003:166-175)에 수록되어 있기에 본고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의 사회적 요인들의 설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언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분석에는 개별 사회적 요인들이 언어 변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본고에서 설정한 사회적 요인들은 제보자 정보표를 보고 이 지역 사람들의 음운 변이 현상을 유형화 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여 설정한 요인들이다. (2)는 <표준 발음 실태 조사 Ⅱ>의 제보자 정보표 내용의 일부이다.

(2) <표준 발음 실태 조사 Ⅱ>의 제보자 정보표의 일부 (국립국어원 2003:166)

일련 번호	제보자 기호	성별	나이	거주지	선대거주지 (부)	선대거주지 (모)	직업	학력	출생지
1	hsy01	남	27	인천	서울	서울	학생	대졸	인천
2	hsy02	남	28	인천	인천	인천	스포츠강사	대졸	인천
3	hsy03	여	61	서울	서울	서울	주부	대졸	서울
4	hsy04	남	25	서울	서울	서울	학생	대재	서울
5	hsy05	여	26	서울	서울	서울	학생	대졸	서울
6	hsy06	여	47	경기	서울	서울	주부	고졸	서울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석 대상 자료에서 제보자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는 성별(남· 여), 구체적인 나이 (예 : 20,21,22,23,24...), 제보자의 거주지(지명, 예: 서울 경기, 인천, 평택, 용인 등), 제보자의 출생지(지명), 제보자의 선대 거주지(부계)(지명), 제보자의 선대 거주지(모계)(지명), 제보자의 직업(예 : 스포츠 강사, 부동산 중개인, 일어 강사, 이발사, 보험 설계사 등), 제보자의 학력(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 밝혀져 있다(국어원 2003 :166-175). 본고는 이 제보자 정보를 사회적 요인으로 재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코딩하였다.

우선 제보자의 연령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로 10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또한 본고는 제보자의 출생 시기를 통해 20세기 전반에 걸쳐 형태음운론적 변이의 실현 양상에 시간적 차이를 관찰할 수 있으리라는 관점에서 제보자의 나이 정보를 제보자의 출생 연도로 변환한 다음,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역시 10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제보자들의 연령 집단별 사회문화적 경험에 따라 언어 행동의 유형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사회학의 세대론의 기준으로 제보자의 집단을 을 다시 구분하였다.

세대(generation)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문화적 권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박재홍(2005:52)에서는 세대 교체가 사회 변동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지만, 새로운 세대가 이전과는 다른 의식과 행위 양식을 갖는다면 세대 교체는 사회 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급격한 변동을 겪는 사회일수록 세대별 역사, 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대 차이나 갈등도 심화되고, 새로운 세대가 출현할 때까지의 기간도 짧아지며, 세대 차이와 갈등은 세대 간의 경

험 차이가 큰 사회에서 강조된다. 따라서 사회 변동은 세대 차이나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본고는 박경래(2004)의 "세대와 세대 간에서 관찰되는 언어 차이는 한 세대 사이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사회 변화의 결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관점에 동의한다. 특히 20세기 한국의 경우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 세대 간의 가치관, 문화, 생활양식이 판이하게 다르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언어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본고의 세대 구분 기준은 조성남 · 박숙미(2002), 박재흥(2005)에서 설정한 20세기 한국사회의 세대 구분 모델을 참고하였다. 이들 세대 구분 모델의 공통점은 20세기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발전과 역사적 사건(식민지 경험, 한국 전쟁, 산업화, 민주화, 봉건적 가치관에서 민주적 가치관으로 전환, 물질주의)들이, 각 세대 별로 강렬한 역사적 체험을 공유하게 만들어서, 위 세대와 아래 세대의 갈등을 일으키고, 위 세대와 아래 세대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조성남 · 박숙미(2002), 박재흥(2005)은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왜 단 몇 십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20세기 한국의 사회 변동이 세대 별로 상이한 현상을 보인다면 20세기 한국어의 언어 변이에서도 세대별 차이를 관찰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세대론의 관점에서 제보자들을 해방 이전 출생자(1945년 이전 출생자)와 산업화 이후 출생자(1965년 이후 출생자)로 크게 구분하고, 한국전쟁기를 기점으로 1945년-1955년의 해방 이후 한국전쟁기 출생자와 1955년에서 1965년의 전후 복구기 출생자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이다. 이제까지의 지역 방언 연구를 통해 지역적 배경이 언어 변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우에도 제보자들의 지역적 배경에 따라 언어 변이의 유형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보자의 출생지, 거주지, 제보자의 부계 선대 거주지, 모계 선대 거주지이다.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보자 중에는 출생지, 거주지, 제보자의 선대 거주지가 모두 일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분석 자료에 기입된 자연 지명을 두 가지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첫 번째 변환 기준은 서울, 인천과 그 외 지역이고, 두 번째 변환 기준은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다. 본고는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언어 변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적 요인을 서울, 인천, 경기,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본고는 서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서울이 아닌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언어 변이에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점에서 서울과 서울제외 지역으로 구분한 별도의 지역적 요인을 다시 세웠다.

다음은 사회적 배경에 의한 변인이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배경에 관련된 변인으로 최종 학력을 설정하였다. 본고에서 구분한 제보자의 최종 학력은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다.

제보자의 최종 학력은 제보자의 사회적 계층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이지만 이를 제보자의 사회 계층(social class)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조사 대상 지역 사람들의 사회 계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성인들의 사회 계층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 대상 자료의 제보자들이 과연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를 또다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사회 계층은 그 분화 상태가 매우 유동적이다(박경래 2001:213). 여기에 20세기 한국 사회가 봉건 사회에서 식민지 사회, 전쟁과 분단, 그리고 근대적 산업화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70-80년이라는 단기간에 겪은 사회라는 점도 박경래(2001:213)의 언급을 지지하는 역사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국 사회처럼 단기간에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겪은 사회의 경우는 안정적인 계층화로 언어 변이를 예측하는 언어 변이 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난다(Trudgil 2002, Kerswill 2002).

따라서 본고는 분석 대상 자료에 나타난 최종 학력에 대한 정보를 사회 계층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석 대상 자료에 나타난 최종 학력에 따라 제보자들의 언어 변이에서 특정한 차이가 나타나리라는 예상은 해 볼 수 있어서 통계 분석을 위한 사회적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3)은 제보자의 현 거주지역의 분포와 거주지역별 남녀 구성 인원 수, 전체 인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 제보자 중 남성의 수는 150명, 여성의 수는 199명이고, 제보자의 57.02%가 여성이다. 전체 제보자 중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제보자의 수는 184명(남성 90명, 여성 94명)으로 전체 제보자의 52.7%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23.78%는 경기, 22.92%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기타는 충남 천안 지역이다.

(3) 제보자의 거주 지역과 성별의 교차표

빈도 / 백분율 / 행 백분율 / 칼럼 백분율	서울	경기	인천	기타	총합
남	90	36	24	0	150
	25.79	10.32	6.88	0.00	42.98
	60.00	24.00	16.00	0.00	
	48.91	43.37	30.00	0.00	
여	94	47	56	2	199
	26.93	13.47	16.05	0.57	57.02
	47.24	23.62	28.14	1.01	
	51.09	56.63	70.00	100.00	
총합	184	83	80	2	349
	52.72	23.78	22.92	0.57	100.00

다음은 제보자의 연령에 대한 정보이다. (4)는 본고의 세대 구분에 따라서 어느 세대에 어느 연령대, 몇 명의 제보자가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교차표이다. 1929년에서 1944년 사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해방 이전 세대는 89명으로 전체 제보자의 25.5%를 차지한다. 해방 이전 세대 제보자의 대다수는 60대이다.

한국전쟁 전후인 1945년에서 1955년에 사이에 태어난 한국전쟁 세대는 71명으로 전체 제보자의 20.3%를 차지한다. 한국 전쟁 세대 제보자의 대다수는 50대이다. 한국전쟁 이후 분단이 고착화 되고, 한국이 민주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1955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는 전후복구세대는 72명으로 전체 제보자의 20.6%에 해당한다. 전후복구세대의 대다수는 40대이다.

1965년 이후에 출생한 산업화 세대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과 도시화, 산업화, 급격한 경제발전기에 태어난 세대이다. 전체 제보자의 33.5%에 해당하는 117명이 산업화 세대에 해당한다. 1966년생부터 1984년생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20대의 수가 30대의 수보다 약간 많다.

(4) 제보자의 연령대와 세대 구분 교차표

연령 * 세대구분 교차표

			세대구분				전체
			산업화	전후복구	한국전쟁	해방이전	
연령	20	빈도	68				68
		연령의 %	100.0%				100.0%
		세대구분의 %	58.1%				19.5%
		전체 %	19.5%				19.5%
	30	빈도	49	13			62
		연령의 %	79.0%	21.0%			100.0%
		세대구분의 %	41.9%	18.1%			17.8%
		전체 %	14.0%	3.7%			17.8%
	40	빈도		59	13		72
		연령의 %		81.9%	18.1%		100.0%
		세대구분의 %		81.9%	18.3%		20.6%
		전체 %		16.9%	3.7%		20.6%
	50	빈도			58	9	67
		연령의 %			86.6%	13.4%	100.0%
		세대구분의 %			81.7%	10.1%	19.2%
		전체 %			16.6%	2.6%	19.2%
	60	빈도				64	64
		연령의 %				100.0%	100.0%
		세대구분의 %				71.9%	18.3%
		전체 %				18.3%	18.3%
	70	빈도				16	16
		연령의 %				100.0%	100.0%
		세대구분의 %				18.0%	4.6%
		전체 %				4.6%	4.6%
전체		빈도	117	72	71	89	349
		연령의 %	33.5%	20.6%	20.3%	25.5%	100.0%
		세대구분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33.5%	20.6%	20.3%	25.5%	100.0%

다음은 제보자의 출생지에 대한 정보이다. (5)는 제보자의 출생 도시와 성별 인구에 대한 정보이다. 전체 제보자의 55.0%에 해당하는 192명이 서울에서 태어났고,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서울 제외 수도권 지역 출생자는 전체 제보자의 45%에 해당한다. 인천 출생자는 66명(남성 19명, 여성 47명)으로 전체 제보자의 18.9%,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출생자는 91명(남성 41명, 여성 50명)이다.

(5) 제보자의 출생 도시와 성별 인구

도시별제보자출생지 * 제보자 성별 교차표

			제보자 성별		
			남	여	전체
도시별 제보자 출생지	인천	빈도	19	47	66
		도시별제보자출생지의 %	28.8%	71.2%	100.0%
		제보자 성별의 %	12.7%	23.6%	18.9%
		전체 %	5.4%	13.5%	18.9%
	서울	빈도	90	102	192
		도시별제보자출생지의 %	46.9%	53.1%	100.0%
		제보자 성별의 %	60.0%	51.3%	55.0%
		전체 %	25.8%	29.2%	55.0%
	경기	빈도	41	50	91
		도시별제보자출생지의 %	45.1%	54.9%	100.0%
		제보자 성별의 %	27.3%	25.1%	26.1%
		전체 %	11.7%	14.3%	26.1%
전체		빈도	150	199	349
		도시별제보자출생지의 %	43.0%	57.0%	100.0%
		제보자 성별의 %	100.0%	100.0%	100.0%
		전체 %	43.0%	57.0%	100.0%

다음은 제보자의 선대 거주지에 대한 정보이다.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체로 제보자의 부계 선대 거주지와 모계 선대 거주지는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다. 전체 제보자 중 40.69%에 해당하는 142명이 부모 모두 서울 출신이라고 응답하였다. 부모 모두 경기 출신인 경우는 29.23%, 부모 모두 인천 출신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4.61%이다.

(6) 제보자의 선대 거주지 분포

빈도 / 백분율 / 행 백분율 / 칼럼 백분율		모계 서울	경기	인천	기타	총합
부계	서울	142	16	2	6	166
		40.69	4.58	0.57	1.72	47.56
		85.54	9.64	1.20	3.61	
		89.31	13.01	3.39	75.00	

경기	14 4.01 11.38 8.81	102 29.23 82.93 82.93	6 1.72 4.88 10.17	1 0.29 0.81 12.50	123 35.24
인천	3 0.86 5.08 1.89	4 1.15 6.78 3.25	51 14.61 86.44 86.44	1 0.29 1.69 12.50	59 16.91
기타	0 0.00 0.00 0.00	1 0.29 100.00 0.81	0 0.00 0.00 0.00	0 0.00 0.00 0.00	1 0.29
총합	159 45.56	123 35.24	59 16.91	8 2.29	349 100.00

다음은 제보자들의 최종 학력에 관한 정보이다. 전체 제보자의 **46.1%**에 해당하는 **161**명이 대졸자이고 **39.8%**에 해당하는 **139**명이 고졸자로, 전체 **86.0%**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한국인의 2000년 현재 평균교육년수는 1995년(10.25년) 보다 0.34년 증가한 10.59년으로 고학력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 평균교육년수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고, 고등학교이상 졸업인구는 71.8%이다(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이 경향이 더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다. (7) 은 제보자들의 출생 시기와 최종 학력에 대한 교차표이다. 출생 시기는 제보자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최종 학력이 초졸인 제보자는 해방 이전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1950년 6월 1일은 정부 수립 이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날이다. 공교롭게도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태어난 제보자들에게서는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제보자가 없다. 1965년에 초등학교 완전취학이 이루어진 이후에 태어난 197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중졸과 초졸이 최종 학력인 제보자는 없다. 1970년대 출생자 전체 제보자 84명중 30명, 1980년대 출생자 전체 제보자 13명중 11명이 대학, 또는 대학 수준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점도 이 연령 집단에서 중졸 이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7) 제보자의 출생 시기와 제보자의 학력

출생시기 * 제보자 학력 교차표

			제보자 학력				전체
			고졸	대졸	중졸	초졸	
출생 시기	1980	빈도	13				13
		출생시기의 %	100.0%				100.0%
		제보자 학력의 %	9.4%				3.7%
		전체 %	3.7%				3.7%
	1970	빈도	19	65			84
		출생시기의 %	22.6%	77.4%			100.0%
		제보자 학력의 %	13.7%	40.4%			24.1%
		전체 %	5.4%	18.6%			24.1%
	1960	빈도	29	25	1		55
		출생시기의 %	52.7%	45.5%	1.8%		100.0%
		제보자 학력의 %	20.9%	15.5%	2.9%		15.8%
		전체 %	8.3%	7.2%	.3%		15.8%
	1950	빈도	35	32	12		79
		출생시기의 %	44.3%	40.5%	15.2%		100.0%
		제보자 학력의 %	25.2%	19.9%	35.3%		22.6%
		전체 %	10.0%	9.2%	3.4%		22.6%
	1940	빈도	27	27	13	2	69
		출생시기의 %	39.1%	39.1%	18.8%	2.9%	100.0%
		제보자 학력의 %	19.4%	16.8%	38.2%	13.3%	19.8%
		전체 %	7.7%	7.7%	3.7%	.6%	19.8%
	1930	빈도	13	10	7	10	40
		출생시기의 %	32.5%	25.0%	17.5%	25.0%	100.0%
		제보자 학력의 %	9.4%	6.2%	20.6%	66.7%	11.5%
		전체 %	3.7%	2.9%	2.0%	2.9%	11.5%
	1920	빈도	3	2	1	3	9
		출생시기의 %	33.3%	22.2%	11.1%	33.3%	100.0%
		제보자 학력의 %	2.2%	1.2%	2.9%	20.0%	2.6%
		전체 %	.9%	.6%	.3%	.9%	2.6%
전체		빈도	139	161	34	15	349
		출생시기의 %	39.8%	46.1%	9.7%	4.3%	100.0%
		제보자 학력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39.8%	46.1%	9.7%	4.3%	100.0%

이제까지 본고에서 다룰 20세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라는 실제 언어사회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실현 양상 자료를 소개하고, 이 자료에 기록된 제보자 그룹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고의 본론에서는 이 자료를 통해 분석된 한국어의 몇 가지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의 실현 양상을 통해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과 사회적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고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들의 사회언어학적 유형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사회언어학은 언어와 사회와 관련하여 언어 사용과 언어사용자가 속한 사회적 구조들과의 관련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사회언어학은 동질적인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서 출발한 방법론들의 집합이다. 이처럼 사회언어학은 다양한 연구방법론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사회언어학 연구를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론의 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Preston(2000:5)에서는 현재 외국 학계에서 '사회언어학'의 범주에 포함하는 일련의 방법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사회언어학을 이루는 학문 분야들과 대표 학자들

① 양적 사회언어학(Quantitative Sociolinguistics) - Labov
② 화행의 민족지학(Ethonography of Speaking) - Hymes
③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분석(Interactionist Conversation Analysis)- Gumperz
④ 언어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 of Language) - Lambert
⑤ 언어사회학(Sociology of language) - Fishman
⑥ 방언학(Dialectlogy)
⑦ 인류언어학(Anthropological Linguistics)
⑧ 민속방법론적 대화분석(Ethnomethodological Conversation Analysis) - Garfinkel, Sacks, Schegloff
⑨ 텍스트 분석(Text Alalsys)
⑩ 비평적 언어학(Critical Linguistics) - Fowler, Fairclough
⑪ 역사언어학(historical Linguistics)
⑫ 구조-기능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 Halliday

(1)의 다양한 연구방법론 가운데 본고가 취하는 연구방법론은 양적 사회언어학과 방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본고가 다루는 언어 변이 현상의 성격과 본고가 다루는 20세기 수도권 지역이라는 지역적 배경, 그리고 본고의 자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우선 본고의 자료는 담화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담화분석에 관련된 연구방법론은 제외된다. 또한 본고는 20세기 수도권지역에서 태어나서 대체로 인구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형태음운론적 변이형 실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제보자들의 개인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에 의해 유형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언어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의 관련성, 언어 현상의 불규칙성을 언어 외적 요인을 통해 설명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관점은 사회방언학의 관점과 동일하다.

(2)는 Nevalainen & Raumolin-Brunberg(2003:18)에 나온 '사회언어학의 세 가지 이론적 틀'이다.

(2)사회언어학의 세 가지 이론적 틀

이론적 틀/분야	언어 사회학 (Sociology of language)	사회방언학 (social dialectology)	상호작용 사회언어학 (interactional sociolinguistics)
연구 목적	화어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언어 변이와 언어들의 지위와 기능	◎ 음운과 문법의 변이 ◎ 담화의 언어 변이 ◎ 화자의 태도	담화의 구조와 형성
연구 모형	언어와 언어변이의 영역-제한적 (domain-specific) 사용	언어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의 관련성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담화의 구조
현장 연구	질문지, 인터뷰	사회언어학적 인터뷰 참여관찰법	상이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기록
결과 기술	영역-한정적 조건에서 언어사용의 유형과 규범 기술	언어 외적 요인과 관련된 언어적 체계를 기술	담화를 구성하는 협력 규칙을 기술
결과 적용	언어와 언어변이의 지위와 기능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차이	◎화어공동체에서 언어변이의 사회적 역동성을 설명. ◎역사적 언어변화 설명	목적중심적 상호작용에서 언어적/비언어적 입력형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

(1)과 (2)의 방법론들은 매우 복잡하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언어구조와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는 점과 언어 사회와 언어 사회에서 사용되는 변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변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이론을 소개한다. 변이의 분류와 변이를 연구하는 사회언어학적 자료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언어사회 구조 변화가 언어 변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회언어학의 이론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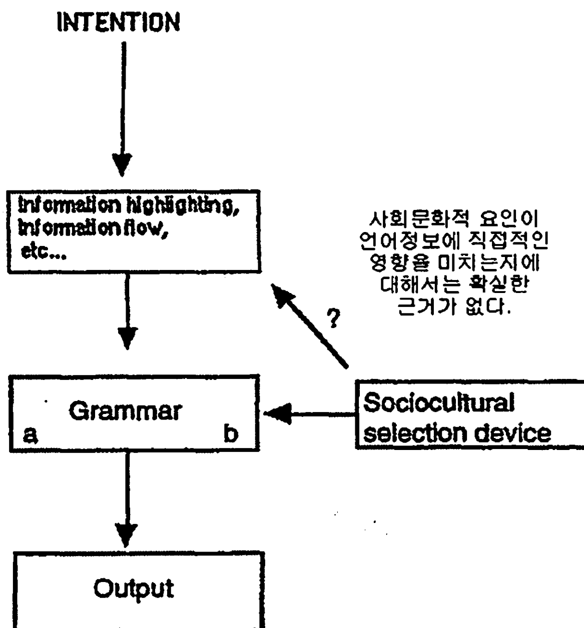
2.1. 언어 변이 형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동일한 개념에 대해 둘 이상의 언어적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언어적 변이라고 한다. 하나의 개념에 어떤 경로로 둘 이상의 표면형이 존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심리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변이이론이고, 이미 존재하는 변이가 어떤 언어외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언어사회의

언어사용자들에게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사회언어학의 언어변이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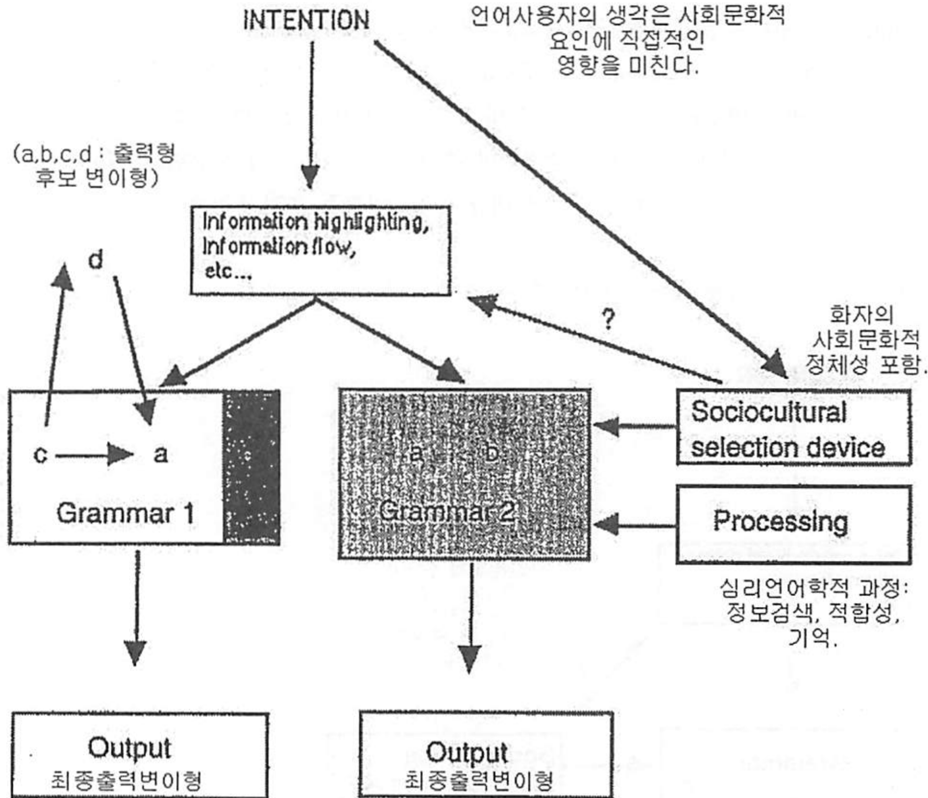
Preston(2000)은 하나의 개념에 어떤 경로로 둘 이상의 표면형이 존재하게 되는가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연구 약사라고 할 수 있다. 심리언어학에서 변이형의 기본 모형은 개념(intention), 언어적 정보(information), 문법(grammar), 사회문화적 요인(sociocultural selection device), 출력형(output)으로 이루어진다. 개념은 언어적 정보로 변환되고 문법을 통해 문맥에 맞는 적형으로 조정된다. 이 때 문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출력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다양한 출력형들이 바로 변이형들이다. (그림 1)은 언어 변이의 형성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초기 모형이다.

(그림 1) 언어 변이의 형성에 대한 심리언어학의 초기 모형(Preston 2000:7)



심리언어학과 사회언어학에서는 변이의 발생 요인 중 사회문화적 요인의 힘과 문법의 힘 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 변이형 발생이 단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사회언어학 연구자와 심리언어학 연구자들은 개별 언어의 변이 연구를 통하여 변이 모형을 계속 발전시켰다. 연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언어 사용자가 자신의 모국어 또는 모어 방언,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방언 또는 공용어, 차용된 언어,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습득한 외국어 등의 다양한 문법을 운용한다는 다중문법모형(multiple grammars model)이 변이형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2) Preston (2000:26)의 언어변이 형성 모형



(그림 2)에서 언어사용자는 두 개의 문법을 동등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고려하는 문법과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문법으로 운용한다. 문법에 그려진 음영은 주로 사용하는 문법(stronger grammar)과 부차적으로 사용하는 문법(weaker grammar)을 구분하기 위해 표시한 것이다. (그림 2)의 오른쪽은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관한 부분이다.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은 부차적으로 사용하는 문법에 연결되어 화자의 언어 사용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 그 이유에 대해 Preston(2000: 14)에서는 언어 내적 질서가 사회적, 심리적 질서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언어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 중 언어사용자의 언어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어적 질서이다. 그러나 사회적 질서의 영향력이 인간의 언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2)의 모형은 언어변이의 심리적인 기제를 설명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변이형들은 화자가 지닌 다양한 언어적 지식의 산물이며, 화자가 다양한 문법을 운용하고 있다는 개념은 변이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다중 문법 모형(multiple grammar model)이론은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이 가진 여러 문법 체계의 경쟁에서 언어 변이가 생겨난다는 이론이다.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은 여러 개의 문법(규칙 기반 음운론에서는 규칙 조합들, 제약 기반 음운론에서는 순서를 갖춘 제약의 조합, 사회방언학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이 사용하는 다양한 방언, 다중언어교육학에서는 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의 화자들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언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중문법모형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 문법들은 하나의 큰 문법의 하위 문법들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존재한다.

다중 문법 모형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이 가질 수 있는 문법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개인 또는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의 언어 내적 요인들(음소의 수, 정해진 어순, 문법에 관련된 제약들 등)과 사회적 요인들(성, 연령, 스타일, 사용역, 사회계층 등)은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사용하는 문법들의 수를 연구자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변이형을 통해 방언 분화를 관찰할 수 있는 가상의 두 집단을 설정하도록 한다. 하나의 언어 변항 A에 대해 1번 집단의 변이형은 대체로 a가 우세한 것으로 관찰된다. 반면에 2번 집단의 경우 변항 A에 대한 변이형은 b가 우세한 것으로 관찰된다. 이 경우 동일한 언어 변항 A를 입력형(input)이라고 하고, 변이형 a와 b를 출력형(output)이라고 한다. 언어 연구자는 동일한 입력형에 대해 변이형 a 또는 변이형 b가 우세한 이유를 언어 내적 요인과 집단의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요인 모두를 고려하여 설명하게 된다.

1번 집단과 2번 집단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입력형의 음운 변이에 관여하는 한 언어의 언어적 특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출력형은 각 집단이 가진 문법의 차이로 볼 수 있다. 1번 집단에서는 출력형 a를 선택하도록 구성된 문법의 힘이 더 강하다면, 2번 집단에서는 출력형 b를 선택하도록 구성된 문법의 힘이 더 강한 것이다.

한 언어의 방언 변이를 다중 문법 모형의 관점에서 설명한 Cutillas -Esponosa(2004)은 두 가지 변이형을 구사하는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의 언어 변이 사용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Cutillas -Esponosa의 모형은 (2)의 심리언어학의 모형에서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중간언어/중간방언 문법(interlanguage/interdialect) 문법을 설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Cutillas -Esponosa의 삼중 문법 모형에 의하면 실재하는 개인 또는 언어 집단이 가진 문법은 대체로 Grammar 1(G1), Grammar 2(G2), Grammar 3(G3)로 분류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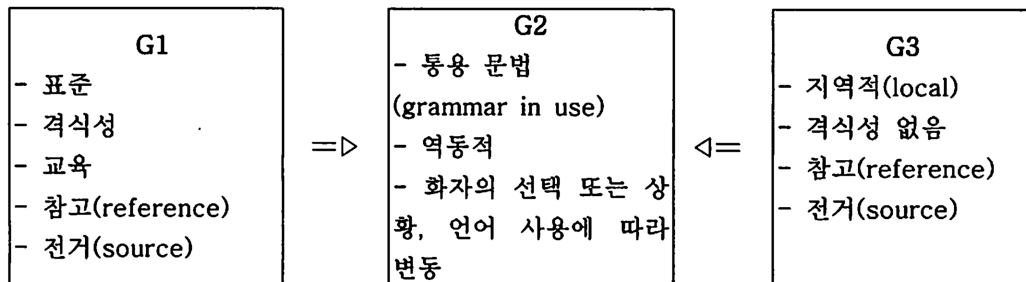
다. 개인과 언어 집단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문법은 G2에 관련되어 있다. 개인 또는 언어 집단은 G2의 실현에 대해 G1과 G3의 영향을 받는다.

G1은 학교 교육과 공식적인 사회 생활에서 사용하는 문법이다. 문법의 약자 G에 번호를 붙여서 G1이라고 부른다. G1은 학교 교육과 공식적인 사회 생활에 필요한 문법으로 일종의 사회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가면서 자신의 행동 규범에서 사회적 표준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언어 화자들도 교육 및 사회생활을 통해 G1의 영향을 받는다.

다음은 G3이다. G3은 화자가 소속된 언어사회에서 통용되는 문법이다.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언어사회의 사회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 즉 토박이의 반대말인 뜨내기[9]의 경우는 특정 지역에 대한 G3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다. 일반적으로 G3은 G1과 대응이 되는 개념으로 비표준(non-standard), 지역적(local), 비격식적 통용어(vernacular)의 성격을 지닌다.

화자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법은 G2이다. G2는 개인 화자가 G1과 G2를 모두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문법이다. G2는 다양한 사회적 변항들에 따라 역동적인 실현 양상을 나타낸다. 격식을 나타내야 하는 자리에서 화자는 G1을 고려하여 G2를 바탕으로 언어를 사용한다. G1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G3와 G2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Cutillas -Esponosa(2004 :172)의 삼중 문법 모형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Cutillas -Esponosa(2004 :172)의 삼중 문법 모형(three-Grammar Model)



삼중 문법 모형은 표준화된 언어 규범을 기반으로 한 문법적 분석이 실제의 언어 자료

---

9)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토박이'라는 표현에 대응이 되는 고유어는 '뜨내기'이다. 그런데 '토박이'에 대한 어감이 긍정적이고 향토적인데 비해 '뜨내기'에 대한 어감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서울 토박이말' 연구는 있어도 '서울 뜨내기말' 연구는 없다. 결국 '토박이'에 대응되는 적절한 고유어 술어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이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와 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왜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실제의 언어 자료는 G2나 G3에 가깝고, 표준화된 언어 규범은 G1을 반영한다. 따라서 표준화된 언어규범을 기반으로 한 문법적 분석을 G2에 바로 적용할 경우에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삼중 문법 모형에 의하면 G2의 특징은 역동성이다. 사회언어학 연구자들이 언어 사용자의 언어 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언어 현상들은 대부분 G2의 출력형일 가능성이 높다.

다중 문법 모형은 언어 사용자의 다양한 변이 사용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언어접촉이 일어나는 집단이나 2.2에서 살펴볼 사회 구조의 변화와 언어 구조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언어변이 현상을 다루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Trudgill(1986:63)에서는 G2에 해당하는 개념을 중간방언(interdialect)라고 하였는데 Trudgill의 중간방언은 표준어와 지역방언 사이에서 개인이 적절하게 운용하는 방언이다. 이 중간방언이 하나의 언어집단에서 확산되면 그 언어 집단은 다른 언어 집단과 상이한 변이형을 사용하게 된다.

이제까지 언어변이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심리언어학과 사회언어학의 설명에 대해 살펴보았다. 언어 변이는 형성 과정에서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언어변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반드시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언어사용자가 구사하는 다양한 변이형들이 동질적인 문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법의 산물이라는 다중 문법 모형도 언어 변이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2에서는 언어변이의 종류와 사회언어학에서 언어변이를 연구하는 방법, 언어변이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2. 언어 변이 분석 방법론

언어 변이는 언어 내적 구조를 기준으로 언어 내적 변이와 언어 외적 변이로 나눌 수 있다. 언어 내적 변이는 언어 내적 구조에 관련된 변이들로 음운론적 변이, 형태론적 변이, 통사론적 변이 등 언어 내적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론과 관련이 있는 변이이다. 언어 외적 변이는 화자 집단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화자간(interspeaker) 변이와 개인 화자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자내적(interspeaker) 변이로 구분할 수 있다. 화자간 변이에는 성, 연령, 지역적 배경, 사회계층 등이 속하고, 화자내적 변이에는 상대에 대한 태도, 사용역(register), 스타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변이의 연구는 언어 내적인 영역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1960년대 이전까지 언어 연구에서

소외된 주제 중 하나였다(Trask 1999). 1960년대 이전에는 전통적인 방언학에서도 언어 변이의 존재를 인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언급을 최전승(2004:650-654)에서 볼 수 있다. 전통 방언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설은 동질적인 개인어 분석의 원리이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변적인 언어 변이는 전통 방언학의 연구방법론에서도 다루기 힘든 존재였기 때문이다. 최전승(2004:653)에서는 Labov가 지금까지 기여한 가장 중요한 업적은 언어 변이와 화자가 속해 있는 사회 계층, 연령, 성별, 종족 집단, 사회 조직망(social network)과 같은 사회적 변항 사이에 일정한 체계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이며, 대도시의 언어에 출현하고 있는 변이가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언어학적 원칙과 제약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규명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조건된 변이 현상이 언어 변화의 원인과 사회적 의의, 그리고 그 전개와 확산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임을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Labov가 변이를 기술한 방법은 변이 규칙(variable rule)이다. Labov(1969)에서 제안된 변이 규칙의 모양은 1968년에 나온 SPE의 범주규칙이나 수의규칙과 유사하지만, 언어 내적 요인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변이의 빈도를 양적으로 분석하여 음운 변이 현상의 실현 가능성을 규칙에 기술했다는 점이 SPE의 규칙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Silva-Corvalán(1989: 59)에서는 범주 규칙(categorical rule)과 수의 규칙(optional rule), 변이 규칙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범주 규칙, 수의 규칙, 변이 규칙 (Silva-Corvalán 1989: 59)

① 범주 규칙 $$X \rightarrow Y / \begin{bmatrix} A \\ B \end{bmatrix} __ \ C$$

<X는 A_C 또는 B_C의 환경에서 예외 없이 Y가 된다.>

② 수의 규칙 $$X \rightarrow (Y) / \begin{bmatrix} A \\ B \end{bmatrix} __ \ C$$

<X는 A_C 또는 B_C의 환경에서 화자의 선택에 따라 Y가 된다.>

③ 변이 규칙 $$X \rightarrow \langle Y \rangle / \begin{bmatrix} A \\ B \end{bmatrix} __ \ C$$

<X는 A_C 또는 B_C의 환경에서 Y가 된다. 다만 A_C의 환경(context)이 B_C의 환경보다 Y를 유발(trigger)하게 된다. (이는 양적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한다.)>

1960년대에 나온 변이 규칙은 1970년대에 통계분석모델과 만나면서 음운변이를 기술

하고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 Cedergren과 Sankoff(1974)가 개발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프로그램 VARBRUL은 변이규칙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10]을 결합시켜서 개별 언어의 변이 현상에 대한 기술과 해석, 발생가능성까지 예측하는 사회언어학적 분석프로그램이다. 변이분석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장점은 언어 현상과 사회적 요인이라는 독립적인 존재에 대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Paolillo(2002:33-35)에 정리한 Cedergren과 Sankoff(1974)의 파나마 스페인어의 r-마찰음화(r-spirantization)를 통해 변이규칙과 통계분석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파나마 사람들은 치조탄설음 [r]을 설첨마찰음으로 발음한다. 여기에 관여하는 언어적 요인은 단어 내 위치(어말 또는 어중), r이 들어간 단어의 형태론적 지위(부정사 형태소-infinitive morpheme-인 경우와 단일어인 경우), 그리고 후행하는 분절음의 음운론적 특성이다. Cedegren과 Sankoff(1974)는 이러한 조건들을 몇 개의 표기 규약을 첨부하여 SPE의 다시쓰기 규칙에 계량적 수치가 포함되는 변이규칙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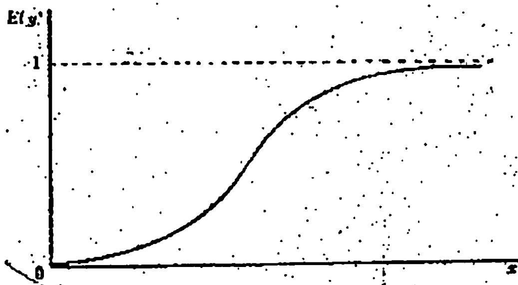
(2)

$$\begin{bmatrix}-\text{lat}\\ -\text{cns}\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text{voc}\\ -\text{ant}\end{bmatrix} \ / \ [-\text{cns}]\ \langle + \rangle __ \langle \#\# \rangle \quad \begin{matrix}[+\text{lat}]\\ \begin{Bmatrix}[+\text{obs}]\\ [+\text{nas}]\\ [-\text{cns}]\end{Bmatrix}\\ [-\text{seg}]\end{matrix}$$
$$+\text{voc}$$

(2)의 변이 규칙에서 표시 '##' 은 단어 내 위치, '+'는 형태소 경계를 나타낸다.

---

10)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통계 기법이다. 종속변수가 0, 1 만의 값을 갖는 가변수(dummy variable)인 경우에 y의 기대값을 나타내는 반응함수로 그린 곡선을 로지스틱 곡선이라고 한다. 독립변수 x가 증가하면 종속변수 y값은 1을 향해 서서히 수렴한다. VARBRUL에서는 분석값이 0.5이상 1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면 이는 변이 현상의 실현과 환경적 요인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Paolillo :2002).



Cedergren과 Sankoff(1974)는 변이규칙에 의한 통계분석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VARBRUL을 이용하여 단어 내 r의 위치, r이 들어간 단어의 형태론적 지위, 후행하는 형태소, 제보자들의 사회경제학적 지위를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한 값을 대입하여 어느 환경에서 r의 마찰음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지를 파악하였다. 실제 언어 자료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변이규칙과 함께 제시하는 이 표를 '열쇠(key)'라고 부른다. 다음은 (2)의 변이 규칙에 대한 '열쇠'이다.

(3) 파나마 스페인어의 r-마찰음화(r -spirantization)의 변이규칙에 대한 열쇠(Cedergren과 Sankoff :1974)

position in word		following segments		socio-economic status	
non final	0.348	[-cns]	0.353	high	0.355
final	0.626	[+nas]	0.452	upper-mid	0.46
morphology		[-seg]	0.466	lower-mid	0.551
monomorphemic	0.346	[+obs]	0.505	low	0.535
infinitive	0.576	[+lat]	0.743	input prob 0.333	

(3)의 값은 0.5를 기준으로 한다. 각 숫자가 0.5보다 클 경우에는 r 마찰음화의 '관찰된 유의도'(observed probability)이 올라가고, 0.5보다 작을 경우에는 r 마찰음화의 적용 가능성이 내려간다. (2)의 '##'에 해당하는 값은 단어의 위치를 가리키는데 '열쇠'를 보면 어말의 값이 0.626으로 r 마찰음화가 어말에서 더 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후행하는 분절음은 설측음일 경우(0.743)로 파악된다. '열쇠' 우측 하단의 입력 유의도(input probability)은 규칙이 적용될 평균적 가능성이다. (3)에 의하면 input prob 0.333은 이 변이 현상이 10번 발화 중에 3번 정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변이와 사회적 요인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통계 분석 방법으로 교차표(contingency table)를 이용한 교차분석법이 있다. 본고에서 채택한 자료 분석 방법도 교차 분석 방법이다. 본고의 분석 자료는 성, 연령, 출신지역, 최종학력과 같은 명목척도(nominal scale)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차분석방식은 속성에 따라 몇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 범주형 자료(categorical data)에서 나타나는 범주형 변수의 빈도수에 의해 관련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수집된 자료들을 두 가지 변수끼리 연관시켜서 각 변수가 갖는 값의 범주에 따라 행과 열로 나누어서 각 범주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기록한 표를 교차표라고 하는데, 교차표 내의 변수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카이제곱 검정 방법을 사용한다. 카이제곱 검정은 실제 빈도(실제 조사를 통해 측정한 빈도수)와 기대빈도(특정 집단의 분포가 전체 인구 집단의 분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리 알아본 특정 집단의 빈도수) 비교 분석을 통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파악하는데 쓰는 검증

통계값이다. 카이제곱 검정은 독립성 검정이므로 귀무가설은 H0 : 독립이다(즉, 관계가 없다)가 되어야 하고, 대립가설은 H1 : 독립이 아니다(종속이다, 즉 관계가 있다)가 된다.

사회언어학의 선행연구에서 교차분석방법과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주행(2005)는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84명의 제보자들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인터뷰 결과를 통해 사회계층별 언어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주행(2005)에서 개별 음운 현상별 카이제곱 검정통계량과 유의확률(P-값)을 표로 정리하면 (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4) 이주행(2005) 서울지역 거주자 사회계층별 언어특성 카이제곱 검정표

음운현상	카이제곱	유의확률	결과 해석
어두경음화	6.089	0.413	계층별 차이 없음.
어중 ㄹ음 첨가	11.657	0.070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연음법칙 준수	11.625	0.071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움라우트	20.007	0.003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유의도에 의해 판단을 한다. 유의도는 '오차 정도'로 가설이 맞을 확률에 대해서 제시하는 방식이다. P < 0.05는 '5% 오차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난다고 95%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P < .10 = 판단이 틀릴 가능성 10% 이하 = 판단이 맞을 가능성 적어도 90%이상
P < .05 = 판단이 틀릴 가능성 5% 이하 = 판단이 맞을 가능성 적어도 95%이상
P < .01 = 판단이 틀릴 가능성 1% 이하 = 판단이 맞을 가능성 적어도 99%이상
P < .001= 판단이 틀릴 가능성 0.1% 이하 = 판단이 맞을 가능성 적어도 99.9%이상
NS = No Significance = 유의성 없다 =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양적 사회언어학에서 언어변이 분석 방법론은 이 외에도 다양하다. 이 방법론들은 기본적으로 언어변이 연구에서 언어적 요인과 비언어적 요인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3장에서는 언어 사용자와 언어 변이의 관계, 사회 구조 변화와 언어 변이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인 언어사회유형론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언어사회유형론은 지난 100년간 사회문화적으로 격

동의 시기를 보낸 한국어의 언어 변이 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2.3 도시방언 평준화 모형과 언어사회유형론

언어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2.3에서는 사회 구조가 단기간에 바뀐 사회에서 세대 간의 언어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새로운 변이형이 단시간에 세력을 얻는 언어 사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처럼 언어 사회의 구조와 언어의 변이와 변화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사회언어학의 이론이 언어사회유형론(Linguistic and social typology)이다. 언어사회유형론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동과 언어사회 구성원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언어의 변동 현상을 언어보편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사회에서 사회구조 변화와 언어변화의 연관성을 찾아서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본고는 20세기 수도권 지역의 음운 변이 현상이 이 지역의 언어 사회의 구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이 지역의 언어 변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사회유형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세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100년 안팎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방언권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인구가 갑자기 증가한 지역이다. 서울 지역에 단기간에 다양한 방언권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새로운 말을 형성한다는 개념은 이기문(1972:227)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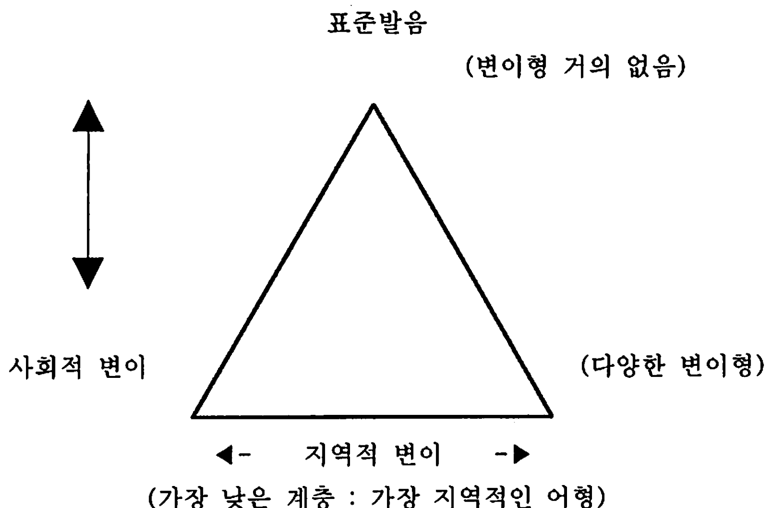
> "1950년의 전란(戰亂) 이전에는 주로 서북 및 동북 방언을 말하는 피난민들이 서울에 왔고, 전란 중에는 서울 사람들이 동남 및 서남 방언 지역으로 피난을 갔으며, 전란 이후에는 또 동남 및 서남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서울에 와서 살게 되어, 오늘날 순수한 서울말은 서울에서도 듣기 어렵게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이러한 방언들의 영향 밑에 새로운 서울말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서울말에서는 이미 몇몇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기문 1972:227)

이기문(1972)에서 제시한 언어변화에 대한 더 자세한 기술은 이기문(2000)에 나온다. 이기문(2000:1-14) 20세기 서울지역어의 음운과 어휘의 변화를 단순화(單純化)와 규칙화(規則化)로 정의하고, 그 원인을 한국 전쟁과 그 이후 인구이동으로 인해 "여러 고장의 방언들이 뒤섞이게 되어, 서울은 전국 방언의 전시장"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방언이 도시방언화하는 과정에서 지역방언적인 변이형의 특징은 사라지고 지역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지위, 성, 학력, 계층과 같은 사회적 요인, 화체(style), 언어의 규범

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새로운 변이형의 특징이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도시방언 형성에서 전통적인 지역방언의 변이형이 사라지는 현상들을 모형화 한 경우를 '삼각형 모형(triangle model)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도시방언의 형성에서 지역방언의 변이형이 사라지는 현상을 영국의 방언을 중심으로 이론화 한 것이 Trudgill의 삼각형이론(trudgill's triangle)이다(Trudgll 1984:42) . Trudgill의 삼각형 모형에서 수평축은 지역방언을 나타내고 수직축은 사회적 층위를 나타낸다. 삼각형의 꼭짓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영국 영어의 표준발음에 해당하는 RP(Received Pronunciation)이다. RP는 특정 지역 방언의 반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색이 완전히 사라진 변이형으로 사회계층의 꼭짓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변이형이다(Trudgill 2002a).[11]



(그림 4) Trudgill의 사회 방언 삼각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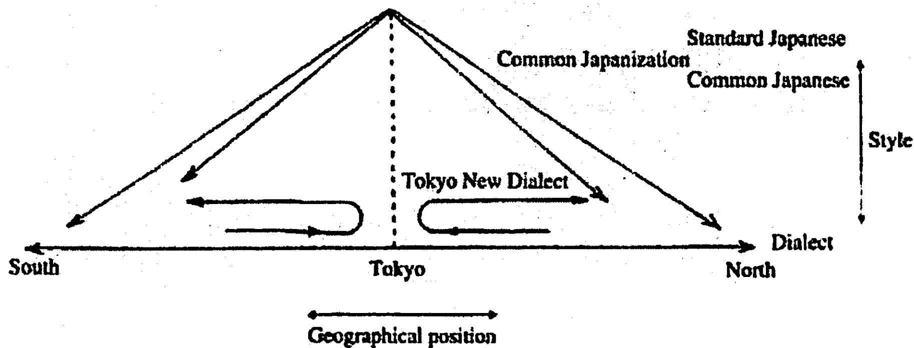
Trudgill의 삼각형 모형은 계층이동이 활발한 사회와 근대적인 국민 교육이 일반화된 사회, '방언에서 지방색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에서도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교육 받은 사람의 방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방언의 경우 오히려 변이형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변이형의 감소는 규범적인 표준말과도 다르고, 원래 그 지역의 방언과, 새롭게 진입한 지역 사람들의 원래 방언도 다른 새로운 변이형, 새로운 방언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일본 도쿄에서 인구이동과 사회구조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언이 형성되는 과정을

11) Trdugill(2002a)에서는 RP는 사회계층의 꼭짓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는 질문은 무의미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모형화 한 것이 Inoue의 삼각형 이론(Inoue's triangles)이다(Inoue 1994, Coulmas 2005:30에서 재인용).

Inoue의 모형 역시 두 삼각형의 넓은 밑변이 지역방언의 변이형이 가진 다양성을 나타낸다. 삼각형의 꼭짓점에는 오로지 한 종류의 변이만 표준으로 인정하는 표준어가 존재한다. Inoue의 이론에서는 삼각형의 꼭짓점에 규범화된 표준 일본어(standard japanese)가 있고, 그 아래 약간의 공간에 공통어(common japanese)가 존재한다. 삼각형의 내부에서는 일본 도쿄의 남부 방언과 북부 방언에 표준어가 영향을 주고, 지역방언은 삼각형의 내부에서 대류현상을 보이면서 새로운 변이형들 산출하게 된다. 그렇게 산출된 변이형들이 '새로운 도쿄방언'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도쿄의 도시방언은 공통어와 지역방언 사이의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어형들이 언어사용자 사이에 계속 사용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5) Inoue의 도쿄 신방언 형성 삼각형 모형(Coulmas 2005:30)

따라서 이기문(1972, 2000)가 지적한 단순화, 규칙화(평준화)현상은 영국이나 도쿄와 같이 대도시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언어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도권 지역의 음운변화(또는 변이)가[12]이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Trudgill(2002: 725)이 제시한 언어사회 유형론(typology of language community)은

12) 언어변이의 시간적 누적 결과를 언어변화라고 한다면 선대의 변이형을 후대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는 현상도 언어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선대와 후대가 60년 이상 함께 살게 되는 현대 사회에서 60세 연상의 사람들과 60세 연하의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살면서 발화하는 변이형은 언어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0세 연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대의 언어에 더 가까운 변이형을 사용하고, 60세 연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또래집단과 함께 개신형을 사용한다면 이는 단기간에 일어난 언어변화라고 할 수 있다. 언어연구자들은 화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언어변이의 관찰을 통해 단기간 내에 일어난 언어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언어 사회의 구조 변화와 언어변화의 관련성을 유형화 한 것이다. Trudgill의 언어사회 유형론에 의하면, 언어사회는 언어접촉에 의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기문(1972, 2000)의 관찰을 적용한다면, 20세기 수도권 지역은 유형 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유형 1. 어린이들의 이중 언어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고정적이며 강한 언어접촉을 갖는 사회. 이 사회의 언어는 차용에 의해 다수의 음소 목록이 발달하고, 문법적 구조가 복잡해진다.
유형 2. 단기간에 강한 언어접촉이 일어난 사회. 성인 화자에 의해 완벽하지 않은 (imperfect) 언어습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 사회의 언어는 음소 목록이 줄어들고, 음운이 합류(merge)되며 명백한 코이네화가 나타난다. 문법적 성(gramatical gender)와 같은 문법 구조들이 사라지고, 불규칙형의 규칙화가 나타난다. 언어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경향이 있다.
유형 3. 외부 접촉이 낮은 고립된 사회. 이 사회의 언어에서는 화자의 발음의 용이성과 청자의 이해력의 극대화의 균형에 따라 적절한 수의 음소 목록이 발달한다. 언어변화의 속도는 느리다. 고도의 문법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유표적인 언어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Trudgill의 언어사회유형론에서 주목할 개념은 코이네화(koineization)[13]이다. 코이네화는 단일 언어에서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변이형을 구사하는 언어사용자들간의 접촉에서 새로운 변이형이 생겨나는 과정으로 언어 접촉 과정에서 일어나는 급속한 언어 변화를 나타낸다. Trudgill(2002:714-715)에서는 코이네화를 '단순화(simplification)'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방언 접촉의 상황에서 성인이나 십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완벽하지 않게 다른 방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러한 단순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나온 코이네 변이형은 방언 특징이 사라진 어형이 아니라 도시지역 언어사용자들에게 출신 지역 방언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용어의 지위로 사용된다. 어떤 경우 언어사용자들은 코이네를 '표준화(standardization)된 어형'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여기서의 표준화된 어형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어문 규범에 의한 표준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코이네화는 역사언어학에서도 언어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며 도

---

13) 코이네(koine)는 아티카의 방언을 중심으로 하여, 이오니아방언을 추가하고, 여러 방언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이루어진 공통어를 가리키는 말이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여러 방언 화자들이 하나의 언어사회를 이룰 경우, 그 언어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통용되는 공통어라는 개념으로 쓰인다(Kerswill 2002:669). 본고에서도 '코이네'라는 말 대신 '공통어'라는 말을 쓰려고 했으나, 2006년, 국립국어원에서 내세운 '공통어'라는 개념과 충돌하여 적절한 대역어를 찾지 못하고 '코이네' 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한다.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공통어'의 개념은 "서울 또는 평양 중심의 표준어·문화어를 아우르고 그동안 배제되었던 지역어(사투리)와 생활 곳곳에서 쓰고 있는 말들에도 온전한 자격을 주어 살려 쓰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개념(2006.03.19, 한겨레 신문)" 이다.

시 방언 연구에서도 언어 변화의 원인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다. Hock(1991:485-491)은 역사언어학에서의 코이네(koine)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코이네가 발달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된다.

1)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언이나 아주 밀접한 관계의 언어들이 상호 접촉하여 나타나는 발화의 변종.
2) 문화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화자들은 이 다양한 언어적 변종들에 자신들이 속한 원래의 언어사회의 어형들과 동일한 특권(prestige)을 부여한다.
3) 제 3의 언어가 연결 언어(link language)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언어 보편적인 코이네의 특징은 탈지역성(deregionalization)과 선택적 단순화(selective simplification)이다. 탈지역성이란 코이네가 원래 한 지역의 방언을 바탕으로 하여 발달하였어도 코이네를 사용하는 언어사용자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의 방언과 관계없이 코이네를 사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선택적 단순화(selective simplification)는 문법적 자질이 줄어들거나(reduction) 사라지는(elimination) 현상으로 탈지역화와 함께 나타난다(Hock 1991:488).

사회언어학에서 코이네화의 또다른 조건은 '다양한 언어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단기간의 집중적인 접촉'이다. Kerswill (2002:670)에 의하면, 코이네는 지역적 코이네(regional koine)와 인구이동 코이네(immigrant koine)로 나눌 수 있다. 지역적 코이네는 단지 변이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인구이동 코이네는 새로운 방언(new dialect)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 두 범주에서 모두 지역 방언 평준화(regional dialect leveling)가 나타난다. 또한 코이네화는 전형적으로 두 세대 혹은 세 세대에 의해 완성된다. 시작점은 첫 번째 세대의 방언 차용에서 시작되고, 이 방언 차용의 확산과 강화는 언어순응(speech accommodation)과 집단 내 동조성(comformity) 현상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동조성은 사회생활에서 남과 같은 행동 양식을 취하는 일로 집단 구성원들이 보이는 동조성의 정도는 그 사회나 집단의 집단행동이나 응집성(凝集性)의 정도에 비례한다. 결과적으로 사회 행동에서 동조성이 강한 집단은 언어 행동에서도 집단 내 다수가 사용하는 어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 특정 세대의 또래 집단 내 언어 행동 강화가 다른 세대와의 언어차이를 일으키고, 언어 사회 내부에서 젊은 세대가 선대와 다른 언어형을 사용한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

본고에서는 20세기 수도권 지역에 언어 변화가 일어났다면 코이네화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단기간에 다양한 방언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유입되었고, 기존의 연구자들도 이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발음으로 국어 발음의 표준을 세우고자 하는 이현복(1977)에서는 "표준말 지역(수도권 도시 지역)의 40대 이상 연령층(1940년 이전 출생자)들은 발음상의 혼란이

없다. 1950년대 이후 지역 방언의 서울 진출이 두드러졌다. 서울말에 권위가 없으며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발음이 변했다."[14]는 언급이 나온다. 이기문(1972)에서도 20세기 이 지역의 언어변화가 단기간의 언어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그 언어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언어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탄탄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기문(2000)에서도 이 지역의 발음 변화가 단순화와 평준화(leveling)라고 할 수 있으며[15] 그 배경에는 다양한 방언의 혼합(mixing)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논평만 할 뿐 언어적 원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수도권 지역 언어의 코이네화에 대한 개념은 국어학계에서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익섭(1983)에서는 한국어의 표준어에 대해 서울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두 방향의 표준화로 보고, 이 표준화의 동인과 고대 그리스의 코이네의 형성 동인이 유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코이네화는 기본적으로 언어 사회의 기존 구성원과 새 구성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론적으로 코이네화는 다양한 방언의 충돌이 아니라 다양한 방언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언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섭(1983:8-9)에서는 본고에서 말하는 코이네화를 자연적 표준화(informal standardization)라 하여 사람들이 사회적 우위(social prestige)를 부여한 언어 변종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표준화에 대해서는 정책표준화(formal standardization) 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표준화를 탈지역화의 측면에서 보면 20세기 이 지역 언어의 탈지역화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Top-down)이고 다른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bottom

14) 이현복(1976), 이현복(1977)에서 제시한 서울말 언어 변화의 원인
① 글말 중심의 국어교육
- 원래 국어교육의 전통이 글말에 있었다.
- 입말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니 발음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 과밀학급에서 입시준비위주의 공부를 해서 그렇다.
② 지역방언의 진출, 표준말 권위의 격하
- 인구이동 : 해방, 한국전쟁,
- 서울지역은 각 지역 방언의 집산지가 되었다.
- 최근 표준말의 권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지역방언의 지위는 향상되고 표준말은 그 권위가 각하되었다.
- 50-60년대만 해도 지역방언 사용자는 서울 지역에서 사투리를 쓰는 것을 부끄럽고 불리하게 여겼다.
- 70년대에는 사투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조가 있다.
- 이것이 청소년 언어생활의 무질서와 혼란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다.

15) 이러한 설명은 Trudgill(1986:127)의 코이네화의 3요소인 혼합(mixing), 평준화(leveling), 단순화(simplification)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up)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은 국가나 전문기관에서 정한 표준화된 규범의 방향이고,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은 언중들 간의 언어 접촉에서 새로운 방언이 창출되는 과정이다.

이 지역 언어의 코이네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타지역 출신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했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거주지의 방언을 배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경우, 방언의 사회적 지위가 약한 지역에서 방언의 사회적 지위가 강한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자들의 방언습득노력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자연적 언어습득시기인 아동기 이후에 새로 이 지역에 유입된 인구는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인구와 언어접촉을 하게 된다. 성인기 이후의 새로운 언어습득과정에서 이들은 서로의 방언형을 교환하기도 하고 개신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형성된 코이네는 그 이후에 태어난 2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Chambers, 2000:196).

Kerswill 과 Williams(2000a, 2000b)는 도시 지역에서 인구이동에 의한 방언분화 양상을 다룬 사회언어학적 연구이다. 밀턴 케인스(Milton Keynes)[16], 레딩(Reading)[17], 헐(Hull)[18]의 연구를 통해 사회구조와 방언분화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밀턴 케인스는 영국 남동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신도시이자 계획도시이다. 이 지역은 다양한 방언적 배경을 지닌 도시인들이 취업과 교육의 목적으로 이주하고 경제발전을 이룬 도시로 유명하다. 지역의 사회언어학적 조사 결과, 이 지역 이주자들의 다양한 방언과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발음은 영국 남동쪽의 대도시인 레딩의 방언보다 훨씬 변이가 사라지는 방언평준화(dialect-levelling)의 양상을 보여준다. Kerswill 과 Williams(2000a, 2000b)은 밀턴 케인스의 방언 평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로 어린이들을 주목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신도시에 이주한 어린이들은 이주한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그 지역의 말을 배우고, 같은 나이의 어린이들과 함께 새로운 변이형을 만들어 낸다.

Kerswill 과 Williams의 방언평준화 모형은 산업화와 인구집중이 동시에 일어난 20세기 후반 수도권 지역에 적용해 볼 수 있다.[19] 실제로 이 시기에 수도권 지역에 이주해

---

16) 밀턴 케인스는 영국 잉글랜드 버킹엄셔주(州)에 있는 도시로 1967년에 런던의 인구를 줄이기 위하여 런던과 버밍엄 사이에 새로 건설한 도시이다. 상공업의 중심지이고 M1고속도로와 A5간선도로 및 철도가 지나 교통이 편리하다.

17) 레딩은 영국 남동부 템스강 연변 버크셔주(州)의 주도(州都)로 런던 서쪽 약 50km 지점에 있으며 버크셔의 행정·상업의 중심지이다. 9세기에 데인인(人)이 도시를 세운 이래 교통의 요충지로서 발전한 곳이다.

18)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험버사이드주(州)의 주도(州都).인구는 27만 명(1992)이다. 정식명칭은 킹스턴어폰헐(Kingston upon Hull)이다. 주 산업은 어업이며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도시가 발전한 전통있는 도시이다.

19) Kerswill이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런던 지역의 도시방언에 대한 연구이다. 2004년에

온 많은 사람들은 취업과 교육의 목적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촌향도(離村向都)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지방에서의 인구이동이 가장 심화되었던 산업화 초기의 1960년대에는 국가 전반적으로 출산율과 취학율도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언어에서 인구이동율과 출산율, 취학율이 모두 높은 1960년대 이후 출생자의 음운 현상이 그 이전 세대의 음운 현상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한 세대 사이에 일어난 이 언어 변화는 언어 내적 변화라기보다는 코이네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rudgill(2002)의 언어사회유형론으로 20세기 서울말 언어사회의 변화 방향을 설명한다면 20세기에 이 지역은 외부 접촉이 낮은 작은 지역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인구이동으로 형성된 거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외부 접촉이 낮은 작은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이고, 성년이 된 이후 거대 공동체에서 들어와 서울말을 배웠거나 이주자들의 자녀들로 거대 도시 서울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코이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단기간에 인구집중이 일어나고 언어접촉이 일어난 도시지역의 방언에서 나타나는 변이형을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수도권 도시지역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 중 고유어의 사잇소리 현상, 한자어 내부의 유성음과 무성폐쇄음 연쇄의 어중경음화 현상을 통해 이 지역의 형태음운론적 변이현상과 사회적 요인의 관계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 2007년까지 랭카스터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런던은 영국 영어의 언어개신의 원천으로 보고, 런던 외곽의 동남부를 중심으로 양적연구를 통해 이 지역의 방언평준화(동질화)와 런던에서 비롯된 어형이 런던 주변의 도시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에 대해서 추적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1) 런던의 복잡한 다중언어사용체계, 2) 청소년에 의한 언어적 개신, 3) 젊은 런던 사람의 주류 발화에서 나타나는 '다중인종적 속어형'의 영향, 4) 언어확산을 일으키는 런던 내외부의 언어망과 인구이동, 인종 분포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lancs.ac.uk/fss/projects/linguistics/innovators/index.htm)

3.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어중 경음화의 변이 현상

본고에서 다루는 어중 경음화의 변이 현상은 고유어의 합성어 또는 파생어 내부, 한자어 내부에서 선행 자음(선행음절말음)이 비음, 유음, 모음이고, 후행 자음(후행음절두음)이 평폐쇄음인 경우에, 후행 자음이 경음 또는 평음으로 변이형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1)은 본고에서 다루는 어중 경음화의 변이현상의 예이다.

(1)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 변이 현상
① 선행음이 비음인 고유어 어중경음화
ㄱ. 산그늘 : [sankinil],[sank'inil]
ㄴ. 봄소식 : [pomsoɕik], [poms'oɕik]
ㄷ. 사랑방 : [saraŋbaŋ,[saraŋp'aŋ]
② 선행음이 유음인 고유어 어중경음화
ㄱ. 돌솥 : [tolsot],[tols'ot]
③ 선행음이 모음인 고유어 어중경음화
ㄱ.먼지바람 : [mɜndʑibaram],[mɜndʑip'aram]
④ 선행음이 비음인 한자어 어중경음화
ㄱ. 관건 : [kwankɜn],[kwank'ɜn]

선행 자음과 후행 자음이 모두 평폐쇄음인 경우, 후행 자음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은 어휘 내 음운 정보만으로 경음화를 기술할 수 있다(신지영 · 차재은 2003:231). 중간에 휴지를 개입하지 않는 하나의 기식 단위 안에서, 장애음 뒤 평폐쇄음의 경음화의 실현은 대체로 예외 없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선행 자음이 비음, 유음, 모음인 유성음이고, 후행자음이 평폐쇄음인 경우에는 언어 내적 요인 중 음운 정보만으로는 경음화의 실현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음운론적 요인만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 내 변이 현상들을 언어 내적인 문제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형태소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처럼 음운론적 요인과 형태론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음운 현상들을 형태음운론적 현상이라고 한다. 형태음운론적 현상들은 말의 단위를 이루는 음운의 특성과 그 말의 단위의 문법적 기능이 동시에 고려된다. 연구자들은 형태음운론적 현상을 기술할 경우에는 음운론적 특성과 형태론적 특성을 동시에 다루게 된다.[20]

---

20) 배주채(2003:104)에서는 복합어에서 단어의 발음이 정해지는 원리에 "형태소와 형태소가 연결될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 현상에서 변이가 발생한다면 언어 내적으로 완결된 규칙성을 찾기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Preston이 설정한 변이 형성 모형에 의하면 변이의 발생 배경에는 언어 외적인 요인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이를 관찰할 수 있는 어중경음화 현상에 대해서는 언어 내적인 요인 외에도 변이가 나타나는 배경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지역 언어 사용자들의 어중경음화의 변이 현상에 대한 방언학적 자료에 전통적인 방언학 자료인 국립국어원(1997)이 있다. 전통적인 방언학의 연구방법론으로 경기도 비도시지역 방언을 조사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자료집 I > 경기도편은 경기도 지역의 전통적인 방언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두 자료는 모두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방언형을 알려준다는 특징이 있다. 도시방언의 삼각형 모형에 의하면 국립국어원(1997)이나 <한국방언자료집 I >에 수록된 어중경음화 변이현상은 수도권 지역 방언의 삼각형 모형에서 밑변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1997)에서는 28개 어휘 항목(나그네길, 등교길, 배삯, 신부감, 오라버니댁, 잉어과, 코방귀, 눈사람, 달동네, 땅금, 땡볕, 말장난, 물뱀, 물장구, 밀방망이, 백지장, 버선발, 봄소식, 산들바람, 시골사람, 얼떨결, 이빨자국, 인기척, 장바구니, 토종닭, 피란길, 혼사길, 후유증)에 대한 어중경음화를 최소 3대에서 최대 700년 이상 대대로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부에서 살아온 60대 중반 이상 90대 화자 29명에게 조사한 것이다. 국립국어원(1997)의 어중경음화 실현 자료에 대해 변이형을 중심으로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동질적인 제보자 집단에서도 해당 어휘 항목의 변이형 실현에서 다수형과 소수형이 나타난다.

예) 조사 대상 28개 어휘 항목의 변이형 실현에 대해 제보자들의 응답은 경음형이 우세하다. 제보자 전원의 응답이 일치한 경우도 있는데 신부감, 배삯의 경우 전원이 경음형으로 응답하였다.

② 복합어 내부 동일한 위치에 오는 동일한 형태소가 동일한 표면음성형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예) 제보자들이 '나그네길, 등교길, 혼사길, 피란길'의 에서 '-길'의 경음 실현 양상이 동일하지 않다. '혼사길'의 경우는 제보자 전원이 경음으로 실현하였고, '등굣길'과 '피란길'의 경우는 경음형으로 실현한 경우가 많다. '나그네길'의 경우 평음으로 실현한 제보자가 경음으로 실현한 제보자보다 많다.

③ 복합어 내부 형태소의 구조는 변이형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에도 다수변이형과 소수변이형이 존재한다.

때 음운현상이 일어나 발음이 바뀔 수 있다"를 제시하고, 이 원리를 설정한 이유를 복합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유성음 뒤 무성자음의 경음화 현상을 들고 있다.

예) '산들바람'의 경우는 선행형태소가 후행형태소의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로 사이시옷이 개입하지 않는 어휘(배주채 2003: 231)에 해당한다. 제보자들의 대다수는 평음형으로 응답했지만 경음형을 사용하는 제보자도 있었다.

④ 국립국어원(1997) 제보자 집단이 사용하는 다수변이형이 현행 표준발음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①은 어중경음화 현상을 지역방언이나 사회방언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집단의 구성원이 달라진다면 집단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다수변이형과 소수변이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 화자 집단 내부에서 모든 연령대,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동질적인 성격이 있다면 이 지역을 하나의 동질 집단으로 보고 이 집단을 대표하는 다수형이 존재한다는 예상도 해 볼 수 있다.[21] 전통적인 방언학에서도 서울과 경기, 충청도와 강원도, 황해도 일부 지역의 화자들을 모두 '중부방언 화자'로 구분한다. 중부방언 화자들의 방언형에는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김봉국 2001:322 -328).

②와 ③의 관찰 결과는 임홍빈(1981), 김창섭(1996)에서 제시한 'ㅅ전치성/ㅅ후치성 형태소'의 개념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ㅅ전치성/ㅅ후치성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형성할 때 항상 어중경음화를 동반하는 형태소들이다. 현재 정리된 ㅅ전치성/ㅅ후치성형태소 목록은 배주채(2003:226-230)에서 볼 수 있다.

ㅅ전치성/ㅅ후치성형태소의 목록제시의 장점은 어중경음화를 예측가능한 현상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단점은 이 목록에도 계속 예외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배주채(2003:227)에 의하면 '길'은 항상 사이시옷을 동반하는 형태소가 된다. 그러나 ②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중심부에서 대대로 살아온 노년층의 동질 집단에서도 어휘 개별적으로 변이형 실현 여부에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ㅅ전치성/ㅅ후치성 형태소의 개념은 어중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다수변이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ㅅ전치성/ㅅ후치성 형태소 목록에는 변이형 실현의 맥락(context)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 맥락 정보는 이미 직관적으로 '방언에 따라, 언어 사용자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왔다. 다만 이 지적의 배경이 되는 직관이 아직 실제 언어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이다.

---

21) 이 예상의 근거는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의 원리이다. 자기유사성의 원리는 동일한 기본요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규모에 무관하게 스스로 닮는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방언학에서 중부방언 화자들을 동질집단으로 보는 이유는 화자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변이형들이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중부방언의 지역방언, 사회방언의 하위 방언권 화자들이 다시 작은 형태의 동질집단을 형성한다면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다수변이형이 있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④는 수도권 지역 방언에 대한 삼각형 모형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 삼각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표준 발음과 삼각형의 밑변에 가까운 이 지역 토박이들의 발음이 동일하리라는 가정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립국어원(1997)에 대한 분석 결과로 본다면 서울 토박이에 한정했을 때, 이 지역의 어중경음화 현상에는 언어 내적인 질서(형태론적 조건)이 존재하고, 언어 외적으로는 집단동조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집단동조성에 의한 변이형 확산은 기존의 문법 연구에서 제시한 언어적 질서와 무관한 변이형이 집단 내에서 제보자의 다수가 사용하는 변이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1997)의 제보자 집단에서 '나그네길'의 변이형 실현은 평음형의 실현율이 더 높다. 집단동조성에 대해서는 3.2의 어중경음화의 개별 어휘항목 분석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어중경음화 현상의 언어 내적 질서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 현상이다. 한자어의 어중경음화는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예측가능하며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유음 뒤 /ㄷ,ㅅ,ㅈ/의 경음화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모음, 비음, 유음과 평장애음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경음화로 나눌 수 있다.

유음 뒤 /ㄷ,ㅅ,ㅈ/의 경음화는 선행음과 후행음이 조음위치자질인 [설정성]을 공유하는 한자어의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이다. 표준발음법 6장 제 26항에는 한자어의 어중경음화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2)는 표준발음법 26항의 내용이다.

(2)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뜽] 발동[발똥] 절도[절또] 말살[말쌀]
불소[불쏘] 일시[일씨] 갈증[갈쯩] 물질[물찔]
발전[발쩐] 몰상식[몰쌍식] 불세출[불쎄출]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2)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한자어의 유음 뒤 /ㄷ,ㅅ,ㅈ/의 경음화는 예외가 없는 음운현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환경에서도 (2)의 '다만'항 외에도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논의된 복합어들이 있다. (3)은 이호영(1996:162-163)에 나온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복합어들이다.

(3) ①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3음절 복합어
특별시, 과실즙, 발달사, 수술실, 쟁탈전
골조직, 별도리, 별세계, 열전자, 열전도
② 두 개의 명사로 이루어진 복합어
가설등기, 개발주의, 개발독재, 공설시장, 과실상해죄

③ 표준발음법 6장 26항의 '다만'항
허허실실, 절절하다

(3)의 예들에 대해서 오새내(2000:63-64)에서는 접사의 성격이 강한 '시(市), 사(史), 실(室), 전(戰)'은 3음절어에서 경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며, '-의'를 삽입할 수 있는 '골조직, 과실즙, 열전자, 열전도'의 경우에도 경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관형사+명사'구조로 볼 수 있는 '별세계, 별도리'역시 경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한자어에서 유음 뒤 경음화가 2음절 이상의 다음절어에서는 선택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3-1)의 '-의' 삽입 환경과 (3-2)의 환경에 대해 한자어에서는 고유어와 같은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경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3)의 항목에 대한 오새내(2000)의 문제는 (3)의 환경에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이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오새내(2000)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변이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모두 언어 내적, 외적인 설명을 한 다음 이를 실제 언어 자료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방법은 더더욱 불규칙하게 보이는 모음이나 비음 뒤 평폐쇄음의 한자어 어중경음화를 설명하는 경우에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과서, 효과, 불법, 열병, 반창고'처럼 사전의 발음정보에는 평음으로 되어 있는 어휘들에 대해서는 어떤 성격의 언어사용자 집단에서 어떻게 경음화를 실현시키고 있는지 실제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를 방언, 언어 사용자, 언어 사회를 모두 고려한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수도권 지역 출신으로 수도권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성인 남녀들이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에 대해 어떤 유형의 변이형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양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 제보자 집단의 어중경음화에 대한 경향성에 통일된 흐름이 있는지 파악한 다음, 개별 어휘별로 어중경음화의 실현 집단 분석을 하여 사회 집단 별로 어중경음화의 특징이 있는지, 어중경음화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은 현대 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어중경음화를 실현하고, 이들이 어중경음화를 실현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3.1 20세기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 집단의 어중경음화 경향 분석

3장에서 다루는 자료는 2003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수도권 지역 출신 성인 남녀 349명의 고유어와 한자어의 102개 어휘의 어중경음화 실현에 대한 자료를 어중경음화의 실현 양상과 사회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밝힌다는 목적에서 실행한 통계적 분석의 결과이다. 3장의 분석 자료는 국어원(2003)의 일부이지만 연구 목적과 자료분석의 통계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고의 분석 결과는 국어원(2003)과 상이하다는 것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표 1)은 본고의 어중 경음화 분석 대상 102개 어휘를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누고 경음 실현율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1)은 전체 제보자 349명의 어중경음화 실현 인원수와 경음화 비율,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표준발음이 들어 있다.

(표 1) 본고의 어중경음화 분석 대상 전체 어휘와 전체 어중경음화 빈도

① 고유어(64개)

번호	어휘	경음 제보자(수) (N=349)	경음 실현율 (%)	표준 발음	어휘	경음 제보자(수) (N=349)	경음 실현율 (%)	표준 발음
1	눈물방울	285	81.7	경음	기름종이	18	5.2	평음
2	바닷새	279	79.9	경음	치마저고리	30	8.6	평음
3	아침잠	273	78.2	경음	끌그물	46	13.0	평음
4	오라버니댁	250	71.6	경음	일개미	49	14.0	평음
5	마맛자국	223	63.9	경음	솜바지	80	22.9	평음
6	술주정	219	62.8	경음	사랑방	120	34.4	평음
7	말솜씨	205	58.7	경음	회오리바람	135	38.7	평음
8	산그늘	166	47.6	경음	방울등	135	38.7	평음
9	봄가물	156	44.7	경음	먼지바람	139	39.8	평음
10	버선볼	144	41.3	경음	발장구	155	44.4	평음
11	발짐작	141	40.4	경음	말장구	155	44.4	평음
12	사발술	139	39.8	경음	버선발	170	48.7	평음
13	날갯짓	130	37.2	경음	돌솥	175	50.1	평음
14	속임수	126	36.1	경음	봄소식	178	51.0	평음
15	불기둥	126	36.1	경음	산들바람	181	51.9	평음
16	인기척	125	35.8	경음	말장난	187	53.6	평음
17	발뒤꿈치	125	35.8	경음	양담배	196	56.2	평음
18	빨가죽	124	35.5	경음	소슬바람	199	57.0	평음
19	막냇동생	123	35.2	경음	옴벌레	204	58.5	평음
20	밤사이	110	31.5	경음	양념간장	201	60.2	평음

21	당고개	96	27.5		돌담	219	62.8	평음
22	발자취	74	21.2	경음	얼음주머니	224	64.2	평음
23	발그림자	67	19.2	경음	바퀴살	241	69.1	평음
24	산도깨비	66	18.9	경음	밤벌레	261	74.8	평음
25	섬곡식	58	16.6	경음	반값	289	82.8	평음
26	상스럽다	55	15.8	경음	벽돌집	298	85.4	평음
27	촌색시	54	15.5	경음	미아리고개	302	86.5	평음
28	밤새	53	15.2	경음	동아줄	303	86.8	평음
29	물그림자	50	14.9	경음	별점	326	93.4	평음
30	손도끼	36	10.3	경음				
31	촌샌님	19	6.0	경음				
32	막냇삼촌	19	5.4	경음	땅거미	329	94.3	평음
33	날다람쥐	19	5.4	경음				
34	생되다	13	3.7	경음				

② 한자어(38개)

번호	어휘	경음 제보자(수) (N=349)	경음 실현율 (%)	표준 발음	1	필연적	61	17.5	평음
1	진열대	333	95.4	경음	2	체증	74	21.2	평음
2	삼팔선	331	94.8	경음	3	음조	82	23.5	평음
3	백일재	300	86.0	경음	4	선가(船價)	92	26.4	평음
4	후일담	276	79.1	경음	5	등기	112	32.1	평음
5	단결심	270	77.4	경음	6	행려병자	114	32.7	평음
6	반발심	257	73.6	경음	7	쟁탈전	116	33.2	평음
7	고별전	120	34.4	경음	8	대과	160	45.8	평음
8	함수	104	29.8	경음	9	열병	162	46.4	평음
9	동가홍상	14	4.0	경음	10	소과	163	46.7	평음
					11	간단하다	171	49.0	평음
					12	십년공부	185	53.0	평음
					13	교과서	204	58.5	평음
					14	수입인지	206	59.0	평음
					15	불제자	207	59.3	평음
					16	생활담	217	62.2	평음
					17	감방	218	62.5	평음
					18	실세계	223	63.9	평음
					19	일출시	226	64.8	평음
					20	사살선	226	64.8	평음
					21	반창고	258	73.9	평음
					22	사십구일재	259	74.2	평음
					23	실수요	279	79.9	평음
					24	보온병	281	80.5	평음
					25	관건	298	85.4	평음

	26	효과	310	88.8	평음
	27	수술대	311	89.1	평음
	28	불법	317	90.8	평음
	29	문과	320	91.7	평음

(표 1)의 목록에서 전체 제보자의 경음화 실현 비율 분석 결과 경음 실현율이 80% 이상 나타나는 어휘들과 경음 실현율이 20% 이하로 나타나는 어휘들을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해당 어휘 항목에 대해 조사 대상 제보자의 80% 이상이 하나의 변이형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변이형을 다수형으로 분류한다. 제보자 집단이 사용하는 다수형은 표준발음과 동일한 표준어형이 있고, 표준발음과 다른 고정적 변이형(stigmatized form)이 있다.[22] 고정적 변이형은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표준어형과 차이가 난다. (표 1)의 어중경음화의 고정적 변이형을 살펴보면 표준발음과 일치하는 다수형과 표준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고정적 변이형을 구분할 수 있다. (표 2)는 제보자들이 실현한 어중경음화 다수 변이형 36개 어휘 항목이다.

(표 2) 어중경음화 다수 변이형(총 36개 어휘 항목)

번호	어휘	경음 실현율 (%)	표준 발음	어종	표준 일치 여부	어휘	경음 실현율 (%)	표준 발음	어종	표준 일치 여부
1	진열대	95.4	경음	한	일치	생되다	3.7	경음	고	불일치
2	삼팔선	94.8	경음	한	일치	동가홍상	4	경음	한	불일치
3	땅거미	94.3	평음	고	불일치	기름종이	5.2	평음	고	일치
4	별점	93.4	평음	고	불일치	막냇삼촌	5.4	경음	고	불일치
5	문과	91.7	평음	한	불일치	날다람쥐	5.4	경음	고	불일치
6	불법	90.8	평음	한	불일치	촌샌님	6	경음	고	불일치
7	수술대	89.1	평음	한	불일치	치마저고리	8.6	평음	고	일치
8	효과	88.8	평음	한	불일치	손도끼	10.3	경음	고	불일치
9	동아줄	86.8	평음	고	불일치	끌그물	13	평음	고	일치
10	미아리고개	86.5	평음	고	불일치	일개미	14	평음	고	일치
11	백일재	86	경음	한	일치	물그림자	14.9	경음	고	불일치
12	벽돌집	85.4	평음	고	불일치	밤새	15.2	경음	고	불일치
13	관건	85.4	평음	한	불일치	촌색시	15.5	경음	고	불일치
14	반값	82.8	평음	고	불일치	상스럽다	15.8	경음	고	불일치

22) Milroy(1992)에 대한 정영인 외 6인 공역(1998), 전철웅(2002), 전병철(2004)에서는 stigmatized form에 대한 대역어로 '낙인형'을 사용하였다. 전철웅(2002)에 의하면 낙인형은 '사회적 평가가 비교적 낮은' 변이형이다.

15	눈물방울	81.7	경음	고	일치	섬곡식	16.6	경음	고	불일치
16	보온병	80.5	평음	한	불일치	필연적	17.5	평음	한	일치
17	바닷새	79.9	경음	고	일치	산도깨비	18.0	경음	고	불일치
18	실수요	79.9	평음	한	불일치	발그림자	19.2	경음	고	불일치

(어종 : 한 - 한자어/ 고 - 고유어)

① 표준발음과 일치하는 다수형 (10개)

㉠ 고유어 : 기름종이(평음), 치마저고리(평음), 끝그물(평음), 일개미(평음), 눈물방울(경음), 바닷새(경음)

㉡ 한자어 : 진열대(경음), 삼팔선(경음), 백일재(경음), 필연적(평음)

② 표준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다수형 (26개)

㉠ 고유어(표준발음 평음/다수형 경음) : 벽돌집, 동아줄, 땅거미, 별점, 미아리고개, 반값

㉡ 고유어(표준발음 경음/다수형 평음) : 촌색시, 생되다, 물그림자, 막냇삼촌, 날다람쥐, 촌샌님, 상스럽다, 손도끼, 산도깨비, 섬곡식, 발그림자, 밤새

㉢ 한자어(표준발음 평음/다수형 경음) : 수술대, 문과, 불법, 관건, 효과, 보온병, 실수요

㉣ 한자어(표준발음 경음/다수형 평음) : 동가홍상

고정적 변이형은 본고의 제보자 집단의 대표적인 변이형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변이형'이라고 할 수 있다. 1.2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형적인 변이형은 다수의 화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노년층 토박이들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변이형'과 구분할 수 있다. 전형적인 변이형은 모든 연령층에서 두루 쓰이는 다수형이지만 특별히 새로운 어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층이 사용하는 개신형인 '불현듯이 나타난 변이형'과도 구분할 수 있다.

(표 2)에서 표준발음과 일치하는 다수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준발음과 일치하는 다수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고유어의 경우 두 형태소의 의미관계와 관련이 있고, 한자어의 경우 선행자음과 후행자음과 관련이 있다.
② 고유어의 경우 선행어와 후행어가 병렬구조인 경우(치마저고리), 선행어와 후행어가 동격인 경우(기름종이), 선행어가 후행어의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끝그물, 일개미)일 경우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선행어와 후행어가 관형구성일 경우(눈물방울, 바닷새) 경음화가 일어난다.

③ 한자어에서는 표준발음법에도 나온 'ㄹ' 뒤 설정음의 경음화 현상(진열대, 삼팔선, 백일재)을 볼 수 있다. '적(的)' 결합형인 3음절한자어인 '필연적'의 경우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적' 이 3음절 이상의 한자어를 형성한 경우 경음화되지 않는다(배주채 2003:278)는 관찰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표준발음과 일치하는 다수형의 존재는 이 지역의 어중경음화가 단어 내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표준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다수형인 고정적 변이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방언자료집과 국립국어원(1997)의 서울 토박이말 자료, 기존의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연구와 앞으로 살펴볼 전체 자료 분석 결과를 찾아서 정리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전체 자료 분석 결과의 분석 자료와 통계 수치들은 3.2의 도입부와 3.2의 각 절에 제시되어 있다.

② 표준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다수형 (26개)

㉠ 고유어(표준발음 평음/다수형 경음) :

ⓐ 벽돌집 : 김창섭(1996:63-64)에서는 '집'을 ㅅ전치성 형태소라고 본다. 이 지역에서 '집' 후행 복합어에서 반복적인 경음화가 관찰된다면, 이 지역 화자들에게 '벽돌집'을 비롯한 '집' 후행 복합어는 표준발음과 무관한 고정적 경음형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 동아줄 : 고정적 변이형은 경음형이지만 전체 분석 결과 제보자의 연령과 거주지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해방 이전 출생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제보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땅거미 : 방언자료집 경기도편(항목 I-551)에서 경기도 지역의 전통적인 '땅거미' 방언 자료를 보면 '땅거미'를 경음으로 발음한 지역으로 연천, 남양주가 있다.

ⓓ 별점 : 기존의 연구에서는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기원이나 소유주로 해석될 경우 사이시옷이 끼어드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고,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수단으로 해석될 경우 사이시옷이 끼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미아리고개 : 고정적 변이형은 경음형이지만 전체 분석 결과 제보자의 연령과 거주지, 출생지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서울지역 제보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반값 : 고정적 변이형은 경음형이지만 전체 분석 결과 제보자의 연령과 거주지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해방 이전 출생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 출신 제보자들과 대졸자들의 경음 실현율이 높다.

㉡ 고유어(표준발음 경음/다수형 평음) :

ⓐ 촌색시 :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장소이지만 고정적 평음형이다.

ⓑ 생되다 : 고정적 변이형은 평음형이지만 전체 분석 결과 제보자의 거주지 요인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제보자들의 경음실현율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서울 경음)

ⓒ 물그림자 :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장소이지만 고정적 평음형이다.

ⓓ 막냇삼촌 : 고정적 변이형은 평음형이지만 전체 분석 결과 제보자의 거주지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경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 날다람쥐 : 고정적 변이형은 평음형이지만 전체 분석 결과 제보자의 연령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1970년대 이후 출생자의 경음화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 촌샌님 :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장소이지만 고정적 평음형이다.

ⓖ 상스럽다 : 고정적 평음형

ⓗ 손도끼 : 고정적 변이형은 평음형이지만 전체 분석 결과 제보자의 거주지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경음실현형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 산도깨비 :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장소이지만 고정적 평음형이다. 배주채(2003:230)에서는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장소일 경우 사이시옷이 끼어들지만 '산도깨비'의 경음형은 예외라고 기술하고 있다.

ⓙ 섬곡식 : 고정적 변이형은 평음형이지만 전체 분석 결과 제보자의 성별과 거주지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경음화가 우세하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출신 제보자들의 경음화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 발그림자 : 고정적 변이형은 평음형이지만 전체 분석 결과 제보자의 연령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1950년대 이후 출생자는 평음형으로 통일하여 발음한다.

ⓛ 밤새 : 고정적 평음형

㉢ 한자어(표준발음 평음/다수형 경음) :

ⓐ 수술대 : 한자음 ㄹㅅ연쇄의 경음화

ⓑ 문과 : 배주채 (2003: 280)에서는 '科'를 항상 경음화되는 한자형태소라고 본다.

ⓒ 불법 : 고정적 변이형은 경음형이지만 전체 분석 결과 제보자의 성별과 연령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해방 이전 출생자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남성의 평음 실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이다.

ⓓ 관건 : 고정적 변이형은 경음형이지만 전체 분석 결과 제보자의 연령과 학력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해방 이전 출생자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고졸 이상 제보자들의 경음화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효과 : 고정적 경음형

ⓕ 보온병 : 고정적 변이형은 경음형이지만 전체 분석 결과 제보자의 성별과 연령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해방 이전 출생자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남성의 평음 실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이다.

⑧ 실수요: 한자음 ㄹㅅ연쇄의 경음화

㉣ 한자어(표준발음 경음/다수형 평음) : 동가홍상(고정적 평음형)

위의 내용에서 어중경음화의 고정적 변이형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 내적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어휘 항목>

① ㅅ 전치성 형태소(벽돌집, 문과)
②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장소이지만 고정적 평음형(촌샌님, 촌색시, 물그림자, 산도깨비)
③ 한자어 내부 'ㄹ'뒤 설정음의 경음화로 파악되는 경우(수술대, 실수요)
④ 형태론적 해석의 차이(별점)
⑤ 밤새, 효과, 동가홍상

<언어 외적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어휘 항목>

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제보자들의 발음이 표준발음에 가까운 경우(땅거미, 손도끼, 생되다, 동아줄, 막냇삼촌, 섬곡식)
② 서울 지역 제보자들의 발음이 표준발음에 가까운 경우 (미아리고개)
③ 노년층의 변이형이 표준발음에 가까운 경우(반값, 발그림자, 불법, 관건, 보온병)
④ 청년층의 변이형이 표준발음에 가까운 경우(날다람쥐)

언어 내적인 요인은 표준발음과 일치하는 다수형의 특징과 같이 단어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구조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다. 본고의 제보자 집단의 어중경음화에 관여하는 언어 내적 요인에 대해 고유어는 형태론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한자어는 음운론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밤새, 효과, 동가홍상'의 경우는 본고에서 설정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변이형 실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고정적 변이형이다. 이 어휘 항목의 변이형 실현은 다른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거나, 언어 내적인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언어 외적 요인은 변이와 관련이 있는 요인 중 언어 내적 요인을 제외한 것이다. 고정적 변이형도 언어적 변이형이기에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사회언어학에서는 어떤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의 변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고의 분석 결과로 볼 때 제보자의 연령과 제보자가 속한 언어 사회의 특징이 본고의 제보자 집단의 변이형 실현의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년층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제보자들의 변이형 실현이 표준발음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도권 출신 제보자 집단에서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화자들의 언어 분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두 집단의 생활영역과 주로 만나는 사람들, 생활양식의 차이가 있다면 언어 분화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언어분화의 존재를 통해 이들이 속한 언어사회의 차이를 예상해 볼 수도 있다. 본고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다뤄지겠지만 실제로 본고의 자료 분석 결과 고정적 변이형이 아닌 경우에도, ㄴ삽입 현상과 한자어 내 ㄴㄹ연쇄에서도 서울 출신 제보자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의 변이형 실현 차이가 나타난다.

어중경음화의 고정적 변이형의 변동에서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제보자들의 변이형 실현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제보자들의 변이형이 표준발음에 가까운 예들을 볼 수 있다.[23] 표준발음의 보수적인 성격은 고정적 변이형의 실현에서 노년층의 변이형이 청년층의 변이형에 비해 표준발음에 가까운 것으로도 알 수 있다.[24] 표준발음의 보수적인 성격을 인정한다면 고정적 변이형의 관찰 결과에 한정하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출신 집단의 변이형 실현이 서울 출신 제보자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예측도 해 볼 수 있다. 어중경음화에서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제보자 집단의 변이형 실현 차이에 대해서는 3.2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언어학에서는 어느 한 시기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연령 집단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언어 변화의 양상과 방향을 알아보는 방법을 현장 시간 방법(apparent-time method)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한 시기의 두 세대가 실제 시간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박경래 2004). 현장 시간 방법의 원리는 상이한 연령의 사람들이 상이한 시간대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75세 화자의 말은 50세나 25세 화자의 말보다 더

---

23) 서울의 지명인 '미아리고개'는 서울 출신 제보자에게서 표준 발음이 더 많이 나온 경우이다. 서울의 고유지명이어서 서울 사람들이 보수적인 표준발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언어 분화의 근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미아리고개'의 경우 사례 수가 1개이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기 어려워서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본고의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미아리고개'의 수도권 지역의 고정적 변이형은 2003년 현재 평음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

24) '날다람쥐'의 표준형이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온 경우이다. 표준발음이 이 지역 방언과 관계 없이 존재하는 예라고도 할 수 있고, 교육의 일반화와 표준화에 의해 젊은 사람들의 표준발음 사용 사례가 늘어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3장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젊은 사람들의 복합어 내 경음화 적용의 일반화 사례에 의해 우연의 일치로 표준발음인 경음형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사례 수가 1개이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고의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날다람쥐'의 수도권 지역의 고정적 변이형은 2003년 현재 평음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

이른 시기를 나타낸다고 파악한다.

현장 시간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노년층의 변이형이 표준발음에 가깝다는 분석 결과는 표준 발음의 보수성도 알려주고, 조사 시점 당시 청년층의 변이형과 노년층의 변이형의 분화에 대해서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연령에 의한 어중경음화의 변이형 분화에 대해서는 3.2에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체 제보자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 양상에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 자료의 제보자에 대한 대략의 정보와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설명은 1.3에서 자세히 했기에 여기서는 양적 분석의 기본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3) 표본의 구성

① 표본의 대상 : 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20대에서 70대 남녀

② 표본의 크기 : 349명

③ 조사 시기 : 2003년

④ 조사 방법 : 개별 면접을 통해 녹취 기록 후 전문가의 국제음성기호 전사. 조사 대상 단어가 문장에 포함되어 적인 질문지를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낭독(분석 대상 어휘 중 90개), 조사 대상 단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간접질문법 사용(분석 대상 어휘 중 11개)(국립국어원 2003:3)

본고가 분석한 어중경음화 실현 어휘는 (1)과 동일한 총 102개(고유어 64개, 한자어 38개)이다. 이 어휘들에 대한 질문지와 제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는 국립국어원(2003:156-175)에 있다.

본고가 분석한 자료의 조사 방법은 자연스러운 읽기와 질문에 대답하기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내용으로는 제보자의 말투나 스타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말투나 스타일에 의한 차이는 본고의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본고의 구체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2003년에 출간된 보고서에서는 전체 제보자의 변이형 실현 빈도가 변이형 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전체 제보자의 발음에서 경향성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다. 따라서 자료의 객관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통계적 검증이 가능한 자료로 재가공을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우선 전체 자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어중경음화 102개 어휘 항목의 발음의 경음화 실현 유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 입력하였다.[25] 응답지의 국제음성기호로 전사된 응답 내용을 보고 제보자가 경음화를 실현하지 않은 경우는 0번, 경음화를 실현한 경우는 1번, 기타의 경우는 3번으로 처리하고 3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결측값으로 처리

25) 사회언어학적 방언자료 데이터베이스 정리에서 엑셀 사용 요령 내용은 中井精一(2006:43-73) 참고.

하였다. 이렇게 입력된 파일은 고려대학교 통계상담소의 도움을 얻어 제보자 개개인에 대해 해당 문항의 경음화 실현 비율을 구하고, 사회적 요인에 따라 변이형 실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경음화 실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는 3.1에서 진행할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4) ① 분석 방법 : 해당 음운 현상만을 보기 위하여, 기타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결측값으로 바꾸어 처리 후, 비율에 따라서, 해당 단어에 절반 이상 해당 음운 현상을 발음할 경우, 해당 음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음.

② 분석 기법의 설명 :

빈도분석 : 이산형으로 이루어진 자료가 해당 범주에 얼마나 구성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기법

교차분석 : 각각 교차되어지는 범주 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정하는 기법

③ 분석 절차 :

ⅰ)자료의 가공 :이산형으로 코딩된 자료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해당 문항의 비율을 구함.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경우, 해당 음운 현상이 있다고 봄

ⅱ)자료 분석 : 성별, 연령별, 최종 학력별, 현 거주지별, 시대별로 응답자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봄. 성별, 연령별, 최종 학력별, 현 거주지별, 시대별로 해당 음운 현상의 실현 유무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 통계 분석은 통계패키지 SAS를 사용함(고려대학교 통계상담소)

가설 H_0:해당 기준에 대하여 음운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H_1:해당 기준에 대하여 음운 현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해당 기준은 성별, 연령별, 최종 학력별, 현 거주지별, 시대별을 말함

본고에서 사용하는 교차분석의 유의도(P)는 P<0.05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판단에 대하여 95%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성별에 따른 어중경음화의 실현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교차 분석 결과 어중 경음화의 전반적인 경향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에서 유의 확률 0.1021은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본고의 제보자 집단의 어중경음화 실현에서 성별에 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26]

26) 유의 확률 0.1021은 유의주준을 0.1로 잡을 경우, 즉 90%의 신뢰도로 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 0.1에서 본고의 제보자 집단은 본고의 분석 대상 어휘의 어중경음화에 대해 여성의 어중경음화 실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성별에 따른 어중 경음화 실현 경향

빈도 / 백분율 / 행 백분율 / 칼럼 백분율	평음	경음	총합
남성	75 21.49 50.00 47.77	75 21.49 50.00 39.06	150 42.98
여성	82 23.50 41.21 52.23	117 33.52 58.79 60.94	199 57.02
총합	157 44.99	192 55.01	349 10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1	2.6726	0.1021

표본 크기 = 349

밑줄 친 행 백분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성의 경우는 평음과 경음에서 차이가 없지만, 여성의 경우 같은 어휘에 대해 어중경음화 실현율이 17.58%.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연령, 출생 시기, 세대별 차이이다. 우선 연령대에 따라 어중경음화 실현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4) 연령별 어중 경음화 실현 경향

빈도 / 백분율 / 행 백분율 / 칼럼 백분율	평음	경음	총합
20	18 5.16 26.47 11.46	50 14.33 73.53 26.04	68 19.48
30	22 6.30 35.48 14.01	40 11.46 64.52 20.83	62 17.77
40	35 10.03 48.61 22.29	37 10.60 51.39 19.27	72 20.63

50	32 9.17 47.76 20.38	35 10.03 52.24 18.23	67 19.20
60	41 11.75 64.06 26.11	23 6.59 35.94 11.98	64 18.34
70	9 2.58 56.25 5.73	7 2.01 43.75 3.65	16 4.58
총합	157 44.99	192 55.01	349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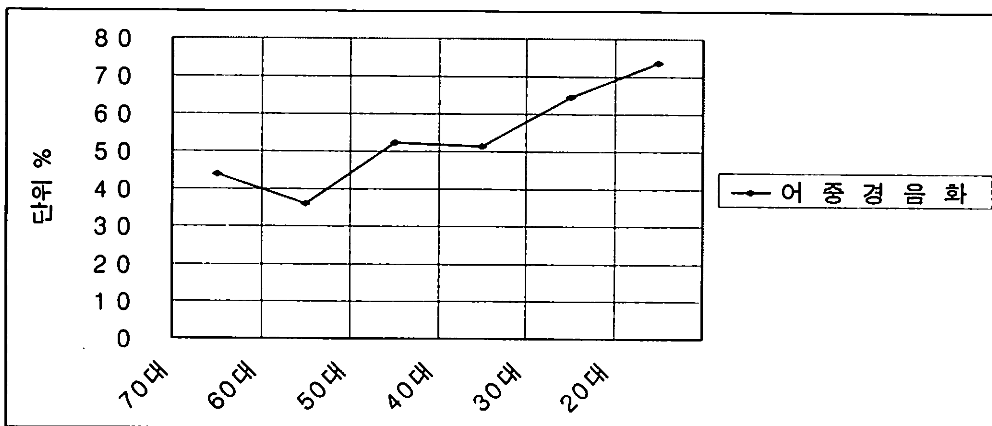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5	22.5033	0.0004

표본 크기 = 349

(표 4)는 연령별 어중 경음화 실현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설에 대한 유의 확률 0.0004는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본고의 제보자 집단은 본고의 분석 대상 어휘의 어중경음화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실현한다.

연령대별 어중경음화 실현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6)에서 밑줄 친 행 백분율을 통해 연령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음화 실현의 비율에 대한 꺾은선 그래프를 제시하면 (5)와 같다.

(5) 전체 제보자들의 연령대별 어중경음화 실현 증가도 .



(5)의 그래프가 알려주는 정보는 다양하다. 우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경음형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래프상의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20세기 초에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 20세기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의 어중경음화 실현 비율은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고의 분석 대상 어휘 항목에 대해 제보자 중 20대 연령 집단 70% 이상이 경음형으로 발음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20대 연령대 집단이 복합어 구성에 대해 경음 변이형으로 통일하여 발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려준다. 여기에 어중경음화의 변이형 실현에서 70대와 60대, 50대와 40대, 30대와 20대의 언어 행동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는 제보자들의 세대별 어중 경음화 실현 경향의 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가설에 대한 유의 확률 0.001는 유의 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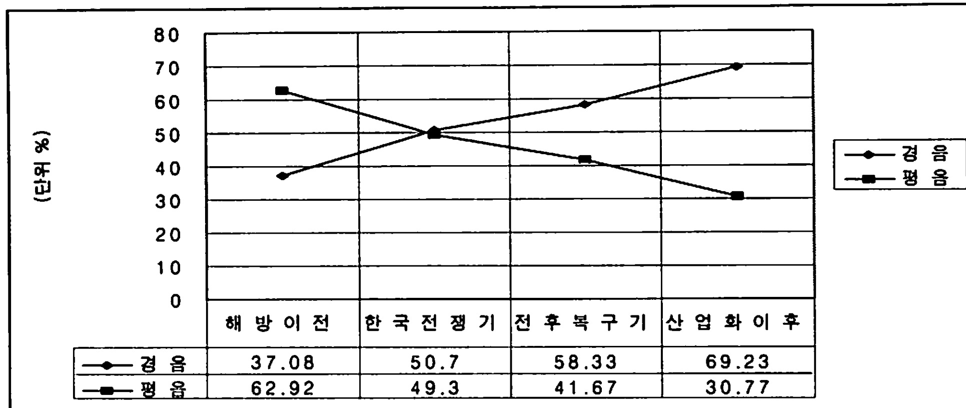
(표 5) 제보자들의 세대별 어중 경음화 실현 경향

빈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평음	경음	총합
해방 이전 출생자	56 16.05 62.92 35.67	33 9.46 37.08 17.19	89 25.50
한국전쟁기 (1945-1955)	35 10.03 49.30 22.29	36 10.32 50.70 18.75	71 20.34
전후복구기 (1955-1965)	30 8.60 41.67 19.11	42 12.03 58.33 21.88	72 20.63
산업화 (1965년 이후)	36 10.32 30.77 22.93	81 23.21 69.23 42.19	117 33.52
총합	157 44.99	192 55.01	349 10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3	21.9766	<.0001

(표 5)에서 밑줄 친 행 백분율을 살펴보면 각 세대별로 평음과 경음의 실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6)은 세대별 평음 실현과 경음 실현을 비교한 꺾은선 그래프와 행 백분율 표이다.

(6) 세대별 어중경음화의 평음 실현과 경음 실현 비교도



	해 방 이 전	한 국 전 쟁 기	전 후 복 구 기	산 업 화 이 후
경 음	37.08	50.7	58.33	69.23
평 음	62.92	49.3	41.67	30.77

(6)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신뢰구간을 구할 필요가 있다. 90% 신뢰구간을 구하면 해방 이전 세대의 경우 40%-60%, 한국전쟁기와 전후복구기 세대의 경우 38%-62%, 산업화 세대의 경우는 41%- 59%에 해당한다. 행 백분율이 신뢰구간을 벗어날 경우 귀무가설(경음 또는 평음의 실현에 차이가 없다)을 기각할 수 있다. 신뢰구간 계산결과와 (6)의 백분율을 살펴보면 한국전쟁기와 전후복구기의 값은 신뢰구간 안에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특별히 경음화가 더 실현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해방이전기에 태어난 세대와 산업화 세대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해방이전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중경음화의 실현율이 신뢰구감보다 낮고 , 산업화 세대의 경우 어중 경음화 69.23%는 신뢰구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이다. 이 교차분석 결과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과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서 어중경음화 실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적 배경에 의해 설정한 사회적 모두 8가지이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적 배경과 어중경음화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다고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대표로 제보자들의 현 거주지에 대한 교차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6)은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어중경음화에 대한 교차표이다. 가설에 대한 유의 확률 0.6314는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표 6)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어중 경음화 실현 차이

빈도 / 백분율 / 행 백분율 / 칼럼 백분율	평음	경음	총합
서울	85	99	184
	24.36	28.37	52.72
	46.20	53.80	
	54.14	51.56	
서울제외	72	93	165
	20.63	26.65	47.28
	43.64	56.36	
	45.86	48.44	
총합	157	192	349
	44.99	55.01	10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1	0.2302	0.6314

표본 크기 = 349

다음으로 제보자의 최종 학력별 어중경음화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7) 제보자의 최종 학력별 어중경음화 실현 경향

빈도 / 백분율 / 행 백분율 / 칼럼 백분율	평음	경음	총합
초졸	11	4	15
	3.15	1.15	4.30
	73.33	26.67	
	7.01	2.08	
중졸	20	14	34
	5.73	4.01	9.74

	58.82	41.18	
	12.74	7.29	
고졸	65	74	139
	18.62	21.20	39.83
	46.76	53.24	
	41.40	38.54	
대졸	61	100	161
	17.48	28.65	46.13
	37.89	62.11	
	38.85	52.08	
총합	157	192	349
	44.99	55.01	10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3	10.9556	0.0120

표본 크기 = 349

가설에 대한 유의 확률 0.0120은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제보자의 최종 학력에 따라서 어중경음화의 실현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초졸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초졸자의 평음 실현 비율인 73.33%의 일반화는 어렵지만 대졸자의 경우는 경음 실현 비율 66.11%는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 성인 화자들의 전반적인 어중 경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지역 화자들의 어중 경음화는 화자들이 지닌 사회적 특성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7) 수도권 지역 출신 수도권지역 거주자들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과 관련이 있는 언어 외적 요인 : 세대/연령> 최종학력> 성별, 지역적 배경

제보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1)의 어휘 항목에 대해 경음형으로 통일하여 발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전체적으로 제보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경음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에서는 개별 어휘별로 어중경음화의 변이형 실현 양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중경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3.2 사회적 요인에 의한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 변이 양상

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 출신,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제보자들은 연령과 최종 학력에 따라서 어중경음화의 변이형 실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3.2에서는 개별 어휘별 경음화 실현과 제보자들의 사회적 특성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중경음화 현상의 변이형 실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 원자료인 국립국어원(김선철, 권미영, 황연신)의 2003년 보고서에서도 개별 어휘별 경음화 실현 빈도을 선행형태소의 말음과 후행형태소의 두음의 조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국립국어원 2003:9).

① 선행형태소의 말음 유형별 경음화 실현 양상을 보면 선행형태소의 말음이 /ㄴ/인 경우 /ㄹ/이나 /ㅁ, ㅇ/ 또는 모음인 경우에 비해 후행형태소를 경음화한다는 판단은 하기 어렵다.

② 선행자음이 /ㄴ/이고, 후행자음이 /ㄷ,ㅅ/인 경우에는 경음화의 실현율이 낮게 나타난다

③ 이 관찰 결과를 조음 위치가 동일할 경우 경음화가 낮게 나타난다고 일반화를 하기는 어려운데, /ㄹ/과 /ㄷ,ㅅ/의 조합에서는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 없었고, /ㅁ/과 /ㅂ/의 조합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④ 후행 형태소의 두음을 보면 특정 자음이 다른 자음에 경음화가 잘 일어난다는 판단을 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선행 형태소의 말음의 특정 음소나 후행 형태소의 두음의 특정 음소가 경음화를 더 잘 일어나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선행형태소의 말음과 후행형태소의 두음의 결합 유형은 한자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특히 한자어의 경우 선행형태소의 말음이 /ㄹ/이고 후행 형태소의 두음이 /ㄷ, ㅅ, ㅈ/일 경우 경음화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⑥ 음절수와 어중경음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2음절어가 3음절어나 4음절어에 비해 경음화가 더 잘 일어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 어렵다. 선행형태소의 음절수나 후행형태소의 음절수 역시 특별히 경음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중경음화의 음운론적 요인에서 선행음 또는 후행음의 특징이 경음화와 유의미하게 연관된 경우는 한자어의 유음 뒤 /ㄷ,ㅅ,ㅈ/의 경음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립국어원(2003)의 분석 결과는 일부 한자어를 제외하고는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해 어중경음화의 유형화는 어렵다고 정리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2003:62-65)에서는 빈도분석을 통해 제보자의 연령과 어중경음화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국립국어원(2003:62-65)에서 변이형 실현에서 세대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어휘는 고유어 7개(날갯짓, 막냇동생, 말장구, 말장난, 봄가뭄, 버선발, 산들바람), 한자어 3개(감방, 교과서, 열병)이다. 그런데 '날갯짓, 막냇동생'의 경우 나이든 세대의 경음화 실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 '말장구, 말장난, 봄가뭄, 버선발, 산들바람'의 경우는 젊은 세대가 경음화를 실현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한자어 3개는 모두 60대 이하에서 경음화의 실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어원(2003:62)는 빈도 분석 결과에 대해 "어떤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고유어 복합어에서 경음화를 더 잘 실현한다는 일반화는 불가능한 대신, 단어마다 세대차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관찰이 성립될 수 있으며, 그 세대차는 청년층과 노년층 간에 가장 두드러진다."는 해석을 내린다.

국립국어원(2003)은 해석은 어중경음화에서 연령차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어휘개별적으로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분석 결과 101개 어휘 중에 10개의 어휘만이 단지 연령차에 의해 변이형 실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 이 보고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록의 빈도분석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어휘에게서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자료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세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보자 집단의 어중경음화 실현에 관여하는 사회적 요인들과 어중경음화의 양상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3.2에서는 1.3에서 제시한 13개 사회적 요인별로 어중경음화의 실현과 사회적 요인의 관계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특정 어휘의 변이형 실현에서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1) 표본의 구성

① 표본의 대상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 분석 대상 어휘 101개

② 표본의 크기 : 102개

③ 분석 방법 : 각 어휘 별로 13개 사회적 요인을 교차분석.

④ 가설

H_0(귀무가설):해당 사회적 요인에 대해 어중경음화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H_1(대립가설):해당 사회적 요인에 대해 어중경음화는 다르게 나타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교차분석의 유의도(P)는 P<0.05로, 사회적 요인에 의해 해당 어휘의 어중경음화에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 대하여 95%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개별 어휘 항목별 교차분석 결과 전체 1326개의 교차표가 나왔다. 본고에 1326개의

교차표를 모두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차표에서 유의도가 0.05 이하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교차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교차분석결과 해당 어휘의 변이형 실현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요인이 파악되지 않았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전통적인 방언학 연구 및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했던 설명들을 중심으로 보충하였다. 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3.2의 각 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표 8)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전체 어휘별 어중경음화 실현 경향 분석표

<고유어>

번호	어휘	경음 실현율 (%)	표준 발음	다수 변이형	분석 결과/사회적 요인	설명
1	눈물방울	81.7	경음	경음	고정적 경음	표준발음, 고정형 일치
2	바닷새	79.9	경음	경음	고정적 경음	표준발음, 고정형 일치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장소
3	아침잠	78.2	경음		고정적 경음	표준발음, 고정형 일치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시간
4	오라버니댁[27]	71.6	경음		경음 실현율 70% 이상	표준발음, 다수형 일치 지역방언자료에 경음형 있음[28] 서울토박이 경음형 다수
5	마맛자국[29]	63.9	경음		경음 실현율 60% 이상	표준발음, 다수형 일치 사이시옷 표기 있음
6	술주정	62.8	경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표준발음으로 변이형 통일화. 서울출생자 경음형 우세
7	말솜씨	58.7	경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표준발음으로 변이형 통일화
8	산그늘	47.6	경음		연령(출생시기, 세대)	197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표준발음으로 변이형 통일화
9	봄가뭄	44.7	경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성별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거주지(지역, 도시)	1960년대 이전 출생자 평음형 우세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우세 여성은 평음 우세, 남성은 경음 우세 서울 출신(출생, 부계) 경음 우세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서울 출신, 경음형/ 표준발음 우세
10	버선볼	41.3	경음		성별	여성은 경음 우세, 남성은 평음 우세
11	발잠작	40.4	경음		출생지(도시)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지역 출생자 평음 우세
12	사발술	39.8	경음		거주지(지역, 도시)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거주지(지역, 도시) 모계거주지(지역, 도시)	서울거주자 평음 우세 인천거주자 경음 우세 인천지역 출생자 경음 우세 서울 출신(출생, 부계, 모계) 평음 우세
13	날갯짓	37.2	경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거주지(지역)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거주지(지역, 도시) 모계거주지(지역, 도시)	1950-1960년대 출생자 평음형 우세 서울거주자 경음 우세 서울출신(출생, 부계, 모계) 경음형 우세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서울 우세형, 표준어형으로 이동

14	속임수	36.1	경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부계거주지(지역, 도시) 모계거주지(지역)	1950년대 이후 출생자 평음형 우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출신(부계, 모계) 평음형 우세 전체적인 평음 개신
15	불기둥30)	36.1	경음		평음 실현율 60% 이상	선행요소를 후행요소의 재료로 파악할 경우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배주채 2003:231)
16	인기척	35.8	경음		연령(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모계거주지(지역)	서울 출신(출생, 모계) 평음 우세 1960년대 이후 출생자 평음형으로 변이형 통일화
17	발뒤꿈치	35.8	경음		거주지(지역, 도시) 출생지(도시) 부계거주지(지역)	서울거주자 평음 우세 서울출신(출생,부계) 평음 우세
18	땀가죽	35.5	경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1960년대 이전 출생자 평음형 우세 1960년대 이후 경음형 증가
19	막냇동생	35.2	경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거주지(지역, 도시) 출생지(지역, 도시) 모계거주지(지역, 도시) 최종학력	1950년대 이후 평음형 다수 서울거주자 평음 우세 서울출신(출생, 부계, 모계) 평음 우세 최종학력 대졸자 평음형 다수
20	밤사이	31.5	경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평음 실현율 60% 이상 1960년대 이후 출생자 평음형으로 변이형 통일화
21	당고개	27.5			연령(세대) 거주지(지역, 도시)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거주지(지역, 도시) 모계거주지(지역, 도시)	평음 실현율 70% 이상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출신 제보자의 상대적인 경음형 우세 1950년대 이후 출생자 평음 고정형
22	발자취	21.2	경음		거주지(지역, 도시)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거주지(지역, 도시) 모계거주지(도시)	평음 실현율 70% 이상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출신 제보자들의 경음화가 상대적으로 우세함.
23	발그림자	19.2	경음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평음 실현율 80% 이상 1950년대 이후 출생자 평음 고정형
24	산도깨비	18.9	경음	평음	고정적 평음형	배주채(2003:230)에서는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장소일 경우 사이시옷이 끼어들지만 '산도깨비'의 경음형은 예외라고 기술하고 있음.
25	섬곡식	16.6	경음	평음	성별 거주지(지역, 도시)	고정적 평음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경음화가 우세함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출신 제보자들의 경음화가 상대적으로 우세함.
26	상스럽다	15.8	경음	평음	고정적 평음형	고정적 평음
27	촌색시	15.5	경음	평음	고정적 평음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장소이지만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8	밤새	15.2	경음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고정적 평음
29	물그림자	14.9	경음	평음	고정적 평음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장소이지만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30	손도끼	10.3	경음	평음	거주지(지역, 도시)	고정적 평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경음실현형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31	촌샌님	6.0	경음	평음	고정적 평음형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장소이지만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32	막냇삼촌	5.4	경음	평음	거주지(지역)	고정적 평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경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33	날다람쥐	5.4	경음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고정적 평음 1970년대 이후 출생자의 경음화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34	생되다	3.7	경음	평음	거주지(도시)	고정적 평음. 서울에 거주하는 제보자들의 경음실현율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35	기름종이	5.2	평음	평음	고정적 평음	표준발음과 고정형 일치
36	치마저고리	8.6	평음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표준발음과 고정형 일치 1970년대 이후 출생자의 경음화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37	끌그물	13.0	평음	평음	고정적 평음	표준발음과 고정형 일치
38	일개미	14.0	평음	평음	고정적 평음	표준발음과 고정형 일치
39	솜바지	22.9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성별 출생지(도시)	평음 실현율 80% 이상 1960년대 이전 출생자 평음 고정형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화 증가 여성의 경음형 우세
40	사랑방	34.4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성별 출생지(도시, 지역) 최종학력	평음 실현율 60% 이상 1950년대 이전 출생자 평음형 우세. 195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화 증가 여성 경음형 우세 서울출생자 경음형 우세 대졸자 경음형 우세
41	회오리바람	38.7	평음		성별	평음 실현율 60% 이상 여성의 경음형 우세
42	방울등	38.7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평음 실현율 60% 이상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우세
43	먼지바람31)	39.8	평음		평음다수형	표준발음과 다수발음이 일치하는 경우.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재료일 경우 사이시옷이 개입하지 않는다.(배주채 200:231)
44	발장구	44.4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도시, 지역)	1960년대 이전 출생자 평음형 우세 197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평준화 서울 출신 제보자 경음형 우세
45	말장구	44.4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도시, 지역) 부계거주지(지역) 모계거주지(도시.지역)	1960년대 이전 출생자 평음형 우세 197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평준화 서울출신 제보자 경음형 우세
46	버선발	48.7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도시, 지역) 부계거주지(도시,지역) 모계거주지(도시.지역)	해방 이전 출생자 평음형 우세 194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우세 1960년대 이후 출생자 표준형(평음형) 증가 서울출신(출생, 부계, 모계) 제보자 경음형 우세
47	돌솥	50.1	평음		거주지(지역, 도시) 출생지(도시, 지역) 부계거주지(도시,지역) 모계거주지(도시.지역)	서울 출신 제보자 평음형 우세
48	봄소식	51.0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1970년대 이후 출생자 평음형 우세 해방 이전 출생자 경음형 우세

						(이 지역에서 경음형이 고정형일 수 있음. 배주채(2003:230)에서는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시간이면 사이시옷이 끼어드는 경우로 설명.) 197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표준형인 평음으로 표준화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임.
49	산들바람	51.9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해방 이전 출생자 평음 고정형 해방 이후 출생자 경음형 우세 국립국어원(1997)에서는 '산들바람'의 평음형을 실현한 제보자가 더 많다.
50	말장난	53.6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1960년대 이전 출생자 평음형 우세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평준화
51	양담배	56.2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197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평준화
52	소슬바람	57.0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195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평준화
53	움벌레	58.5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195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우세 197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평준화 서울 출생 제보자의 경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54	양념간장	60.2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성별	경음 실현율 60% 이상 195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평준화 여성의 경음형 우세
55	돌담	62.8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평준화
56	얼음주머니	64.2	평음		거주지(지역, 도시)	서울지역 거주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57	바퀴살	69.1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최종학력	경음우세형 산업화 세대 이후 경음형 평준화 대졸자 경음
58	밤벌레[32]	74.8	평음		경음 실현율 70% 이상	꿀꿀이바구미 애벌레의 명칭에 대한 표준발음은 평음. 해당 생물에 대해 언어사용자들이 '밤에 사는 벌레'로 해석할 경우 경음 실현 가능성이 있음.
59	반값	82.8	평음	경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모계거주지(지역,도시) 최종학력	경음고정형 해방이전출생자, 경음형과 평음형 경쟁 서울출신(출생,모계) 경음 대졸자 경음 '값':ㅅ전치성형태소(배주채 2003:227)
60	벽돌집	85.4	평음	경음	고정적 경음	김창섭(1996:63-64) : '집'을 ㅅ전치성형태소라고 본다..
61	미아리고개	86.5	평음	경음	거주지(지역) 출생지(지역)	경음고정형 서울지역 제보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62	동아줄	86.8	평음	경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거주지(지역) 모계거주지(지역)	경음 고정형 해방 이전 출생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제보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63	별점	93.4	평음	경음	고정적 경음	기존의 연구에서는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기원이나 소유주로 해석될 경우 사이시옷이 끼어드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고,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수단으로 해석될 경우 사이시옷이 끼어들지 않는다고 설명.
64	땅거미	94.3	평음	경음	고정적 경음	지역방언자료에 경음형 있음[33]

<한자어>

번호	어휘	경음 실현 율 (%)	표준 발음	다수 변이형	분석결과/ 사회적 요인	설명
1	진열대	95.4	경음	경음	고정적 경음	표준발음과 고정형 일치 한자음 ㄹㄷ연쇄의 경음화
2	삼팔선	94.8	경음	경음	고정적 경음	표준발음과 고정형 일치 한자음 ㄹㅅ연쇄의 경음화
3	백일재	86.0	경음	경음	출생지(지역,도시) 부계거주지(지역,도시) 모계거주지(지역,도시)	고정적 경음 인천 출생 제보자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4	후일담	79.1	경음	경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거주지(지역)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거주지(지역) 최종학력	해방 이후 출생자 경음 고정형 인천 거주 제보자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제보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종학력 대졸자들의 경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5	단결심	77.4	경음		거주지(지역,도시)	경음 실현율 70% 이상 서울 거주 제보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6	반발심	73.6	경음		거주지(지역,도시) 모계거주지(지역,도시)	경음 실현율 70% 이상 서울 거주 제보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7	고별전[34]	34.4	경음		평음 실현율 60% 이상	전(戰) :음절 이상의 한자어에서 'ㄹ'뒤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자어 형태소 표준발음이 평음인 '쟁탈전'과 표준발음이 경음인 '고별전'에 대한 제보자 집단의 경

27) P < 0.05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회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28) 방언자료집 경기도편과 국립국어원(1997)의 조사 자료에는 지역에서는 '오라버니댁'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진 어휘 항목에 대해 '올케', '오라범댁', '오라버니댁'. '동생댁' 등의 다양한 어휘적 변이형이 제시되어 있다.

29) P < 0.05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회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P < .01의 유의수준에서 제보자 최종 학력에 따라 경음화 실현에 차이가 있음(유의확률 .076). 고졸자 평음 우세.

30) P < 0.05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회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P < .01의 유의수준에서 제보자의 부계 거주지에 따라 경음화 실현에 차이가 있음(유의확률 .072). 제보자의 부계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평음 우세.
P < .01의 유의수준 제보자의 모계 거주지에 따라 경음화 실현에 차이가 있음(유의확률 .089). 제보자의 부계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평음 우세.

31) P < 0.05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회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P < .01의 유의수준에서 제보자의 거주지에 따라 경음화 실현에 차이가 있음(유의확률 .070). 서울 거주자의 평음 우세.

32) P < 0.05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회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P < .01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회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33) 방언자료집 경기도편(항목 I-551)에서 경기도 지역의 전통적인 '땅거미' 방언 자료를 보면 '땅거미'를 경음으로 발음한 지역으로 연천, 남양주가 있다.

						음형 실현 비율은 거의 같다.
8	함수	29.8	경음		거주지(도시)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거주지(지역) 모계거주지(지역, 도시)	평음 실현율 70% 이상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출신의 경음형이 상대적으로 우세
9	동가홍상	4.0	경음	평음	고정적 평음	
1	필연적	17.5	평음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거주지(지역, 도시) 모계거주지(지역, 도시) 최종학력	고정적 평음 여성의 상대적인 경음형 우세 1970년대 이후 출생자의 상대적인 경음형 우세 대졸자의 상대적인 경음형 우세
2	체증	21.2	평음	평음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거주지(지역, 도시) 모계거주지(지역, 도시) 최종학력	고정적 평음 서울 출신 제보자들의 경음화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3	음조	23.5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최종학력	평음 실현율 80% 이상 서울 출신 제보자들의 경음화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960년대 이후 출생자의 경음화 증가
4	선가(船價)	26.4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거주지(지역)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거주지(지역, 도시) 모계거주지(지역, 도시) 최종학력	평음 실현율 70% 이상 1960년대 이후 출생자의 경음형 증가 서울 출신 제보자들의 경음화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5	등기	32.1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성별 출생지(도시) 부계거주지(지역, 도시) 모계거주지(지역, 도시)	평음 실현율 60% 이상 1960년대 이후 출생자의 경음화 증가 여성의 경음화 우세 인천 출신 제보자의 경음화 우세
6	행려병자	32.7	평음		출생지(지역) 부계거주지(지역) 모계거주지(지역) 최종학력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들의 평음형 우세
7	쟁탈전	33.2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평음 실현율 60% 이상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경음화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戰) :음절 이상의 한자어에서 'ㄹ'뒤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자어 형태소(배주채 2003:276) 표준발음이 경음인 '고별전'과 표준발음이 평음인 '쟁탈전'에 대한 이 지역 제보자들의 경음 실현율은 거의 같다.
8	대과	45.8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최종학력	1960년대 이전 출생자 평음형 우세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우세 대졸자의 경음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9	열병	46.4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최종학력	1950년대 이전 출생자 평음형 우세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우세 서울 출신 제보자의 경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졸자의 경음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0	소과	46.7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모계거주지(지역) 최종학력	1960년대 이전 출생자는 평음형 우세 1960년대 이후 출생자는 경음형 우세 서울 출신 제보자의 경음 실현율이 높다. 대졸 제보자의 경음 실현율이 높다.
11	간단하다	49.0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성별	1950년대 이전 출생자는 평음형 우세 1960년대 이후 출생자에게서는 경음형이

					거주지(지역, 도시) 부계거주지(지역, 도시)	평음형보다 우세. 여성 제보자의 경음 실현율이 높다. 서울 출신 제보자의 평음 실현율이 높다.
12	십년공부	53.0	평음		거주지(지역, 도시)	서울 거주 제보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3	교과서	58.5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도시) 부계거주지(지역)	195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우세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제보자의 경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4	수입인지	59.0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1960년대 이전 출생자는 경음형 우세 1960년대 이후 출생자는 평음형 우세
15	불제자	59.3	평음		연령(연령, 세대)	19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경음화 평준화
16	생활담	62.2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한자음 ㄹㄷ연쇄의 경음화 1950년대 이후 출생자부터 경음형 실현 증가. 197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평준화.
17	감방	62.5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성별 거주지(지역, 도시) 부계거주지(지역,도시)	해방 이전 출생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성 제보자들의 경음 실현율이 높다. 서울 출신 제보자들의 경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 지역 출신 제보자들의 경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8	실세계	63.9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출생지(도시)	한자음 ㄹㅅ연쇄의 경음화 경음다수형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형 평준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 지역 출생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9	일출시	64.8	평음		경음 실현율 60% 이상	한자음 ㄹㅅ연쇄의 경음화
20	사살선	64.8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도시)	한자음 ㄹㅅ연쇄의 경음화 해방 이후 경음형 증가 경기 지역 출생자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1	반창고	73.9	평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거주지(도시)	경음 실현율 70% 이상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출신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방 이전 출생자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2	사십구일재[35]	74.2	평음		고정적 경음	한자음 ㄹㅈ연쇄의 경음화
23	실수요	79.9	평음	경음	고정적 경음	한자음 ㄹㅅ연쇄의 경음화
24	보온병	80.5	평음	경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성별	해방 이전 출생자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남성의 평음실현율이 여성에 비해 높다.
25	관건	85.4	평음	경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최종학력	해방 이전 출생자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고졸 이상 제보자 경음화
26	효과	88.8	평음	경음	고정적 경음	
27	수술대	89.1	평음	경음	고정적 경음	한자음 ㄹㅅ연쇄의 경음화
28	불법	90.8	평음	경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성별	해방 이전 출생자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남성의 평음 실현율이 여성에 비해 높다.
29	문과	91.7	평음	경음	고정적 경음	'科' : 항상 경음화되는 한자형태소(배주채 2003: 280)

34) $P < 0.05$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회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3.2.1 제보자의 성별과 어중경음화

다음은 제보자들의 성별에 의해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어휘 항목들이다.

(표 9)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에서 제보자의 성별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 항목 (P < .05)

어휘	성별	변이형	제보자(명)	성별 비율(%)	변이형 실현 비율(%)	카이제곱	유의확률	표준발음	고정적 변이형	설명
버선볼	남성	평음	99	66.0	48.3	5.72	0.017	경음		여성의 경음형 우세. (여성표준형)
		경음	51	34.0	35.4					
	여성	평음	106	53.3	51.7					
		경음	93	46.7	64.6					
섬곡식	남성	평음	133	88.7	45.7	5.30	0.021	경음	평음	평음 고정형. 여성의 경음형 우세. (여성표준형)
		경음	17	11.3	29.3					
	여성	평음	158	79.4	54.3					
		경음	41	20.6	70.7					
봄가물	남성	평음	64	42.7	35.0	10.62	0.005	경음		여성은 평음 우세, 남성은 경음 우세 (여성보수형)
		경음	82	54.7	52.6					
	여성	평음	119	59.8	65.0					
		경음	74	37.2	47.4					
발뒤꿈치	남성	평음	109	72.7	48.9	9.20	0.010	경음		전체 평음 우세. 여성의 경음형 우세. (여성표준형)
		경음	41	27.3	32.8					
	여성	평음	114	57.3	51.1					
		경음	84	42.2	67.2					
솜바지	남성	평음	126	84.0	47.0	8.03	0.018	평음		전체 평음 우세. 여성의 경음형 우세. (여성개신형)
		경음	24	16.0	30.0					
	여성	평음	142	71.4	53.0					
		경음	56	28.1	70.0					
양념간장	남성	평음	67	44.7	40.0	7.48	0.024	평음		전체 경음 우세 여성의 경음형 우세. (여성개신형)
		경음	83	55.3	39.5					
	여성	평음	67	33.7	50.0					
		경음	127	63.8	60.5					

P < .01의 유의 수준에서 제보자의 성별에 따라 경음화 실현에 차이가 있음(유의확률 .051). 남성 제보자의 평음 우세.

35) P < 0.05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회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P < .01의 유의수준에서 제보자의 거주지에 따라 경음화 실현에 차이가 있음(유의확률 .050). 서울 거주자의 경음 우세.

사랑방	남성	평음	109	72.7	47.6	5.79	0.016	평음		전체 평음 우세. 여성의 경음형 우세. (여성개신형)
		경음	41	27.3	34.2					
	여성	평음	120	60.3	52.4					
		경음	79	39.7	65.8					
회오리바람	남성	평음	103	68.7	48.7	5.98	0.014	평음		전체 평음 우세. 여성의 경음형 우세. (여성경음형)
		경음	47	31.3	34.8					
	여성	평음	111	55.8	51.9					
		경음	88	44.2	65.2					
감방	남성	평음	66	44.0	50.4	4.68	0.030	평음		전체 경음 우세 여성의 경음형 우세. (여성개신형)
		경음	84	56.0	38.5					
	여성	평음	65	32.7	49.6					
		경음	134	67.3	61.5					
간단하다	남성	평음	88	58.7	49.4	6.18	0.013	평음		여성의 경음형 우세. (여성개신형)
		경음	62	41.3	36.3					
	여성	평음	90	45.2	50.6					
		경음	109	54.8	63.7					
보온병	남성	평음	40	26.7	58.8	8.65	0.003	평음	경음	경음고정형. 여성의 경음형 우세. (여성개신형)
		경음	110	73.3	39.1					
	여성	평음	28	14.1	41.2					
		경음	171	85.9	60.9					
필연적	남성	평음	132	88.0	45.8	5.47	0.019	평음	평음	전체 평음 우세. 여성의 경음형 우세. (여성개신형)
		경음	18	12.0	29.5					
	여성	평음	156	78.4	54.2					
		경음	43	21.6	70.5					
등기	남성	평음	112	74.7	47.3	5.51	0.019	평음		전체 평음 우세. 여성의 경음형 우세. (여성개신형)
		경음	38	25.3	33.9					
	여성	평음	125	62.8	52.7					
		경음	74	37.2	66.1					
불법	남성	평음	25	16.7	78.1	17.75	0.000	평음	경음	경음고정형. 여성의 경음형 우세. (여성개신형)
		경음	125	83.3	39.4					
	여성	평음	7	3.5	21.9					
		경음	192	96.5	60.6					

(표 9)의 어휘 항목에서 여성의 평음실현율이 높은 '봄가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여성의 경음 실현율이 높다. (표 9)의 결과로는 어중경음화에서 여성이 표준발음을 지향한다고 보가 어려운데 (표 9)의 한자어 여섯 개 어휘는 모두 평음형이 표준발음이지만 여성들의 경음 실현율은 높게 나타나며, 고유어 '봄가물'의 경우는 표준발음이 경음형이지만 오히려 평음형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의 변이형 실현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언어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설은 "여성이 표준형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전남방언(강옥미 1998), 경북방언(백경원 1997)의 관찰 결과가 있고, 일본어에서도 여성의 경우 방언의 변화 방향이 남성에 비해 규범화에 가깝다는 관찰 결과가 있다(眞田信治 1992:22). 한국어의 여성

어의 특징을 다룬 민현식(1995)에서는 교양 과시와 신분상승의 욕구 때문에 여성이 표준음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성차별과 언어를 다룬 정해경(2003)에서는 여성이 표준어형을 지향하는 것에 대해 여성이 표준형에 더 가치를 부여하며, 여성의 변이형 통제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나다는 내용의 논평을 남기고 있다.

문제는 본고의 분석 결과로 볼 때 어중경음화에서 여성이 표준어형을 지향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관찰 결과로 보면 한자어와 고유어의 어중경음화에서 여성이 표준발음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여성의 경음형 실현비율이 어휘개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9)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우선 제보자 집단에서 어중경음화에 대해 규범문법의 인식도가 낮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즉, 한국어의 언어규범에서 어떤 복합어에서 경음화를 실현하는 것이 표준적 변이형 인지에 대해 제보자 집단 대다수의 인식이 낮고, 제보자 집단 내부 인식에서 오히려 경음화를 실현하는 것이 표준어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성의 표준지향성이 경음지향성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해석이다.

20세기 한국인들의 어문규범 인식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조사 시점 당시 중고생과 대학생들 각각 100여명을 대상으로 어문규범의 인지도를 조사한 조성문(2002)의 결과와 조사 시점 당시 서울 시내 대학 1학년생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신승용(2003), 국립국어원이 2005년에 실시한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성문(2002)에서 중학생의 어문규범 의식비율은 남학생 29%, 여학생 45%,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31.4%, 여학생 44.6%, 대학생의 경우 남학생 29.8%, 여학생 46.4%로 나타났다. 신승용(2003)은 대학생들의 표준발음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국립국어원(2005)의 조사 결과 어문규범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7.5%에 지나지 않는다. 국립국어원(2005)의 응답자 중 본고의 제보자 집단과 거주지 영역에서 일치하는 경인지역 응답자의 경우 17.0%가 어문규범을 알고 있고, 42.3%가 대충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인지역 응답자들은 어문규범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모른다는 비율도 2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조성문(2002)와 국립국어원(2005)를 근거로 든다면, 어중경음화 현상에 대한 이 지역의 표준발음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 젊은 세대에서 다수형으로 확산되는 경음 변이형이 여성의 경음 변이형 실현과 관련성이 있다는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어중경음화의 확산이 '어휘개별적'이고 '점진적'이라는 것이다. '봄가물'처럼 여성의 평음실현율이 높게 나타나는 어휘도 관찰되기 때문이다.

본고의 제보자 집단이 소속된 사회 전체가 표준형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여성 화자들이 표준형과 무관한 다수형을 사용한다는 해석에 대해 언어변이와 성차에 대한 사회언어학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생각해 보도록 한다. Labov(1990)에서는 지난 30년간의 사회언어학에서의 성차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 변이와 성차에 대한 세 가

지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Cheshire 2002:425-426)

원리 1. 고정적인 사회언어학적 계층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In stable sociolinguistic stratification) 남성은 여성보다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원리 1a. 위로부터의 변화에서(In change from above) 여성은 남성보다 규범적인 어형을 사용한다.
원리 2. 아래로부터의 변화에서(In change from below) 여성은 개신자의 역할을 한다.

Labov의 성차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표 9)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표 9)에서 변이형 실현 비율과 표준 발음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준발음이 경음인 '버선볼, 섬곡식, 봄가물, 발뒤꿈치'에서 '봄가물'을 제외하고 여성의 경음 실현율이 남성보다 높다. '섬곡식'은 전체 제보자의 80% 이상이 평음으로 실현한다고 응답한 평음 고정의 어휘인데, '섬곡식' 발음에서도 여성의 경음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봄가물'은 표준 발음이 경음인데 여성들에게 평음이 선호되는 어휘이다. 표준발음이 평음인 '솜바지, 양념간장, 사랑방, 회오리바람, 감방, 간단하다, 보온병, 필연적, 등기, 불법'은 여성의 경음 실현이 남성에 비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는 어휘들이다. 이 어휘들로 보면 어중경음화의 변이형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형을 선호한다는 설명은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표 9)의 어중경음화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Labov(1990)의 원리와 무관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우선 20세기의 수도권 지역 사회에서 고정적인 사회언어학적 계층화가 유지되지 않았으리라는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고정적인 사회언어학적 계층화가 유지되는 사회는 동일한 사회 계층 안에서 부모 세대가 사용하는 변이형과 자녀 세대가 사용하는 변이형에 차이가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no change across age). 그러나 3.3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지역의 어중경음화의 변이형 실현에서 가장 큰 차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요소는 제보자의 연령과 관련된 요소들이다. 따라서 20세기 수도권 지역 언어 사회는 고정적인 사회언어학적 계층화가 유지되는 사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20세기 한국 사회의 계층에 대해 논의한 사회학의 연구인 신광영(2004)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지금에 이르는 100년 동안 한국사회가 고정적인 계층 구조를 유지한 사회라기보다는 역동적인 사회변동이 일어나서 사회 구조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세기 수도권 언어 사회에서에서 성차에 의해 발생하는 변이형 차이를 Labov의 성차에 관한 원리 1번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Labov의 원리 2번을 보도록 한다. 수도권 지역 언어사회에서 여성의 어중경음화의 경음화 우세 경향성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여성이 개신자(innovator) 역할을 한다는 해석은 가능한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여기서 Labov의 '위와 아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위로부터의 변화(change from above)는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규범형의 확산을 가리키는 표

현이고 아래로부터의 변화(change from below)는 일상적인 발화, 지역방언 어형의 확산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위로부터의 변화가 언어 사회 구성원들이 언어 사회 외부의 특권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변화라면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언어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서 해당 변이형이 언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언어 사회의 특징으로 인식되면서 확산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Labov(1994:79)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대해 "어느 사회계층에서도 개신이 일어날 수 있다(May be introduced by any social class)"고 표현한다.

Labov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표 9)의 내용을 보면 여성의 어중경음화 경향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 언중들의 어문규범 인식도가 대단히 낮다고는 하지만 20세기의 이 지역의 언어생활에서 표준발음에 어긋나는 경음화에 대해 사회의 상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36]. 민현식(1995)나 정해경(2003)의 해석대로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에 있어서 여성들이 이념적인 배경에 의해 위세형(prestigious form)을 지향한다면 (표 9)의 어휘 항목에 대해 여성들은 스스로 학습을 해서라도 표준발음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결과로 보면 여성 제보자들은 표준발음으로 인정받은 변이형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어변화를 반영하는 변이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본고의 제보자 집단에서 여성이 주로 어중경음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이며 어휘개별적이고 점진적으로 현재 변화를 겪고 있는 진행 중인 음운 변화(change in progress)라는 해

3.2.2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과 어중경음화

다음은 각 어휘별 어중경음화 실현 양상과 지역적 배경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1의 고정적 변이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적 배경은 언어사회의 분화와 연

36) 국어 관련 인사들이 표준발음에 어긋난 된소리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을 담은 신문 기사들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글운동단체인 「고운이름 한글이름」 회장이자 한국땅이름학회 부회장인 배우리씨(54)는 546돌 한글날을 맞아 조사한 자료를 8일 공개, 우리말이 된소리가 늘면서 거칠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회장은 80년대 이후, 된소리 사용이 늘기 시작, 최근엔 한글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한국일보 1992-10-09)

"내 귀에만 그렇게 들리고, 나만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요즈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된소리를 내지 말아야 할 자리에 된소리를 내는 습관이 날로 더해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남기심 : 한겨레신문 1995-11-07)"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사회가 복잡·다양화하며 경음화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규범적 교육으로만 경음화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며 "현 규범과 새로운 변화 사이의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일보 2005-10-07)

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연구에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언어외적요인이다. 3.2.2에서 다룰 분석 결과는 어중경음화의 실현양상과 지역방언의 관련성을 알려주는 근거가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지역적 요인은 제보자의 현재 거주지(도시별, 지역별), 제보자의 출생지(도시별, 지역별), 제보자의 부계 선대 거주지(도시별, 지역별), 제보자의 모계 선대 거주지(도시별, 지역별)이다. 여기에 도시별 구분은 서울, 인천, 경기로 분석하고, 지역별 구분은 서울 출신이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사람들로 구분하였다.

우선 제보자의 거주지에 따라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에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이다. 개별 어휘에 대한 응답수와 경음 실현율, 카이제곱값과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개별 어휘별 어중경음화 실현의 차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본고의 <부록 1 -(1)>과 <부록 1-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은 <부록 1>의 (1)과 (2)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표 10) 제보자들의 거주지에 따라 어중 경음화 실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 항목 (P < .05)

번호	어휘	경음 실현율 (%)	지역별 유의확률	도시별 유의확률	변이형	표준 발음	고정형	어종	다른 사회적 요인과의 비교
1	미아리고개	86.5	0.003	NS	경기 경음	평음	경음	고유어	서울출신(출생) 평음 우세
2	얼음주머니	64.2	0.024	0.024	서울 평음	평음		고유어	P < 0.05의 유의 수준에서 거주지 요인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3	돌솥	50.1	0.006	0.000	서울 평음	평음		고유어	서울출신(출생, 부계, 모계) 평음 우세
4	사발술	39.8	0.001	0.001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인천지역거주자 경음 우세 인천지역출생자 경음 우세 서울출신(출생, 부계, 모계) 평음 우세
5	날갯짓	37.2	0.001	NS	서울 경음	경음		고유어	서울출신(출생, 부계, 모계) 경음 우세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우세
6	속임수	36.1	NS	0.018	서울 경음	경음		고유어	1950년대 이후 출생자 평음 다수형 서울 제외 수도권 지역 출신(부계, 모계) 평음 다수형
7	발뒤꿈치	35.8	0.001	0.000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서울출신(출생,부계) 평음 우세
8	막냇동생	35.2	0.007	0.026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1950년대 이후 평음형 다수 서울출신(출생, 부계, 모계) 평음 우세 최종학력 대졸자 평음형 다수
9	당고개	27.5	0.000	0.000	서울 평음			고유어	서울출신(출생, 부계, 모계) 평음 우세 1950년대 이후 출생자 평음고정형
10	발자취	21.2	0.002	0.001	서울	경음		고유어	서울출신(출생, 부계, 모계) 평음 우세

					평음				
11	섬곡식	16.6	0.012	0.002	서울 평음	경음	평음	고유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경음화가 우세함
12	손도끼	10.3	0.036	0.035	서울 평음	경음	평음	고유어	P < 0.05의 유의 수준에서 거주지 요인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13	막냇삼촌	5.4	0.018	NS	서울 평음	경음	평음	고유어	P < 0.05의 유의 수준에서 거주지 요인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14	생되다	3.7	NS	0.019	서울 평음	경음	평음	고유어	P < 0.05의 유의 수준에서 거주지 요인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15	선가	26.4	0.000	NS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1960년대 이후 출생자의 경음형 증가 서울 출신 제보자들의 경음화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6	함수	29.8	NS	0.038	서울 평음	경음		한자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출신의 경음형이 상대적으로 우세
17	간단하다	49.0	0.019	0.017	서울 평음	평음		한자어	1950년대 이전 출생자는 평음 다수형, 1960년대 이후 출생자에게서는 경음형이 우세. 여성 제보자의 경음 실현율이 높다. 서울 출신 제보자(부계)의 평음 실현율이 높다.
18	십년공부	53.0	0.004	0.036	서울 평음	평음		한자어	P < 0.05의 유의 수준에서 거주지 요인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19	감방	62.5	0.023	0.028	서 울 평음	평음		한자어	해방 이전 출생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성의 경음 실현율이 높다. 서울 출신 제보자들의 경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 지역 출신 제보자들의 경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0	반발심	73.6	0.009	0.001	서 울 평음	경음		한자어	서울출신제보자(모계)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1	반창고	73.9	NS	0.007	서 울 평음	평음		한자어	해방 이전 출생자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2	단결심	77.4	0.032	0.008	서 울 평음	경음		한자어	P < 0.05의 유의 수준에서 거주지 요인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23	후일담	79.1	0.013	NS	인 천 평음	경음	경음	한자어	해방 이후 출생자 경음 고정형 서울제외 수도권 지역 제보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종학력 대졸자들의 경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NS = No Significance = 유의성 없다 =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표 10)을 통해 알 수 있는 수도권 출신 제보자들의 거주지 요인과 어중 경음화의 관련성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제보자의 거주지 요인은 제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변이형 실현의 경향성을 알려준다는 특징을 지닌다. 제보자의 출생지 요인에 의해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있는 어휘들은 '이전부터 계속 그 변이형이 이 지역에서 우세하였다'는 추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제보자의 거주지 요인에 의해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있는 어휘들은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변이형은 이러하다'는 추정의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제보자의 출생지 요인에 의한 변이형 실현 양상과 거주지 요인에 의한 변이형 실현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서울 거주 제보자의 변이형 실현 경향은 서울 출생 제보자의 변이형 실현 경향과 다르다. (표 11)은 제보자들의 거주지와 출생지별 어중경음화 실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들이다.

(표 11) 제보자 거주지/ 출생지별 어중 경음화 실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 항목 ($P < .05$)

번호	어휘	경음 실현율 (%)	출생지		거주지		변이형	표준 발음	고정형	어종
			지역별 유의확률	도시별 유의확률	지역별 유의확률	도시별 유의확률				
1	동아줄	86.8	0.002	0.009	NS	NS	서울 경음	평음	경음	고유어
2	미아리고개	86.5	0.024	NS	0.003	NS	서울 평음	평음	경음	고유어
3	반값	82.8	0.022	0.010	NS	NS	서울 경음	평음	경음	고유어
4	얼음주머니	64.2	NS	NS	0.024	0.024	서울 평음	평음		고유어
5	술주정	62.8	0.030	0.017	NS	NS	서울 경음	경음		고유어
6	옴벌레	58.5	0.024	NS	NS	NS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7	말장구	53.6	0.005	0.002	NS	NS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8	돌솥	50.1	0.001	0.003	0.006	0.000	서울 평음	평음		고유어
9	버선발	48.7	0.000	0.000	NS	NS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10	봄가뭄	44.7	0.001	0.003	NS	NS	서울 경음	경음		고유어
11	발장구	44.4	0.003	0.004	NS	NS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12	발짐작	40.4	NS	0.007	NS	NS	경기 평음	경음		고유어
13	사발술	39.8	0.006	0.001	0.001	0.001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14	날갯짓	37.2	0.020	0.025	0.001	NS	서울 경음	경음		고유어
15	속임수	36.1	NS	NS	NS	0.018	서울 경음	경음		고유어
16	발뒤꿈치	35.8	NS	0.039	0.001	0.000	경기 경음	경음		고유어
17	인기척	35.8	0.022	NS	NS	NS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18	막냇동생	35.2	0.001	0.000	0.007	0.026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19	사랑방	34.4	0.003	0.002	NS	NS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20	당고개	27.5	0.000	0.000	0.000	0.000	서울 평음			고유어
21	솜바지	22.9	NS	0.006	NS	NS	경기 평음	평음		고유어
22	발자취	21.2	0.002	0.002	0.002	0.001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23	섬곡식	16.6	NS	NS	0.012	0.002	서울 평음	경음	평음	고유어
24	손도끼	10.3	NS	NS	0.036	0.035	서울 평음	경음	평음	고유어

25	막냇삼촌	5.4	NS	NS	0.018	NS	서울 평음	평음	평음	고유어
26	생되다	3.7	NS	NS	NS	0.019	서울 평음	경음	평음	고유어
27	체중	21.2	0.000	0.002	NS	NS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28	음조	23.5	0.006	0.019	NS	NS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29	선가	26.4	0.000	0.000	0.000	NS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30	함수	29.8	0.002	0.005	NS	0.038	서울 평음	경음		한자어
31	등기	32.1	NS	0.000	NS	NS	인천 경음	평음		한자어
32	행려병자	32.7	0.021	NS	NS	NS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33	쟁탈전	33.2	0.036	NS	NS	NS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34	열병	46.4	0.000	0.000	NS	NS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35	소과	46.7	0.004	0.008	NS	NS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36	간단하다	49.0	NS	NS	0.019	0.017	서울 평음	평음		한자어
37	십년공부	53.0	NS	NS	0.004	0.036	서울 평음	평음		한자어
38	교과서	58.5	NS	0.020	NS	NS	경기 경음	평음		한자어
39	감방	62.5	NS	NS	0.023	0.028	서울 평음	평음		한자어
40	실세계	63.9	NS	0.008	NS	NS	경기 평음	평음		한자어
41	사살선	64.8	NS	0.025	NS	NS	경기 평음	평음		한자어
42	반발심	73.6	NS	NS	0.009	0.001	서울 평음	경음		한자어
43	반창고	73.9	NS	NS	NS	0.007	서울 평음	평음		한자어
44	단결심	77.4	NS	NS	0.032	0.008	서울 평음	경음		한자어
45	후일담	79.1	0.007	0.020	0.013	NS	서울 경음	경음	경음	한자어
46	백일재	86.0	0.001	0.000	NS	NS	서울 경음	경음	경음	한자어

(NS = No Significance = 유의성 없다 =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표 11)에서 출생지 요인과 거주지 요인에서 지역과 도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어휘는 '당고개, 사발술, 돌솥, 막냇동생, 발자취'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체적으로 경음 실현율이 낮은 고유어로 서울 거주/출생 제보자들에게서 평음 실현율이 더 높게 나왔다는 특징이 있다.

제보자의 출생지 요인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의 공통점은 대체로 해당 어휘 항목에 대해 서울에서 태어난 제보자들의 경음형 실현율이 높다는 점이다. 반면에 제보자의 거주지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를 보면 서울 거주자들의 평음 실현율이 높게 나타난다.

고정적 변이형을 제외하고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과 변이형 실현에서만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어휘들은 '발자취(서울 평음), 발뒤꿈치(서울 평음), 사발술(서울 평음), 발집작(경기 평음), 돌솥(서울 평음), 얼음주머니(서울 평음), 단결심(서울 평음), 반발심(서울 평음), 십년공부(서울 평음), 함수(서울 평음)'이다. 이 어휘 항목들은 모두 서울 출신 제보자들의 변이형 실현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중경음화의 변이형 실현에 지역방언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변이형 실현에서 지역적 요인과 다른 사회적 요인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서울 지역 제보자들의 변이형이 젊은 세대의 변이형 실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

다.

<고유어>
당고개(서울 평음/ 1950년대 이후 출생자 평음)
사랑방(서울 경음/여성 경음/ 195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대졸 경음)
막냇동생(서울 평음/ 1950년대 이후 출생자 평음/ 대졸 평음)
인기척(서울 평음/ 1960년대 이후 출생자 평음)
날갯짓(서울 경음/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봄가뭄(서울 경음/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버선발(서울 경음/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술주정(서울 경음/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말장구(서울 경음/ 197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한자어>
사살선(서울 경음/ 195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선가(서울 경음/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소과(서울 경음/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실세계(서울 경음/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열병(서울 경음/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음조(서울 경음/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예외>
속임수(서울 경음/1950년대 이후 출생자 평음)
간단하다(서울 평음/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교과서(서울 평음/195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등기(인천 경음/1960년대 이후 출생자 경음)

3.2.4에서 제보자의 연령 요인에 대해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젊은 세대의 변이형 실현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은 해당 언어 사회의 변이형 실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중경음화의 변이형 실현에서 연령 요인과 지역적 요인을 비교했을 때 서울 지역 제보자들의 변이형 실현 경향성이 20세기 후반에 태어난 제보자 집단의 변이형 실현 경향성과 유사하다는 점은 본고의 분석 대상 제보자 집단 중 서울 지역 제보자들이 가장 개신형에 가깝다는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사회적 요인과 무관하게 서울 출신/서울 거주 제보자들만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 특성을 보면 해당 어휘(미아리고개, 돌솔, 사발술, 발뒤꿈치, 막냇동생, 당고개, 발자취, 함수, 감방, 반발심)에 대해 서울 지역 제보자들의 변이형 실현은 평음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고의 분석 대상 제보자 집단만으로 한정해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어중경음화의 변이형 실현에서 새로운 흐름을 이끄는 지역구성원들은 서울 지역 제보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등기'의 예처럼 인천 지역 제보자들이 변이형 실현에서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과 상이한 변이형 실현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서울과 그 주변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분석해 본다면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에서 도시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리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지역적 요인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 어중경음화 변이형의 총 목록이다.

(표 12)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중 경음화 변이형 목록(가나다순)

번호	어휘	구분	지역별 유의 확률	도시별 유의 확률	변이형	표준 발음	고정형	어종
1	간단하다	부계거주지	0.001	0.009	서울 평음	평음		한자어
		현 거주지	0.019	0.017	서울 평음	평음		한자어
2	감방	부계거주지	0.018	0.012	서울 평음	평음		한자어
		현 거주지	0.023	0.028	서울 평음	평음		한자어
3	교과서	부계거주지	0.017	NS	서울 평음	평음		한자어
		출생지	NS	0.02	서울 평음	평음		한자어
4	날갯짓	모계거주지	0.001	0.007	서울 경음	경음		고유어
		거주지	0.001	NS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부계거주지	0.013	0.021	서울 경음	경음		고유어
		출생지	0.020	0.025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5	단결심	현 거주지	0.032	0.008	서울 평음	경음		한자어
6	돌솥	부계거주지	0.001	0.001	서울 평음	평음		고유어
		출생지	0.001	0.015	서울 평음	평음		고유어
		모계거주지	0.006	0.000	서울 평음	평음		고유어
		현 거주지	0.002	0.009	서울 평음	평음		고유어
7	동아줄	출생지	0.002	0.009	서울 경음	평음	경음	고유어
		부계거주지	0.007	NS	서울 경음	평음	경음	고유어
		모계거주지	0.032	NS	서울 경음	평음	경음	고유어
8	등기	출생지	NS	0.000	인천 경음	평음		한자어
		모계거주지	NS	0.003	인천 경음	평음		한자어
		부계거주지	NS	0.008	인천 경음	평음		한자어
9	막냇동생	출생지	0.001	0.000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현 거주지	0.001	0.026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모계거주지	0.001	0.003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부계거주지	0.030	NS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10	막냇삼촌	현 거주지	NS	0.018	서울 평음	경음	평음	고유어
11	말장구	출생지	0.005	0.002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모계거주지	0.019	0.037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부계거주지	0.03	NS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12	미아리고개	현 거주지	0.003	NS	서울 평음	평음	경음	고유어
		출생지	0.024	NS	서울 평음	평음	경음	고유어
13	반값	모계거주지	0.008	0.002	서울 경음	평음	경음	고유어
		출생지	0.022	0.010	서울 경음	평음	경음	고유어
14	반발심	부계거주지	0.002	NS	서울 평음	경음		한자어
		모계거주지	0.006	NS	서울 평음	경음		한자어
		현 거주지	0.009	0.001	서울 평음	경음		한자어
15	반창고	현 거주지	NS	0.007	서울 평음	평음		한자어
16	발뒤꿈치	현 거주지	0.001	0.000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부계거주지	0.012	NS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출생지	NS	0.039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17	발자취	현 거주지	0.002	0.001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출생지	0.002	0.002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부계거주지	0.016	0.014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모계거주지	0.022	NS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18	발장구	출생지	0.003	0.004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19	발짐작	출생지	NS	0.021	경기 평음	경음		고유어
20	백일재	모계거주지	0.000	0.004	서울 경음	경음	경음	한자어
		출생지	0.001	0.000	서울 경음	경음	경음	한자어
		부계거주지	0.024	0.000	서울 경음	경음	경음	한자어
21	버선발	출생지	0.000	0.000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모계거주지	0.000	0.001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부계거주지	0.005	0.023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22	봄가물	출생지	0.001	0.003	서울 경음	경음		고유어
		부계거주지	0.016	NS	서울 경음	경음		고유어
23	사랑방	출생지	0.003	0.002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24	사발술	현 거주지	0.001	0.001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부계거주지	0.002	0.002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출생지	0.006	0.001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모계거주지	0.013	0.001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25	사살선	출생지	NS	0.025	경기 평음	평음		한자어
26	생되다	거주지	NS	0.019	서울 평음	경음	평음	고유어
27	선가	출생지	0.000	0.000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모계거주지	0.000	0.000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부계거주지	0.000	0.000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현 거주지	0.000	NS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28	섬곡식	현 거주지	0.012	0.002	서울 평음	경음	평음	고유어
29	소과	출생지	0.004	0.008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모계거주지	0.011	NS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30	속임수	부계거주지	0.002	0.017	서울 경음	경음		고유어
		모계거주지	0.009	NS	서울 경음	경음		고유어

		현 거주지	NS	0.018	서울 경음	경음		고유어
31	손도끼	현 거주지	0.036	0.035	서울 평음	경음	평음	고유어
32	솜바지	출생지	NS	0.006	경기 평음	평음		고유어
33	술주정	출생지	0.015	0.017	서울 경음	경음		고유어
34	실세계	출생지	NS	0.008	경기 평음	평음		한자어
35	얼음주머니	현 거주지	0.024	0.024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36	열병	출생지	0.000	0.000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37	옴벌레	출생지	0.024	NS	서울 경음	평음		고유어
38	음조	출생지	0.006	0.019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39	인기척	출생지	0.022	NS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모계거주지	0.027	NS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40	쟁탈전	모계거주지	0.006	NS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출생지	0.036	NS	서울 평음	경음		고유어
41	체증	부계거주지	0.000	0.000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출생지	0.000	0.002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모계거주지	0.000	0.003	서울 경음	평음		한자어
42	함수	출생지	0.002	0.005	서울 평음	경음		한자어
		모계거주지	0.027	0.004	서울 평음	경음		한자어
		부계거주지	0.027	NS	서울 평음	경음		한자어
		현 거주지	NS	0.038	서울 평음	경음		한자어
43	행려병자	모계거주지	0.011	NS	서울 경음	평음	평음	한자어
		부계거주지	0.019	NS	서울 경음	평음	평음	한자어
		출생지	0.021	NS	서울 경음	평음	평음	한자어
44	후일담	출생지	0.007	0.020	서울 경음	경음		한자어
		현 거주지	0.013	NS	인천 평음	경음		한자어
		부계거주지	0.013	NS	인천 평음	경음		한자어
45	당고개	출생지	0.000	0.000	서울 평음			고유어
		현 거주지	0.000	0.000	서울 평음	없음		고유어
		부계거주지	0.010	0.003	서울 평음	없음		고유어
		모계거주지	0.002	0.003	서울 평음	없음		고유어
46	십년공부	현거주지	0.004	0.036	서울 평음	평음		한자어

(P < .05 / NS = No Significance = 유의성 없다 =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표 12)의 46개 어휘에 대한 내용 분석은 제보자의 거주지 요인, 제보자의 출생지 요인, 제보자의 선대 거주지 요인의 분석 결과이다. (표 12)의 어휘 항목들을 파악해보면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에 의한 수도권 지역의 어중 경음화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언어사용자들은 어중경음화에 대해 각 지역별로 다수형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3)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제보자들 80% 이상이 선택한 다수형들이다.

(표 13)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제보자의 거주지와 출생지별 어중 경음화 다수 변이형 목록

도시	어휘	다수형(실현비율)	표준 발음	지역적 요인
서울	미아리고개	경음(85.9%)	평음	제보자 거주지
	섬곡식	평음(89.1%)	경음	제보자 거주지
	손도끼	평음(92.0%)	경음	제보자 거주지
	눈물방울	경음(81.0%)	경음	제보자 거주지
	발자취	평음(84.3%)	경음	제보자 거주지
		평음(84.9%)	경음	제보자 출생지
	동아줄	경음(92.2%)	평음	제보자 출생지
	반값	경음(87.0%)	평음	제보자 출생지
	후일담	경음(84.4%)	경음	제보자 출생지
	백일재	경음(91.7%)	경음	제보자 출생지
	당고개	평음(80.2%)	없음	제보자 출생지

도시	어휘	다수형(실현비율)	표준 발음	지역적 요인
인천	미아리고개	경음(86.3%)	평음	제보자 거주지
	선가	평음(87.5%)	평음	제보자 거주지
	손도끼	평음(81.3%)	경음	제보자 거주지
	단결심	경음(86.3%)	경음	제보자 거주지
	반발심	경음(93.8%)	경음	제보자 거주지
	동아줄	경음(83.3%)	평음	제보자 출생지
	반값	경음(84.8%)	평음	제보자 출생지
	음조	평음(83.3%)	평음	제보자 출생지
	선가	평음(84.8%)	평음	제보자 출생지
	체증	평음(84.8%)	평음	제보자 출생지

도시	어휘	다수형(실현비율)	표준 발음	지역적 요인
경기 지역	미아리고개	경음(90.4%)	평음	제보자 거주지
	선가	평음(80.7%)	평음	제보자 거주지
	사십구일재	평음(80.7%)	평음	제보자 거주지
	손도끼	평음(90.4%)	경음	제보자 거주지
	눈물방울	경음(88.0%)	경음	제보자 거주지
	후일담	경음(89.2%)	경음	제보자 거주지
	단결심	경음(81.9%)	경음	제보자 거주지
	동아줄	경음(83.3%)	평음	제보자 출생지
	사랑방	평음(80.2%)	평음	제보자 출생지
	솜바지	평음(89.0%)	평음	제보자 출생지
	선가	평음(91.2%)	평음	제보자 출생지
	체증	평음(89.0%)	평음	제보자 출생지
	백일재	경음(85.7%)	경음	제보자 출생지

(표 13)을 보면 이 지역의 공통된 다수형과 각 도시별 다수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공통된 다수형으로 표준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고정적 변이형은 '미아리고개, 손도끼, 동아줄'이다. 이 세 어휘를 제외하고는 각 도시별로 다수형으로 보이는 어휘들에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사람들의 어중 경음화 실현 유형에는 동일한 어휘에서도 도시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서울 제보자들과 인천, 경기 제보자들의 변이형 실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경기 지역 제보자들과 인천 지역 제보자들의 변이형 실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 차이를 사회언어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별로 언어 행동과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복합어 환경의 어중경음화의 변이형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언어 사회에 따라서 변이형을 실현하는 데 상이한 내적 규범(norm)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3 제보자의 최종 학력과 어중경음화

이 절에서는 본고에서 설정한 최종 학력에 의한 어중 경음화의 교차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 학력은 3.1절의 전체 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회적 요인으로 이미 다룬 것이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보자의 최종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 14)의 15개 어휘는 제보자의 최종 학력에 따라서 어중경음화의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있다고 파악된 경우이다.

(표 14) 제보자의 최종 학력에 따라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 항목

어휘	최종 학력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비율 (%)	카이제곱	유의확률	표준발음	고정형
바퀴살	초졸	평음	4	26.7	3.7	27.95	0.000	평음	없음
		경음	10	66.7	4.1				
	중졸	평음	15	44.1	14.0				
		경음	19	55.9	7.9				
	고졸	평음	47	33.8	43.9				
		경음	92	66.2	38.2				
	대졸	평음	41	25.5	38.3				
		경음	120	74.5	49.8				
반값	초졸	평음	9	60.0	15.0	36.75	0.000	평음	경음
		경음	6	40.0	2.1				
	중졸	평음	12	35.3	20.0				
		경음	22	64.7	7.6				
	고졸	평음	26	18.7	43.3				
		경음	113	81.3	39.1				
	대졸	평음	13	8.1	21.7				
		경음	148	91.9	51.2				
버선발	초졸	평음	12	80.0	6.7	18.17	0.000	평음	없음

		경음	3	20.0	1.8				
	중졸	평음	26	76.5	14.5				
		경음	8	23.5	4.7				
	고졸	평음	72	51.8	38.5				
		경음	67	48.2	54.1				
	대졸	평음	69	42.9	40.2				
		경음	92	57.1	39.4				
사랑방	초졸	평음	13	86.7	5.7	17.87	0.000	평음	없음
		경음	2	13.3	1.7				
	중졸	평음	29	85.3	12.7				
		경음	5	14.7	4.2				
	고졸	평음	98	70.5	42.8				
		경음	41	29.5	34.2				
	대졸	평음	89	55.3	38.9				
		경음	72	44.7	60.0				
행려병자	초졸	평음	14	93.3	6.0	19.07	0.004	평음	없음
		경음	1	6.7	.9				
	중졸	평음	30	88.2	12.8				
		경음	4	11.8	3.5				
	고졸	평음	96	69.1	41.0				
		경음	42	30.2	36.8				
	대졸	평음	94	58.4	40.2				
		경음	67	41.6	58.8				
음조	초졸	평음	15	100.0	5.6	21.14	0.002	평음	평음
		경음	0	0	0				
	중졸	평음	32	94.1	12.0				
		경음	2	5.9	2.4				
	고졸	평음	112	80.6	42.1				
		경음	27	19.4	32.9				
	대졸	평음	107	66.5	40.2				
		경음	53	32.9	64.6				
관건	초졸	평음	7	46.7	13.7	26.54	0.000	평음	경음
		경음	8	53.3	2.7				
	중졸	평음	10	29.4	19.6				
		경음	24	70.6	8.1				
	고졸	평음	23	16.5	45.1				
		경음	116	83.5	38.9				
	대졸	평음	11	6.8	21.6				
		경음	150	93.2	50.3				
선가	초졸	평음	14	93.3	5.4	33.48	0.000	평음	평음
		경음	1	6.7	1.1				
	중졸	평음	34	100.0	13.2				
		경음	0	0	0				

	고졸	평음	112	80.6	43.6				
		경음	27	19.4	29.3				
	대졸	평음	97	60.2	37.7				
		경음	64	39.8	69.6				
열병	초졸	평음	12	80.0	6.4	12.91	0.005	평음	없음
		경음	3	20.0	1.9				
	중졸	평음	24	70.6	12.8				
		경음	10	29.4	6.2				
	고졸	평음	78	56.1	41.7				
		경음	61	43.9	37.7				
	대졸	평음	73	45.3	39.0				
		경음	88	54.7	54.3				
대과	초졸	평음	11	73.3	5.8	14.69	0.002	평음	없음
		경음	4	26.7	2.5				
	중졸	평음	27	79.4	14.3				
		경음	7	20.6	4.4				
	고졸	평음	76	54.7	40.2				
		경음	63	45.3	39.4				
	대졸	평음	75	46.6	39.7				
		경음	86	53.4	53.8				
소과	초졸	평음	14	93.3	7.5	41.01	0.000	평음	없음
		경음	1	6.7	.6				
	중졸	평음	27	79.4	14.5				
		경음	7	20.6	4.3				
	고졸	평음	86	61.9	46.2				
		경음	53	38.1	32.5				
	대졸	평음	59	36.6	31.7				
		경음	102	63.4	62.6				
체증	초졸	평음	14	93.3	5.1	22.34	0.000	평음	평음
		경음	1	6.7	1.4				
	중졸	평음	33	97.1	12.0				
		경음	1	2.9	1.4				
	고졸	평음	118	84.9	42.9				
		경음	21	15.1	28.4				
	대졸	평음	110	68.3	40.0				
		경음	51	31.7	68.9				
발자취	초졸	평음	8	53.3	2.9	16.21	0.001	경음	평음
		경음	7	46.7	9.5				
	중졸	평음	20	58.8	7.3				
		경음	14	41.2	18.9				
	고졸	평음	115	82.7	41.8				
		경음	24	17.3	32.4				
	대졸	평음	132	82.0	48.0				

		경음	29	18.0	39.2			
막냇동생	초졸	평음	1	6.7	.5	39.73	0.000	경음	없음
		경음	14	93.3	11.4				
	중졸	평음	19	55.9	8.6				
		경음	15	44.1	12.2				
	고졸	평음	79	56.8	35.7				
		경음	59	42.4	48.0				
	대졸	평음	122	76.3	55.2				
		경음	35	21.9	28.5				
후일담	초졸	평음	8	53.3	11.0	32.96	0.000	경음	경음
		경음	7	46.7	2.5				
	중졸	평음	16	47.1	21.9				
		경음	18	52.9	6.5				
	고졸	평음	31	22.3	42.5				
		경음	108	77.7	39.1				
	대졸	평음	18	11.2	24.7				
		경음	143	88.8	51.8				

(P < .05)

(표 14)는 초졸자와 중졸자의 변이형 실현 경향과 대졸자의 변이형 실현 경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초졸자와 중졸자들이 평음으로 실현하는 어휘에 대해서 대졸자들은 경음으로 실현한다. 초졸자와 중졸자들은 대체로 표준발음을 지키고 있으며 고정형이 표준 발음과 상이한 경우(발자취)에도 초졸자와 중졸자들은 표준발음에 가까운 발음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대졸자들은 표준발음과 상관없이 경음화를 실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음조, 선가, 체증' 처럼 고정형이 평음인 경우에도 대졸자들은 경음화를 실현하고 있다.

제보자와 학력과 경음화의 관련성 분석 결과에 의해 알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자.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표준 발음의 기준이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의 발음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발음을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보자의 최종 학력과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 차이와 도시별 제보자 출생지와 어중 경음화 실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 지역의 대졸자들의 변이형 실현 유형과 서울 출생자들의 변이형 실현 유형에 유사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2)는 대졸자의 변이형 실현 유형과 서울 출생자의 변이형 실현 유형에서 공통점이 있는 어휘들을 모은 것이다.

(2) 대졸자와 서울 출생자들의 변이형 실현 유형이 유사한 경우

어휘	대졸자 변이형	서울 출생 변이형	표준발음	고정형

막냇동생	평음	평음	경음	없음
반값	경음	경음	평음	경음
발자취	평음	평음	경음	평음
버선발	경음	경음	평음	없음
사랑방	경음	경음	평음	없음
선가	경음	경음	평음	평음
열병	경음	경음	평음	없음
소과	경음	경음	평음	없음
음조	경음	경음	평음	경음
체증	경음	경음	평음	평음
행려병자	경음	경음	평음	없음
후일담	경음	경음	경음	경음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20세기 수도권 도시 지역 출신 사람들의 고유어와 한자어 어중경음화 실현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한다.

① 다수형 : 102개 어휘의 경음화 실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제보자의 80% 이상이 해당 어휘 항목에 대해 경음 또는 평음으로 통일하여 변이형을 실현하는 다수 변이형 36개 항목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지역 제보자들이 사용하는 다수 변이형은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어중경음화에서 표준 발음과 무관하게 해당 어휘에 대해 이 지역 출신 제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변이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지역 화자들의 어중경음화 실현에 대한 언어 내적 질서가 표준 발음의 질서와 상이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② 여성의 어중 경음화 : 제보자의 성별에 의해 어중경음화 실현에 차이가 있는 어휘 항목의 교차 분석을 통해 이 지역에서 어휘 개별적으로 여성들의 어중 경음화 실현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성의 경음화 실현은 표준 발음이 평음인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이 결과를 Labov의 언어변이와 성차에 대한 원리에 비추어 보면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이며 현재 변화를 겪고 있는 진행 중인 음운 변화(change in progress)로 여성이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에서 어중경음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③ 지역적 요인 : 제보자들의 지역적 배경을 사회적 요인으로 설정하여 어중경음화의 실현을 교차 분석한 결과 제보자의 현 거주지와 제보자의 출생지, 선대 거주지와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서울 지역 출신 제보자들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들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 차이를 언어 외적으로 해석해 보면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언어 행동과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언어 내적으로 해석하자면 복합어 환경의 어중경음화의 변이형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언어 사회에 따라서 어휘 개별적으로 변이형을 실현하는 데 상이한 내적 규범(norm)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최종 학력 : 본고의 제보자들의 최종 학력 요인은 제보자의 연령 요인과 관련이 있다. 최종 학력 요인별 어중경음화의 특징인 초졸자와 중졸자의 어중 경음화 변이형 실현 경향은 대졸자의 변이형 실현 경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초졸자와 중졸자들이 평음으로 실현하는 어휘에 대해서 대졸자들은 경음으로 실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초졸자와 중졸자들이 대체로 사전에 기재된 표준 발음을 지키고 있는데 비해 대졸자들은 표준발음과 무관하게 경음화를 실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보자의 최종 학력과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 차이와 도시별 제보자 출생지와 어중 경음화 실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 지역의 대졸자들의 변이형 실현 유형과 서울 출생자들의 변이형 실현 유형에 유사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3.2.4 제보자의 연령과 어중경음화

3.1에서 본고의 제보자 집단의 전체적인 어중경음화 실현 경향성을 파악한 결과, 연령은 20세기의 수도권지역 출신 수도권지역 거주자 집단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3.2.4에서는 제보자의 연령에 관련된 세분화된 요인들(연령대, 출생 시기, 세대)에 의한 본고의 제보자 집단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출간된 국립국어원(2003:55-66)에서도 어중경음화의 연령별 차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립국어원(2003:92)에서 주목한 연령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50대 이상 제보자와 40대 이하 제보자의 변이형 실현 유형이 다르다.
② 60대 집단에서 20대 집단 방향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특정 변이형의 실현 빈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언어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2003)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어중경음화의 경음 또는 평음의 변이형 실현 비율이 제보자의 연령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낮아지거나 높아진다는 것은 이 지역의 어중경음화가 어휘 개별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 대상 어휘 중 제보자의 연령에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을 (표 15)로 정리하였다. 이 어휘들의 각 연령별, 출생 시기별, 세대별 어중경음화 실현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본고의 <부록>에 있다.

(표 15) 제보자의 연령에 따라 어중 경음화 실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 항목

번호	어휘	연령별 유의 확률	출생 시기 유의 확률	세대별 유의 확률	표준 발음	고정형	경음화	참고
1	간단하다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	여성경음/서울평음
2	감방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	여성경음/서울평음
3	관건	0.000	0.000	0.000	평음	경음	+	고졸 이상 경음
4	교과서	0.018	0.012	0.007	평음	없음	+	서울 평음
5	날갯짓	0.000	0.000	0.004	경음	없음	평음증가	서울 경음
6	날다람쥐	0.022	0.030	0.008	경음	평음	+	
7	당고개	NS	NS	0.017	없음	없음	평음증가	서울평음/대졸평음
8	대과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	대졸 경음
9	돌담	0.009	0.011	0.013	평음	없음	+	
10	동아줄	0.000	0.000	0.000	평음	경음	+	서울 경음
11	등기	0.015	0.041	0.003	평음	없음	+	여성경음/인천경음
12	막냇동생	0.000	0.000	0.000	경음	없음	평음증가	서울평음/대졸평음
13	말솜씨	0.000	0.000	0.000	경음	없음	+	
14	말장구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	서울 경음
15	말장난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	
16	바퀴살	0.000	0.001	0.001	평음	없음	+	대졸 경음
17	반값	0.000	0.000	0.000	평음	경음	+	서울경음/대졸경음
18	반창고	0.002	0.024	0.001	평음	없음	+	서울 평음
19	발그림자	0.000	0.002	0.002	경음	평음	평음증가	
20	발장구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	서울 경음
21	밤사이	0.000	0.000	0.000	경음	없음	평음증가	
22	밤새	0.000	0.000	0.000	경음	평음	평음증가	
23	방울등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	
24	버선발	0.011	0.022	0.001	평음	없음	+	서울경음/대졸경음
25	보온병	0.005	0.025	0.016	평음	경음	+	여성 경음
26	봄가물	0.049	0.037	0.021	경음	없음	+	여성평음/서울경음
27	봄소식	0.004	0.011	0.003	평음	없음	평음증가	
28	불법	0.000	0.000	0.000	평음	경음	+	여성 경음
29	불제자	0.023	NS	0.004	평음	없음	+	
30	빨가죽	0.000	0.000	0.000	경음	없음	+	
31	사랑방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	여성/서울/대졸경음
32	사살선	0.001	0.001	0.001	평음	없음	+	경기 평음
33	산그늘	NS	0.014	0.037	경음	없음	+	
34	산들바람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	
35	생활담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	
36	선가(船價)	0.001	0.002	0.003	평음	없음	+	서울경음/대졸경음
37	소과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	서울경음/대졸경음
38	소슬바람	0.004	0.004	0.000	평음	없음	+	
39	속임수	0.009	0.026	0.002	경음	없음	평음증가	서울 경음
40	솜바지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	여성경음/경기평음

41	수입인지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평음증가	
42	술주정	0.000	0.000	0.000	경음	없음	+	서울 경음
43	실세계	0.022	0.001	NS	평음	없음	+	경기 평음
44	양념간장	0.035	0.001	0.002	평음	없음	+	여성 경음
45	양담배	0.007	0.007	0.003	평음	없음	+	
46	열병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	대졸 경음
47	옴벌레	0.001	0.009	0.001	평음	없음	+	서울 경음
48	음조	0.000	0.000	0.000	평음	없음	+	
49	인기척	NS	0.049	0.022	경음	없음	평음증가	서울 평음
50	쟁탈전	NS	0.016	0.043	평음	없음	+	서울 평음
51	치마저고리	0.000	0.000	0.000	평음	평음	+	
52	촌색시	0.000	0.004	0.000	경음	평음	평음증가	
53	촌샌님	0.005	0.002	0.004	경음	평음	평음증가	
54	필연적	0.005	0.000	0.001	평음	평음	+	여성 경음
55	후일담	0.000	0.000	0.000	경음	없음	+	서울경음/대졸경음

(P < .05 / NS = No Significance = 유의성 없다 =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 경음 증가)

(표 15)의 어휘들은 제보자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해당 어휘의 변이형 실현에서 평음형이 증가하거나 경음형이 증가하는 유형을 보여준다.

어느 한 시기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연령 집단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언어 변화의 양상과 방향을 알아보는 방법을 현장 시간 방법(apparent-time method)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한 시기의 두 세대가 실제 시간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박경래 2004). 3.3 절에서는 20세기를 살아가는 네 그룹의 연령 집단들의 어중경음화에 대한 현장시간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현장 시간 방법의 원리는 상이한 연령의 사람들이 상이한 시간대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75세 화자의 말은 50세나 25세 화자의 말보다 더 이른 시기를 나타낸다고 파악한다.

현장 시간 분석 방식은 연구자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언어사회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룹과 가장 젊은 그룹에 이르기까지의 음운 변이형의 양상을 파악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현장 시간 분석을 위해서는 현행 언어변화에 대한 시간 분계선(국어사의 시대구분 기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수집이 중요하다. 누적된 현장 시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언어변화의 다양한 단계와 언어사회 내에서 언어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는 시기를 일치시킨다면 실제 존재하는 언어사회 안에서 특정 시기에 동안 어떤 언어 변화가 나타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시간 분석 방식으로 세대 간의 언어차이를 다룰 때 조심해야 하는 점이 있다. 화자의 개인어도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장 시간 분석 가설에서는 언어사용양상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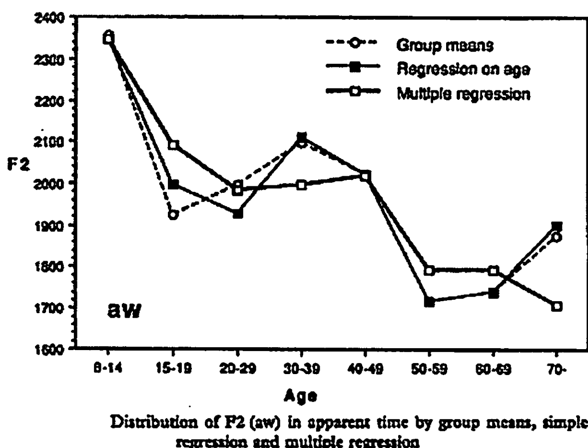
Milroy&Gorden (2003:37)에서는 현장 시간 분석 가설의 관점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연령-단계(age- grading)변화는 주로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시절에 나타난다[37]. 연령-단계는 높은 단계의 사회적 인지를 포함하는 자질과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화자들의 언어가 변한다면 화자가 처한 사회적 지위와 활동에 관련된 특정 유형의 자질들이 부가되는 변화이지 근본적인 언어 변화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Labov(1994:61-62)에서는 8세에서 70세 이상의 제보자의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이중모음(aw)의 F2값의 변화를 도표로 그려서 현장시간별 언어변화를 관찰하고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abov가 설명하는 도표는 세 종류로 본고에서 사용한 방법과 유사한 산술평균 기준, 제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단순회귀분석(regression on age) 기준, 다른 변수를 고려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선을 이루는 연령대별 점의 분포의 세부적인 높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세 그래프는 모두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F2값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38]. 결과적으로 통계분석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언어변화를 가시화하여 제시한다는

---

37) 박영순(1978)은 한국어에서 연령등급별 어휘 사용에 대해 사회언어학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친족 호칭의 사용을 주제로 박영순(1978)에서는 1975년과 1976년 사이에 3세부터 60세까지의 한국인들이 어떤 연령 등급의 시기에 어떤 친족 호칭의 적절한 사용을 이해하는 지를 다루고 있다. 박영순(1978)에서 본 한국인의 연령 집단은 3-5세(영아), 6-8세(유아), 9-11세(초등교육), 12-14세(중등교육),15-18세(고등교육), 20-39세(청년기), 40-59세(장년기)이고, 6-11세 단계에서 성인들이 쓰는 친족 호칭을 인식하고, 12세를 기점으로 어린이들이 성인 집단의 친족 호칭 규범을 습득하여 성인들의 기준으로 사용하며, 15세 이후에는 성인들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었다.

38) Labov(1994:61)의 도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Distribution of F2 (aw) in apparent time by group means, simple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원 표시는 전체 산술평균으로 그린 꺾은선 그래프, 검은 사각형 표시는 연령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로 그린 꺾은선 그래프, 흰 사각형 표시는 다중회귀분석 결과로 그린 꺾은선 그래프이다. 다중회귀분석으로 그린 그래프가 전체 평균으로 그린 꺾은선 그래프에 비해 연령별 F2값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세 그래프 모두 연령의 증가에 따라 F2값이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차원에서 세 그래프가 보여주는 결과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개별 어휘와 제보자의 연령대별로 어중경음화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어중경음화의 증감에 대해 각 연령대별 응답자 수의 평균(산술평균/the arithmetic mean)을 가지고 도표를 그려보기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자료의 통계 분석 방법에서 회귀분석방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보자의 연령과 변이형에 관련된 꺾은선 그래프는 전체 평균을 기본으로 작성하였다.

제보자의 연령과 어중경음화의 변이형 실현의 차이에 대한 본고의 도표 작성 결과 20대에서 70대 제보자의 각 연령대별 경음화 실현 유형은 개별 어휘별로 경음형과 평음형의 증감에 의해 그려지는 선의 모양에 따라 발산형(diverge), 수렴형(convergence), 교차형(cross), 무교차형(non-cross), 다교차형(multi- corss)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도식화 할 수 있었다.

발산형 그래프는 연구자의 관찰 시점에서 이른 세대에서 두 변이형이 경쟁형으로 나타나는 그래프이다. 젊은 세대에서 경음형 또는 평음형이 다수형으로 올라가는 ‘<’ 형태를 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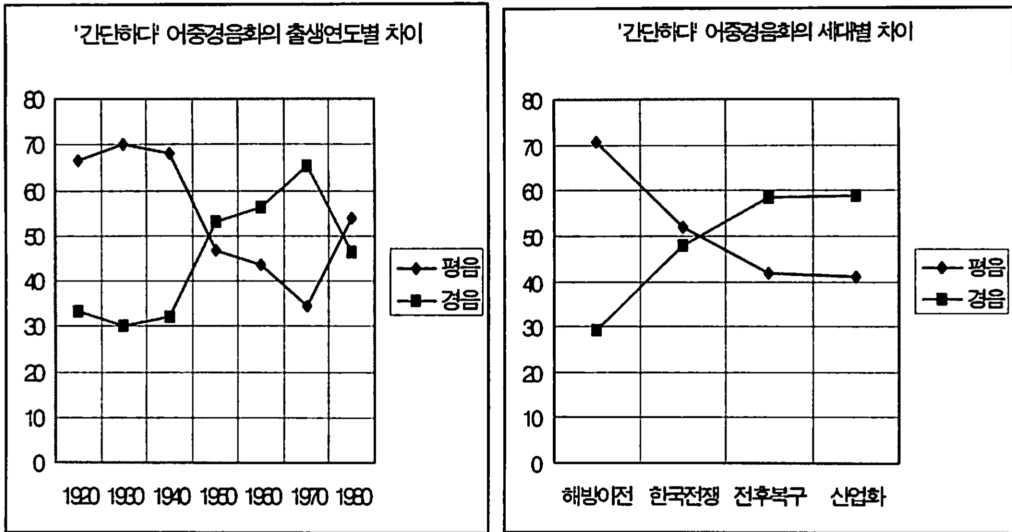
수렴형 그래프는 연구자의 관찰 시점에서 젊은 세대에게서 변이형들이 경쟁형으로 나타난다. 이른 세대에서는 경음형 또는 평음형이 다수형으로 나타나서 ‘>’형으로 도식화 되는 그래프이다.

교차형 그래프는 연구자의 관찰 시점에서 이른 세대와 젊은 세대의 변이형 실현 비율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래프 모양은 ‘X'자 모양으로 나타난다.

무교차형 그래프는 현장시간에서 교차 지점에 나타나지 않는 그래프이다. 변이형 실현 비율의 증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모든 세대에서 다수변이형과 소수변이형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 무교차형 그래프는 발산 유사형, 수렴 유사형, 교차 유사형, 평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교차형 그래프는 교차 지점이 둘 이상인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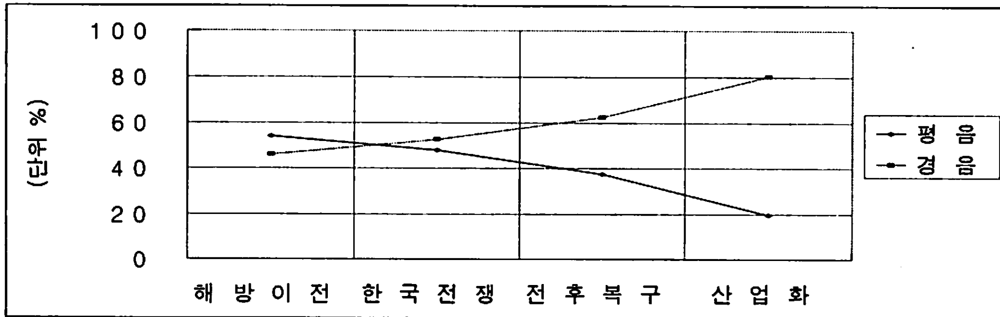
제보자의 연령과 변이형 실현의 차이를 보여주는 꺾은선 그래프들은 그래프들은 분석자료를 연령/출생 시기별로 세분하여 그리는 경우와 세대별로 구분하여 그리는 경우에 따라서 세부적인 모양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3)의 ‘간단하다’의 경우는 제보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도식화 하는 경우에는 다교차형 그래프로 나타나지만 세대별로 도식화하면 교차형 그래프가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 경우 세대별 분석의 그래프를 우선한다. 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 제보자들의 어중경음화는 세대에 따라 그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3)의 표를 보면 ‘간단하다’의 경음형이 소수형에서 다수형으로 올라가는 시기와 다수형 실현 집단은 1950년대 후반 출생자,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전쟁이후에 태어난 세대와 그 이후 세대에서도 경음형이 계속 다수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간단하다' 어중경음화에 대한 출생연도별 그래프와 세대별 그래프 비교



그러면 어중 경음화에 대한 다섯 가지 유형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조사 시점에서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는 경음과 평음이 경쟁을 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젊은 세대에서 경음 또는 평음형 하나가 다수형으로 고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유형이다. 본고에서는 이 그래프의 유형에 대해서 두개의 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벌어진다는 뜻으로 발산형(diverge)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4) '생활담'의 어중 경음화 실현의 세대별 차이



(4) '생활담'[39]의 경음화 실현을 세대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본고의 조사 대상자 가운

39) '생활담'의 어중경음화 현상에 대한 교차표는 다음과 같다.

데 1945년 이전 출생자는 '생활담' 평음 실현이 53.9%(48명), 경음 실현이 46.1%(41명)로 평음형과 경음형이 경쟁형으로 나타난다. 도표와 교차표를 보면 1950년대 출생자를 기점으로 평음형은 점진적으로 그 세력이 낮아지고 경음형이 다수형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표와 교차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경음형은 80.3%(94명)으로 고정형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유형은 조사 시점에서 나이 든 세대에서 변이형에 대한 발음이 경음이나 평음 중 하나가 우세한데, 가장 나이가 어린 세대의 경우 경음 또는 평음 어느 한 쪽도 우세한 발음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이 유형의 그래프를 수렴(convergence)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수렴형의 그래프에서 두 선의 교차점은 가장 젊은 세대가 된다. 이전 세대가 경음화가 다수형으로 나타나는 어휘에서 수렴형 도표가 나온다면 이 경우에도 경음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전 세대가 경음화를 실현하는 어휘에서 수렴형 도표가 나온다면 이 경우 경음화는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의 '사랑방'의 예40)는 전형적인 수렴형의 그래프를 보여준다.

생활담 * 세대구분 교차표

			세대구분				전체
			산업화	전후복구	한국전쟁	해방이전	
생활담	1	빈도	23	27	34	48	132
		생활담의 %	17.4%	20.5%	25.8%	36.4%	100.0%
		세대구분의 %	19.7%	37.5%	47.9%	53.9%	37.8%
		전체 %	6.6%	7.7%	9.7%	13.8%	37.8%
	2	빈도	94	45	37	41	217
		생활담의 %	43.3%	20.7%	17.1%	18.9%	100.0%
		세대구분의 %	80.3%	62.5%	52.1%	46.1%	62.2%
		전체 %	26.9%	12.9%	10.6%	11.7%	62.2%
전체		빈도	117	72	71	89	349
		생활담의 %	33.5%	20.6%	20.3%	25.5%	100.0%
		세대구분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33.5%	20.6%	20.3%	2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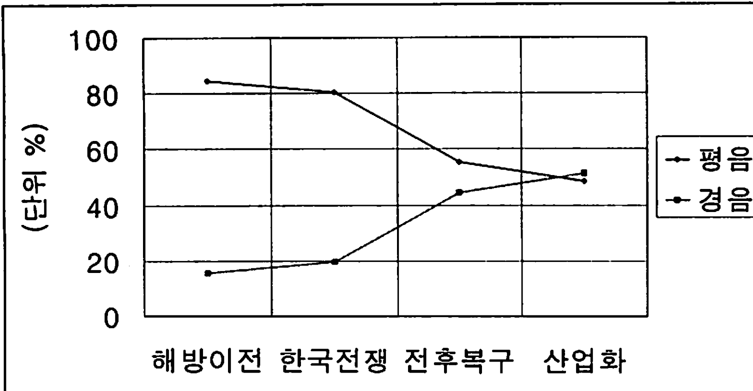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쪽검정)
Pearson 카이제곱	29.299[a]	3	.000
우도비	30.534	3	.000
유효 케이스 수	349		

a. 0 셀 (.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26.85입니다.

40) '사랑방'의 어중 경음화 현상에 대한 교차표는 다음과 같다.

(5) '사랑방'의 어중 경음화 실현의 세대별 차이



(5)의 도표를 보면 1950년대 이전 출생자의 경우 '사랑방'의 발음은 평음 고정형(80% 이상)으로 나타나다가 1950년대 출생자부터 '사랑방'의 경음형은 증가하여 평음형과 경음형은 경쟁형이 된다.

세 번째 유형은 발산형과 수렴형이 결합한 유형으로 한 세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변이형 실현 비율이 반대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꺾은선 그래프의 유형은 두 선이 교차하는 유형(cross)으로 나타난다. 특정 언어 현상에 대해 세대에 걸쳐서 언어 현상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차형 그래프의 존재는 연구자의 관찰 시점에서 진행 중인 언어 변화에 대한 근거가 되며, 세대에 따라 발음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사랑방 * 세대구분 교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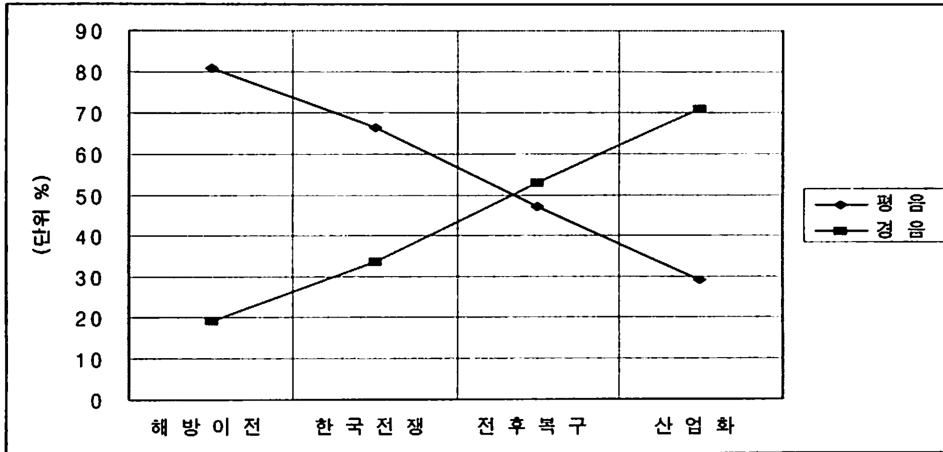
			세대구분				전체
			산업화	전후복구	한국전쟁	해방이전	
사랑방	1	빈도	57	40	57	75	229
		사랑방의 %	24.9%	17.5%	24.9%	32.8%	100.0%
		세대구분의 %	48.7%	55.6%	80.3%	84.3%	65.6%
		전체 %	16.3%	11.5%	16.3%	21.5%	65.6%
	2	빈도	60	32	14	14	120
		사랑방의 %	50.0%	26.7%	11.7%	11.7%	100.0%
		세대구분의 %	51.3%	44.4%	19.7%	15.7%	34.4%
		전체 %	17.2%	9.2%	4.0%	4.0%	34.4%
전체		빈도	117	72	71	89	349
		사랑방의 %	33.5%	20.6%	20.3%	25.5%	100.0%
		세대구분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33.5%	20.6%	20.3%	25.5%	100.0%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38.533[a]	3	.000
우도비	40.196	3	.000
유효 케이스 수	349		

교차형 그래프는 해당 변이형 증감을 보여주는 꺾은선의 교차 지점을 중심으로 수렴형과 발산형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차 지점에 해당하는 세대는 수렴형이나 발산형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교차 지점 해당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이전 세대의 다수형이 이후 세대의 소수형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차형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어휘들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변이형 실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6)은 '열병'의[41] 발음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경음화 실현 양상이다.

(6) '열병'의 어중 경음화 실현의 세대별 차이



41) '열병'의 어중 경음화 현상에 대한 교차표는 다음과 같다.

열병 * 세대구분 교차표

			세대구분				전체
			산업화	전후복구	한국전쟁	해방이전	
열병	1	빈도	34	34	47	72	187
		열병의 %	18.2%	18.2%	25.1%	38.5%	100.0%
		세대구분의 %	29.1%	47.2%	66.2%	80.9%	53.6%
		전체 %	9.7%	9.7%	13.5%	20.6%	53.6%
	2	빈도	83	38	24	17	162
		열병의 %	51.2%	23.5%	14.8%	10.5%	100.0%
		세대구분의 %	70.9%	52.8%	33.8%	19.1%	46.4%
		전체 %	23.8%	10.9%	6.9%	4.9%	46.4%
전체		빈도	117	72	71	89	349
		열병의 %	33.5%	20.6%	20.3%	25.5%	100.0%
		세대구분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33.5%	20.6%	20.3%	25.5%	100.0%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60.704[a]	3	.000
우도비	63.757	3	.000
유효 케이스 수	349		

이제까지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그래프는 모두 한 지점을 기준으로 경음화의 실현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유형을 보여준다.

이제 설명할 두 종류의 그래프는 교차지점이 전혀 없는 무교차(non-cross)형과 교차지점이 둘 이상인 다교차형(multi-cross) 그래프이다. 무교차형 그래프는 연구자의 조사시점에서 세대별로 변이형 실현 양상에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특정 연령대, 특정 세대의 언어 행동이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나타난다. 본 조사에 한정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수형이지만 특정 연령대에서 소수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무교차형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무교차형그래프는 그래프상에서 교차지점이 보이지 않지만 특정 변이형의 실현율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수렴형이나 발산형과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교차지점에 둘 이상으로 나타나는 다교차형 그래프는 조사 대상의 연령대 사이의 간격을 좁힐수록 교차점이 늘어나는 다교차형 그래프와 현장시간 한도(20대에서 70대)에서 변이형 사용 유형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운 다교차형 그래프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간단하다'의 그래프처럼 연령대의 범위를 좁힐 경우에 나타나는 다교차형의 그래프는 세대를 기준으로 제보자 연령대를 설정하여 분석할 경우 교차점이 하나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제보자의 연령 관련 요인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현장시간 한도 내에서 변화 유형을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표 15)의 어휘 항목들에 대해 세대를 기준으로 도식화하여 각 어휘들을 모두 도식화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표를 정리하면 (표 16)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6)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들의 연령과 한자어와 고유어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 유형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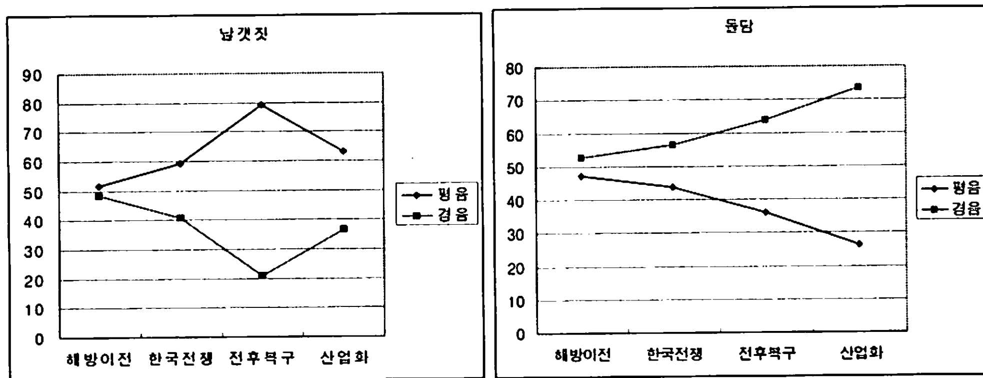
	①발산형	②수렴형	③교차형	④무교차형
고유어	날갯짓 돌담 속임수 말솜씨 밤사이 술주정 양념간장	방울등 사랑방	발장구 움벌레 막냇동생 뺨가죽 버선발 산그늘 봄가물 소슬바람 산들바람 봄소식	날다람쥐 바퀴살 치마저고리 필연적 당고개 동아줄 밤새 그림자 촌샌님 촌색시 반값

			말장난 말장구	솜바지 일개미 인기척
한자어	교과서 불제자 사살선 생활담 양담배	둥기	간단하다 감방 대과 소과 수입인지 열병	관건 반창고 선가 보온병 후일담 필연적 쟁탈전 실세계 불법 음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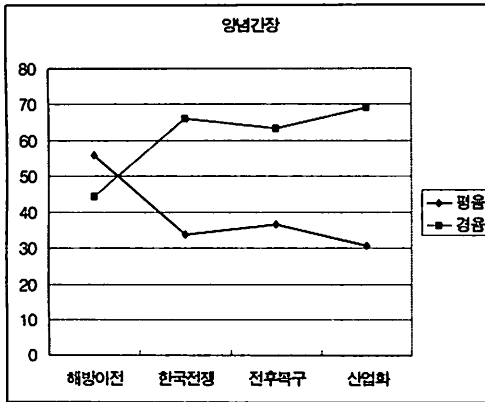
(16-①)은 발산형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어휘 항목이다. 이 어휘 항목들은 발산 지점에 해당하는 제보자 집단에서는 두 변이형이 경쟁형으로 나타나고 평음형 또는 경음형이 다수변이형이 되는 지점에 해당하는 제보자 집단에서는 변이형 평준화가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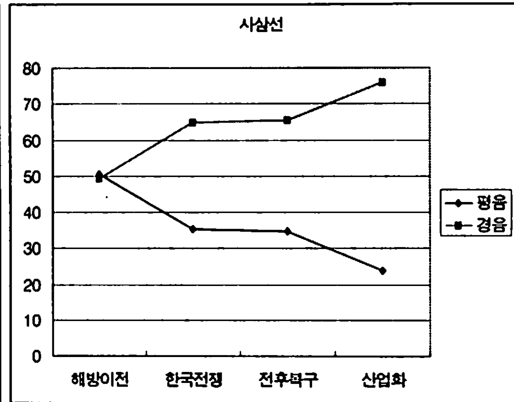
(표 16-①) 어중경음화 발산형 그래프 모음

㉠ 발산 지점 : 해방 이전 출생자(1945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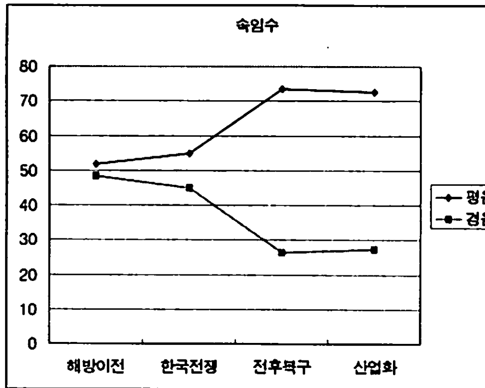
◎날갯짓(평음증가) -표준평음, 여성경음, 서울평음/◎돌담 - 표준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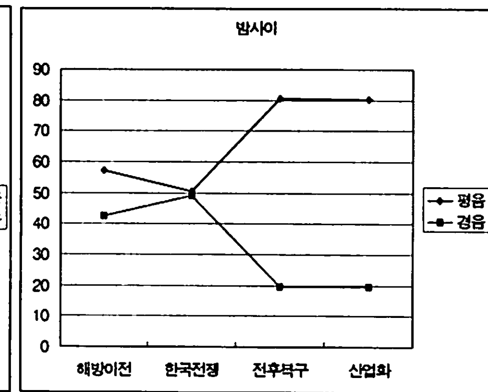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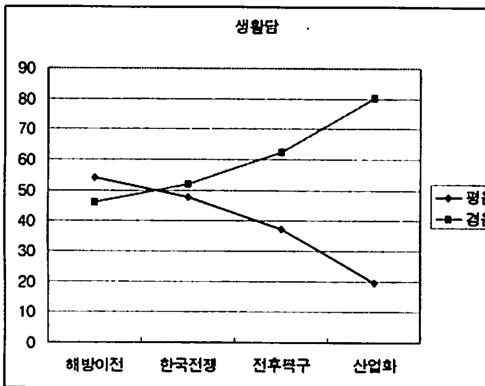
◎양념간장 - 표준평음, 여성경음/◎사살선 - 표준발음 평음, 경기 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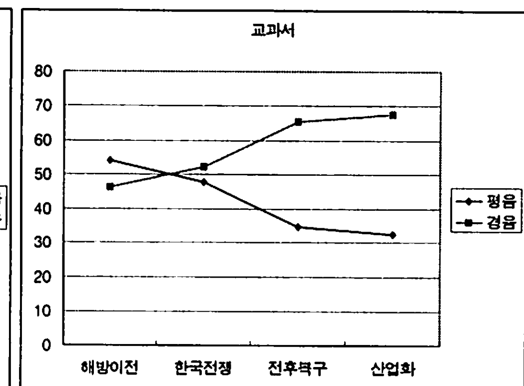
㉡ 발산 지점 : 한국전쟁 시기 출생자(1945-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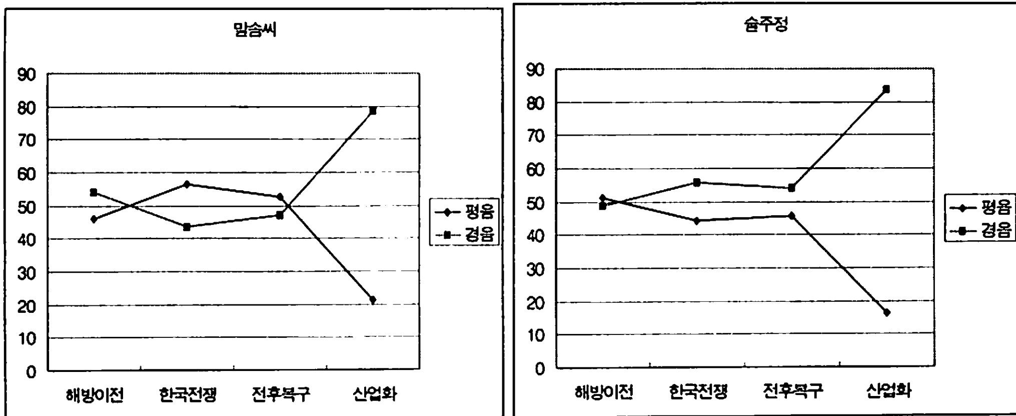
◎속임수(평음증가)- 표준경음, 서울경음/◎밤사이(평음증가) -표준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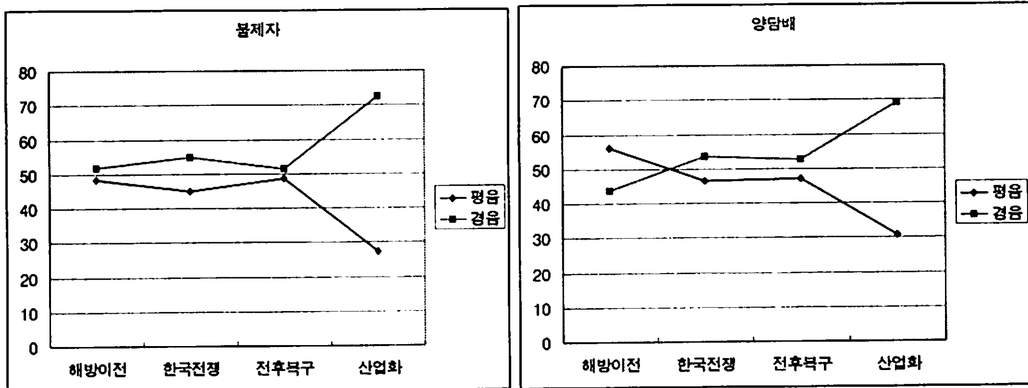


◎생활담 - 표준발음 평음/◎교과서 -표준발음 평음, 서울 평음

ⓒ 발산지점 : 한국전쟁 이후 출생자(1955-1965)



◎말솜씨 - 표준경음/◎술주정 - 표준경음, 서울경음



◎불제자 - 표준발음 평음/ ◎양담배 - 표준발음 평음

(16-①)에서 보이는 것처럼 발산형 그래프로 나타나는 어휘들에서 특정 변이형이 다수형으로 확산되는 지점은 각 어휘마다 다르다. 또한 평음이 증가하는 어휘(날갯짓, 밤사이, 속임수)와 경음이 증가하는 어휘(양념간장, 술주정, 말솜씨, 돌담, 사살선, 불제자, 교과서, 생활담, 양담배)로 구분할 수 있다.

발산형 그래프의 특징은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해당 어휘의 변이형이 통일되는 것이다. 해방 이전 세대에서는 다양한 지역적, 사회적 배경에 의해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서도 해당 어휘에 대한 개별 변이형들이 경쟁형으로 나타나지만, 조사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젊은 세대에 가까워질수록 지역적,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끼리 변이형 실현의 동조성(conformity)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1965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해당 어휘 항목의 두 변이형은 경쟁형이 아니라 다수형 또는 소수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2장에서 제시한 언어사회유형론을 1965년 이후 출생자들의 어중경음화 통일화 현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1965년 이후 출생자들은 20세기 수도권 지역에 단기간의 인구집중과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난 시기에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이다. 이 시기의 수도권 인구 집중은 서울의 확장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42] 또한 이들은 이전 세대와 상당히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43]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 제보자 중 1965년 이후 출생자인 117명 역시 일반적인 1965년 이후 출생자들의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35%(41명)은 고졸, 65%(76명)은 대졸의 최종 학력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42.7%(50명)는 국립국어원에서 분석 대상 자료를 조사한 조사 시점인 2003년 현재 학생이다.[44]

---

42) 서울시청의 서울 인구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시역(市域) 확장은 1914년 이후 일제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태종의 서울천도 이후 서울의 시역은 사대문 안 도성으로 600년간 고정이 되어 있었으나, 1914년 일제는 국권침탈이후 서울의 시역을 확장시킨다. 일제는 1914년에 용산, 숭신, 인창, 한지, 두모면의 일부를 경성부에 편입시키고, 을사조약 당시 약 25만 명이었던 서울 인구가 1936년에 73만 명을 돌파하게 되자 행정구역을 133.94㎢로 확장한다. 이때 고양군, 시흥군, 김포군 관내의 면들이 편입된다. 광복 이후, 1949년에 서울이 특별시로 승격되면서 고양군 뚝도면, 숭인면, 은평면 일원과 시흥군 도림리, 구로리, 번대방리 등이 편입되어 시역이 136.06㎢에서 268.35㎢로 확장되었다. 서울시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성장기에 인구집중에 의해 다시 1963년 시역을 대규모로 확장하여 서울 시역은 593.75㎢가 되었다. 이때 편입된 지역은 양주군, 광주군, 시흥군, 김포군, 부천군의 일부지역 7개면 54개리로 주로 강남지역이다. 세 번째 시역확장은 1973년으로 그 결과 현재 서울 면적은 605.33㎢이다. 여기에 서울의 시역 확장과 함께 서울 거주자들의 교외 이주가 시작되어 수도권 광역화가 진행되었다. 현재 수도권 거주 한국인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수준인 이천만이다.

43) 박재홍(2005)에서는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이는 20세기 한국인들의 세대 구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 1940년

a. 일제하의 식민지 경험 여부 : 해방 이전 세대와 해방 이후 세대

1940년 이전 출생자 : 공식 초등교육기관에서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

1940년 이후 출생자 : 공식 초등교육기관에서 한글 교육을 받은 세대

b. 한국 전쟁 경험 여부

1940년 이전 출생자 : 한국 전쟁에 대한 직접적 피해 기억을 가진 세대

1940년 이후 출생자 : 한국 전쟁에 대한 직접적 피해 기억이 없는 세대

2) 1970년

a. 산업화

1970년 이전 출생자 : 가난과 빈곤을 아는 세대.

1970년 이후 출생자 : 풍요로운 세대, 산업화의 수혜 세대, 정보화 세대.

b. 민주화 운동

1970년 이전 출생자 : 정치적 폭압에 직접적 피해를 받은 세대

1970년 이후 출생자 : 탈이념, 탈정치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세대.

44) 홍두승, 김병조, 조동기(1997)에서는 1955년부터 1995년에 이르는 40년동안 대한민국의 20-24세의 연령대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1955년에 20-24세 청년의 85.9%가 경제활동에 참가했지만 대학진학률이 올라가는 1980년에 71.2%, 1990년에 40.2%, 1995

2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지역에서 단기간의 인구집중과 산업화는 그 지역의 지역 방언의 특징을 약화시키고, 그 지역에 유입된 방언의 특징도 약화시켜서 변이가 사라지는 방언평준화, 변이형 평준화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인구 이동(mobility)과 사회구조 변동에 의한 방언평준화는 사회언어학적 언어보편성(sociolinguistic universals)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Milory의 벨파스트나 Kerswill의 런던과 그 주변 지역, Inoue의 도쿄처럼 단기간에 사회 구조 변동과 사회 구성원 변동이 일어난 지역에서 변이형이 사라지는 현상은 언어보편적으로 관찰가능한 현상이다.

사회 구조 변동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인구 이동[45]은 지역적 이동(regional mobility)과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회적 이동은 언어의 동질화(linguistic homogeneity)를 유발한다 (Chambers, 1995: 65-6). 이는 복잡한 변이형들이 사라지는 '평준화'를 의미한다(Chambers, 2000:175). 실제로 2장에서 살펴본 Kerswill 과 Williams(2000a, 2000b)의 연구, Chambers(2000)의 캐나다 영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단기간에 다양한 방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방언평준화 현상이 언어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려주고 있다.

어중경음화에 한하여 방언평준화 현상이 발생하고 진행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본고의 분석 자료로 보면, 본고의 분석 대상 어휘에 한정하여 이 지역의 어중경음화의 평준화는 어휘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대체로 3-4세대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평준화의 속도 역시 어휘개별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살펴볼 (16-③)의 교차형 그래프가 나타나는 어휘의 일부는 1920년생과 1980년생 사이에서 어중경음화의 강화 또는 약화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16-②) 수렴형 그래프와 (16-④) 무교차형 그래프처럼 어휘 개별적으로 특정 변이형이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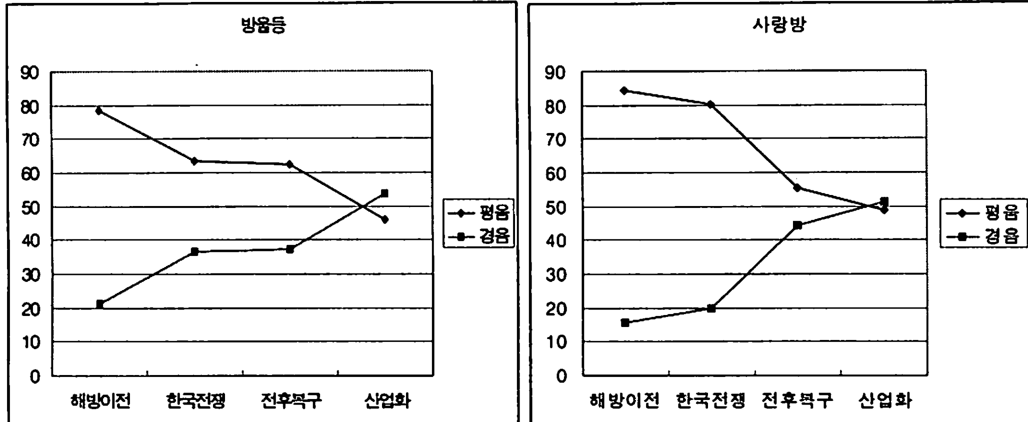
(16-②)의 수렴형 그래프가 나타나는 어휘들은 젊은 세대의 경음화가 증가하면서 평음

년에 58.5%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국립국어원에서 본고의 분석 대상 자료를 조사한 시점인 2003년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전체 수험생의 79.7%라고 한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언어학에서 '학생'은 20세기의 새로운 언어 집단으로 지적되었다. 강신항(1987)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어의 새로운 사회 방언의 형성 요인으로 수백만의 학생 계층의 형성을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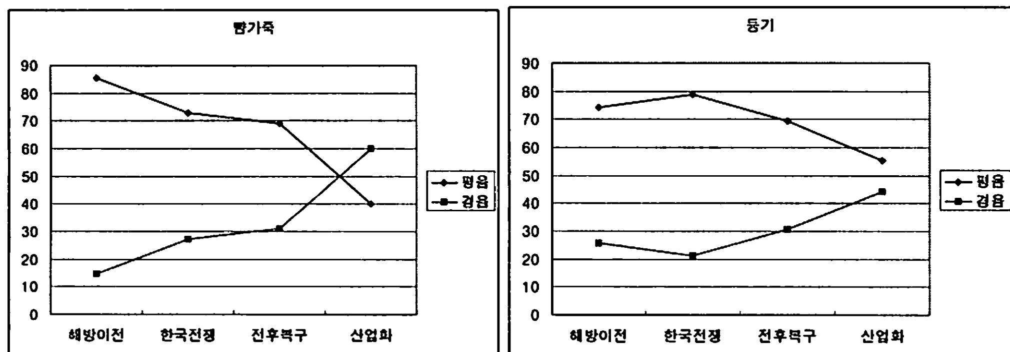
45) 권태환 · 김두섭(1990)에서 지적한 인구이동의 원인
1) 환경에 대한 적응의 과정 - 인구에 대한 생태학적 설명. 생태학적 균형을 위해 인구이동이 나타난다.
배출요인 - 전통적인 기술, 가치, 조직, 제도
흡입요인 - 근대적인 기술, 가치, 조직, 제도
2) 사회적 상승이동에 대한 욕구 - 개인의 가치와 목표달성이 이동에 결정적 역할, 사람들은 생활조건이 좋은 지역을 따라 움직인다.

형과 경음형이 경쟁을 하는 어휘들이다.

(16-②) 어중경음화 수렴형 그래프 모음



◎방울등 - 표준발음 평음/ ◎사랑방 - 표준발음 평음, 여성경음, 서울경음, 대졸경음



◎빵가죽 - 표준발음 경음/◎등기 - 표준발음 평음, 여성 경음, 인천 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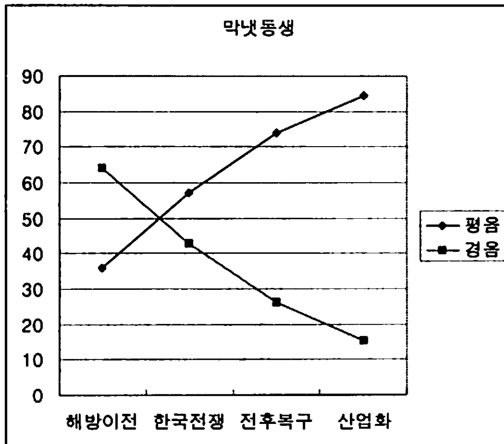
다음으로 현장시간에서 어중경음화의 변화를 볼 수 있는 (16-③)의 교차형 그래프를 보도록 한다. 교차형 그래프는 교차 지점을 중심으로 수렴형과 발산형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음운 변화가 일어났거나, 어휘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꺾은선 그래프로 도식화한다면 교차형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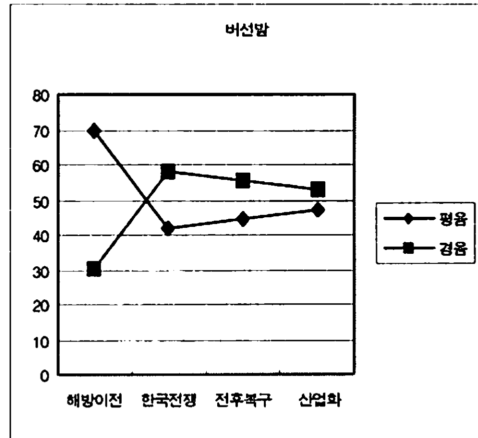
교차형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어휘들은 변이형들의 변화 곡선의 교차 지점이 어휘 개별적으로 달라진다. 교차지점에 해당하는 연령 집단의 화자들은 자신이 속한 연령대를 중심으로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변이형 실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로 보면 교차형 그래프가 나타나는 어휘들의 교차 지점은 대체로 1940년대-1950년대 후반 출생자 집단이다. 이들은 조사 시점(2003)년 현재 40대 후반-60대

초반의 중장년층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분석 대상 어휘 가운데 교차형으로 나타나는 어휘들의 경우는 2003년 현재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노년층과 청년층의 어중 경음화 변이형 실현에 큰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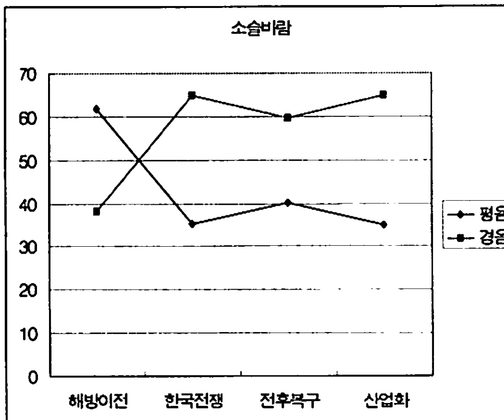
(16-③) 어중경음화 교차형 그래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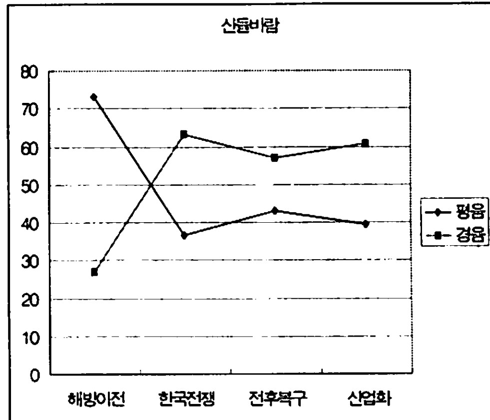
㉠ 1945-1955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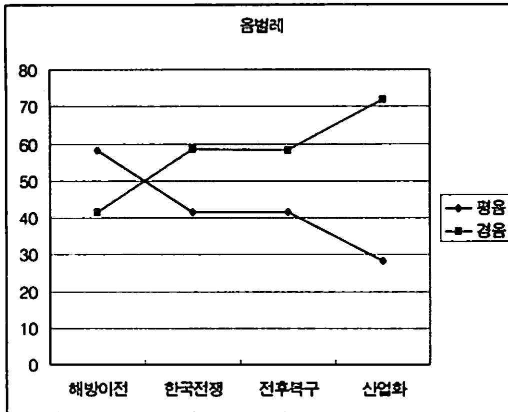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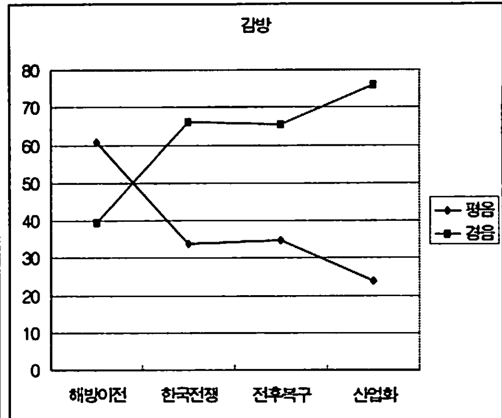
◎막냇동생(평음증가) - 표준경음, 서울평음, 대졸평음/ ◎버선발- 표준평음, 서울경음, 대졸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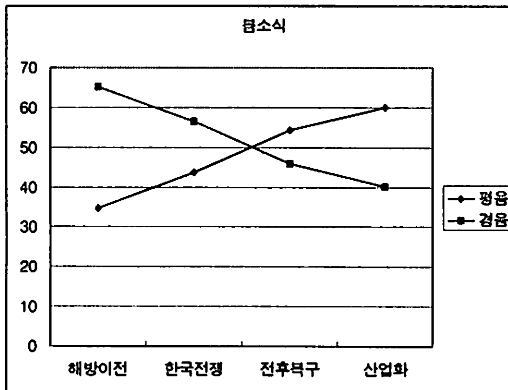
◎소슬바람 - 표준평음/ ◎산들바람 - 표준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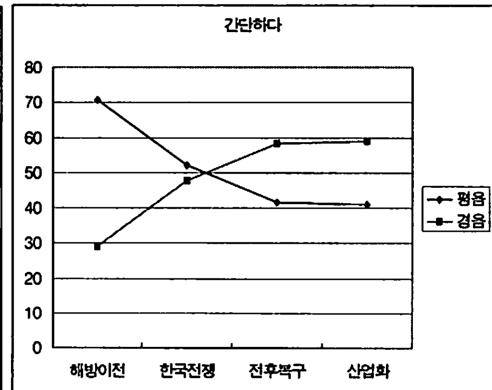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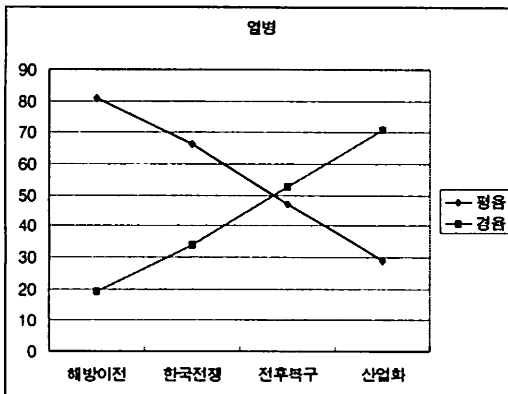
◎ 옴벌레-표준평음,서울경음/ ◎ 감방-표준평음, 여성경음, 서울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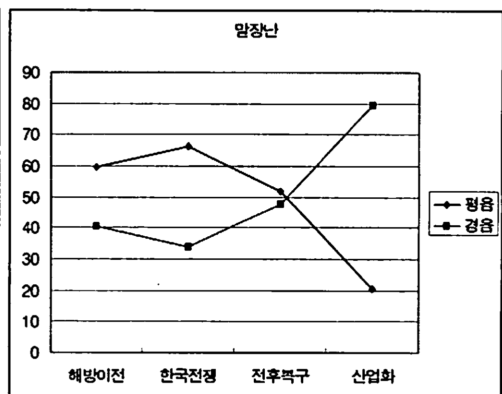
㉡ 1955-1965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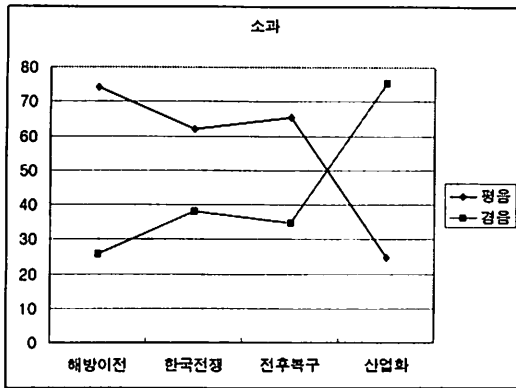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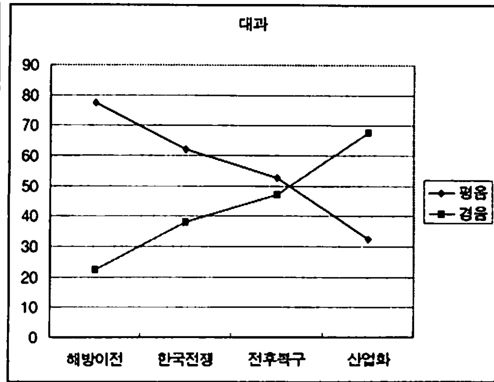
◎ 봄소식(평음증가) - 표준평음/ ◎간단하다 - 표준평음, 여성경음,서울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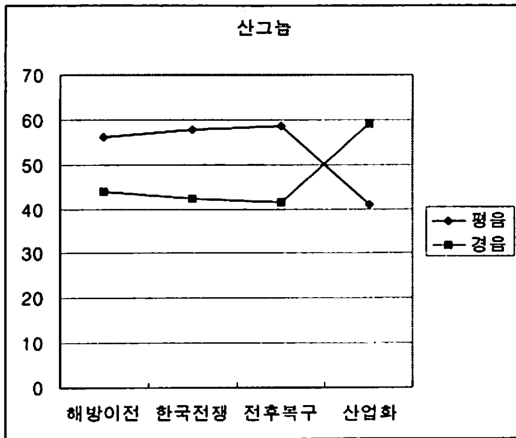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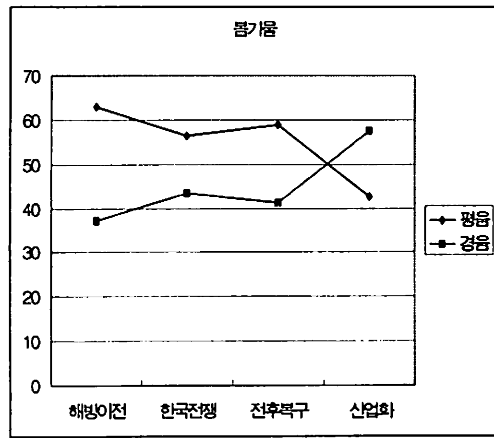
◎열병-표준평음, 대졸경음/ ◎ 말장난-표준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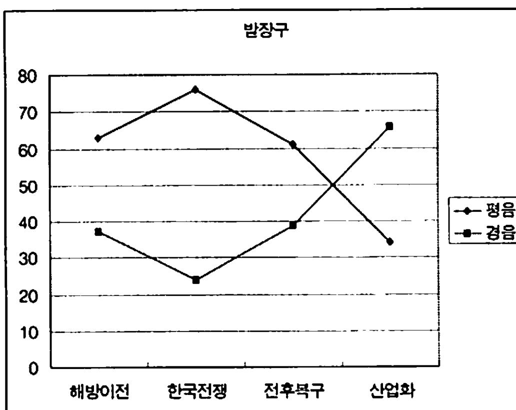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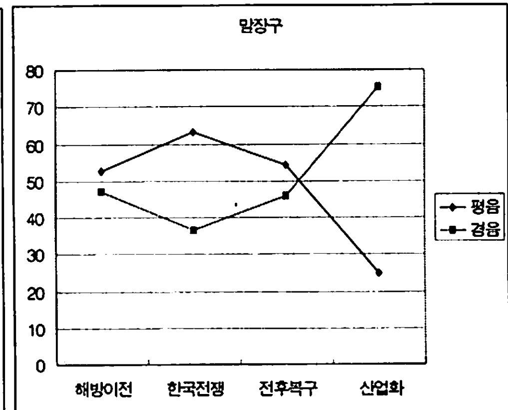
◎소과-표준평음, 서울경음, 대졸경음/ ◎대과-표준평음, 대졸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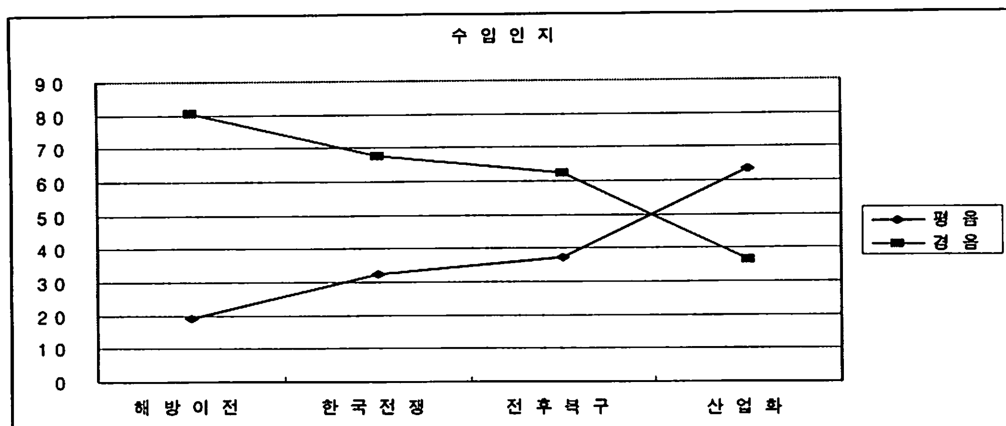


◎산그늘-표준경음/ ◎봄가물-표준평음





◎발장구- 표준평음, 서울경음/ ◎말장구-표준평음, 서울경음



◎수입인지(평음증가)- 표준평음

(16-③)의 그래프들은 현장시간의 관점에서 제보자들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 유형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교차형 그래프들은 교차 지점을 전후하여 두 변이형이 경쟁형으로 존재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의 유형이 달라진다. 교차 지점을 중심으로 두 변이형은 경쟁형으로 나타나는데, '열병, 막냇동생'의 경우는 평음형과 경음형이 경쟁형으로 나타나는 교차 지점을 제외하고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단 20여년 사이에 평음형과 경음형의 다수형 사용빈도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반면에 '버선발'과 같은 경우는 교차 이후 두 변이형이 경쟁형으로 지속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긴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언어사용자들의 변이형 유형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전 세대의 다수형이 다음 세대에서 경쟁형이 되고, 그 이후 세대에서 소수형이 되는 방향으로 변이형 사용의 변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사용자들은 언어 사회 내부에서 해당 어휘에 대한 변이형 사용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16-③)의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언어연구자들이 당대에 일어나는 언어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이며, 이러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언어변화는 진행 중인 언어 변화(change in progress)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슬바람, 산들바람', '소과, 대과', '발장구, 말장구'처럼 유사한 구조의 어휘들이 제보자들의 변이형 실현에서 유사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분석 대상 어휘 항목 수가 적어서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 관찰 결과는 유사한 구조의 어휘에서 유사한 형태의 음운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Chambers(2004:361)에서도 교차형 유형의 그래프를 언어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근거로 보고 있다. 이 유형의 그래프는 어휘 개별적으로도 그릴 수 있지만, 음운 변화나

문법적 변화를 세대별로 도식화 할 때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하나의 어휘 항목에 두 개의 경쟁형이 있는데 하나의 경쟁형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다른 경쟁형은 노년층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젊은 층이 사용하는 경쟁형은 현장 시간 안에서 도식화할 때 그 사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고의 발산형이나 교차형 그래프에서 경음형이 증가하는 어휘 항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음형이 우세해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경쟁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력이 강해지는 유형의 그래프에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 현장시간 안에서 이른 시기에 경쟁형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initial stasis), 중간 단계에서 빠르게 진행되며(rapid rise), 해당 변이형이 다수형으로 결정되는 적정선에서 변화는 멈춘 듯이 보이게 된다(tailing off). 사회언어학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그래프를 S-곡선(s-curve)이라고 한다.46) S -곡선을 도입하여 사회언어학적 분석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S-곡선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론은 현장 시간에서 두 개의 변이형이 경쟁관계를 이룰 때, 그리고 한 변이형이 다른 변이형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빈도가 우세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

S - 곡선 이론은 Bailey(1973:77)에서 제시된 것으로 원래 어형과 개신형이 경쟁하다가 개신형이 원래 어형을 대치하는 경우에 대한 언어 변화의 모형으로 자리를 잡았다. Bailey(1973:77)에서는 주어진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다가 특정 지점(20%)을 지나가면 그 변화양상에는 가속도가 붙고 언어 변화가 완결되는 지점에서는 다시 그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였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S자 형태가 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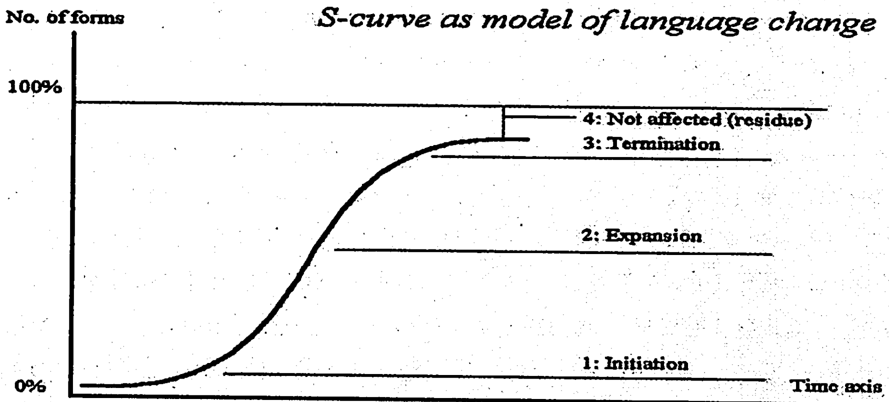
또한 개신 시작 지점에서 보수형과 개신형의 사용빈도가 동일할 경우에 부분 S -곡선이 나올 수 있다. 보수형 F와 개신형 F'의 사용빈도가 동일할 때, 그 변화 양상은 단선

46) S-곡선은 통계학에서 제시하는 누적도수분포곡선(ogive, cumulative frequency curve)과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통계학에서 누적도수분포가 나타나는 자료를 세로축에는 누적도수, 가로축에는 변량의 분할점들을 제시하여 꺾은선 그래프를 그릴 경우 누적도수분포곡선을 얻을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S-곡선(S-커브, S-curve)모형은 신기술도입의 수명주기, 신제품이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어떤 절차로 도입되고 확산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사회언어학에서의 S-곡선 이론도 사회과학의 S- 곡선 이론과 유사한 설명틀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어형이나 새로운 사회과학적 개념, 신제품은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개신집단(innovator)이 받아들여야 모든 사용자들에게 확산확률이 높아진다. Labov(1994)의 표현을 빌면 새로운 존재의 확산 유형은 5단계로 점진적인 초기 단계(incipient), 새롭고 격렬한 단계(new and vigorous), 중간 단계(mid-range), 거의 완료된 단계(nearing comple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유형은 사회과학에서 새로운 존재의 수명주기를 설명하는 데 그대로 적용된다. 새로운 존재의 도입 초기에는 초기 사용자(early adapter)를 중심으로 천천히 사용자층이 형성된다. 특정 지점에서 전체 사용자들의 주목을 끌면서 급격하게 사용빈도가 올라가게 된다. 새로운 존재가 전체 사용자층에게 알려져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서 그 존재가 도입 초기 집단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존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쟁형이 나타날 경우에 확산의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S-곡선이론은 사회 현상과 인간 행동의 시간적 변화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모형으로 언어변화나 행동변화, 소비유형의 변화, 새로운 말, 유행어의 도입과 확산을 설명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개신이 종료될 경우 F'의 사용빈도가 천천히 올라간다. 본고의 분석 결과 중 경음이나 평음이 증가하는 발산형의 그래프의 경우, 우세해지는 경음형 또는 평음형의 궤적은 부분 S- 곡선에 해당한다.

(그림 6) 언어 변화의 S -곡선 모형47)



S-곡선 이론에 비추어 (6-③)의 어휘들에 대해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해당 어휘들은 세대별로 변이형 실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어휘들로 음운 변화를 겪고 있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음운 변화는 역사의 일부이고 음운 규칙이 화자가 지닌 언어 지식의 일부라고 보는 관점에서, 음운 변화를 겪는 어형들의 발음은 당연히 예측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한 이 지역의 어중경음화의 변이형이 예외가 많고 예측불가능하다는 평가도 어중경음화가 변화를 겪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무교차형 그래프이다. 무교차형 그래프는 제보자들에게서 한 어휘의 변이형 가운데 다수형과 소수형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제보자의 연령대별로 변이형 실현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 항목을 현장시간그래프로 작성한 경우에 나타난다.

무교차형 그래프는 교차가 나타나지 않을 뿐 발산형 또는 수렴형과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 발산형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무교차형 그래프는 나이 든 세대보다 젊은 세대의 다수형 실현 비율이 올라가는 경우이고, 수렴형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무교차형 그래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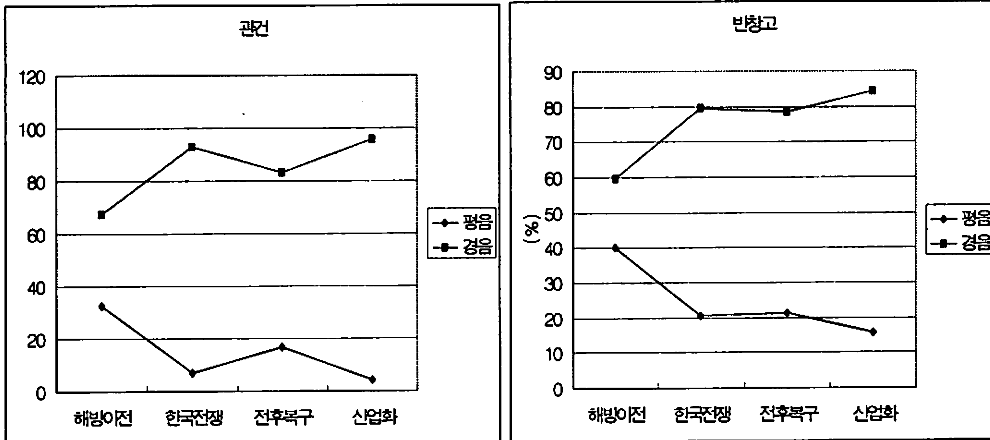
---

47) 출처 : http://www.uni-essen.de/ELE/ELE_Net.htm English at Campus Essen 온라인 언어학 강의. 작성 책임자 Raymond Hick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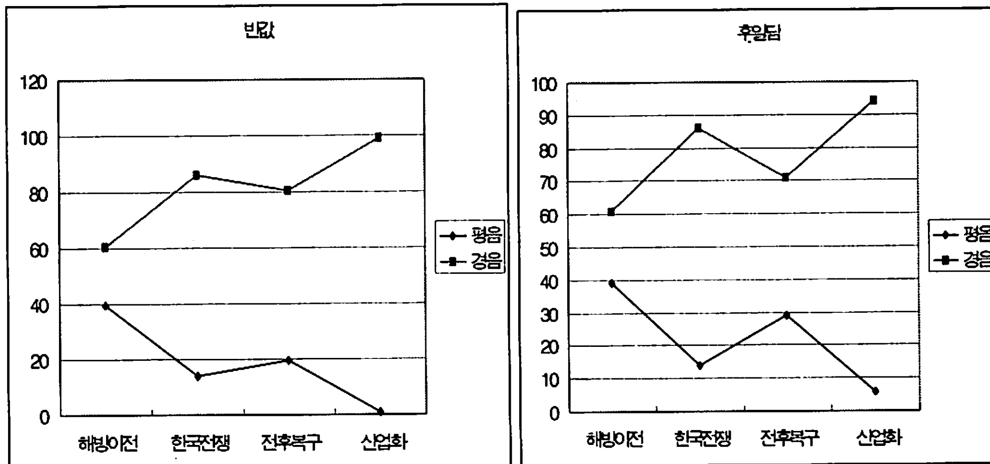
나이 든 세대의 소수형이 젊은 세대에서 실현 비율이 올라가는 경우이다. 본고에서 분석한 어중경음화의 자료를 보면 발산형과 유사한 무교차형 그래프는 젊은 세대에서 평음형 또는 경음형으로 다수형의 실현이 평준화 되는 것을 보여주고, 수렴형과 유사한 무교차형 그래프는 젊은 세대의 경음화 변이형 실현 비율의 증가를 보여준다.

(16-④) 어중경음화 무교차형 그래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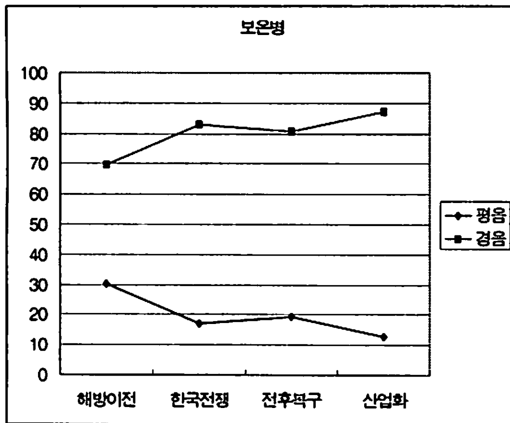
㉠ 유사 발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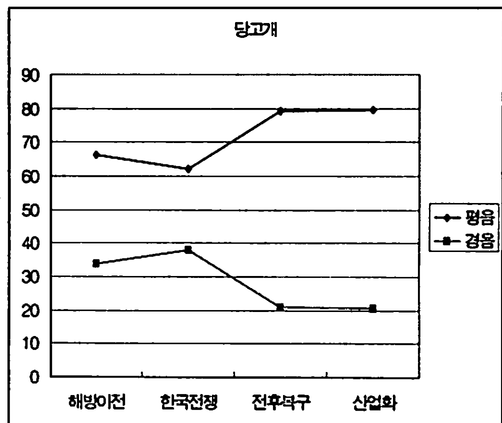


◎관건 - 표준평음, 경음우세, 대졸경음/ ◎반창고-표준평음, 경음우세, 서울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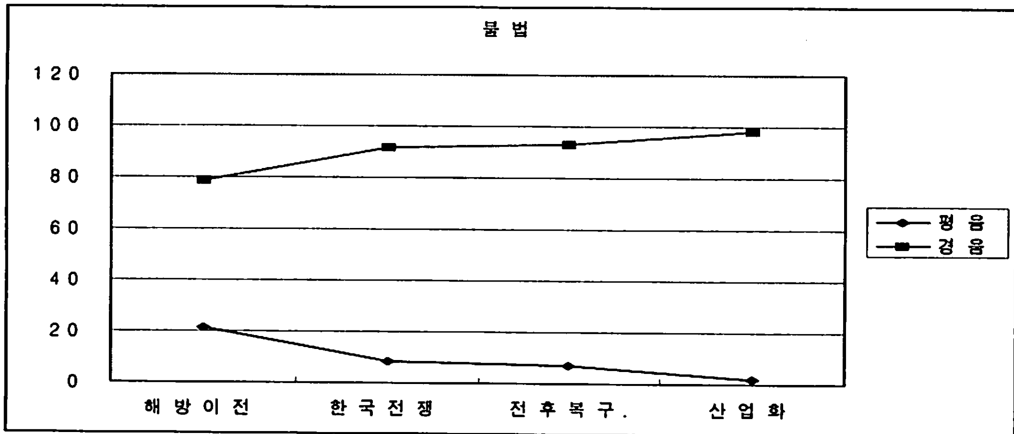


◎ 반값 - 표준평음, 경음고정형, 서울경음, 대졸경음/ ◎후일담 - 표준경음, 서울경음, 대졸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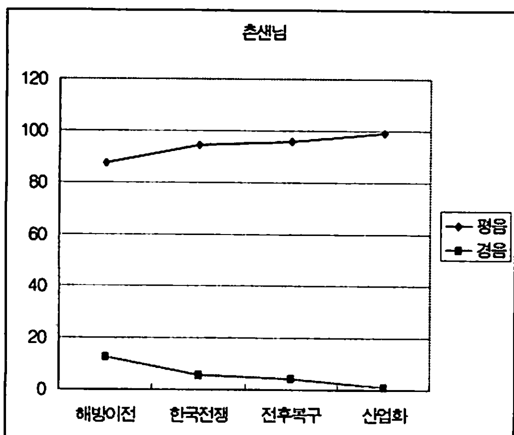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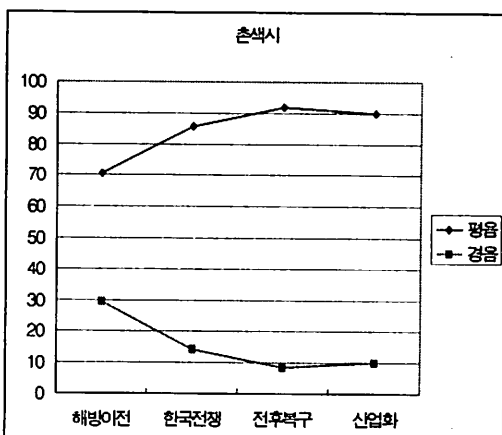


◎보온병 - 표준평음, 경음고정형, 여성경음/ ◎당고개(평음다수) - 서울평음, 대졸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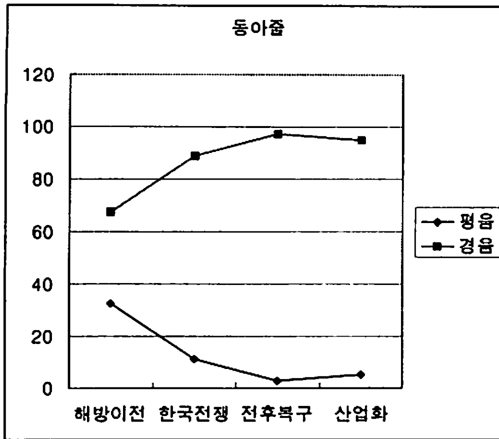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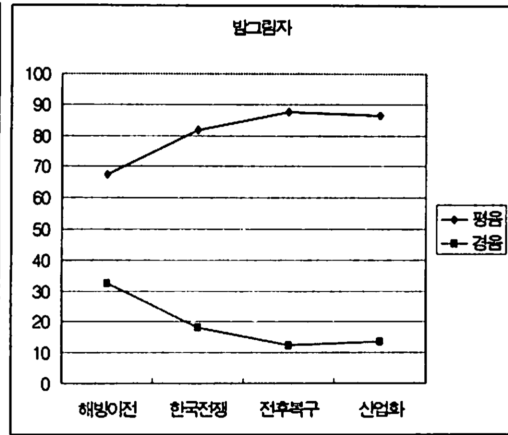
◎불법 - 표준평음, 경음고정형, 여성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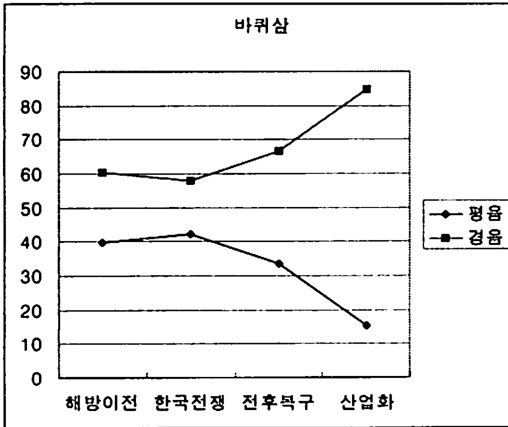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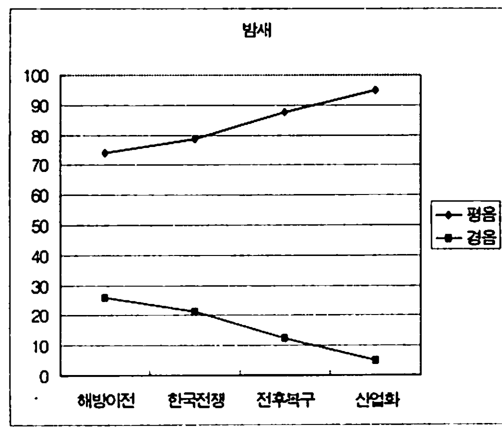
◎촌샌님(평음다수)- 표준경음, 평음고정형/ ◎촌색시(평음다수) - 표준경음, 평음고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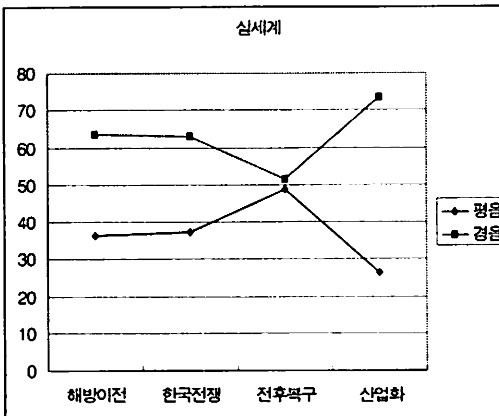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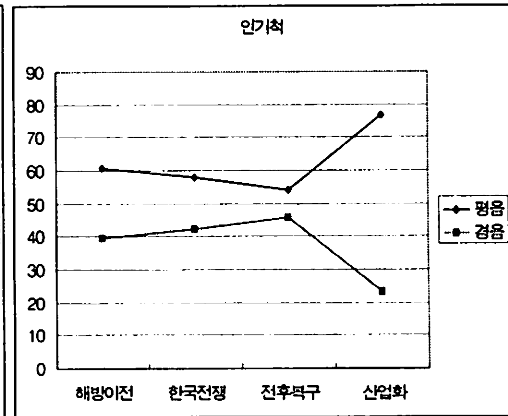
◎동아줄 - 표준평음, 경음고정형, 서울경음/ ◎발그림자(평음다수)-표준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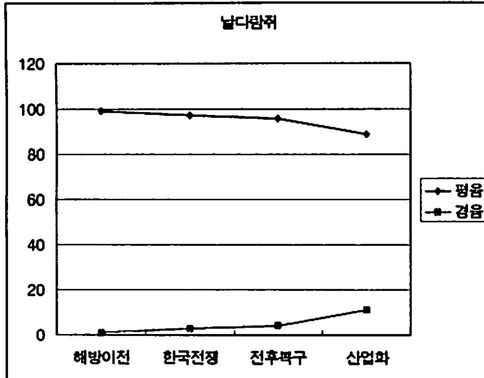
◎ 바퀴살 - 표준평음, 대졸경음/ ◎ 밤새(평음다수) - 표준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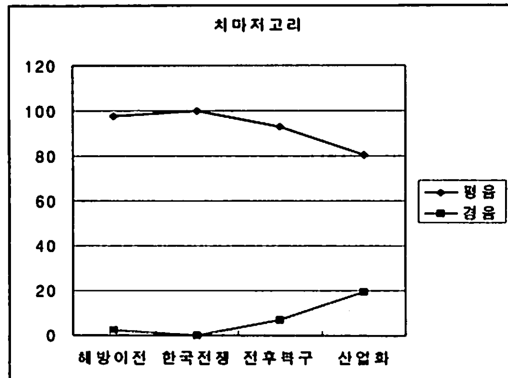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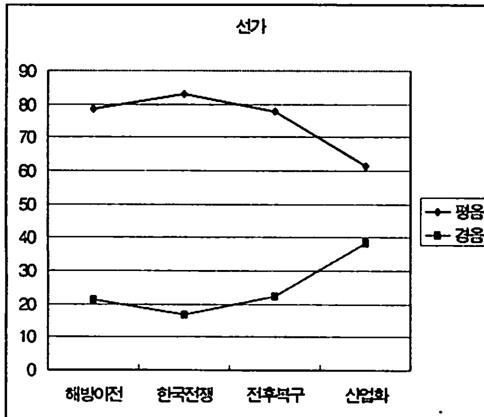
◎실세계 - 표준평음, 경기평음 / ◎인기척(평음다수) - 표준경음, 서울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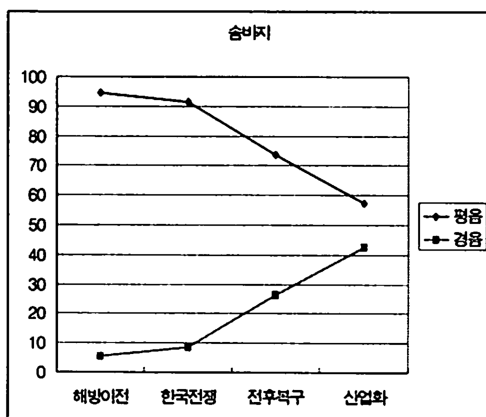
㉡ 유사 수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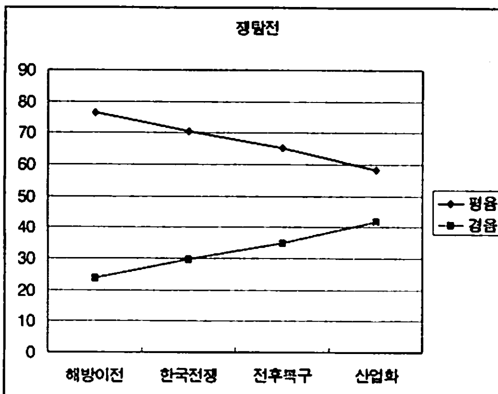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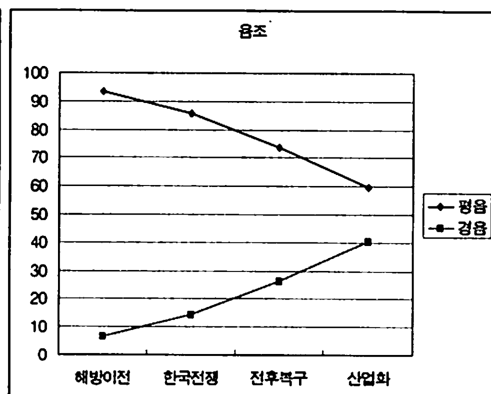
◎날다람쥐(평음다수)- 표준경음, 고정평음/◎치마저고리(평음다수)- 표준평음, 고정평음





◎선가(평음다수) - 표준평음, 서울경음, 대졸경음 / ◎ 솜바지(평음다수)- 표준평음, 여성경음,경기평음





◎쟁탈전(평음다수) - 표준평음, 서울평음/ ◎음조(평음다수) - 표준평음

(16-④) 무교차형 그래프에서 주목할 점은 유사수렴형 그래프로 나타나는 어휘 항목들의 그래프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전 세대에서 다수형으로 나타나는 평음형의 실현 비율이 감소하고, 소수형이었던 경음형의 실현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유사 발산형 그래프는 그 전 세대에서는 다수변이형이거나 우세를 나타내던 변이형들이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고정적 다수형으로 평준화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제까지 어휘개별적인 어중경음화의 실현에서 20세기 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주하는 제보자들의 연령별로, 출생 시기별로, 집단 내적으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한 유형의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세대 집단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현장 시간 분석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살펴본 결과를 통해 세대에 따른 어중경음화 실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본고의 제보자 집단의 어중경음화 실현을 현장 시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제보자의 연령 집단에 따라 변이형 실현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제보자의 연령에 따라 변이형 실현에 차이를 보이는 단어는 총 55단어이다.

② 해방 이전 출생자, 한국전쟁기 출생자, 한국전쟁 이후 출생자,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도시화,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별로 어중경음화의 변이형 실현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 이는 이 지역에서 어중경음화가 세대 별로 차이를 보이는 음운 현상임을 알려준다.

③ 55개 어휘에 대한 세대별 변이형 실현 비율을 도식화 한 결과, 어중경음화의 그래프는 평음형과 경음형의 증감에 따라 발산형, 수렴형, 교차형, 무교차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 지역의 어중경음화가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언어변화임을 알려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④ 발산형 그래프가 나타나는 어휘들은 해방 이전 출생자 집단에서 평음형과 경음형이 경쟁형으로 나타나는 어휘가 산업화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평음형 또는 경음형으로 다수형이 통일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⑤ 수렴형 그래프가 나타나는 어휘들은 해방 이전 출생자 집단에서 평음형이 다수형으로 나타나는 어휘들이다. 이 어휘들은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경음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⑥ 한국전쟁기 출생자 집단 또는 전후복구기 출생자 집단을 중심으로 그 이전 세대에서는 수렴형으로, 그 이후 세대에서는 발산형으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교차형 그래프이다. 교차형 그래프가 나타나는 어휘 항목들은 현재 장년층인 1940-50년대 출생자를 기점으로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변이형 실현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진 어휘 항목들이다.

⑦ 무교차형 그래프에서도 수렴형과 발산형과 유사한 유형을 볼 수 있다.

⑧ 변이형 실현에서 나타나는 발산형 그래프는 수도권 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집중이 일어난 시기에 태어난 1965년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어중경음화의 다수 변이형이 평음형 또는 경음형으로 통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전 세대 제보자에게서 뚜렷하게 다수형이 나타나지 않는 어휘 항목의 경우도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는 평음형 또는 경음형으로 다수형이 통일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 변이형 평준화를 언어 사회 구조의 변화(인구이동, 도시화, 교육의 일반화 등)에 의한 방언평준화로 보았다.

⑨ 변이형 실현에서 나타나는 수렴형 그래프는 해당 어휘에 대해서 1965년 이후 출생자 집단의 경음화가 그 이전 세대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수렴형 그래프를 통해 이 지역에서 어중경음화는 세대의 변화에 따라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20세기 수도권 지역의 어중경음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음형 또는 평음형으로 다수형이 통일되는 평준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이형 평준화를 이끌어가는 사회 집단은 부모 세대부터 서울에 진입하였거나 서울에 생활의 기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람들, 여성들, 고학력자들,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청장년층으로 판단된다. 이들 사회 집단의 특징은 언어 행동에서 강한 동조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청장년층과 고학력자들은 현재 수도권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복합어 내부 ㄴ삽입 현상의 변이

ㄴ 삽입 현상은 복합어 내부 또는 구 등에서 선행 요소의 말음이 자음이고 후행요소의 말음이 'ㅣ'나 이중모음 'ㅑ,ㅕ,ㅛ,ㅠ,ㅖ'으로 시작되는 자립형태소일 경우에 그 사이에 'ㄴ'이 끼어드는 현상이다.

ㄴ 삽입 현상은 음운론적 환경이 충족되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배주채(2003)에서는 언어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ㄴ삽입 현상의 경향성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1) 가. ㄴ삽입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배주채 2003)

① 이중모음이 후행하는 경우

② 선행어 : 겉(겉욕심), 눈(눈요기),늦(늦여름), 뒨(뒨이웅), 맨(맨입), 색(색연필), 짓(짓이기다), 첫(첫이레), 한(한여름), 헛(헛일)

③ 후행어 : 약(내복약), 여고(서울여고), 여기다(업신여기다), 여우(불여우), 여행(수학여행), 역(서울역),연결(음절연결), 연도(출생연도), 열(교육열), 염(늑막염), 엽서(그림엽서), 엿(물엿), 영어(초급영어), 영장(구속영장), 예절(식탁예절), 요금(기본요금), 요리(궁중요리), 용(공업용), 용어(전문용어), 유(식용유), 윤리(국민윤리), 이불(솜이불), 익다(설익다), 일(막일), 잎(꽃잎)

④ 중첩어 : 야금야금

⑤ 고유명사 : 김예은, 김유신

⑥ 수사의 결합 : 열여섯, 스물일곱, 일일이

⑦ 관형어 + 체언 : 올 여름, 한 이불, 지난 여름

나. ㄴ삽입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① 예외의 어휘들 : 그림일기, 눈인사, 몰이해, 몰인정, 불이익, 역이용, 첫인사, 첫인상, 독약, 안약, 경유, 석유, 중유

② 2음절 한자어에서는 일반적으로 ㄴ삽입이 일어나지 않지만 선행어가 'ㄹ'이고 후행어가 이중모음인 일부 어휘(절약, 활약, 결어, 발열, 촬영, 구욕, 물욕, 활용 등)에서는 ㄴ첨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1)을 보면 후행어가 반모음 [j]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일 경우에 ㄴ삽입이 더 잘 일어난다는 것 외에는 ㄴ삽입 현상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일어나지 않는지 잘 알 수가 없다. 배주채(2003:243)에서는 (1)의 내용을 제시하며 '(ㄴ삽입 현상이) 방언이

나 개인에 따라, 또는 같은 사람이라도 말투에 따라 변이가 심하다'는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지영· 차재은(2003:303)에서는 ㄴ삽입 현상이 음운론적 조건과 형태론적 조건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며 "대치나 탈락, 축약과 같은 공시적 음운 규칙을 만드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논평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ㄴ삽입 현상이 실제 언중들의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여기에 어떤 언어적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ㄴ삽입 현상이 일어나는 어휘들의 내적 구조로는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ㄴ삽입 현상이 실제 언어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 토박이를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방언학의 자료 조사 1회(국립국어원 1997 :20-25)와 수도권 지역의 100명 이상의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본고의 분석 대상 자료를 포함하여 세 번의 조사가 있었다.

전통적인 방언학적 방법론으로 이뤄진 국립국어원(1997)에서는 '감언이설, 검열, 이상야릇하다, 낯익다, 막일, 밭이랑, 밭일, 백열등, 색연필, 업신여기다, 한여름'의 발음에 대한 서울 토박이(3대 이상 서울 중구/종로구 거주, 1930년대 이전 출생자)들의 변이형 실현 양상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서울 토박이 화자들은 ㄴ삽입이 예상되는 어휘들에 대해서 대체로 ㄴ삽입을 실현하고 있지만 표준발음과 관계없이 연음형을 실현하는 어휘가 있으며(감언이설), 후행모음이 이중모음이지만 ㄴ삽입의 실현 경향이 약한 어휘(백열등)가 있음을 볼 수 있다. (2)는 국립국어원(1997)의 변이형 실현 경향성을 정리한 것이다.

(2) 국립국어원(1997) 서울 토박이 화자들의 어휘별 ㄴ삽입 실현 경향성

① 감언이설 : 표준발음과 관계없이 제보자의 다수는 연음형 실현

② 검열, 이상야릇하다, 낯익다, 막일, 밭일 : 다수의 제보자가 ㄴ삽입형 실현

③ 백열등 : ㄴ삽입형과 연음형 실현 제보자의 수가 비슷함

④ 색연필, 업신여기다, 한여름 : 다른 어휘를 선택한 제보자 제외, 거의 모든 제보자들이 ㄴ삽입형을 실현

최혜원· 권미영· 황연신이 조사한 국립국어원(2002)는 수도권 지역에서 부모 세대부터 거주한 20대에서 70대 성인남녀 204명에게 ㄴ삽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55개 단어를 녹취 전사하여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국립국어원(2002)의 분석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조사의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55개 어휘에 대한 ㄴ삽입 전체 평균값은 61.22%로 나타났다. 후행모음이 'ㅛ'일 경우가 ㄴ삽입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70.15%, 그 다음으로 모음 'ㅣ'가 후행할 경우는 62.04%로 나타났고, 다음은 ㅑ,ㅠ,ㅕ의 순이었다. 문법 범주별로 살펴보면 단일어(영양, 절약, 야옹야옹, 장염, 영영, 용용, 환율, 전율, 양육, 운율,

잉잉, 이글이글, 강약, 음양, 의기양양, 이동영, 김승용)에서의 ㄴ삽입의 비율은 63.52%로 첩어의 부사어의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운 ㄴ삽입 현상이 나타난다. 파생어(덧양말, 첫여름, 산업용, 핫이불, 덧입다, 잡일, 짓이기다, 자축연, 삼만여 명)에서의 ㄴ삽입의 비율은 63.28%로 '산업용'의 경우는 거의 100% 가깝게 ㄴ삽입 현상이 일어난다. 합성어(짚여물,핵연료, 학여울역, 연이율, 호박잎, 욕만욕천욕백, 늣요강)에서의 ㄴ삽입의 비율은 55.52%로 '호박잎'의 경우 90% 이상 ㄴ삽입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조사 '-요'가 첨가된 경우(신문요, 밥요, 그러면요)의 ㄴ삽입은 49.76%, 구에서의 ㄴ삽입(무슨 야단, 우리 집 양반은, 올 여름은, 어찌 된 영문인지, 무슨 요일, 잘 요약, 나온 요리는, 어떤 유혹, 잘 유지, 강양, 내분 양상, 국민 여러분, 김 여사, 맺힌 이슬이, 이런 이유로, 못 잊어, 못할 일, 한 잎, 구속 영장)에서의 ㄴ삽입은 61.61%로 파악되었다. 이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도권 지역 성인들의 ㄴ삽입과 단어 구조에 대한 관계는 (2)로 정리할 수 있다.

(3) 국립국어원(2002)의 어휘 구조 별 ㄴ삽입 양상
① 후행 모음 : ㅛ>ㅣ>ㅑ>ㅠ>ㅕ(국립국어원 2002:9)
② 문법 범주 : 단일어>파생어>구>합성어>보조사 결합형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조사는 ㄴ삽입 현상을 실현하는 제보자들이 지닌 다양한 사회적 속성(제보자 연령, 성별, 지역적 배경)을 함께 조사하고, 제보자들이 지닌 속성에 따라 ㄴ삽입의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있는지 빈도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진들이 ㄴ삽입 현상의 분석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사회적 요인은 '제보자의 연령'이었다. 연령과 ㄴ삽입의 관계에 대한 국립국어원(2002:52)의 결론은 '전반적으로 젊은 층으로 갈수록 'ㄴ'이 삽입되는 비율이 조금씩 줄어든다'이다.

국경아· 이호영· 김주원(2004)은 서울에서 출생, 성장, 거주한 20대에서 70대 남녀 167명에게 ㄴ삽입 현상이 예상되는 단어 183개 단어의 발음의 선호도에 대한 우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이 논문에는 'ㄴ삽입 선호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해석이 담겨 있다. (4)은 국경아· 이호영· 김주원(2004:53)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의 요약이다.

(4) 국경아 · 이호영 · 김주원(2004:53)의 ㄴ삽입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①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남 67%, 여 68%)
② 20-40대보다 50-70대의 선호도가 높다.
③ 한자어에서 합성어의 ㄴ첨가 선호도가 높다.
④ 한자어에서 음절수와 ㄴ첨가 선호도는 관련성이 있다.
(2음절어, 3음절어의 ㄴ첨가 선호도가 높다.)

⑤ 구성 형태소의 음절수에 따라 ㄴ첨가 선호도가 달라진다.

⑥ 선행어 형태소의 끝자음이 /ㄹ,ㅇ/일 경우 ㄴ첨가 선호도가 낮아진다. /ㄴ,ㅁ/일 경우에는 선호도가 높아진다.

⑦ 고유어의 경우 단어의 친숙도다 낮은 농경어[48]와 의태어[49]들의 ㄴ첨가 선호도가 낮다.

⑧ 용언의 사동형에 대한 ㄴ첨가 선호도가 기본형에 대한 ㄴ첨가 선호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음절수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⑨ 이중모음 앞에서 ㄴ첨가 선호도가 훨씬 높다.

⑩ 한자어의 경우 선행 형태소 끝자음의 기저형태소가 연구개비음일 때보다 연구개폐쇄음일 때 ㄴ첨가 선호도가 훨씬 높다.

⑪ 현행 표준발음법에서는 ㄴ첨가가 /ㅣ.ㅑ,ㅕ,ㅛ,ㅠ/ 앞에서만 일어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ㅖ. ㅒ/앞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녹취조사와 설문조사가 실시된 선행연구의 경우도 언어 사용자의 집단별 특징에 따라서 ㄴ삽입 현상의 유형화를 시도한 경우는 보기 힘들다. 다만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적 요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의 두 가지 관찰은 특기할 만하다. ㄴ삽입 현상이 성차가 없는 현상이며,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실현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본고는 국립국어원(2003)의 자료 중 ㄴ삽입 현상에 관련된 61개 어휘 항목의 발음에 한정하여 제보자 집단의 특성에 따른 ㄴ삽입 현상의 유형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4.1 20세기 수도권 지역 출신 화자들의 ㄴ삽입 현상 실현 경향 분석

이 장에서 ㄴ삽입 현상의 제보자 전체적인 발음 경향을 분석한 구체적은 방법과 가설, 양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3장의 어중경음화의 분석 방법과 동일하다. 본고에서는 수도권 지역 출신 화자들의 ㄴ삽입 현상 실현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분석 대상 자료 중 ㄴ삽입 현상이 일어나는 어휘 항목에 대해 349명의 발화 자료의 ㄴ삽입 여부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로 코딩(ㄴ삽입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1번, ㄴ삽입이 실현된 경우 2번, 기타는 모두 결측 처리)하였다. (1)은 분석 대상 어휘 항목이다.

---

48) 조사 대상 어휘는 '밭이랑, 논이랑, 논임자, 땅임자'이다.

49) 조사 대상 어휘는 '유들유들, 이죽이죽, 얄기죽얄기죽'이다.

(표 17) 본고의 ㄴ삽입 분석 대상 어휘(61개)와 전체 ㄴ삽입 빈도

가. 고유어(35개), 한자어(26개)

번호	어휘	ㄴ삽입 응답자(수) (N=349)	ㄴ삽입 실현율(%)	표준 발음	번호	어휘	ㄴ삽입 응답자(수) (N=349)	ㄴ삽입 실현율(%)	표준 발음
1	야금야금	326	93.9	ㄴ삽입	1	남원여중	334	96.8	ㄴ삽입
2	쌍욕	326	93.7	ㄴ삽입	2	즉석요리	244	72.4	ㄴ삽입
3	산열매	267	77.3	ㄴ삽입	3	공업용수	235	72.3	ㄴ삽입
4	큰일(02)	208	60.3	ㄴ삽입	4	문학예술	230	71.2	ㄴ삽입
5	얄팍얄팍	193	60.5	ㄴ삽입	5	반영구적	227	66.6	ㄴ삽입
6	막일	175	50.3	ㄴ삽입	6	한용운	215	61.8	ㄴ삽입
7	안팎일	167	52.7	ㄴ삽입	7	늑막염	179	51.3	ㄴ삽입
8	솜이불	164	48.7	ㄴ삽입	8	몰이해	170	52.2	ㄴ삽입
9	꽃이슬	161	52.6	ㄴ삽입	9	동성연애자	165	47.7	ㄴ삽입
10	설익다	149	44.5	ㄴ삽입	10	불이익	146	42.7	ㄴ삽입
11	낯익다	136	45.5	ㄴ삽입	11	순이론	125	41.3	ㄴ삽입
12	맞잇다	119	39.4	ㄴ삽입	12	목양말	106	30.4	ㄴ삽입
13	솔이끼	111	33.4	ㄴ삽입	13	생이별	87	25.1	ㄴ삽입
14	첫이레	107	40.4	ㄴ삽입	14	순이익	83	25.6	ㄴ삽입
15	연잇다	105	30.1	ㄴ삽입	15	영이별	81	23.5	ㄴ삽입
16	차렵이불	94	31.2	ㄴ삽입	16	선이자	59	17.0	ㄴ삽입
17	산이마	89	26.7	ㄴ삽입	17	공염불	52	14.9	ㄴ삽입
18	끝말잇기	88	26.4	ㄴ삽입	18	인간이별	49	15.2	ㄴ삽입
19	밭이랑	85	30.7	ㄴ삽입	19	감언이설	40	11.8	ㄴ삽입
20	옆잇기	83	30.2	ㄴ삽입	20	근본이념	27	7.7	ㄴ삽입
21	비단잉어	67	19.4	ㄴ삽입	21	괴담이설	2	0.6	ㄴ삽입
22	논이랑	64	18.7	ㄴ삽입	22	불유쾌하다	300	86.5	연음
23	힘입다	57	16.4	ㄴ삽입	23	정약용	171	49.0	연음
24	음이름	48	14.5	ㄴ삽입	24	총연맹	157	45.9	없음
25	밤이슬	48	13.8	ㄴ삽입	25	불연속	110	32.1	연음
26	본입자	36	10.7	ㄴ삽입	26	일목요연	46	16.3	연음
27	새벽이슬	26	7.5	ㄴ삽입					
28	뒷박이마	6	1.7	ㄴ삽입					
29	땅임자	5	1.4	ㄴ삽입					
30	열여덟	314	94.6	없음					
31	열여섯	310	93.9	없음					
32	열일곱	166	51.2	없음					
33	큰일(01)	134	38.5	연음					
34	한이레	132	39.4	연음					
35	첫인상	18	6.6	연음					

(표 18) ㄴ삽입 다수 변이형 (24개)

번호	어휘	ㄴ삽입 실현율(%)	표준 발음	표준 발음일치 여부
1	남원여중	96.3	ㄴ삽입	일치
2	열여덟	94.6	없음	없음
3	열여섯	93.9	없음	없음
4	야금야금	93.9	ㄴ삽입	일치
5	쌍욕	93.7	ㄴ삽입	일치
6	불유쾌하다	86.3	연음	일치하지 않음
7	산열매	77.3	ㄴ삽입	일치
8	비단잉어	19.4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9	논이랑	18.7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10	선이자	17.0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11	힘입다	16.4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12	일목요연	16.3	연음	일치
13	인간이별	15.2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14	공염불	14.9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15	음이름	14.5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16	밤이슬	13.8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17	감언이설	11.8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18	본입자	10.7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19	근본이념	7.7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20	새벽이슬	7.5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21	첫인상	6.6	연음	일치
22	뒷박이마	1.7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23	땅임자	1.4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24	괴담이설	0.6	ㄴ삽입	일치하지 않음

(표 18) ㄴ삽입 다수변이형은 ㄴ삽입 현상이 후행 모음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형이 연음형의 경우는 '공염불'과 '일목요연'을 제외하고 모두 'ㅣ'모음이 후행하는 환경이다. 또한 (표 17)의 어휘 목록을 ㄴ삽입 실현율로 재배열해보면 ㄴ삽입 실현율이 60% 이상인 상위 14개 어휘 '남원여중, 열여덟, 열여섯, 야금야금, 쌍욕, 불유쾌하다, 산열매, 즉석요리, 공업용수, 문학예술, 반영구적, 한용운'은 모두 이중모음이 후행하는 어휘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ㄴ삽입 현상은 언어 내적으로 후행 모음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7)의 어휘들에 대해 분석 대상 제보자들이 표준발음을 실현하고 있다면 전체 응답자의 ㄴ삽입 실현 비율을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ㄴ삽입형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개별 어휘의 ㄴ삽입 실현율과 이 지역의 다수형으로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준발음에서 ㄴ삽입을 표준발음으로 지정한 해당 어휘들에 대한 ㄴ삽입 실현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제부터 (표 17)의 어휘 항목에 대해 349명의 응답 결과를 열 네 가지 항목의 사회적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 분석 방법 : 해당 음운 현상만을 보기 위하여, 기타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결측값으로 바꾸어 처리 후, 비율에 따라서, 해당 단어에 절반 이상 해당 음운 현상을 발음할 경우, 해당 음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음.

② 분석 기법의 설명 :

빈도분석 : 이산형으로 이루어진 자료가 해당 범주에 얼마나 구성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기법

교차분석 : 각각 교차되어지는 범주 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정하는 기법

③ 분석 절차 :

ⅰ)자료의 가공

이산형으로 코딩된 자료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해당 문항의 비율을 구함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경우, 해당 음운 현상이 있다고 봄

ⅱ)자료 분석

성별, 연령별, 최종 학력별, 현 거주지별, 시대별로 응답자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봄

성별, 연령별, 최종 학력별, 현 거주지별, 시대별로 해당 음운 현상의 실현 유무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

가설 H_0:해당 기준에 대하여 음운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H_1:해당 기준에 대하여 음운 현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해당 기준은 성별, 연령별, 최종 학력별, 현 거주지별, 시대별을 말함

분석은 통계패키지 SAS를 사용함(고려대학교 통계상담소)

(표 19)는 제보자의 성별과 ㄴ삽입의 실현 경향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표 19) 제보자의 성별에 따른 ㄴ삽입 실현 경향

빈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연음	ㄴ삽입	총합
남성	122	28	150
	34.96	8.02	42.98
	81.33	18.67	
	43.26	41.79	
여성	160	39	199
	45.85	11.17	57.02
	80.40	19.60	
	56.74	58.21	
총합	282	67	349
	80.80	19.20	10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1	0.0478	0.8269

표본 크기 = 349

(표 19)에서 가설에 대한 유의 확률 0.8269는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 대상 제보자들로 한정하여 성별과 ㄴ삽입 현상의 실현 경향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제보자의 연령과 ㄴ삽입의 관계이다. 가설 검정에 대한 유의 확률 <0.001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ㄴ삽입 현상은 제보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0) 제보자의 연령별 ㄴ삽입 실현 경향

빈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연음	ㄴ삽입	총합
20	66	2	68
	18.91	0.57	19.48
	97.06	2.94	
	23.40	2.99	
30	59	3	62
	16.91	0.86	17.77
	95.16	4.84	
	20.92	4.48	
40	61	11	72
	17.48	3.15	20.63
	84.72	15.28	
	21.63	16.42	
50	46	21	67
	13.18	6.02	19.20
	68.66	31.34	

	16.31	31.34	
60	38 10.89 59.38 13.48	26 7.45 40.63 38.81	64 18.34
70	12 3.44 75.00 4.26	4 1.15 25.00 5.97	16 4.58
총합	282 80.80	67 19.20	349 10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5	46.2002	<.0001

표본 크기 = 349

(표 20)을 보면 ㄴ삽입의 변이형 실현 비율이 50대를 기준으로 그 세력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행백분율을 보면 40대 이후의 ㄴ삽입 실현율은 20% 이하로 내려간다. 50대 이전의 제보자들은 ㄴ삽입 현상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ㄴ삽입의 세대별 차이를 나타내는 표와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상단이 ㄴ삽입이 일어난 경우이며 하단이 ㄴ삽입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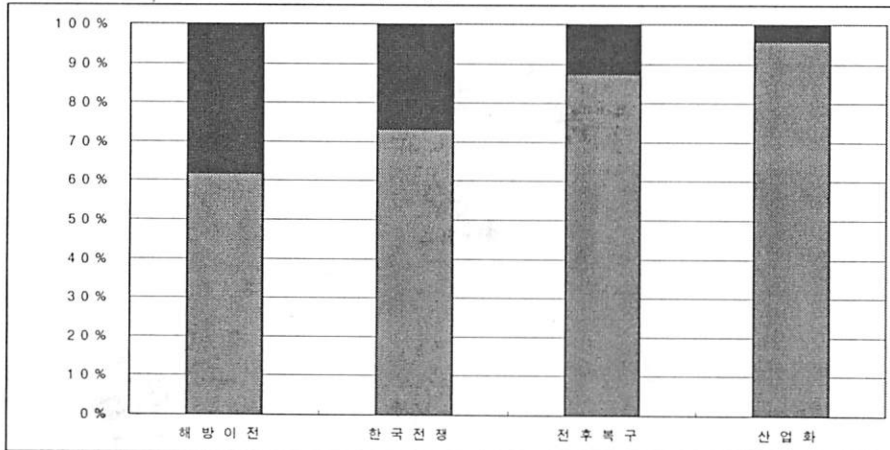
(표 21) 제보자의 세대별 ㄴ삽입 실현 경향

빈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연음	ㄴ삽입	총합
해방이전	55 15.76 61.80 19.50	34 9.74 38.20 50.75	89 25.50
한국전쟁	52 14.90 73.24 18.44	19 5.44 26.76 28.36	71 20.34
전후복구	63 18.05 87.50 22.34	9 2.58 12.50 13.43	72 20.63
산업화	112 32.09 95.73 39.72	5 1.43 4.27 7.46	117 33.52

총합	282	67	349
	80.80	19.20	10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3	42.2215	<.0001

표본 크기 = 349



(표 21)의 표에서 가설 검정에 대한 유의 확률 <0.0001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이 지역에서 ㄴ삽입 현상은 세대 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 ㄴ삽입 환경의 어휘에 대한 연음 실현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실현율이 점점 높아진다.

(표 22)는 제보자의 현 거주지와 ㄴ삽입의 관계에 대한 교차표와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상단이 ㄴ삽입이 일어난 경우이며 그래프의 하단이 ㄴ삽입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표 22)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ㄴ삽입 실현 경향

빈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연음	ㄴ삽입	총합
서울	158 45.27 85.87 56.03	26 7.45 14.13 38.81	184 52.72
서울제외	124 35.53 75.15 43.97	41 11.75 24.85 61.19	165 47.28
총합	282	67	349

	80.80	19.20	10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1	6.4422	0.0111

표본 크기 = 349

(표 22)의 유의 확률을 보면 가설 검정에 대한 유의 확률 0.0111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ㄴ삽입 현상은 서울 거주자와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 간의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있는 변이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프를 통해 서울 거주자의 연음 실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제보자의 최종학력과 ㄴ삽입 현상의 관계이다. 가설 검정에 대한 유의 확률 0.0037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ㄴ삽입 현상은 제보자의 최종 학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조사 대상 중 초졸자의 수가 15명으로 수가 적다는 것이다. 중졸자와 고졸자, 대졸자의 경우는 모두 ㄴ삽입을 실현하지 않는 비율이 실현하는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다. 전반적으로 제보자들이 조사 대상 어휘 항목에 대해 ㄴ삽입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 제보자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나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집단이라는 전제에서는 ㄴ삽입 현상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20세기 이 지역 사람들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 23) 제보자의 최종 학력에 따른 ㄴ삽입 실현 경향

빈도 / 백분율 / 행 백분율 / 칼럼 백분율	0	1	총합
초졸	9	6	15
	2.58	1.72	4.30
	60.00	40.00	
	3.19	8.96	
중졸	24	10	34
	6.88	2.87	9.74
	70.59	29.41	
	8.51	14.93	
고졸	107	32	139
	30.66	9.17	39.83
	76.98	23.02	
	37.94	47.76	
대졸	142	19	161
	40.69	5.44	46.13
	88.20	11.80	

	50.35	28.36	
총합	282 80.80	67 19.20	349 10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3	13.4594	0.0037

표본 크기 = 349

이제까지의 결과를 보면 ㄴ삽입 현상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실현 비율이 낮아지고, 최종 학력이 높은 사람의 경우 그 실현 비율이 낮아지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ㄴ삽입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ㄴ삽입 현상은 성차가 없는 현상이며,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실현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 본고의 분석은 기존의 분석에 ㄴ삽입 현상이 제보자들의 지역적 배경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어휘 개별적인 교차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각 어휘별로 제보자들의 ㄴ삽입 현상의 변이형에 어떤 언어적, 사회적 요인들이 관여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2 사회적 요인에 의한 ㄴ삽입 현상의 변이 양상

4.1의 분석 결과로 보면 본고의 분석 대상 제보자 집단에서 ㄴ삽입 현상은 제보자의 연령, 학력, 지역적 배경에 의해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2에서는 분석 대상 개별 어휘별 ㄴ삽입 실현을 자세히 살펴보고, 변이형 실현과 제보자들의 사회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연관성을 찾아보도록 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 원자료인 국립국어원(김선철, 권미영, 황연신)의 2003년 보고서에서는 ㄴ삽입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요인으로 제보자의 연령 하나만 파악하였고, 그 사회적 요인이 드러나는 어휘로 '늑막염, 정약용'의 두 단어를 들고 있다(국어원 2003:66). 그 이유는 이들 세 단어가 제보자의 연령별 변이형 실현의 단순 빈도에서 보아도 가시적인 차이가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국어원(2003)의 분석 대상 자료를 통계 분석을 위한 전처리를 한 다음 변이형 실현의 차이가 예상되는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교차분석을 시행했다. 따라서 분석 대상 자료에서 국어원(2003)의 결과 보다 더 많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휘 항목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4.2의 분석 방법은 3.2의 분석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교차분석의 유의도(P)는 $P<0.05$로, 사회적 요인에 의해 해당 어휘의 ㄴ삽입 현상에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 대하여 95%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50]

(표 24)는 교차 분석 결과를 통해 파악된 어휘별로 변이형 실현에 차이를 보이는 사회적 요인들을 정리한 표이다.

(표 24)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전체 어휘별 ㄴ삽입 현상 실현 경향 분석표
<고유어>

번호	어휘	ㄴ삽입 실현율 (%)	표준 발음	다수 변이형	분석 결과/사회적 요인	설명
1	야금야금	93.9	ㄴ삽입	ㄴ삽입	표준발음과 다수변이형 일치	첩어, 이중모음 후행어
2	쌍욕	93.7	ㄴ삽입	ㄴ삽입		이중모음 후행
3	산열매	77.3	ㄴ삽입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거주지(지역) 출생지(지역, 도시) 모계(지역,도시) 최종학력	표준발음과 다수변이형 일치 20대, 1980년대 출생자 연음 증가 서울 연음 대졸 연음
4	큰일(02) 51)	60.3	ㄴ삽입		거주지(지역, 도시) 부계(지역,도시) 모계(지역,도시)	ㄴ삽입 다수형 서울 연음
5	얄팍얄팍	60.5	ㄴ삽입		성별 거주지(지역, 도시)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도시) 모계(지역,도시)	여성 ㄴ삽입 서울 연음
6	막일	50.3	ㄴ삽입		거주지(도시) 모계(도시)	인천ㄴ삽입 *서울 토박이 노년층 ㄴ삽입 다수형
7	안팎일	52.7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30대, 1970년대 이후 ㄴ삽입 증가
8	솜이불	48.7	ㄴ삽입		성별	여성 ㄴ삽입 * 한국방언자료집 경기도편(I-126) 제보자 전원 ㄴ삽입
9	꽃이슬	52.6	ㄴ삽입		ㄴ삽입형과 연음형 경쟁	P < .01의 유의수준에서 본고가 설정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10	설익다	44.5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연음

50) 이제부터 반복적으로 제시될 유의 확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P < .05$ = 판단이 틀릴 가능성 5% 이하 = 판단이 맞을 가능성 적어도 95%이상
$P < .01$ = 판단이 틀릴 가능성 1% 이하 = 판단이 맞을 가능성 적어도 99%이상
$P < .001$ = 판단이 틀릴 가능성 0.1% 이하 = 판단이 맞을 가능성 적어도 99.9%이상

					세대) 출생지(지역) 모계(도시) 최종학력	증가 서울 연음 대졸 연음
11	낮익다	45.5	ㄴ삽입		연령(세대)	산업화 세대 연음 *서울 토박이 노년층 ㄴ삽입 다수형
12	맞잇다	39.4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20대. 1970년대 이후 연음 증가
13	솔이끼	33.4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모계(도시) 최종학력	40대, 195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서울 연음 대졸 연음
14	첫이레	40.4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모계(도시	30대, 1970년대 이후 연음 증가 경기 ㄴ삽입
15	연잇다	30.1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도시,지역) 모계(지역, 도시) 최종학력	40대, 195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서울 연음 대졸 연음
16	차렵이불	31.2	ㄴ삽입		성별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거주지(지역) 출생지(지역) 모계(지역,도시) 최종학력	여성 ㄴ삽입 40대, 195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서울 연음 경기 ㄴ삽입 대졸 연음
17	산이마	26.7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지역) 최종학력	50대 이상, 194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서울 연음 고졸, 대졸 연음
18	끝말잇기	26.4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최종학력	50대. 195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중졸 ㄴ삽입
19	밭이랑	30.7	ㄴ삽입		연음 다수형	P < .01의 유의수준에서 본고가 설정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서울 토박이 노년층 ㄴ삽입 다수형 *한국 방언자료집 경기도편 ㄴ삽입을 실현하지 않은 지역 : 옹진, 시흥, 여주
20	옆잇기	30.2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부계(지역)	30대, 196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서울 연음

					모계(지역, 도시)	
21	비단잉어	19.4	ㄴ삽입	연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최종학력	고정적 연음 50대 이상, 194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고졸, 대졸 연음
22	논이랑	18.7	ㄴ삽입	연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고정적 연음 60대 이상, 193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23	힘입다	16.4	ㄴ삽입	연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고정적 연음 60대 이상, 193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24	음이름	14.5	ㄴ삽입	연음	연령(연령,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고정적 연음 70대 ㄴ삽입 서울 연음
25	밤이슬	13.8	ㄴ삽입	연음	최종학력	고정적 연음 중졸, 고졸 ㄴ삽입
26	본입자	10.7	ㄴ삽입	연음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거주지(도시)	고정적 연음 서울 연음 경기 ㄴ삽입
27	새벽이슬	7.5	ㄴ삽입	연음	거주지(도시)	고정적 연음 인천 ㄴ삽입
28	됫박이마	1.7	ㄴ삽입	연음	고정적 연음	P < .01의 유의수준에서 본고가 설정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29	땅임자	1.4	ㄴ삽입	연음	고정적 연음	P < .01의 유의수준에서 본고가 설정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30	열여덟	94.6	없음	ㄴ삽입	고정적 ㄴ삽입	이중모음 후행
31	열여섯	93.9	없음	ㄴ삽입	고정적 ㄴ삽입	이중모음 후행
32	열일곱	51.2	없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최종학력	30대, 197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서울 연음 중졸 ㄴ삽입, 대졸 연음
33	큰일(01)[52]	38.5	연음		거주지(지역, 도시)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지역,도시) 모계(지역,도시)	서울 연음 인천 ㄴ삽입
34	한이레	39.4	연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성별 거주지(지역)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지역,도시) 모계(지역,도시) 최종학력	30대, 197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여성 ㄴ삽입 서울 연음 경기 ㄴ삽입 대졸 연음

35	첫인상	6.6	연음	연음	부계(지역) 모계(지역, 도시) 최종학력	표준발음과 다수변이형 일치 서울 연음 중졸 ㄴ삽입 고졸, 대졸 연음

<한자어>

번호	어휘	ㄴ삽입 실현율(%)	표준발음	고정적 변이형	분석 결과/사회적 요인	설명
1	남원여중	96.8	ㄴ삽입	ㄴ삽입	표준발음과 다수변이형 일치	
2	즉석요리	72.4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거주지(지역, 도시)	40대, 195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서울 연음
3	공업용수	72.3	ㄴ삽입		거주지(지역, 도시)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지역) 모계(도시) 최종학력	서울 연음 초졸 연음
4	문학예술	71.2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거주지(지역, 도시) 최종학력	40대, 1950년대 이후 ㄴ삽입 증가 서울 연음 고졸 이상 ㄴ삽입
5	반영구적	66.6	ㄴ삽입		거주지(지역, 도시)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지역,도시) 모계(지역,도시) 최종학력	서울 제외 연음 서울 ㄴ삽입 대졸 ㄴ삽입
6	한용운	61.8	ㄴ삽입		성별 거주지(지역, 도시) 출생지(지역, 도시) 최종학력	여성 ㄴ삽입 서울 연음 대졸 연음
7	늑막염	51.3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도시) 모계(도시) 최종학력	40대 이전 ㄴ삽입, 40대 이후 연음 인천 연음 초졸, 중졸 ㄴ삽입
8	몰이해	52.2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거주지(지역, 도시) 출생지(도시) 부계(도시)	20대. 197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서울 제외 연음 인천 연음
9	동성연애자	47.7	ㄴ삽입		거주지(도시)	서울 ㄴ삽입

51) 국립국어원(2003:163) 낭독식 질문 번호 224: '집안의 큰일을 치르느라 바빴다.' 여기서 '큰일'은 큰 예식이나 잔치를 치르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52) 국립국어원(2003:163) 낭독식 질문 번호 223: '작은 일에 꼼꼼해야 큰일도 잘한다.' 여기서 '큰일'은 '다루는 데 힘이 많이 들고 범위가 넓은 일. 또는 중대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출생지(지역) 부계(지역, 도시) 모계(지역,도시)	서울 제외 연음
10	불이익	42.7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거주지(지역) 출생지(도시)	20-30대 1960-70년대생 연음증가 서울 연음
11	순이론	41.3	ㄴ삽입		연령(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지역,도시) 모계(지역, 도시)	60대 이상, 193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서울 연음 경기 ㄴ삽입
12	목양말	30.4	ㄴ삽입		연령(출생시기, 세대) 거주지(지역, 도시) 출생지(지역, 도시) 최종학력	산업화 세대 연음 서울 연음 대졸 연음
13	생이별	25.1	ㄴ삽입		성별 출생지(지역, 도시) 모계(지역, 도시)	여성 ㄴ삽입 서울 연음
14	순이익	25.6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지역,도시) 모계(지역,도시)	60대 이상, 193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서울 연음 경기 ㄴ삽입
15	영이별	23.5	ㄴ삽입			
16	선이자	17.0	ㄴ삽입	연음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지역) 모계(지역,도시)	서울 연음
17	공염불	14.9	ㄴ삽입	연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60대 이상, 193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18	인간이별	15.2	ㄴ삽입	연음	성별 출생지(도시)	여성 ㄴ삽입 경기 ㄴ 삽입
19	감언이설	11.8	ㄴ삽입	연음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지역,도시) 모계(지역, 도시) 최종학력	서울 연음 경기 ㄴ삽입 초졸 ㄴ삽입 * 서울 토박이 노년층 연음 다수형
20	근본이념	7.7	ㄴ삽입	연음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지역) 모계(지역, 도시)	서울 연음 경기 ㄴ삽입
21	괴담이설	0.6	ㄴ삽입	연음	고정적 연음	
22	불유쾌하다	86.5	연음	ㄴ삽입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20-30대 1960-70년대생 연음증가
23	정약용	49.0	연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60대 이상, 193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24	총연맹	45.9	없음		연령(출생시기, 세대) 거주지(지역, 도시)	한국전쟁세대 ㄴ삽입, 전후복구 세대 연음 서울 연음
25	불연속	32.1	연음		성별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거주지(지역, 도시)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지역,도시) 모계(지역,도시)	여성 ㄴ삽입 20대, 197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서울 연음 대졸 연음

					최종학력	
26	일목요연	16.3	연음	연음	연령(연령, 출생시기, 세대)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지역,도시) 모계(지역, 도시)	표준발음과 다수변이형 일치 20대, 1970년대 이후 ㄴ삽입 증가 서울 연음 인천 ㄴ삽입

4.2.1 제보자의 성별과 ㄴ삽입 현상

이 절에서는 제보자의 성별에 의해 ㄴ삽입의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나는 어휘들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었고 4.1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ㄴ삽입 현상에서 제보자의 성별은 언어 변이와 관련된 주된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표 25)의 어휘들에서는 ㄴ삽입 현상의 실현이 제보자의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이 ㄴ삽입을 더 실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간이별'을 제외하고 표준발음이 ㄴ삽입형인 '솜이불, 차렵이불, 첫이레, 얄팍얄팍, 생이별, 한용운'과 표준발음이 연음인 '불연속'에서 여성의 ㄴ삽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5) ㄴ삽입 변이형 실현에서 제보자의 성차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어휘 항목 ($P < .05$)

어휘	성별	변이형	제보자(명)	성별 비율(%)	변이형 실현 비율(%)	카이제곱	유의확률	표준발음	다수 변이형	ㄴ삽입
솜이불	남성	연음	90	61.6	52.0	10.95	0.001	ㄴ삽입	없음	여성
		ㄴ삽입	56	38.4	34.1					
	여성	연음	83	43.5	48.0					
		ㄴ삽입	108	56.5	65.9					
차렵이불	남성	연음	99	78.0	47.8	8.62	0.003	ㄴ삽입	없음	여성
		ㄴ삽입	28	22.0	29.8					
	여성	연음	108	62.1	52.2					
		ㄴ삽입	66	37.9	70.2					
첫이레	남성	연음	77	66.4	48.7	3.91	0.048	ㄴ삽입	없음	여성
		ㄴ삽입	39	33.6	36.4					
	여성	연음	81	54.4	51.3					
		ㄴ삽입	68	45.6	63.6					
얄팍얄팍	남성	연음	67	48.9	53.2	8.89	0.003	ㄴ삽입	없음	여성
		ㄴ삽입	70	51.1	36.3					
	여성	연음	59	32.4	46.8					
		ㄴ삽입	123	67.6	63.7					
생이별	남성	연음	122	81.9	46.9	6.71	0.010	ㄴ삽입	없음	여성
		ㄴ삽입	27	18.1	31.0					

	여성	연음	138	69.7	53.1					
		ㄴ삽입	60	30.3	69.0					
인간이별	남성	연음	105	77.2	38.5	10.47	0.001	ㄴ삽입	연음	남성
		ㄴ삽입	31	22.8	63.3					
	여성	연음	168	90.3	61.5					
		ㄴ삽입	18	9.7	36.7					
한용운	남성	연음	74	49.3	55.6	13.79	0.000	ㄴ삽입	없음	여성
		ㄴ삽입	76	50.7	35.3					
	여성	연음	59	29.8	44.4					
		ㄴ삽입	139	70.2	64.7					
불연속	남성	연음	112	76.2	48.1	8.05	0.005	연음	없음	여성
		ㄴ삽입	35	23.8	31.8					
	여성	연음	121	61.7	51.9					
		ㄴ삽입	75	38.3	68.2					

(표 25)의 결과를 가지고 여성이 남성보다 ㄴ삽입을 더 실현한다는 일반화를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다만 이 어휘 항목들과 관련하여 어휘개별적으로 여성의 ㄴ삽입 경향성이 더 높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는 존재한다.

국경아· 이호영· 김주원(2004:55-60)에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20대에서 70대 제보자 167명(남성 96명, 여성 71명)에게 183개 어휘에 대한 ㄴ삽입의 선호도를 조사한 자료가 들어 있다. 이 자료에서 (표 25)의 어휘들을 찾아보면 솜이불(남성 82%, 여성 89%), 차렵이불(남성66%, 여성 80%), 얄팍얄팍(남성 59%, 여성 75%), 생이별(남성 41%, 여성 40%)을 볼 수 있다. 국경아· 이호영· 김주원(2004:55-60)의 자료 가운데 '차렵이불, 얄팍얄팍'의 예는 (표 25)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ㄴ삽입 현상의 성별 실현은 어휘 개별적으로 여성이 ㄴ삽입을 선호하거나 남성이 연음을 선호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추측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5)의 결과로는 표준발음이 ㄴ삽입형인 어휘에 대한 여성의 ㄴ삽입 변이형 실현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 결과로 일반화를 하기에 대상 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3.2.1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제보자 집단을 포함하는 이 지역 구성원들의 표준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표 25)에 대한 관찰 결과만으로 여성이 ㄴ삽입 현상에 대해 표준형을 선호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4.2.2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과 ㄴ삽입 현상

4.1에서 본고의 분석 대상 어휘에 한정하여 ㄴ삽입 현상이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4.2.2에서는 개별 어휘별 분석 결과를 통해 ㄴ삽입 현상과 지역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본고의 <부록>에 실린 ㄴ삽입 현상의 지역별 차이 교차표를 바탕으로 제보자의 거주지(지역,도시), 출생지(지역, 도시), 부계선대거주지(지역, 도시), 모계선대거주지(지역, 도시)별 유의확률과 변이형 실현 경향의 분석 결과를 일람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26)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들의 지역적 배경에 따라 ㄴ삽입 실현에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의 유의확률 일람표 (P < .05)

어휘		거주지		출생지		부계		모계		변이형 실현 경향	다수형
	ㄴ삽입 실현 비율	지역별 유의확률	도시별 유의확률	지역별 유의확률	도시별 유의확률	지역별 유의확률	도시별 유의확률	지역별 유의확률	도시별 유의확률		
산열매	77.3	0.014	NS	0.013	0.025	NS	NS	0.022	0.005	서울연음	
즉석요리	72.4	0.010	0.024	NS	NS	NS	NS	NS	NS	서울연음	
공업용수	72.3	0.011	0.004	0.008	0.030	0.008	NS	0.001	0.010	서울연음	
문학예술	71.2	0.011	0.004	NS	NS	NS	NS	NS	NS	서울연음	
반영구적	66.6	0.010	0.014	0.006	0.022	0.002	0.003	0.001	0.003	서울ㄴ삽입	
한용운	61.8	0.026	0.023	0.005	0.019	NS	NS	NS	NS	서울연음	
얄팍얄팍	60.5	0.000	0.000	0.005	0.012	0.003	0.011	0.010	0.003	서울연음	
큰일02	60.3	0.002	0.006	NS	NS	0.002	0.007	0.026	NS	서울연음	
몰이해	52.2	0.014	0.019	NS	0.018	NS	0.004	NS	0.004	인천연음	
늑막염	51.3	NS	NS	NS	0.005	NS	NS	NS	0.003	인천연음	
열일곱	51.2	NS	NS	0.008	0.019	NS	NS	NS	NS	서울연음	
막일	50.3	NS	0.008	NS	NS	NS	NS	NS	0.010	인천ㄴ삽입	
동성연애자	47.7	NS	0.031	0.018	NS	0.008	0.036	0.016	0.020	서울ㄴ삽입	
총연맹	45.9	0.048	0.004	NS	NS	NS	NS	NS	NS	서울연음	
설익다	44.5	NS	NS	0.017	NS	NS	NS	NS	0.033	서울연음	
불이익	42.7	0.017	NS	NS	0.010	NS	NS	NS	NS	서울연음	
순이론	41.3	NS	NS	0.001	0.001	0.016	0.016	0.001	0.000	서울연음	
첫이레	40.4	NS	NS	NS	NS	NS	NS	NS	0.001	서울연음	
한이레	39.4	0.014	NS	0.000	0.000	0.005	0.015	0.004	0.006	서울연음	
큰일01	38.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서울연음	
솔이끼	33.4	NS	NS	0.031	0.017	NS	NS	NS	0.035	서울연음	
불연속	32.1	0.000	0.001	0.001	0.003	0.006	0.017	0.002	0.018	서울연음	
차렵이불	31.2	0.025	NS	0.033	NS	0.032	NS	0.024	0.004	서울연음	
목양말	30.4	0.018	0.013	0.007	0.017	NS	NS	NS	NS	서울연음	
옆잇기	30.2	NS	NS	0.017	NS	0.032	NS	0.035	NS	서울연음	
연잇다	30.1	NS	NS	0.003	0.011	0.001	0.010	0.012	NS	서울연음	
산이마	26.7	NS	NS	0.001	0.003	0.030	NS	NS	NS	서울연음	
순이익	25.6	NS	NS	0.037	0.004	NS	0.001	0.023	0.007	서울연음	
생이별	25.1	NS	NS	0.003	0.012	NS	NS	0.032	NS	서울연음	
비단잉어	19.4	NS	NS	NS	0.026	NS	NS	NS	NS	서울연음	연음
선이자	17.0	NS	NS	0.013	0.013	0.019	NS	0.002	0.011	서울연음	연음
일목요연	16.3	NS	NS	0.005	0.016	0.002	0.014	0.014	0.008	서울연음	연음
인간이별	15.2	NS	NS	NS	0.007	NS	NS	NS	NS	경기ㄴ삽입	연음
음이름	14.5	NS	NS	0.024	0.034	NS	NS	NS	NS	서울연음	연음

감언이설	11.8	NS	NS	0.005	0.001	0.014	0.004	0.004	0.000	서울연음	연음
본입자	10.7	NS	NS	0.031	0.020	0.026	NS	0.026	NS	서울연음	연음
근본이념	7.7	NS	NS	0.007	0.000	0.009	0.017	0.005	0.007	서울연음	연음
새벽이슬	7.5	NS	0.018	NS	NS	NS	NS	NS	NS	인천ㄴ삽입	연음
첫인상	6.6	NS	NS	NS	NS	0.005	NS	0.028	NS	서울연음	연음

(표 26)의 어휘 항목에 대한 제보자 집단의 ㄴ삽입 변이형 실현의 특징은 서울 지역 제보자들의 연음화 경향이다. 고유어의 경우 서울 지역 제보자의 연음화 경향은 두드러진다. 후행모음이 이중모음인 한자어 '동성연애자, 반영구적'을 제외하고 한자어에서도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 제보자의 연음화 경향성이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한자어 내부의 이중모음은 아직 ㄴ삽입현상을 유발하는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지역 제보자의 연음화 경향성은 표준발음이 ㄴ삽입인 일군의 어휘들에게서도 서울 제보자들의 연음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4.2의 (표 25)과 4.2.1의 (표 26)를 비교해 보면 서울 지역 제보자들의 변이형 실현경향성은 대졸자, 20세기 후반 출생자들의 변이형 실현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준발음과 다수변이형이 ㄴ삽입인 '산열매'의 변이형 실현에서 서울 출신 제보자, 최종학력 대졸 제보자, 1980년대 출생자들의 연음화가 주목된다. ㄴ삽입형이 다수형인 '즉석요리, 공업용수, 문학예술'의 변이형에서도 서울 출신 제보자의 연음형이 나타난다. 수도권 지역 내 지역 방언의 특성으로 서울 지역 제보자 집단의 ㄴ삽입 약화 움직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출신 제보자들에 한정하여 ㄴ삽입현상은 단모음이 후행하는 고유어, 음절수가 3음절 이상인 어휘 항목에서부터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ㄴ삽입 현상의 약화는 어휘개별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제보자들의 ㄴ삽입 경향성은 서울 지역 제보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ㄴ삽입 현상이 약화되는 경향과 유지하려는 경향이 현재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3 제보자의 최종 학력과 ㄴ삽입 현상

제보자의 최종 학력과 ㄴ삽입 변이형 실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어휘들을 살펴보면 ① 제보자의 최종 학력과 표준 발음 실현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② 최종 학력 대졸자의 변이형 실현 경향성과 서울 지역 제보자의 변이형 실현 경향성이 유사하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대졸자들의 변이형 실현 경향은 고유어의 경우 대체로 ㄴ삽입 현상의 약화라고 할 수 있다. 한자어의 경우 '공업용수, 문학예술, 반영구적'을 제외하고 ㄴ삽입 현상의 약화를 볼 수 있다. 대졸자들은 서울 출신 제보자들과 유사하게 단모음이 후행하는 고유어, 3음절 이상의 음절수를 가진 어휘 항목에서 ㄴ삽입 현상을 실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파악된다.

(표 27) 제보자 최종 학력에 따라 ㄴ삽입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 항목

어휘	ㄴ삽입 실현 비율 (%)	최종 학력	변이형	제보자 (명)	변이형 실현 비율 (%)	카이제곱	유의확률	표준발음	고정형
감언이설	11.8	초졸	연음	9	64.3	10.55	0.014	ㄴ삽입	연음
			ㄴ삽입	5	35.7				
		중졸	연음	25	80.6				
			ㄴ삽입	6	19.4				
		고졸	연음	123	89.8				
			ㄴ삽입	14	10.2				
		대졸	연음	143	90.5				
			ㄴ삽입	14	9.5				
공업용수	72.3	초졸	연음	9	64.3	11.28	0.010	ㄴ삽입	없음
			ㄴ삽입	5	35.7				
		중졸	연음	9	31.0				
			ㄴ삽입	20	69.0				
		고졸	연음	29	22.5				
			ㄴ삽입	100	77.5				
		대졸	연음	43	28.1				
			ㄴ삽입	110	71.9				
끝말잇기	26.4	초졸	연음	11	84.6	17.13	0.001	ㄴ삽입	없음
			ㄴ삽입	2	15.4				
		중졸	연음	14	48.3				
			ㄴ삽입	15	51.7				
		고졸	연음	92	68.7				
			ㄴ삽입	42	31.3				
		대졸	연음	128	81.5				
			ㄴ삽입	29	18.5				
늑막염	51.3	초졸	연음	2	13.3	14.52	0.002	ㄴ삽입	없음
			ㄴ삽입	13	86.7				
		중졸	연음	11	32.4				
			ㄴ삽입	23	67.6				
		고졸	연음	57	48.2				
			ㄴ삽입	72	51.8				
		대졸	연음	90	55.9				

			ㄴ삽입	71	44.1				
목양말	30.4	초졸	연음	6	42.9	9.477	0.024	ㄴ삽입	없음
			ㄴ삽입	8	57.1				
		중졸	연음	20	58.8				
			ㄴ삽입	14	41.2				
		고졸	연음	92	67.2				
			ㄴ삽입	45	32.8				
		대졸	연음	120	75.5				
			ㄴ삽입	39	24.5				
문학예술	71.2	초졸	연음	7	58.3	10.61	0.014	ㄴ삽입	없음
			ㄴ삽입	5	41.7				
		중졸	연음	13	46.4				
			ㄴ삽입	15	53.6				
		고졸	연음	34	26.2				
			ㄴ삽입	96	73.8				
		대졸	연음	39	25.5				
			ㄴ삽입	114	74.5				
반영구적	66.6	초졸	연음	8	53.3	8.560	0.036	ㄴ삽입	없음
			ㄴ삽입	7	46.7				
		중졸	연음	12	35.3				
			ㄴ삽입	22	64.7				
		고졸	연음	53	39.3				
			ㄴ삽입	82	60.7				
		대졸	연음	41	26.1				
			ㄴ삽입	116	73.9				
밤이슬	13.8	초졸	연음	14	100.0	12.28	0.006	ㄴ삽입	연음
			ㄴ삽입	0	0				
		중졸	연음	25	73.5				
			ㄴ삽입	9	26.5				
		고졸	연음	114	82.0				
			ㄴ삽입	25	18.0				
		대졸	연음	146	91.3				
			ㄴ삽입	14	8.8				
불연속	42.7	초졸	연음	5	35.7	22.73	0.000	연음	없음
			ㄴ삽입	9	64.3				
		중졸	연음	16	50.0				
			ㄴ삽입	16	50.0				
		고졸	연음	86	62.3				
			ㄴ삽입	52	37.7				
		대졸	연음	126	79.2				
			ㄴ삽입	33	20.8				
비단잉어	19.4	초졸	연음	11	73.3	12.92	0.005	ㄴ삽입	연음
			ㄴ삽입	4	26.7				

		중졸	연음	22	64.7				
			ㄴ삽입	12	35.3				
		고졸	연음	106	76.8				
			ㄴ삽입	32	23.2				
		대졸	연음	140	88.1				
			ㄴ삽입	19	11.9				
산열매	77.3	초졸	연음	3	20.0	18.59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12	80.0				
		중졸	연음	0	0				
			ㄴ삽입	32	100.0				
		고졸	연음	23	17.0				
			ㄴ삽입	112	83.0				
		대졸	연음	50	31.1				
			ㄴ삽입	111	68.9				
산이마	26.7	초졸	연음	8	61.5	15.74	0.001	ㄴ삽입	없음
			ㄴ삽입	5	38.5				
		중졸	연음	14	46.7				
			ㄴ삽입	16	53.3				
		고졸	연음	96	72.2				
			ㄴ삽입	37	27.8				
		대졸	연음	126	80.3				
			ㄴ삽입	31	19.7				
설익다	44.5	초졸	연음	6	40.0	9.502	0.023	ㄴ삽입	없음
			ㄴ삽입	9	60.0				
		중졸	연음	14	42.4				
			ㄴ삽입	19	57.6				
		고졸	연음	68	50.7				
			ㄴ삽입	66	49.3				
		대졸	연음	98	64.1				
			ㄴ삽입	55	35.9				
솔이끼	33.4	초졸	연음	5	35.7	12.39	0.006	ㄴ삽입	없음
			ㄴ삽입	9	64.3				
		중졸	연음	17	53.1				
			ㄴ삽입	15	46.9				
		고졸	연음	84	64.6				
			ㄴ삽입	46	35.4				
		대졸	연음	115	73.7				
			ㄴ삽입	41	26.3				
연잇다	30.1	초졸	연음	10	66.7	16.09	0.001	ㄴ삽입	없음
			ㄴ삽입	5	33.3				
		중졸	연음	16	47.1				
			ㄴ삽입	18	52.9				
		고졸	연음	90	65.2				

			ㄴ삽입	48	34.8				
		대졸	연음	127	78.9				
			ㄴ삽입	34	21.1				
열일곱	51.2	초졸	연음	3	25.0	23.11	0.000	없음	없음
			ㄴ삽입	9	75.0				
		중졸	연음	5	16.7				
			ㄴ삽입	25	83.3				
		고졸	연음	58	45.3				
			ㄴ삽입	70	54.7				
		대졸	연음	92	59.7				
			ㄴ삽입	62	40.3				
차렵이불	31.2	초졸	연음	5	38.5	34.42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6	61.5				
		중졸	연음	13	41.9				
			ㄴ삽입	18	58.1				
		고졸	연음	75	61.5				
			ㄴ삽입	47	38.5				
		대졸	연음	114	84.4				
			ㄴ삽입	21	15.6				
첫이레	40.4	초졸	연음	6	46.2	8.345	0.039	ㄴ삽입	없음
			ㄴ삽입	7	53.8				
		중졸	연음	15	50.0				
			ㄴ삽입	15	50.0				
		고졸	연음	56	53.3				
			ㄴ삽입	49	46.7				
		대졸	연음	81	69.2				
			ㄴ삽입	36	30.8				
첫인상	6.6	초졸	연음	11	84.6	17.94	0.000	연음	연음
			ㄴ삽입	2	15.4				
		중졸	연음	23	79.3				
			ㄴ삽입	6	20.7				
		고졸	연음	105	92.1				
			ㄴ삽입	9	7.9				
		대졸	연음	119	99.2				
			ㄴ삽입	1	0.8				
한용운	61.3	초졸	연음	2	13.3	16.01	0.001	ㄴ삽입	없음
			ㄴ삽입	13	86.7				
		중졸	연음	8	23.5				
			ㄴ삽입	26	76.5				
		고졸	연음	45	32.6				
			ㄴ삽입	93	67.4				
		대졸	연음	78	48.4				
			ㄴ삽입	83	51.6				

한이레	39.4	초졸	연음	3	23.1	16.68	0.000	연음	없음
			ㄴ삽입	10	76.9				
		중졸	연음	15	45.5				
			ㄴ삽입	18	54.5				
		고졸	연음	76	55.9				
			ㄴ삽입	60	44.1				
		대졸	연음	110	71.4				
			ㄴ삽입	44	28.6				

본고의 분석 대상 제보자 중 최종 학력 대졸자의 언어 행동은 이 지역 언어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2005)에서 한국어에 대해 가장 관심이 높은 사람들로 도시 지역 거주자, 대졸 이상의 교육 수준과 월 250만원 이상의 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동일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군 지역 거주자, 중졸 이하의 교육 수준, 농축수산업 종사자로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제보자 중 수도권 도시 지역 출신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 행동은 이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용인되는 어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본고의 분석 대상 제보자 중 수도권 지역 출신 대졸자 집단에서 ㄴ삽입의 실현이 어휘개별적으로 낮아진다는 관찰 결과는 앞으로 수도권 지역 출신 화자들의 복합어 내 ㄴ삽입 실현 경향성이 점점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2.4 제보자의 연령과 ㄴ삽입 현상

4.1에서 ㄴ삽입 현상은 제보자의 연령과 관련이 있으며 1965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ㄴ삽입 변이형보다 연음 변이형을 실현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3장의 어중경음화의 분석 과정에서 세대별로 변이형 실현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음운 현상은 진행 중인 음운 변화로 파악해야 하며, 세대가 다른 제보자들 간의 변이형 실현 질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ㄴ삽입 현상이 제보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라면 3.3에서 시도한 교차 분석과 제보자의 연령별, 세대별 변이형 실현에 대한 도표 유형 분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제보자의 연령에 따라서 ㄴ삽입 현상의 실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을 (표 28)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표 28)의 어휘들에 대한 연령별, 출생 시기별, 세대별 ㄴ삽입 변이형 실현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본고의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표 28)의 어휘들은 제보자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해당 어휘의 변이형 실현에서 ㄴ삽입형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28) 제보자의 연령에 따라 어중 경음화 실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 항목

어휘	ㄴ삽입 실현율	연령별 유의 확률	출생 시기 유의 확률	세대별 유의 확률	표준 발음	고정형	설명	참고
불유쾌하다	86.5	0.000	0.000	0.000	연음	ㄴ삽입	20-30대 1960-70년대생 연음증가	고정적 ㄴ삽입형
산열매	77.3	0.004	0.003	0.013	ㄴ삽입	ㄴ삽입	20대, 1980년대 출생자 연음 증가	서울 연음 대졸 연음
즉석요리	72.4	0.000	0.000	0.000	ㄴ삽입		40대, 1950년대 이후 ㄴ삽입 증가	서울 연음
문학예술	71.2	0.000	0.000	0.000	ㄴ삽입		40대, 1950년대 이후 ㄴ삽입 증가	서울 연음 고졸 이상 ㄴ삽입
안팎일	52.7	0.000	0.000	0.000	ㄴ삽입		30대, 1970년대 이후 ㄴ삽입 증가	
몰이해	52.2	0.000	0.000	0.000	ㄴ삽입		20대. 197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인천 연음
늑막염	51.3	0.000	0.000	0.000	ㄴ삽입		40대 이전 ㄴ삽입, 40대 이후 연음	인천 연음 초졸, 중졸 ㄴ삽입
열일곱	51.2	0.000	0.000	0.000			30대, 197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서울 연음 중졸 ㄴ삽입, 대졸 연음
정약용	49.0	0.005	0.009	0.001	연음		60대 이상, 193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총연맹	45.9	NS	0.037	0.018			한국전쟁세대 ㄴ삽입, 전후복구 세대 연음	서울 연음
낯익다	45.5	NS	NS	0.021	ㄴ삽입		산업화 세대 연음	
설익다	44.5	0.001	0.000	0.000	ㄴ삽입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연음 증가	서울 연음 대졸 연음
불이익	42.7	0.000	0.000	0.000	ㄴ삽입		20대. 197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서울 연음
순이론	41.3	NS	0.040	0.018	ㄴ삽입		60대 이상, 193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서울 연음 경기 ㄴ삽입
첫이레	40.4	0.000	0.002	0.000	ㄴ삽입		30대, 1970년대 이후 연음 증가	경기 ㄴ삽입
한이레	39.4	0.000	0.001	0.000	연음		30대, 197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여성 ㄴ삽입 서울 연음 경기 ㄴ삽입

								대졸 연음
맞잇다	39.4	0.008	0.011	NS	ㄴ삽입		20대. 197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솔이끼	33.4	0.000	0.000	0.000	ㄴ삽입		40대, 195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서울 연음 대졸 연음
불연속	32.1	0.001	0.000	0.000	연음		20대, 197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여성 ㄴ삽입 서울 연음 대졸 연음
차렵이불	31.2	0.000	0.000	0.000	ㄴ삽입		40대, 195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여성 ㄴ삽입 서울 연음 경기 ㄴ삽입 대졸 연음
목양말	30.4	NS	0.026	0.032	ㄴ삽입		산업화 세대 연음	서울 연음 대졸 연음
엿잇기	30.2	0.027	0.010	0.013	ㄴ삽입		30대, 196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서울 연음
연잇다	30.1	0.000	0.001	0.000	ㄴ삽입		40대, 195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서울 연음 대졸 연음
산이마	26.7	0.001	0.003	0.002	ㄴ삽입		50대 이상, 194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서울 연음 고졸, 대졸 연음
끝말잇기	26.4	0.000	0.000	0.000	ㄴ삽입		50대. 1950년대 이후 연음 증가	중졸 ㄴ삽입
순이익	25.6	0.000	0.000	0.000	ㄴ삽입		60대 이상, 193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서울 연음 경기 ㄴ삽입
비단잉어	19.4	0.000	0.001	0.000	ㄴ삽입	연음	50대 이상, 194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고정적 연음형 고졸, 대졸 연음
논이랑	18.7	0.002	0.008	0.000	ㄴ삽입	연음	60대 이상, 193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고정적 연음형
힘입다	16.4	0.002	0.016	0.000	ㄴ삽입	연음	60대 이상, 193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고정적 연음
일목요연	16.3	0.002	0.010	0.001	연음	연음	20대, 1970년대 이후 ㄴ삽입 증가	고정적 연음형 서울 연음 인천 ㄴ삽입
인간이별	15.2	0.000	0.000	0.000	ㄴ삽입	연음	60대 이상, 193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고정적 연음형 여성 ㄴ삽입 경기 ㄴ 삽입
공염불	14.9	0.001	0.000	0.001	ㄴ삽입	연음	60대 이상, 1930년대 이전 출생자 ㄴ삽입	고정적 연음형
음이름	14.5	0.013	NS	0.020	ㄴ삽입	연음	70대 ㄴ삽입	고정적 연음형

(P < .05 / NS = No Significance = =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표 28)의 어휘 항목에 대한 제보자들의 변이형 실현의 경향은 '즉석요리, 문학예술, 일

목요연, 안팎일'을 제외하고 대체로 제보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연음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학예술, 즉석요리, 일목요연' 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선행자음이 경구개폐쇄음이고 후행모음은 이중모음이고, 4음절어라는 것이다. 특히 표준발음이 연음형인 '일목요연'의 경우 전체적으로 ㄴ삽입형이 약화되는 것으로 관찰되는 1965년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ㄴ삽입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ㄴ삽입 현상은 후행 모음과 관련이 있다. ㄴ삽입 현상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인 국립국어원(2002)에서도 '내분양상, 의기양양, 구속영장'의 경우 ㄴ삽입형의 응답자가 ㄴ삽입을 실현하지 않은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3)

'즉석요리, 문학예술'은 서울 지역 제보자들의 연음화 경향이 나타나는 어휘이다. 조사 시점 당시 서울 지역 제보자들이 ㄴ삽입 환경의 어휘 항목에 대해 젊은 세대나 최종학력 대졸자들이 ㄴ삽입형을 사용하는 어휘 항목에 대해서도 연음형으로 변이형을 실현한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들 어휘 항목의 공통점은 후행모음이 이중모음이라는 점이다. 선행연구와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한자어 내부 이중모음 구조 어휘에서는 ㄴ삽입 현상이 연음화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일목요연'은 고정적 연음형으로 이중모음이 후행하는 어휘 항목이다. 표준 발음도 연음형이며 서울 지역 제보자들의 변이형도 연음형이고 노년층의 변이형도 연음형이다.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에게서만 상대적으로 우세한 '일목요연'의 ㄴ삽입형의 등장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두 가지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목요연'의 변이형 실현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출신의 ㄴ삽입 경향이 상대

53) 국립국어원(2002:365) '내분양상'의 연령별 ㄴ삽입 실현 응답자 수(음절 경계에 휴지를 개입하여 응답한 응답자 수 제외)

변이형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총계
ㄴ삽입	21	28	23	24	25	1	122
연음	12	11	8	7	2	1	41

국립국어원(2002:365) '의기양양'의 연령별 ㄴ삽입 실현 응답자 수(음절 경계에 휴지를 개입하여 응답한 응답자 수 제외)

변이형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총계
ㄴ삽입	35	41	42	42	41	6	207
연음	1	1	1	0	0	0	3

국립국어원(2002:366) '구속영장'의 연령별 ㄴ삽입 실현 응답자 수(음절 경계에 휴지를 개입하여 응답한 응답자 수 제외)

변이형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총계
ㄴ삽입	22	24	20	13	12	0	91
연음	7	8	13	17	17	2	54

적으로 높다는 점과[54] 한자어 내 이중모음구조에 대한 ㄴ삽입 적용이라는 언어 내적 요인이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보면 ㄴ삽입, 어중경음화에 대한 변이형 실현 경향성은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과 서울 지역 제보자들의 변이형 실현 경향성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어중경음화에서 서울 출신 제보자들이 경음형을 실현하는 어휘 항목들은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도 경음형을 실현하고, ㄴ삽입 실현에서 ㄴ삽입이 잘 일어나지 않는 어휘 항목들은 대체로 서울 출신 제보자들의 변이형 실현과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변이형 실현에서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중모음이 후행하는 어휘 항목에서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ㄴ삽입 실현은 ㄴ삽입과 연음형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중모음이 지닌 ㄴ삽입의 견인력과 ㄴ삽입이 약화되는 경향성이 충돌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중모음은 단모음보다 ㄴ삽입을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고의 분석 자료에서도 고유어와 한자어를 포함하여 전체 제보자의 70% 이상이 ㄴ삽입을 실현한 어휘는 모두 이중모음이 들어있는 어휘 항목이다.[55] 따라서 복합어 내부의 이중모음은 수도권 지역 출신 화자들에게 ㄴ삽입을 유발하는 언어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ㄴ삽입을 유발하는 언어 내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어휘 항목의 또다른 예로 '안팎일'의 ㄴ삽입 증가를 볼 수 있다. 본고의 분석 자료에는 '일'이 결합하는 어휘 항목이 '큰일(01), 큰일(02), 안팎일, 막일'이 있다. 이 가운데 젊은 층에서 ㄴ삽입이 증가하는 경우는 '안팎일' 하나이다. 다른 어휘 항목들의 경우는 제보자의 연령에 따라 변이형 실현에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안팎일'에서의 ㄴ삽입 증가는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사+명사' 구조의 '안팎일'의 변이형 실현에서 해당 어휘 항목의 변

54) <부록>의 '일목요연'의 변이형 실현과 제보자의 출생지 교차표이다.

어휘	제보자 출생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 비율(%)	유의 확률	표준 발음	고정적 변이형	비고
일목요연	서울	연음	154	88.5	65.3	0.005	연음	연음	서울연음
		ㄴ삽입	20	11.5	43.5				
	서울제외	연음	82	75.9	34.7				
		ㄴ삽입	26	24.1	56.5				

55) '불유쾌하다'의 경우 표준발음이 연음이지만 전체 제보자의 86.5%가 ㄴ삽입형으로 발음하였다. '불유쾌하다'의 발음에 대한 현장 시간 분석 결과를 보면 1960-70년대 출생자, 20-30대의 연음형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지만, 1980년대 출생자에서는 ㄴ삽입형이 다시 우세하게 나타난다.

어휘	변이형	1920 (9명)	1930 (40명)	1940 (69명)	1950 (79명)	1960 (55명)	1970 (84명)	1980 (13명)
불유쾌하다	연음	3	3	2	7	8	23	1
	비율	33.3%	7.5%	2.9%	9.0%	14.5%	27.7%	7.7%
	ㄴ삽입	6	37	67	71	47	60	12
	비율	66.7%	92.5%	97.1%	91.0%	85.5%	72.3%	92.3%

이형 실현이 사잇소리 현상을 개입시키는 환경과 유사하다고 파악한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ㄴ삽입 변이형 평준화로 해석하고자 한다.

'안팎일'의 경우는 ㄴ삽입형으로 변이형 평준화가 일어난 경우이지만, 본고의 분석 자료의 대부분은 연음형이 증가하거나 연음형으로 변이형 평준화가 일어나는 결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떠한 유형으로 ㄴ삽입 현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예외가 나타나는 어휘 항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하여 3.3에서 이미 시도했던 발산형(diverge), 수렴형(convergence), 교차형(cross), 무교차형(non-cross), 다교차형(multi- corss)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해당 어휘들의 세대별 변이형 실현 양상을 분류하였다. (표 26)의 어휘에 대한 모든 도표는 본고의 부록에 나와 있다. 도표 작성 결과 ㄴ삽입의 변이형 실현에서 수렴형 그래프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지역 30대 이하 세대에서 ㄴ삽입 현상의 변이형은 다수형과 소수형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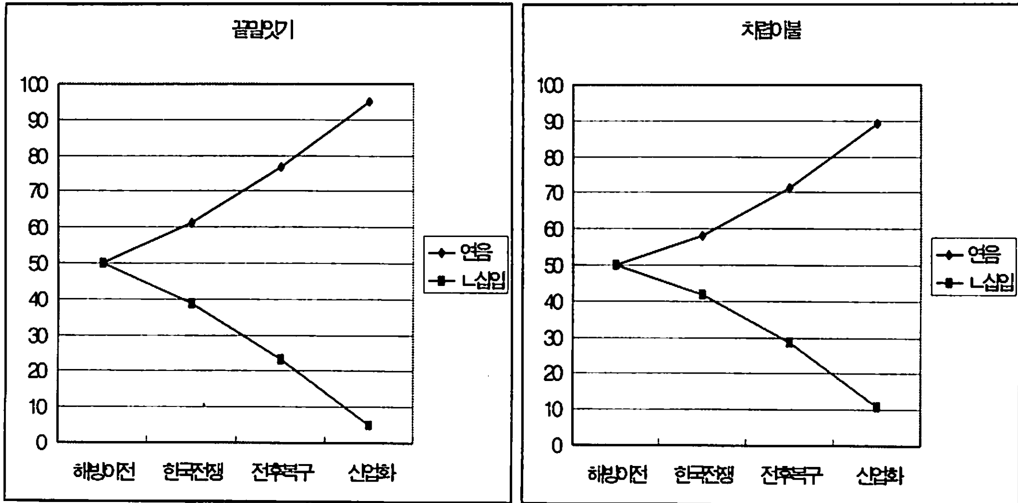
(표 29)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들의 연령과 한자어와 고유어 ㄴ삽입 현상의 변이형 실현 유형 분류표(ㄴ삽입형 증가의 경우 별도 표시)

	① 발산형	②교차형	③무교차형	④다교차형
고유어	끝말잇기(연음증가) 솔이끼(연음증가) 연잇다(연음증가) 차렵이불(연음증가) 한이레(연음증가)	낮익다(연음증가) 설익다(연음증가) <u>안팎일(ㄴ삽입증가)</u> 열일곱(연음증가)	논이랑(연음증가) 비단잉어(연음증가) 산이마(연음증가) 산열매(연음증가) 음이름(연음증가) 힘입다(연음) 옆잇기(연음증가)	첫이레(연음증가) 맞잇다(연음증가)
한자어	<u>문학예술(ㄴ삽입증가)</u> 순이익(연음증가) <u>즉석요리(ㄴ삽입증가)</u>	늑막염(연음증가) 몰이해(연음증가) 불이익(연음증가) 순이론(연음증가) 정약용(연음증가)	공염불(연음증가) 목양말(연음증가) 불연속(연음증가) 불유쾌하다(특정 연령 연음 강세) 인간이별(연음증가) <u>일목요연(ㄴ삽입 증가)</u>	총연맹(연음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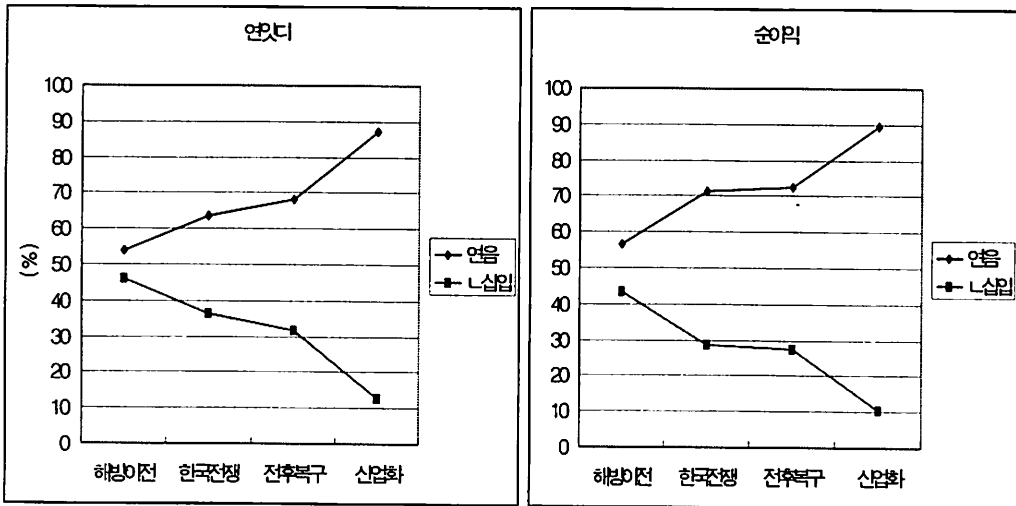
(표 29-①) ㄴ삽입의 발산형 그래프의 발산 지점은 해방 이전 세대(끝말잇기, 차렵이불, 문학예술, 연잇다, 즉석요리, 순이익)와 한국전쟁세대(한이레, 솔이끼)로 나눌 수 있다.

(표 29-①) ㄴ삽입의 발산형 그래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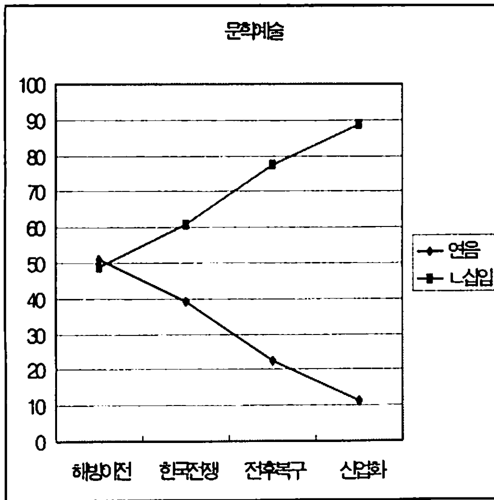
㉠ 발산 지점 : 해방 이전 출생자 (1945년 이전 출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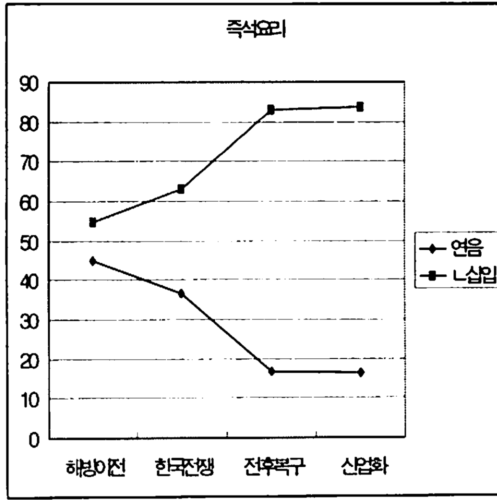


◎끝말잇기(연음 증가) - 표준발음 ㄴ삽입/ ◎차렴이불(연음 증가) - 표준발음 ㄴ삽입. 여성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최종학력 대졸자 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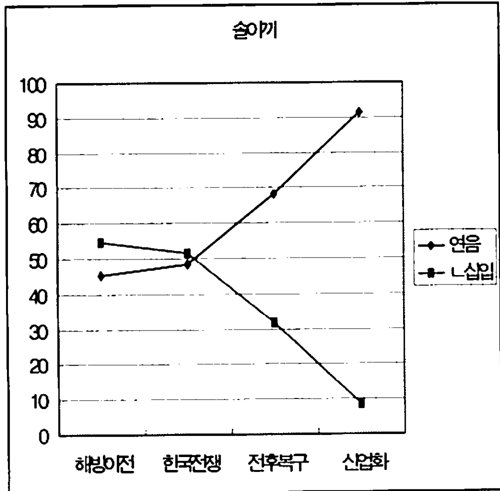
◎연잇다(연음 증가) - 표준발음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최종학력 대졸자 연음 / ◎순이익(연음 증가) - 표준발음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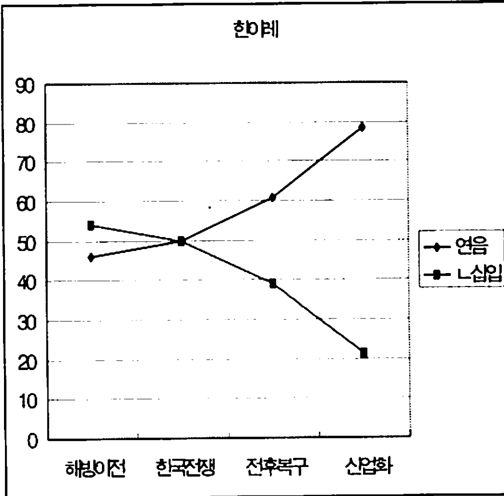




◎문학예술(ㄴ삽입 증가) - 표준발음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최종학력 고졸/대졸 ㄴ삽입 / ◎ 즉석요리(ㄴ삽입 증가) - 표준발음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 발산 지점 : 한국전쟁 전후 출생자 (1945-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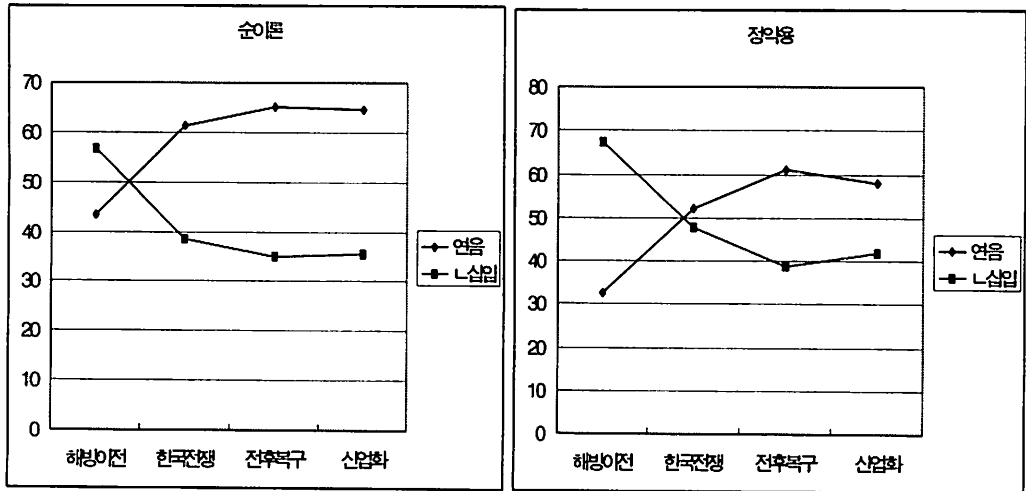


◎ 솔이끼(연음 증가) - 표준발음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최종학력 대졸자 연음 / ◎ 한이레(연음증가) - 표준발음 연음, 여성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최종학력 대졸자 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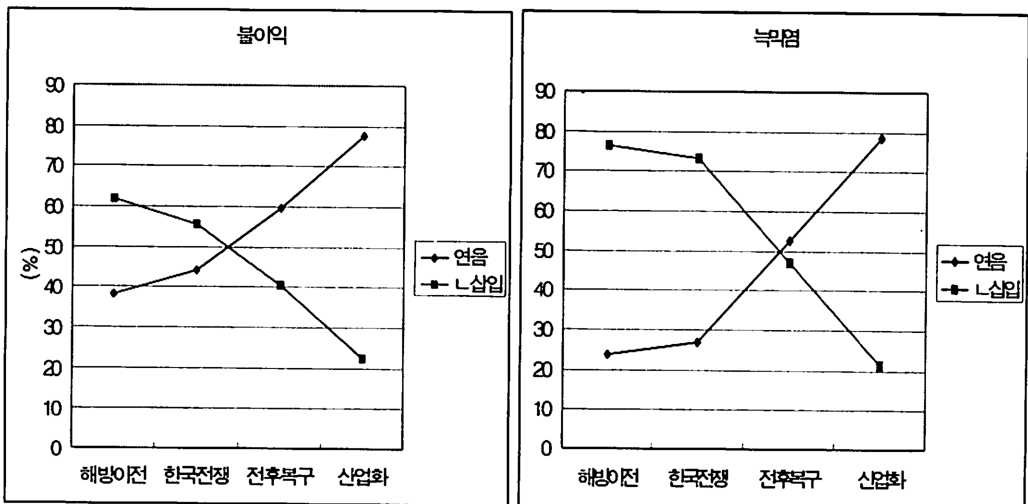
(표 29-②) ㄴ삽입의 교차형 그래프에서 교차 지점은 어휘 개별적으로 다르다. 교차 지점은 해방 이전과 한국 전쟁 세대 사이(순이론, 정약용), 한국 전쟁과 전후복구 세대 사

이(낯익다, 늑막염, 불이익, 설익다), 전후 복구 세대와 산업화 세대 사이(몰이해, 열일곱, 안팎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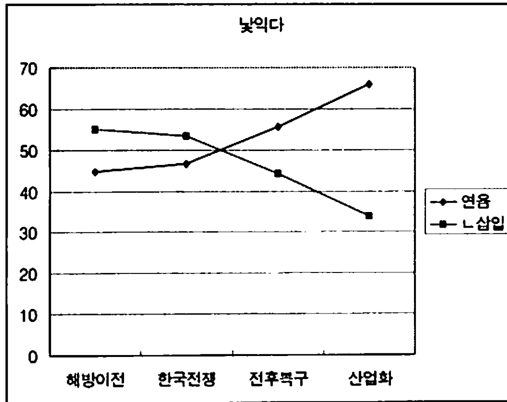
(표 29-②) ㄴ삽입의 교차형 그래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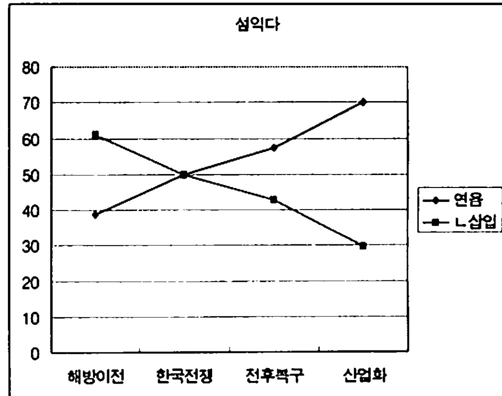


◎순이론(연음증가) - 표준 발음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 ◎정약용(연음 증가) - 표준발음 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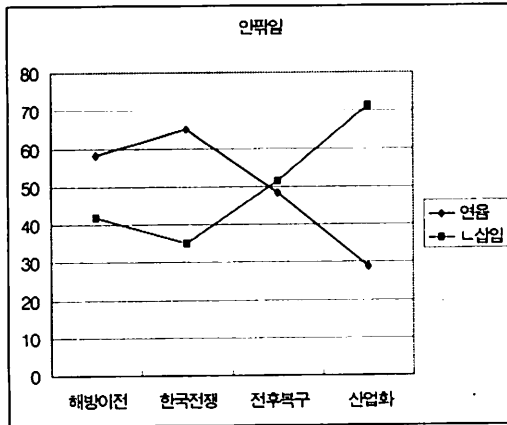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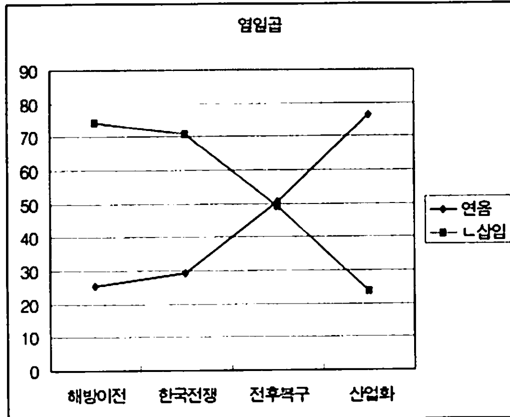
◎불이익(연음 증가) - 표준 발음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늑막염(연음 증가) - 표준 발음 ㄴ삽입, 초졸, 중졸 ㄴ삽입, 인천 지역 제보자 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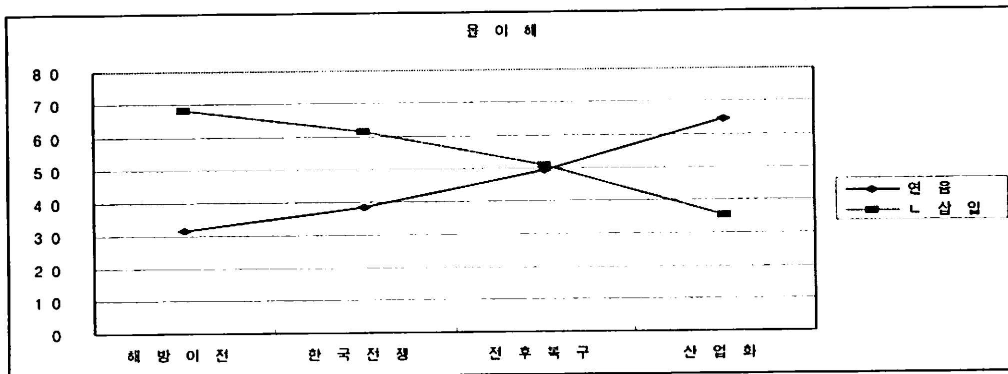


◎낯익다(연음 증가) - 표준 발음 ㄴ삽입 / ◎설익다(연음 증가) - 표준 발음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최종학력 대졸자 연음





◎ 안팎일(ㄴ삽입 증가) - 표준 발음 ㄴ삽입 / ◎ 열일곱(연음 증가) - 표준 발음 없음,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최종학력 대졸자 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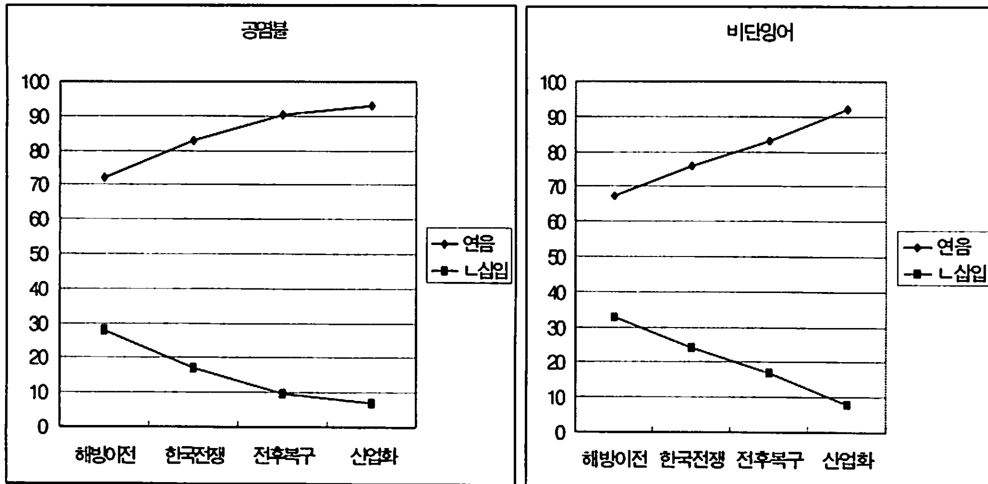


◎ 몰이해(연음 증가) - 표준 발음 ㄴ삽입, 경기, 인천 지역 제보자 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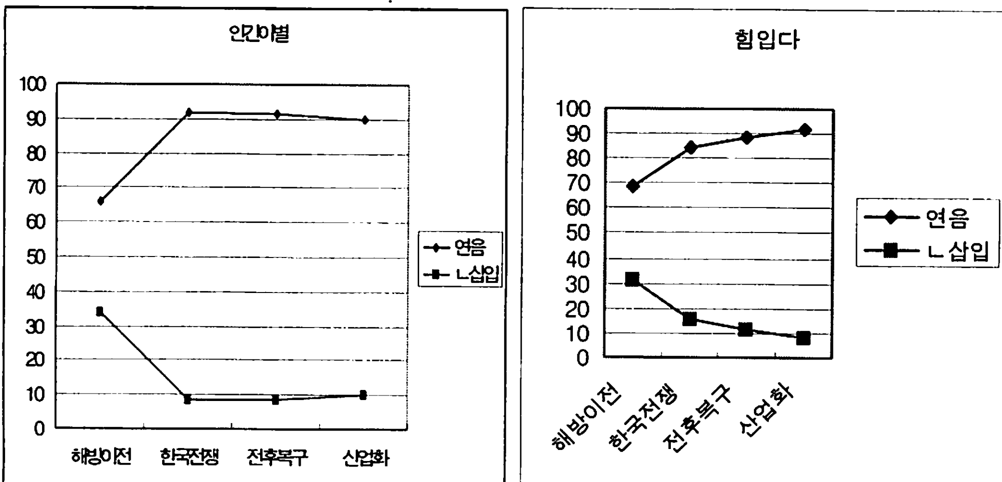
(표 29-③) 무교차형 그래프는 ㄴ삽입형이 감소하는 '산열매, 불유쾌하다', ㄴ삽입형이 증가하는 '일목요연'을 제외하고 모두 연음형이 증가하는 발산형과 유사한 그래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표 29-③) ㄴ삽입의 무교차형 그래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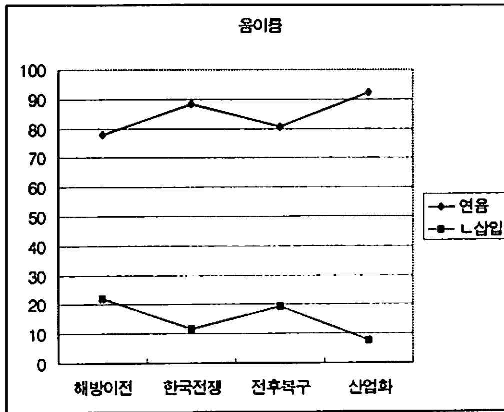
㉠ 유사 발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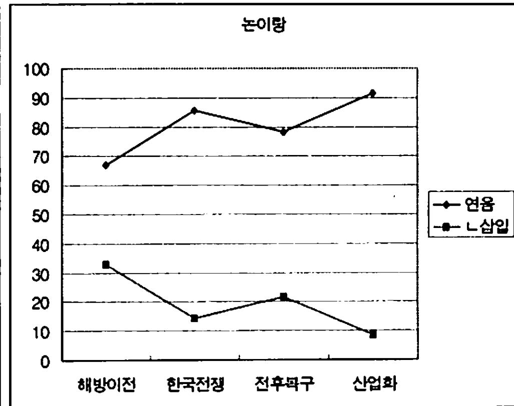


◎공염불(연음우세) -표준 발음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연음고정형 / ◎비단잉어(연음우세) - 표준발음 ㄴ삽입, 최종학력 고졸/대졸 연음, 연음고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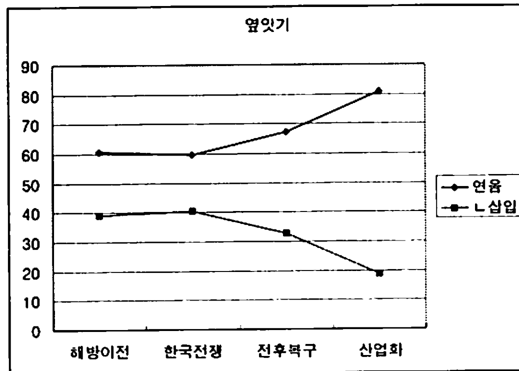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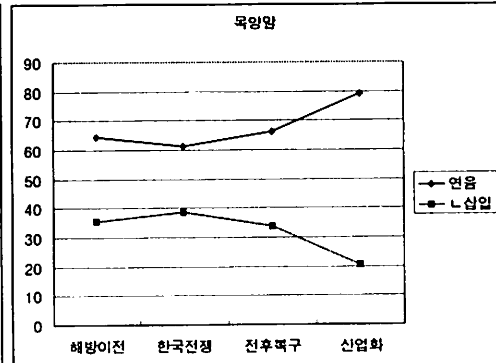
◎ 인간이별(연음우세)- 표준발음 ㄴ삽입, 여성 ㄴ삽입, 경기 지역 제보자 ㄴ삽입, 연음고정형/ ◎ 힘입다(연음우세) - 표준 발음 ㄴ삽입, 연음고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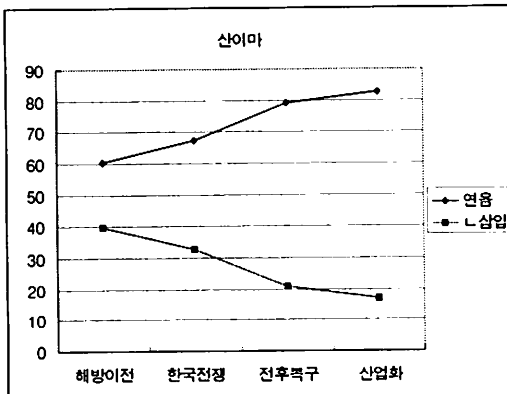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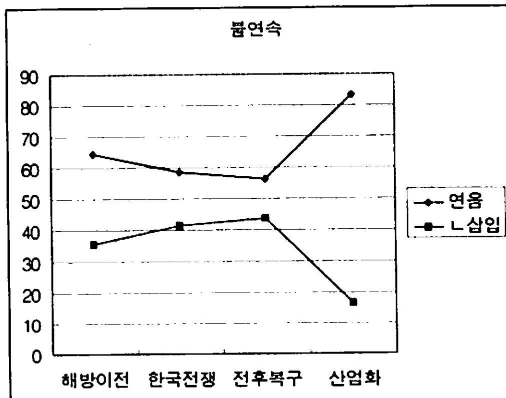
◎ 음이름(연음우세) -표준 발음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연음고정형 / ◎ 논이랑(연음우세) - 표준 발음 ㄴ삽입, 고정적 평음, 인천 지역 제보자 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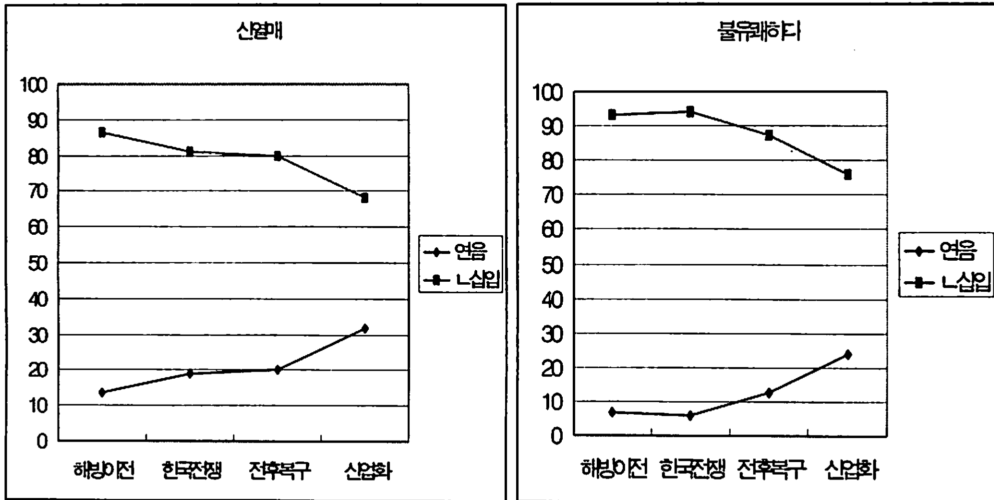
◎ 옆잇기(연음 우세) - 표준 발음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 ◎ 목양말(연음 우세) - 표준 발음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최종학력 대졸자 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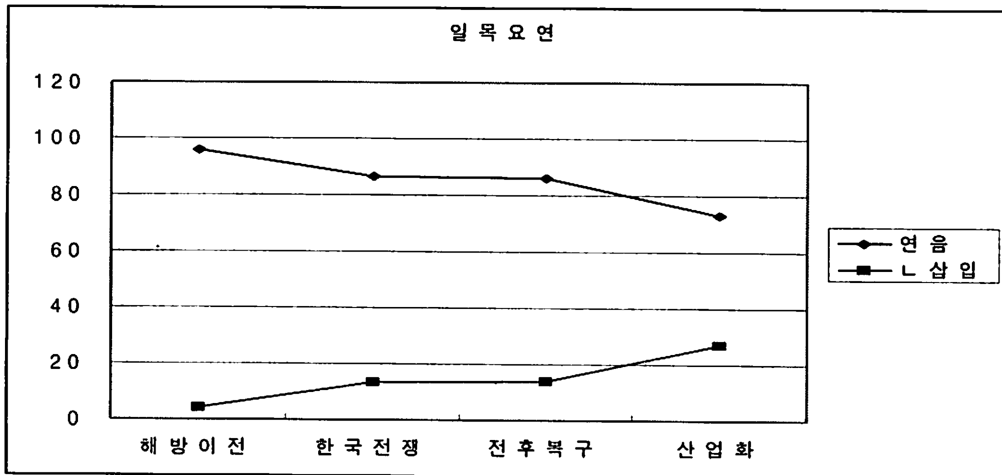


◎산이마(연음우세) - 표준발음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 불연속(연음우세) - 표준발음 연음, 여성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최종학력 대졸자 연음

㉡ 유사 수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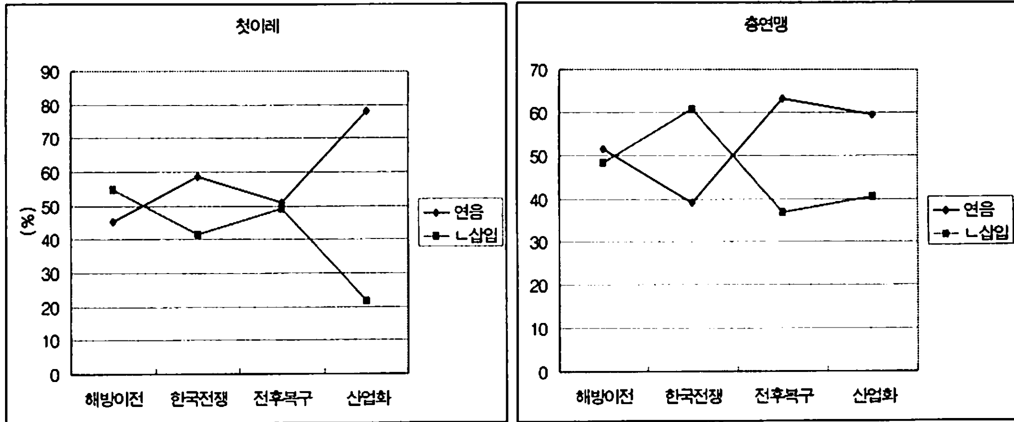
㉡ 산열매(ㄴ삽입우세) - 표준발음 ㄴ삽입,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최종학력 대졸자 연음 / ㉡ 불유쾌하다(ㄴ삽입우세) - 표준발음 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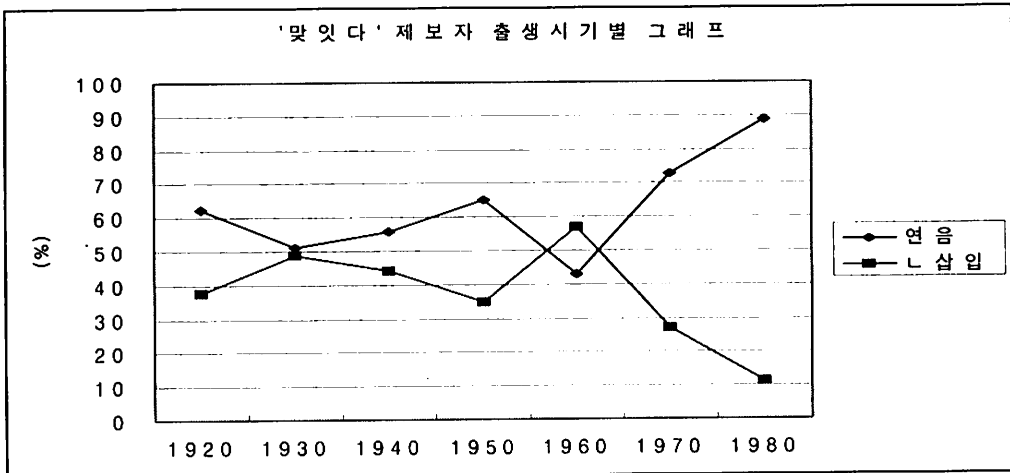
㉡ 일목요연(연음우세) - 표준발음 연음, 연음고정형.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표 29-④) 다교차형 그래프는 1965년 이전 출생자 집단에서 평음형과 경음형 중 다수형이 나타나지 않는 '첫이레'와 한국전쟁과 전후복구 세대를 기점으로 교차가 나타나는 총연맹, 그리고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제보자의 출생 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맞잇다'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들 다교차형 그래프는 해방 이전 세대에서 연음형과 ㄴ삽입형이 경쟁형으로 나타나고 1965년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다수형과 소수형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발산형 그래프와 유사한 구성으로 볼 수 있다.

(표 29-④) ㄴ삽입의 다교차형 그래프



첫이레(연음우세) - 표준발음 ㄴ삽입, 경기 지역 제보자 ㄴ삽입 / 총연맹(연음우세) - 표준발음 없음, 서울 지역 제보자 연음



맞잇다(연음 우세) - 표준 발음 ㄴ삽입

이제까지의 결과로 보면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 집단의 특성과 ㄴ삽입 현상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ㄴ삽입 현상은 이 지역에서 어휘 개별적으로,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다.

② ㄴ삽입의 약화는 후행 모음이 단모음인 경우, 어휘 항목을 구성하는 음절수가 3음절 이상일 경우에 ㄴ삽입의 약화가 가속된다. 후행 모음이 이중모음인 경우, 어휘 항목을

구성하는 음절수가 3음절 이하인 경우에는 ㄴ삽입 현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한자어의 경우 음절수가 3음절 이상이고 후행모음이 이중모음인 경우에도 ㄴ삽입 현상이 실현된다.

③ 지역적인 요인에 한정하여 ㄴ삽입의 약화는 서울 지역 제보자들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서울 지역 제보자의 경우 연령이나 최종학력, 이 지역의 다수형과 무관하게 ㄴ삽입 현상을 실현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④ 어중경음화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변이형 실현의 평준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5.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변이 현상

한자어의 단어 내부에서 인접한 음절에서 선행음(선행음절말음)이 /ㄴ/, 후행음(후행음절두음)이 /ㄹ/인 경우의 발음은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선행음인 비음 때문에 후행음 유음이 비음으로 변하는 비음화 유형과 후행음인 유음 때문에 선행음 비음이 유음으로 변하는 유음화 유형, 그리고 단어 가운데 음절 경계를 넣어서 ㄴ과 ㄹ을 구분해서 발음하는 기타 유형이 여기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한자어의 단어 내부에서 인접한 음절의 선행음이 /ㄴ/, 후행음이 /ㄹ/인 환경을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라고 부르고, 여기서 나타나는 비음화와 유음화의 변이 현상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은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예이다.

(1) ㄱ. {춘란}(春蘭) : [ʨʰullan],[ʨʰunnan]
ㄴ. {탄량}(炭量) : [tʰallaŋ], [tʰannaŋ]
ㄷ. {선릉}(宣陵) :[sʌlliŋ], [sʌnniŋ]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변이 현상에 대해 전통적인 방언학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우선 살펴보도록 한다. 3대 이상 서울에서 거주하고 일제시대 이전에 서울에서 출생한 서울토박이들의 방언연구인 유필재(2000:180-181)에서는 이 지역 사람들의 역행 유음화 현상(ㄴㄹ→ㄹㄹ)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지역의 역행적 유음화의 특징은 '뒷자음이 ㄹ이면 앞자음이 ㄹ이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한자어에서만 나타나고 고유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필재(2000:181)에서 든 한자어의 역행적 유음화의 예는 '신선로(神仙爐)→신설로'이다. 그런데 유필재(2000:178)에는 서울 토박이들의 비음화에 대해 '서울토박이들은 형태소 내부에 자음이 연쇄할 때 뒷자음이 비음이면 앞자음은 비음이어야 한다는 제약도 가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유필재(2000)의 설명은 서울에서 서울지역에서 대대로 생활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ㄴㄹ연쇄의 어휘들을 비음화 또는 유음화의 한 방향으로 통일하여 발음하고 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ㄴㄹ연쇄의 발음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유음화된 변이형이 비음화된 변이형보다 오래된 어형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진호(1998)에서는 젊은 층일수록, 근래에 만들어진 단어일수록 유음화보다는 비음화의 경향이 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동석(2005)에서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문헌에 나타난 표기법을 근거로 ㄴㄹ연쇄에서 비

음화 실현을 젊은 층으로 내려올수록 강해지는 현상으로 보고, 그 이유가 현상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배주채(2004:271)에서는 한자어의 ㄴㄹ 연쇄 구성을 가진 행정구역명중 '리(里)'가 붙은 2음절어의 경우는 항상 유음화가 나타나고 3음절어에는 유음화가 일어난 발음이 고형이고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 발음이 신형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한자어의 ㄴㄹ연쇄에서 유음화한 변이형이 구형이고 비음화한 변이형이 신형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근영(2005:163-171)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20대 대학생 200명에게 ㄴㄹ연쇄의 한자어 어휘목록 50개를 주고 발음을 기록하는 실험을 한 바 있다. (2)는 이근영(2005)의 실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 유음화가 적용되는 어휘(실행빈도 80% 이상) : 신라, 완료, 천리, 원리, 찬란, 산란, 탄로, 난로, 문란, 신랑, 곤란, 언론, 천륜, 순리, 본론, 관람, 단련, 인류, 연륜, 진료, 신림동, 대관령, 논리적, 한라산, 재분류, 전라도
비음화가 적용되는 어휘(실행빈도 80% 이상) : 생산량, 상견례, 입원료, 공권력, 결단력
비음화 우세 경쟁형 : 의견란, 산릉, 비관론, 선단리, 이원론, 임진란, 신문로, 동원령, 노근리, 보문로, 음운론
완전 경쟁형 : 곤로(유음화 56%, 비음화 44%)

(2)의 결과에 대해 이근영(2005)의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자. (2)의 유음화가 적용되는 어휘들은 순행유음화과 같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한다. 즉 ㄴㄹ이 연쇄하거나 ㄹㄴ이 연쇄하거나 유음화의 실현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2)의 비음화가 적용되는 어휘들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어휘들은 본래 어휘 형태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ㄴ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형태소에 대한 강한 인식이 중심이 될 경우 ㄴㄹ연쇄에서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발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 화자들의 한자어의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 변이형 실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유필재(2000)의 설명처처럼 이 지역 화자들이 유음화나 비음화로 통일해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출신자의 ㄴㄹ연쇄 한자어 변이형 실현에 대해 전통적인 방언학의 방법론을 사용한 국립국어원의 자료집을 살펴보도록 한다. (3)은 1930년대 이전에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서 태어나서 자란 28명의[56] 서울 토박이 제보자들에게 한자어의 ㄴㄹ연쇄 9개 단

56) 전체 제보자는 29명이지만 86세 여성 제보자 1인은 구술 발화 작업에만 참여하였기에 변이형 조사 자료 제보자는 28명이 된다.(국립국어원 1997: vi)

어의 발음을 자연스럽게 실현하게 하여 녹취 전사한 국립국어원(1997)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3) 1930년대 이전 서울 종로구와 중구 출생 화자 28명의 ㄴㄹ연쇄 한자어 변이형 실현 (기타 응답자 제외)

번호	어휘 항목	변이형	응답자 수	비고
1	상견례	비음화	21명	비음화 우세
		유음화	1명	
2	선릉[57]	비음화	22명	비음화 우세
		유음화	3명	
3	신선로	비음화	28명	비음화 우세
		유음화	0명	
4	음운론	비음화	22명	비음화 우세
		유음화	3명	
5	전나[58]	비음화	10명	유음화 우세
		유음화	14명	
6	청산리	비음화	16명	비음화 우세
		유음화	10명	
7	춘란	비음화	6명	유음화 우세
		유음화	22명	
8	환난	비음화	13명	비음화 우세
		유음화	12명	
9	판단력	비음화	19명	비음화 우세
		유음화	3명	

(원 자료 출처 : 국립국어원(1997:17-20)

(3)은 서울 토박이 노년층 화자들이 해당 어휘에 대해 어휘 개별적으로 ㄴㄹ연쇄의 변이형 중 비음화 또는 유음화 변이형으로 다수형을 통일하여 발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 다룬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동일한 언어 사회에 소속된 언어 사용자들

57)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서울 토박이들의 '선릉'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비음화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1997년 10월 8일자 기사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국립국어연구원(원장 이익섭 서울대 교수·국어학) 어문실태연구부가 '표준어 바로 세우기 작업'의 1단계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서울 토박이말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4대째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토박이 3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국어연구원 어문실태부가 표준어의 발음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해방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오는 2002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30명 전원이 지하철 2호선 '선릉'의 안내방송 '설릉'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릉'의 정확한 발음으로 '선능'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국립국어연구원의 국어심의위원회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말과 발음에 대한 치밀한 사정을 하지 못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58) 자료집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 특정한 어휘에 대한 변이형을 통일하여 발음하는 동조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의 종로구와 중구 일부에 대대로 평생 살아온 동질적인 제보자 그룹에서 제보자들이 해당 어휘의 변이형을 통일하여 발음하는 경향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어휘 개별적인 것인지, 아니면 ㄴㄹ연쇄에서 비음화 또는 유음화로 규칙화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자의 문제라면 이 문제는 음운론의 차원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며, 후자의 문제라면 이 문제는 음운현상이기 때문에 규칙을 통한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1장의 선행 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음화와 비음화가 화자의 연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ㄴㄹ연쇄에서 비음화는 새로운 어형이 된다. 그렇다면 이 개신은 언제 일어났느냐에 대해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이진호(1998)과 이동석(2005), 이근영(2005)를 보면 이 개신은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에게서 충분히 관찰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1)의 예를 보면 서울 토박이 노년층에게서는 한자어의 ㄴㄹ연쇄에서 유음화 통일성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수도권 지역 화자들의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발음의 사회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발음이 어떤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유음화된 변이형이 비음화된 변이형보다 신형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5.1. 20세기 수도권 지역 출신 화자들의 ㄴㄹ연쇄의 변이 실현 경향 분석

한자어의 ㄴㄹ연쇄에 대한 본고의 분석 대상 어휘와 유음화 실현율을 제시하면 (1)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제시할 전체 제보자들의 발음 경향은 (1)의 어휘들에 대한 발음의 변이형 실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표 30)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 대상 어휘와 전체 유음화 실현 빈도

번호	어휘	유음화 응답자(수) (N=349)	유음화 실현율(%)	표준 발음
1	전라(全裸)	270	77.4	유음
2	선례(先例)	252	72.2	유음

3	연리(年利)	233	66.8	유음
4	한류(韓流)	230	65.9	없음
5	현리(縣里)[59]	219	62.8	없음
6	광안리(廣岸里)	166	47.6	없음
7	신선로(神仙爐)	161	46.1	유음
8	반라(半裸)	157	45.0	유음
9	단리(單利)	152	43.6	유음
10	친로파(親露派)	149	42.7	없음
11	탄량(炭量)	127	36.4	유음
12	촌로(村老)	117	33.5	유음
13	춘란(春蘭)	109	31.2	유음
14	박인로(朴仁老)	94	26.9	없음
15	온랭(溫冷)	78	22.7	유음
16	선릉(宣陵)	73	20.9	유음
17	청산리(靑山里)	70	20.1	없음
18	헌릉(獻陵)	66	18.9	유음
19	노근리(老斤里)	52	14.9	없음
20	수년래(數年來)	48	13.8	유음

나. 다수형

번호	어휘	응답자	유음화 비율	표준발음	고정형
1	선릉(宣陵)	73	20.9	유음	비음
2	청산리	70	20.1	유음	비음
3	헌릉(獻陵)	66	18.9	유음	비음
4	노근리(老斤里)	52	14.9	없음	비음
5	수년래(數年來)	48	13.8	유음	비음

본고의 제보자들에게서는 ㄴㄹ연쇄의 한자어의 발음에 대한 다수형이 나타난다. 이미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형은 언어 외적 요인에 의한 세부적인 분석에 의해 변이형 실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제보자 집단 전체로 볼 때는 전체 제보자의 80% 이상이 하나의 변이형을 통일하여 발화한 이 지역의 대표적인 변이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릉'과 '헌릉'의 비음형은 3장의 도입부에서 살펴본 국립국어원(1997)의 자료와 비교해 보아도 비음화된 어형이 적어도 수도권 지역의 다수형이라고 판단된다.

제보자들은 '청산리, 노근리'의 발음에서도 비음화된 다수형을 실현한다. '청산리'의 경우 국립국어원(1997)의 발음에서도 비음화된 어형이 다수의 제보자들에게서 보인다. 다

59)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를 가리킨다. 국립국어원(2003:164)의 낭독식 질문 236번은 "안내면 현리는 비교적 규모가 작다."이다.

수형은 아니지만 (1-가)에서 유음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라'는 국립국어원(1997)에서도 유음화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국어원(1997)의 서울 토박이 집단과 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의 변이형에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국립국어원(1997)의 제보자 집단은 서울의 중심지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로 그들의 발음에서 '선릉, 청산리' 발음의 비음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 자료에서 보이는 '선릉, 청산리'의 비음형은 이 지역에 한해서 비음화 변이형이 우세한 어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해당 어휘 항목에 대해 이른바 토박이나 그 후손이나 20세기 후반 이후의 서울과 그 주변 지역 이주자나 그 후손이나 모두 '선릉, 청산리' 항목의 변이형 사용에서 강한 동조성을 보이고 있다. 해당 변이형에 대한 언어 사회 내부의 집단동조성이 언어 현상의 규칙적인 적용에서 예외를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언어연구자들이 아무리 언어 내적 질서에 의해 유음화된 어형이 맞다고 해도 언어 현실과는 맞지 않게 된다. 언어 내적 질서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언어 행동의 집단동조성 현상에 대한 화자들의 언어 행동 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형의 존재는 해당 어휘에 대해 제보자 집단이 하나의 어휘 항목에 하나의 변이형을 연결시켜서 발음하고 별다른 문법적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변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다수형의 존재는 이론언어학에서 말하는 '어휘부에 고정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진호(1998)에서는 한자어는 공시적인 어형성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서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또한 이봉원(2002:166)에서는 '역행유음화 현상과 비음화의 선택이 단어 특정적이라는 것은 이들이 전체 단어의 형식으로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잦은 사용을 통해 어느 한쪽의 표시가 강화되면 어휘부에서의 인출은 더 쉬워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진호(1998)과 이봉원(2002)의 설명은 동질적인 성격의 언어 사용자 집단에서 하나의 어휘 항목에 하나의 변이형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발음이 고정되는 현상에 대해 언어 내적인 설명으로 적절하다.

이 설명은 '청산리', '노근리'의 비음화를 설명하는 데 적용해 보자. (1)의 어휘 항목에서 지명어휘는 '청산리, 노근리, 광안리, 현리' 가 나온다. 그런데 '청산리'와 '노근리'는 비음 고정형, 광안리와 현리는 비음형과 유음형이 경쟁형으로 나타난다. '광안리'의 경우 유음 실현율은 47.6%, '현리'의 유음 실현율은 62.8%로 '청산리, 노근리'의 유음실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배주채(2004:271)에 의하면 3음절 지명어는 유음형이 고형, 비음형이 신형이며 2음절어에 대해서는 '신리(新里)[실리], 현리(縣里)[혈리]'와 같이 항상 유음화가 일어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 설명은 지명어의 발음 중 이 설명은 '현리'의 유음 실현이 '청산리, 광안리, 노근리'보다 왜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제보자들의 '현리' 유음 실현율은 본고에서 다수형으로 설정한 80%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 40%의 비음 실현 제보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현리'라는 어휘 항목에 대해 제보자 집단의 언어 외적 배경에 의해 변이형 실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리'의 비음화에 대해서는 개별 어휘의 변이형 실현과 관련성이 있는 언어 외적 요인들을 분석할 5.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3음절 지명어에 대하여 국립국어원(1997)의 자료를 참고해 보면 서울 토박이 노년층과 본고의 제보자 집단에서는 최소한 '청산리'에 한해서 배주채(2004)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산리'의 비음형은 다수형이기에 특이한 관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 수 있다. 따라서 배주채(2004)의 설명은 '청산리'와 '노근리'같이 '어휘부에 등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지명어의 발음을 설명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근영(2005:168)의 경기도 포천군 '선단리'의 발음에 대한 언급에서도 배주채(2004)의 설명이 근거로 제시된다. 경기도 포천군 선단리 토박이들은 '선단리'에 대해 유음화를 실현하며 외부인들은 비음화를 실현한다고 한다.

본고는 '청산리'와 '노근리'가 다수형이 되는 언어 외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특히 '노근리'는 제한된 맥락에서(역사용어, 시사용어)에서 사용되는 고빈도 어휘이기에[60] 어휘 항목과 발음이 고정되는 경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노근리'의 시사용어적 성격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회 집단에서는 이근영(2005)의 경기도 포천군 선단리 토박이들처럼 유음화를 실현할 가능성도 있다. 5.2에서 제시할 1920년대 출생자 집단의 '노근리' 발화에 대한 유음화 실현 비율이 해방 이전 출생자 집단 내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범주에 속한 어휘들은 한정된 맥락에서 하나의 발음 표지로 반복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향이 변이형의 고정성을 높였다는 해석이다. 물론 '왜 유음형이 아니라 비음형이 다수형으로 선택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한 맥락 고빈도 사용설이 순환론적 논리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ㄴㄹ연쇄의 한자어에 대해 수도권 지역 화자들의 발음 성향에서 전체적으로 유음화보다 비음화의 경향성이 높기에 비음형이 선택되었다는 설명을 하고자 한

60) '노근리'가 시사용어의 성격을 가지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언중들에게 노출된 고빈도 어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근거는 제시할 수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뉴스전문검색 카인즈(http://www.kinds.or.kr/)에서 '노근리'는 1994년 이후 181개 매체에서 3220건이 주로 정치, 국제면에 집중적으로 올라와 있음을 볼 수 있다. '광안리'는 지면 분류에 관계없이 1990년 이후 전체 2317건, 안내면 '현리'는 1990년 이후 전체 3건을 찾을 수 있다.

다[61]. 이 지역의 비음화 경향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는 이 절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한자어의 ㄴㄹ연쇄에서 나타나는 다수형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고의 제보자 집단에서는 ㄴㄹ연쇄의 한자어에서 다수형들을 보이고 있으며, 이 어형들은 동일한 한자, 유사한 구조, 동일한 어휘 범주의 다른 어휘 항목들과 상이한 변이형 실현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다수형들이 관찰 시점 현재 하나의 어휘 항목에 하나의 변이형이 실현되고 특별한 문법적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로 파악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다수형의 존재가 이 지역 화자들의 언어적 동조성이 음운론적, 형태론적 구조보다 우선하기에 발생하는 경우로 해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관찰 결과나 언어연구자들이 제시한 문법적인 질서와 다르게 나타나는 이 지역의 다수형에 대해 제한된 맥락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어휘 항목의 변이형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한자어 내부의 ㄴㄹ연쇄의 실현에 대한 제보자 전체적인 발음 경향에 대해 양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5.1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분석 방법 : 해당 음운 현상만을 보기 위하여, 기타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결측값으로 바꾸어 처리 후, 비율에 따라서, 해당 단어에 절반 이상 해당 음운 현상을 발음할 경우, 해당 음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음.

② 분석 기법의 설명 :

빈도분석 : 이산형으로 이루어진 자료가 해당 범주에 얼마나 구성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기법

교차분석 : 각각 교차되어지는 범주 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정하는 기법

③ 분석 절차 :

i)자료의 가공

이산형으로 코딩된 자료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해당 문항의 비율을 구함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경우, 해당 음운 현상이 있다고 봄

ii)자료 분석

성별, 연령별, 최종 학력별, 현 거주지별, 시대별로 응답자가 얼마나 분포되

61) 이진호(1998)에서는 ㄴㄹ연쇄의 어휘의 경우 중부방언에서 비음화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어 있는지 알아봄

성별, 연령별, 최종 학력별, 현 거주지별, 시대별로 해당 음운 현상의 실현 유무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

가설 H_0:해당 기준에 대하여 음운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H_1:해당 기준에 대하여 음운 현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해당 기준은 성별, 연령별, 최종 학력별, 현 거주지별, 시대별을 말함
분석은 통계패키지 SAS를 사용함(고려대학교 통계상담소)

분석의 구체적은 방법과 가설(귀무가설 - H_0:해당 기준에 대하여 음운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대립가설 - H_1:해당 기준에 대하여 음운 현상은 다르게 나타난다.)유의수준(P>0.05)은 3장과 4장의 분석 방법과 동일하다.
(표 31)은 성별에 의한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가설에 대한 유의 확률 0.5740은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성별에 의해 비음화나 유음화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비음화 실현율이 유음화 실현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 제보자의 성별에 따른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 실현 경향

빈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비음화	유음화	총합
남	99 28.37 66.00 41.95	51 14.61 34.00 45.13	150 42.98
여	137 39.26 68.84 58.05	62 17.77 31.16 54.87	199 57.02
총합	236 67.62	113 32.38	349 10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1	0.3160	0.5740

표본 크기 = 349

다음은 연령별 비음화와 유음화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가설에 대한 유의 확률 0.1278은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이번에는 90% 신뢰구간을 구하는 방법으로 제보자의 연령별 비음화와 유음화의 경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신뢰구간을 구하는 방법에서도 이 지역의 비음화 우세가 잘 나타난다.

연령대에 대한 90% 신뢰구간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경우 모두 (0.38, 0.62) 이고, 70대의 경우 (0.26, 0.75)이다. 신뢰구간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표본에 의하여 구한 비율이 구간 안에 포함될 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밑줄이 그어진 부분의 비율을 보면, 20대의 경우는 신뢰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20대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0대, 40대, 50대, 60대의 경우는, 90% 신뢰구간 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즉 비음화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70대의 경우는 표본의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신뢰구간이 매우 크며, 추정된 비율이 90% 신뢰구간에 포함되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ㄴㄹ연쇄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말 할 수 있다. 물론 70대의 경우 표본의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의 결과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표 32) 제보자의 연령별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 실현 경향

빈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비음화	유음화	총합
20	41	27	68
	11.75	7.74	19.48
	60.29	39.71	
	17.37	23.89	
30	46	16	62
	13.18	4.58	17.77
	74.19	25.81	
	19.49	14.16	
40	53	19	72
	15.19	5.44	20.63
	73.61	26.39	
	22.46	16.81	
50	44	23	67
	12.61	6.59	19.20
	65.67	34.33	
	18.64	20.35	
60	45	19	64
	12.89	5.44	18.34

	70.31	29.69	
	19.07	16.81	
70	7	9	16
	2.01	2.58	4.58
	43.75	56.25	
	2.97	7.96	
총합	236	113	349
	67.62	32.38	10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5	8.5626	0.1278

표본 크기 = 349

다음은 세대별 교차표이다. 가설에 의한 유의확률 0.2331은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세대별로 구분해도 비음화와 유음화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33) 제보자의 세대별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 실현 경향

빈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비음화	유음화	총합
해방이전	58	31	89
	16.62	8.88	25.50
	65.17	34.83	
	24.58	27.43	
한국전쟁	46	25	71
	13.18	7.16	20.34
	64.79	35.21	
	19.49	22.12	
전후복구	56	16	72
	16.05	4.58	20.63
	77.78	22.22	
	23.73	14.16	
산업화	76	41	117
	21.78	11.75	33.52
	64.96	35.04	
	32.20	36.28	
총합	236	113	349
	67.62	32.38	10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3	4.2762	0.2331

표본 크기 = 349

다음은 제보자의 현재 거주지에 따라 유음화와 비음화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주지 교차표이다. 가설에 의한 유의확률 0.7442은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거주지 요인에서도 비음화와 유음화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34)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 유음화와 비음화 실현 경향

빈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비음화	유음화	총합
서울	123 35.24 66.85 52.12	61 17.48 33.15 53.98	184 52.72
서울제외	113 32.38 68.48 47.88	52 14.90 31.52 46.02	165 47.28
총합	236 67.62	113 32.38	349 10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1	0.1065	0.7442

표본 크기 = 349

다음은 제보자의 최종 학력과 비음화와 유음화의 차이를 알아보는 학력 교차표이다. 가설에 의한 유의 확률 0.9111은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학력 요인도 비음화와 유음화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35) 제보자의 최종 학력에 따른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 유음화와 비음화 실현 경향

빈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비음화	유음화	총합

초졸	9	6	15
	2.58	1.72	4.30
	60.00	40.00	
	3.81	5.31	
중졸	24	10	34
	6.88	2.87	9.74
	70.59	29.41	
	10.17	8.85	
고졸	94	45	139
	26.93	12.89	39.83
	67.63	32.37	
	39.83	39.82	
대졸	109	52	161
	31.23	14.90	46.13
	67.70	32.30	
	46.19	46.02	
총합	236	113	349
	67.62	32.38	10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
카이제곱	3	0.5351	0.9111

표본 크기 = 349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보자들은 전체적으로 (1)의 어휘에 대해 유음화보다 비음화를 실현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 외에는 어떤 사회적 요인에 대한 정보도 찾기 어려웠다. 전체적으로 비음화의 경향이 강하다는 해석은 이 지역 사람들이 (1)의 어휘에 대해서 대체로 비음화를 실현하리라는 예측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5.2에서 (1)의 어휘에 대한 개별적인 교차분석을 통해 한자어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가 어떤 사회적 요인과 관련성이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5.2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나서 현재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제보자들은 단어 내부에 ㄴㄹ이 연쇄하는 한자어에 대하여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는 동일한 어휘 범주의 어휘 항목들에서도 비음형의 다수형을 발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ㄴㄹ연쇄가 있는 20개 어휘에 대한 349명의 변이형 실현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비음화가 유음화보다 우세하게 나타나고, 특별히 연령이나지역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 의해 비음화나 유음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2에서는 20개 어휘에 대한 345명의 변이형 실현에서 나타나는 사회언어학 특성을 사회적 요인별로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우선 변이형 실현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어휘이다. ㄴㄹ연쇄의 변이형 실현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어휘는 '촌로', '춘란' 이다.

어휘	성별	변이형	제보자 (명)	성별 비율 (%)	변이형 실현 비율(%)	카이 제곱	유의 확률	표준 발음	다수 변이형	비고
촌로	남성	비음화	81	57.4	38.6	4.94	0.026	유음	없음	여성 비음
		유음화	60	42.6	51.3					
	여성	비음화	129	69.4	61.4					
		유음화	57	30.6	48.7					
춘란	남성	비음화	91	61.9	39.1	4.59	0.032	유음	없음	여성 비음
		유음화	56	38.1	51.4					
	여성	비음화	142	72.8	60.9					
		유음화	53	27.2	48.6					

'촌로'의 경우 여성의 비음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고의 자료 분석 결과로 유의미할 뿐이지 이 결과가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에 대한 이 지역의 발음 경향을 대표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제보자의 연령과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의 관계에 대해서 어휘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표의 유의 확률과 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본고의 <부록>에 있다.

우선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에 따라 ㄴㄹ연쇄의 한자음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 항목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 20개 어휘 항목 중 5개의 어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어중경음화나 ㄴ삽입현상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서울 출신 제보자와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의 언어 행동의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는다.

(1) ㄴㄹ연쇄 한자음에서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 항목

번호	어휘	구분	지역별 유의 확률	도시별 유의 확률	비고	표준 발음	고정형
1	현리	현재거주지	0.008	0.010	서울 유음	없음	없음
		출생지	0.005	0.003	서울 유음		
		부계거주지	0.017	0.006	서울 유음		
		모계거주지	0.037	0.004	서울 유음		
2	광안리	현재거주지	NS	0.025	인천 유음	없음	없음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 없음					
3	단리	부계거주지	NS	0.046	인천 유음	유음	없음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 없음					
4	친로파	부계거주지	0.048	NS	서울제외 비음	유음	없음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 없음					
5	수년래	부계거주지	NS	0.021	인천 유음	유음	비음
		모계거주지	NS	0.032	인천 유음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 없음					

(1)의 분석결과를 보면 이 지역 제보자들의 ㄴㄹ연쇄의 비음화의 유음화의 변이형 실현에서 제보자의 선대거주지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다만 '현리'를 제외하고 지역적 요인 8가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볼 수 없다, 따라서 (2)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보자의 지역적 배경과 ㄴㄹ연쇄의 관련성에 대한 일반화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리'의 경우 '리(里)'가 들어가는 2음절 지명이다. (2-1) '현리'는 서울 지역 제보자 집단에서 2음절 지명에 대해 유음화를 실현하는 경향이 높다는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종 학력에 의해 변이형 실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어휘	최종 학력	변이형	제보자 (명)	변이형 실현 비율(%)	유의확률	표준발음	고정형
한류	초졸	비음화	10	66.7	0.000	없음	없음
		유음화	5	33.3			
	중졸	비음화	19	57.6			
		유음화	14	42.4			
	고졸	비음화	42	29.3			
		유음화	117	70.7			
	대졸	비음화	39	26.4			
		유음화	94	73.6			

'한류'는 20세기 말에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어 신조어로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 시기는 서기 2000년경으로 추정된다. '한류'의 유음화 실현은 일종의 '학습효과'로 파악되는데 이 어휘가 자생적으로 발생한 어휘가 아닌 차용어이며, 언론을 비롯한 사회 상층부에서 쓰이기 시작한 어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고의 제보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고령자라고 할 수 있는 최종학력 초졸자와 중졸자 집단에서 '한류'의 비음화 실현 경향이 높은 것은 ㄴㄹ연쇄의 한자어에 대해 이 지역의 비음화 실현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최종학력 고졸자와 대졸자 집단의 유음화 변이형 실현은 현재 이 지역에서 '한류'의 발음에 대한 다수변이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제보자의 연령에 의해 변이형 실현에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이다. 이들 어휘의

특징은 어중경음화와 ㄴ삽입의 경우와 같이 1960년대 이후 출생자의 변이형 실현에서 동조성을 보이며 그 이전 세대와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전 세대에서 비음화의 경향성이 강한 어휘들은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유음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이전 세대에서 유음화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였던 '신선로'의 경우는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비음화가 나타난다.

(표 36) ㄴㄹ연쇄 한자어 변이형 실현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 항목들

번호	어휘	연령별 유의 확률	출생 시기별 유의 확률	세대별 유의 확률	표준 발음	다수 변이형	비고
1	노근리	0.000	0.000	NS	없음	비음	1920년대 출생자 유음화 다수형
2	반라	0.002	0.005	0.008	유음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유음화 증가
3	선릉	0.006	0.002	NS	유음	비음	1920년대 출생자, 1970년대 출생자 유음화
4	신선로	0.002	0.001	0.001	유음		1960년대 이후 출생자 비음화 증가
5	온랭	0.018	0.017	0.032	유음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유음화 증가
6	춘란	0.026	NS	0.046	유음		1955년-1965년 출생자 비음화 다수형
7	친로파	NS	0.010	NS	유음		1920년대 출생자 유음 다수형 1950년대 출생자 비음 다수형
8	탄량	0.001	0.020	0.048	유음		1970년대 이후 출생자 유음화 증가
9	한류	NS	0.000	0.027	없음		1940년대 이후 출생자 유음화 증가
10	헌릉	0.000	0.000	0.001	유음	비음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유음화 증가

(2-1) '선릉', (2-4) '탄량'의 경우는 197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유음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어휘 항목들이다. 이 어휘에서 나타나는 유음화의 증가는 표준 발음과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2-1) '선릉', (2-8) '노근리'에서 70대 이상인 1920년대 출생자의 유음화가 높게 나타난다. 해방 이전 출생자 집단에서 '선릉'과 '노근리'의 비음화 비율은 80% 이상의 고정적 변이음으로 보이는데, 1920년대 이전 출생자

의 유음화 실현 비율은 집단 내 발음 성향에서 차이를 보이는 언어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 대상 제보자 중 70대 화자의 '선릉'과 '헌릉'의 발음 경향을 보면 '선릉'과 '헌릉' 모두 해방 이전 제보자 집단에서 80% 이상 비음화가 실현되는 다수형이며 70대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50% 내외의 경쟁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70대 화자의 '청산리, 노근리, 광안리' 실현을 보면 해방 이전 제보자 집단에서 70.2%의 비음화 실현율을 보이는 '청산리'의 경우 70대 화자의 비음 실현이 높고, 고정적 비음형인 '노근리'는 70대 화자의 유음 실현이 높으며, 고정형이 없는 '광안리'는 70대 화자에서도 비음과 유음이 경쟁형으로 나타난다. 70대 화자가 '노근리'와 '광안리'에 대해 유음형을 보이는 데 대해 본고는 70대 집단에서 '노근리, 광안리'의 변이형 실현이 배주채(2004)에서 제시한 자연지명을 발음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변이형이 실현되었기에 유음화 실현율이 높다고 설명하고자 한다.62)

이 지역 화자들의 '선릉'과 '노근리' 발음 실현에서 나타나는 변이형의 문제는 결국 ㄴㄹ연쇄 한자어 발음에 대한 다중문법의 문제로 이어진다. 수도권 지역의 화자들은 한자어에서 역행 유음화와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비음화를 실현하는 G3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음화 경향성은 이 환경에서 유음화를 우선하는 G1과 항상 상충하는 것이다. 여기에 '노근리, 선릉'처럼 고정적 비음형을 가진 어휘 항목이 존재한다. 고정적 비음형은 G3의 영역으로 이른바 표준 발음의 영역인 G1의 질서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G1의 질서에 의하면 이들 어휘 항목들은 유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 화자들의 한자어의 ㄴㄹ연쇄의 변이형 실현은 G1과 G3 사이의 G2, Trudgill의 술어를 사용하면 중간방언(interdialect)의 형식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제보자 집단 중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유음화 변이형은 중세국어적 전통이나 다른 방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어중경음화나 ㄴ삽입에서 보여준 방언평준화의 움직임처럼 유음화를 지향하는 표준발음(G1)과 비음화의 경향성이 강한 지역방언(G3)이 융합하면서 발생한 방언평준화의 결과로 보인다.

화자 집단의 연령과 ㄴㄹ연쇄 한자어의 유음화와 비음화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특정 연령대에 한정하여 다수형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한자어 ㄴㄹ연쇄의 변이형 선택이 언어 내적 질서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속한 언어 사회의 동조성에 영향을 받는 현상임을 알려준다. 표준어의 영향을 받은 도시방언 화자들은 지역방언의 특징을 약화시키고 변이형들을 통일하는 경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방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전 세대에서 유음화를 실현한 어휘에 대해 지역방언의 특징과 다르게 행동하는 이후 세대는 비음화를 실현하고, 이전 세대에서 비음화를 실현하

---

62) '청산리'에 대한 낭독식 질문지 내용은 문장번호 214번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대첩으로 유명하다"이다. (국립국어원 2003:163)

는 어휘에 대해 유음화를 실현하는 언어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지역 화자들에게서 ㄴㄹ연쇄 한자어에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동안 계속 세대별로 비음형과 유음형이 경쟁형으로 나타나리라고 예상된다.

6. 연령과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해석

본고의 분석 결과 제보자의 연령에 관련된 요인들이(연령, 출생시기, 세대) 수도권 지역 출신, 거주 제보자들의 어중경음화 현상과 ㄴ삽입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어 외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절에서는 제보자 집단의 연령에 의한 변이형 실현의 차이가 사회언어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보고자 한다.

연령에 의해 언어변이 실현의 차이가 나타난 어중경음화 현상과 ㄴ삽입 현상에 대한 본고의 분석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어중경음화 현상은 제보자 집단 구성원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질수록 전체적으로 경음화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ㄴ삽입현상은 제보자 집단 구성원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질수록 ㄴ삽입현상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어휘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어중경음화 현상은 노년층에서 평음형과 경음형이 경쟁형일 경우, 청년층에서는 평음형 또는 경음형으로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노년층에서 평음형이나 경음형이 다수형으로 나타나는 경우, 청년층에서는 경음형이 증가하여 두 변이형이 경쟁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ㄴ삽입 현상의 경우 노년층에서 ㄴ삽입형과 연음형이 경쟁형일 경우, 청년층에서 주로 연음형으로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어중경음화나 ㄴ삽입 모두 고정적 변이형을 제외하고 노년층에서 청년층에 이르는 제보자 집단은 연령별, 세대별로 변이형 실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연령에 의한 변이형 실현의 차이는 언어변이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자주 다뤄지고 쉽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한 개인의 일생동안, 사람은 다양한 형태의 언어 변이형을 사용하게 된다.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하는 사람들은 유아기에 사용하던 변이형을 중년의 시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아기들은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고 말을 배워 나가고, 노인이 되면 언어능력과 지각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 보편적이며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과정이다. 사람들은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 세대와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언어 사회 내부에서 부모 세대의 말과 자녀 세대의 말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경우에 언어 변화 여부에 대해 의심을 해 볼 수 있다. 특히 부모 세대에서 인지하는 음소가 자녀 세대에서 인지되지 않는 경우, 부모 세대는 인지하지 못하는 음소를 자녀 세대가 인지하거나 발음하는 경우는 음운 변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언어 변화에 대한 음운사적 연구인 신승용(2003: 27)에서는 동시대에 발생하는 언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생성언어학에서 제시한 언어 변화 모델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다음, "언어 변화, 특히 소리 변화라는 것은 조음의 편리성이나 기능부담량, 세대 간의 불

완전한 전승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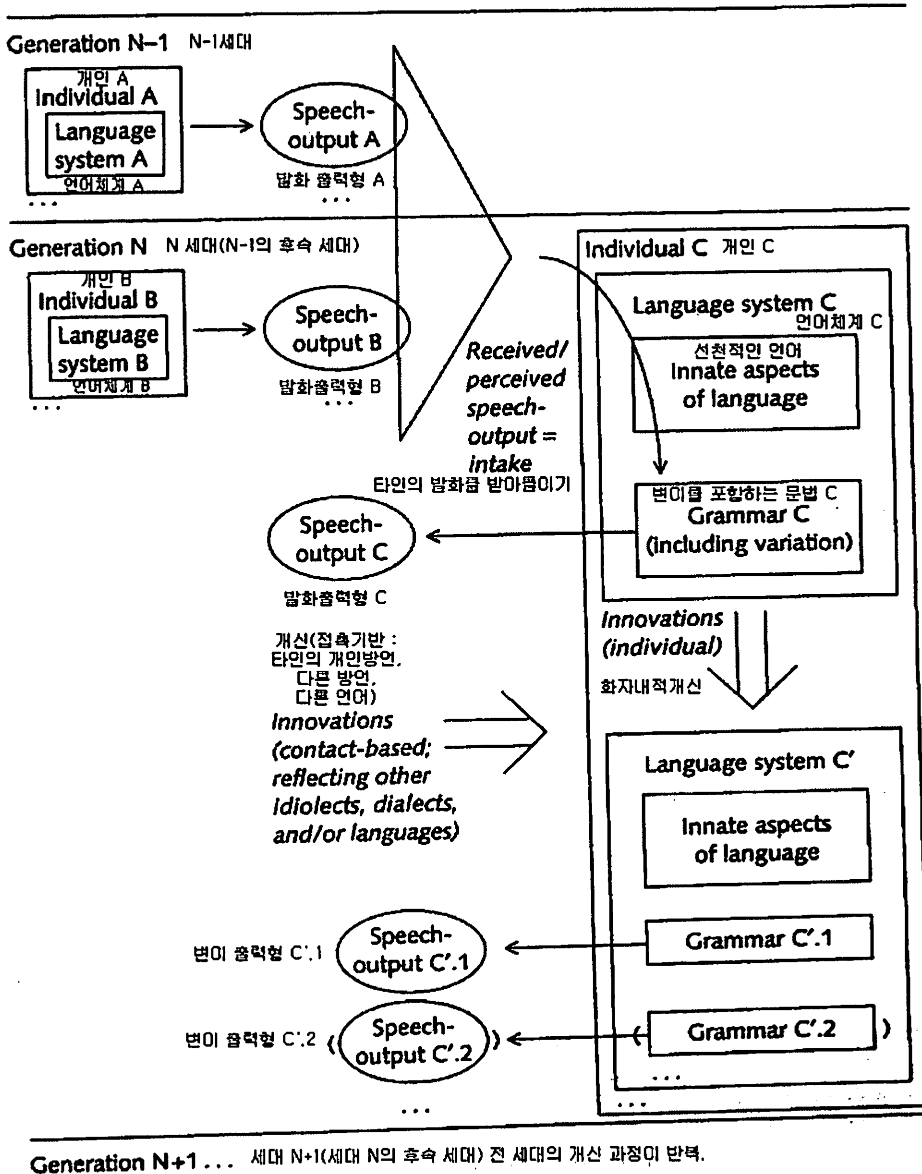
신승용(2003:29)에서는 언어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세대 개념을 도입한다. 여기서의 세대 개념은 "생성역사언어학의 이상적인 화·청자의 집합일 뿐만 아니라 균질화된 개인들의 집합이고 일반화된 개인"에 사회역사언어학(역사사회언어학)의 비균질적인 개인을 혼합한 것이다. 언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1세대'는 균질적인 화자들의 집합이고, 언어 변화가 일어난 2세대는 비균질적인 화자들의 집합이라고 설명한다. 언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1세대의 음운에 대한 인식은 완전하며, 언어 변화가 일어난 2세대의 음운에 대한 인식은 불완전하여, 이 인식이 표기상의 변이형식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승용(2003:56)에서는 특정 시기에 또는 특정 세대에서 인식되지 못하던 비변별적인 소리가 다음 시기에 또는 다음 시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변별적으로 인식 가능한 소리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세대 간의 음운 현상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승용(2003: 56)에서는 Weinreich, Labov & Herzog(1968:101)의 '전이 단계' 개념을 도입하고, 전이 단계, 즉 변화의 단계에 있는 소리는 변화 이전의 단계의 소리나 변화 이후의 단계의 소리와는 다른 성격의 소리로, 필연적으로 언어 변화의 촉발을 전제하지만, 모든 전이 단계의 소리가 완료 단계로 이행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전이 단계에 존재하는 음소를 상정하고 이를 '변이음소'라고 부른다. 변이음소는 음소적 특징과 변이음적 특징을 공유하는 소리로, 음운 변화의 과정에서 어느날 갑자기 有에서 無로 사라지는 일(비음운화)이나 無에서 有로 음소가 탄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완충 작용을 하는 존재이다. 신승용(2003)의 모델에서는 이 변이음소가 음운론의 단위로 설정되어, 음운 변화의 과정을 각 단계를 연결하는 고리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언어 현상을 실제 존재하는 언어 사용자 집단의 언어적 산물로 봤을 때, 언어 사용자 집단이 세대를 이루는 경우, 나이가 많은 세대 구성원이나 나이가 어린 세대 구성원이나 모두 실제 사회에서 실제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이다. 이 관점에서는 어느 세대에도 '이상적인 화자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적으로 균질적인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개인 화자가 똑같이 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Labov(1994:44)는 이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연언어에서 균질적인 언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Labov는 언어 연구자가 언어 변화를 다룰 때 대상의 동질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Weinreich, Labov, and Herzog (1968)에서 원용한 전이(transition) 단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음소가 확 사라지거나 생겨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설정한 전이 단계의 문제는 차용이나 언어접촉, 개인이 가진 다양한 문법체계와 개인이 지닌 언어 변이 창발 능력으로 설명하면 전이단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갑자기 언어변이가 생겨나는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Janda&Joseph(2003:76)의 모형은 생성언어학을 기반으로 세대 간의 발화 차이, 개인 방언의 차이가 어떻게 언어 개신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다중문법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림 7) Janda & Joseph(2003:76)의 세대 간의 언어 차이와 언어 개신 모형



선대인 개인 A의 발화와 동 세대집인 개인 B의 발화는 개인 C의 문법에 영향을 미쳐서 개인 C의 문법에서 다양한 변이형이 산출된다. Janda & Joseph(2003:76)의 모형에는 생성언어학의 생득적 언어능력 부분이 존재한다. 선대와 동세대의 발화는 개인 C의 생득적 언어능력(보편문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로지 개인 C의 변이형 산출 문법에만 영향을 미친다. 개인 C는 다른 방언이나 다른 언어 등의 다른 요소와의 접촉을 통

해 화자 내적 개신을 일으키거나 다중문법을 가질 수도 있다. 언어변이와 다중문법의 관계에 대해서 본고에서는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Milroy(1998:25-2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언어는 항상 변하고 있어서 오히려 항상 가변적인 상태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언어의 속성 그 자체가 고정되어 있거나 균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굳이 '고정화된 상태 A → 변이 단계 → 고정화되지 않은 상태 B'라는 모델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 모델은 같은 지역 방언이더라도 둘 이상의 언어 공동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요인에 의한 음운 변화까지 모두 단선적 도출과정으로 일괄 처리하는 지나치게 강한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둘 이상의 언어 공동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음운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흔한 현상이다.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도 지역적, 사회적 원인에 의해, 집단에 따라 상이한 음운 체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집단들이 전혀 접촉이 없이 완전히 고립되어 산다는 전제를 하지 않는 이상, 언어 사용자들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경우,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변이음들이 되지만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음소'가 된다. 1세대의 집단 A가 집단 B보다 모음의 목록이 하나가 더 많은데, 사회적인 변동에 의해 집단 A와 집단 B가 하나의 집단이 되면서 2세대의 모음 목록이 똑같아진다면, 집단 간의 접촉에서 나타나는 모음의 합류(이른바 비음운화)는 신승용(2003)의 모델에서 설정한 '변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합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온전히 언어 내적 원인만으로 언어변화를 설명하려는 모델에서는 각 세대마다 다른 언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역동적인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언어 변화의 비언어적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0세기의 언어 변화, 특히 도시 환경(urban setting)에서 일어나는 언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 변화와 사회 변화(언어사용자의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실제 언어 자료'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김유범(2000 :62- 64)에서는 언어 내적 원인으로 20세기 국어의 음운 변화의 시대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63] 김유범(2000)에서는 전설원순모음 'ㅚ'와 'ㅟ'가 하향 이중모음에서 단모음으로, 다시 상향 이중모음이 되는 현상을 상정하고, 음가 변화의 시점보다는 변화의 방향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세 시기를 제시한다.

① 제 1기 : 하향이중모음 'ㅟ'와 'ㅚ'의 잔존기 (1890년대-1910년 이전)
② 제 2기 : 단모음 'ㅟ'와 'ㅚ의 세력기(1910년대 -1950년대 이전)
③ 제 3기 : 상향이중모음 'ㅟ'와 'ㅚ'의 정착기(1950년대 이후 - 현재)

63) 이 논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말을 근간으로 한 표준어의 음운 변화를 다루는 논문이다. 김유범(2000:73)에서 1950년대 이후 언어변화의 원인 중에 '각 지방 방언의 혼효'를 들었는데, 한국어를 모든 방언의 집합체로 본다면 이 설명은 그다지 옳지 않다. 그렇지만 이 논문은 문헌자료를 통해 서울말을 근간으로 한 20세기 표준어의 음운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선구적인 논문이다.

문제는 이 시대 구분도 결국 임의적인 것(김유범 2000:62)인 것이다. 정확한 변화의 시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음운현상들은 근대국어 시기에 시작된 것들이 현대 국어 시기에 확대·유지 또는 축소된 형태로 남아 계속되고 있어 현대국어만의 독특한 특징을 찾기 어렵다"(김유범 2000:84)는 것이고, 1950년대 이후 국어 음운변화의 원인이 방언의 유입이나 외래어의 유입과 같은 언어 접촉(language contact), 사회적 변동과 관련이 있다는 김유범(2000:73)의 설명은, 결국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난 음운변화를 오로지 언어 내적 원인으로 기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언어학에서 언어 변이와 변화는 화자(집단)의 성격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한다. 언어사회 구성원의 연령별 언어변이 실현의 차이를 언어변화와 화자(집단)의 변화와 함께 다루는 Labov(1992)에서는 "일생동안 일어나는 개인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집단에서 언어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Labov가 제시한 연령과 언어 변화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어와 집단어에서 나타나는 연령과 언어변이의 유형(Labov 1992:83)

	개인	집단
1. 불변성	변화 없음	변화 없음
2. 연령 차이	변화함	변화 없음
3. 세대 차이	변화 없음	변화함
4. 공동체 변화	변화함	변화함

① 개인들의 언어행동이 평생 변화하지 않고, 그 개인들이 속한 사회집단의 언어도 변화하지 않는다. 이 경우 분석할 수 있는 변이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를 불변성(stability)이라고 한다. 불변성을 가진 언어집단의 언어는 변화가 없고 균질적인 것이 최적이 된다.

② 개인들의 언어 행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하지만, 그 개인들이 속한 집단의 언어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연령 단계별 언어 차이(age - grading)가 발생한다. 연령 단계별 언어 차이는 화자들이 이전 단계와 다른 인생의 새로운 단계(예: 진학, 취업, 결혼, 은퇴 등)로 진입하면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같은 20대 초반 연령대의 여성들이라고 하더라도,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여성과 대학에 진학한 여성의 언어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한 20대 여성 집단' 구성원들의 언어는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세대 차이(Generational change)는 언어변화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간주되는데, 전형적인 음운론, 형태론적 변화들이 여기 해당한다. 개인들은 그들의 일생에서 개별적인 변이들에 대해 특징적인 빈도를 가지고 언어집단에 합류한다. 개인들에 의해 선택된 언어형이 세대별로 점진적인 증가(regular increases)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 이는 그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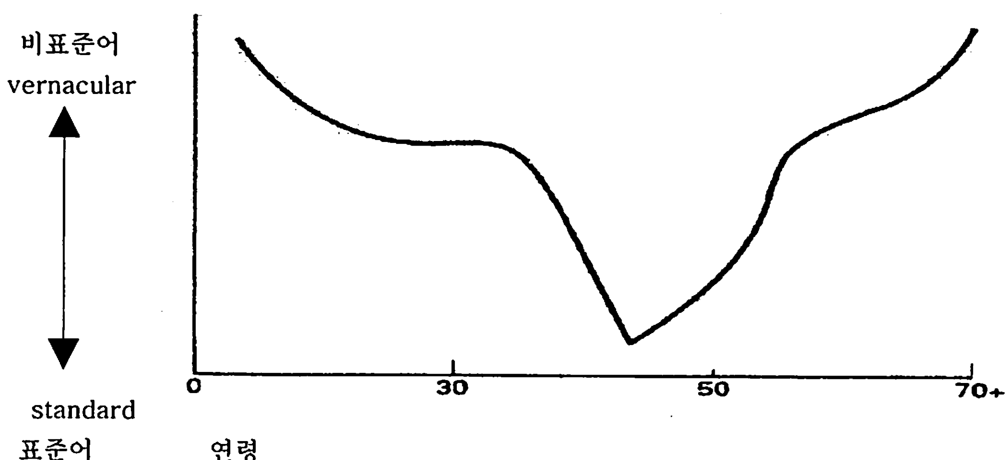
집단에서 언어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대 간의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④ 공동체 변화(communal change)는 세대차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언어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언어사용빈도를 변경하거나 동시에 새로운 어형을 받아들인다.

(1-①)의 불변성을 지닌 언어사회는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언어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연령에 따라 언어 변이 실현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연령 변화에 의한 언어 차이만 존재하고, 언어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언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0세에서 70세까지의 개인의 언어차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한 언어사회의 젊은 사람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이나 자신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집단 특유의 어형을 사용하고, 사회활동이 정점에 이른 40대와 50대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표준어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한 그림이 (그림 8)이다. (그림 8)은 Downes(1984:191)의 그림을 Coulmas(2005:61)에 다시 실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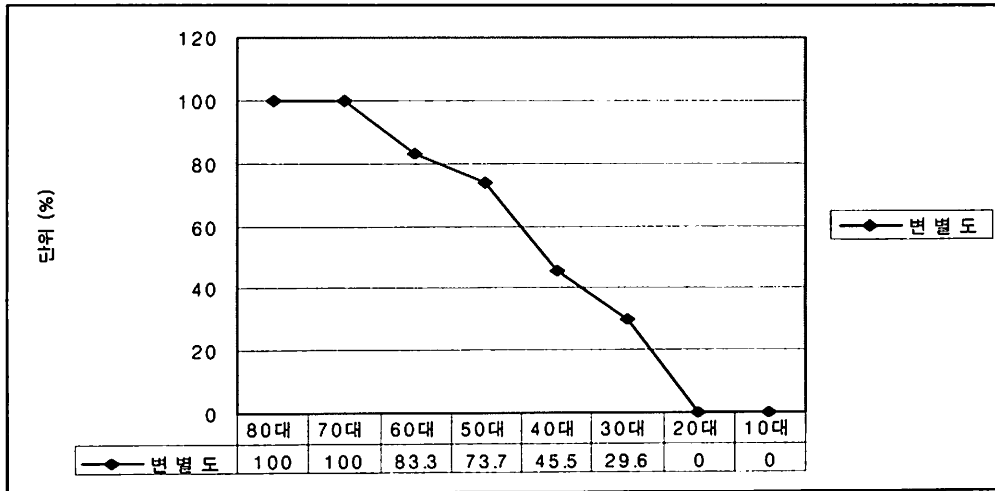
(그림 8) Downes의 연령대별 표준어 사용 증감모형



(그림 7)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언어사회에서는 적절한 모형이지만 언어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적확한 모형이 되지 못한다. 특히 점진적인 언어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의 경우는 40대와 50대를 기점으로 노년층과 청년층의 변이형 실현 경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S 곡선 모형이 나타난다. 현장시간 안에서 언어변화의 S곡선 모형이 나타나는 언어 사회에서는 60대 이상에서는 소수만이 사용하는 소수변이형이 30대 이하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다수변이형이 되고, 중간에 위치한 중장년층 연령대에서는 두 변이형이 경쟁형으로 나타난다. 충주방언에서 연령대별로 단모음 '에'와 '애'의 변별 정도를 다룬 박경래(1993)의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제보자의 80% 이상이 구분하는 '에'와 '애'를 40

대의 경우 45.5%, 30대의 경우 29.6%, 20대와 10대는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S곡선을 볼 수 있다.

(그림 9) 충주방언의 단모음 '외, 위'와 '에, 애'의 변별 정도 꺾은선 그래프. 박경래(1993)의 자료로 다시 그림.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변별도	100	100	83.3	73.7	45.5	29.6	0	0

(그림 9)처럼 제보자의 연령에 따라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나타나는 데 대한 가장 단순한 기술 방법은 (그림 9)와 같은 변이형 실현 양상이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연령 집단 간의 언어행동의 동조성보다 연령 집단 내 언어 행동의 동조성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다. 연령 집단 간의 동조성이 강한 집단은 선대의 언어가 후대로 큰 변화 없이 전수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고, 연령 집단 내부의 동조성이 강한 사회는 다른 연령 집단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언어행동을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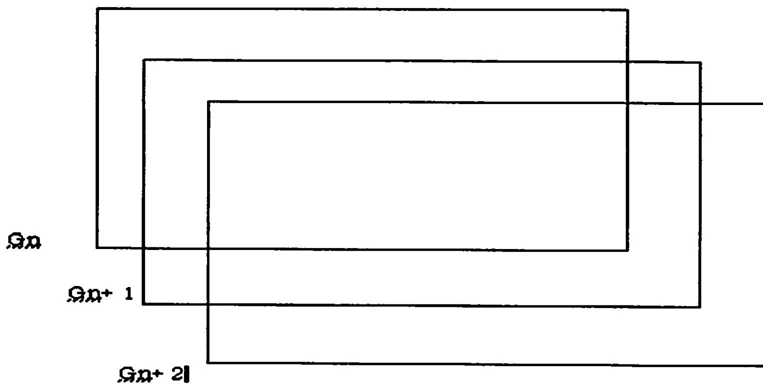
연령 집단 간의 언어행동의 동조성은 연령 집단 내부의 언어행동의 동조성보다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정적인 집단과 의사소통을 하는 연령대의 경우에도 다른 연령 집단과 구분되는 언어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에 (그림 9)의 충주 방언 화자 집단과 본고의 3장과 4장에서 논의한 수도권 지역 출신, 거주 제보자 집단의 경우는 현재까지의 관찰 결과로 미루어 20대 집단이 40대가 되고 80대가 된다고 해서 '에'와 '애'를 구분하게 되거나, 어중경음화의 실현율이 갑작스럽게 떨어진다거나, ㄴ삽입의 실현율이 갑자기 올라가리라는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 충주와 수도권 지역에서 Labov(1992)에서 지적한 세대 간의 언어변화 (Generational change)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대 간의 언어변화는 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우선 화자들의 세대 차이 그 자체가 언어변화를 유발한다고 보는 언어변화 모형들이 존재한다. 가상의 두 세대(G_n과 G_{n+1})가 존재할 경우에 선대(G_n)가 사용하는 어형은 후대(G_{n+1})가 사용하는 경우와 완전

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 Coulmas(2005:52-54)에서는 ① 선대에게서 배운 언어를 후대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사용히고 ② 각 세대 구성원들이 세대간의 언어 분화를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은 언어접촉이나 사회구조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을 제외한 설명이다.

Coulmas의 설명을 요약하면 "언어는 전수된다. 그러나 전수된 언어는 동일 연령대 집단에서 다시 재창조된다."라고 할 수 있다. Coulmas(2005: 54)의 세대별 언어변화 모형은 (그림 10)와 같이 제시된다.

(그림 10) Coulmas(2005:54)의 가상의 3세대에 걸친 언어변화의 모형



(그림 10)에서 각 틀은 세대별 언어와 언어사용 양상을 나타낸다. 언어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떠낸 언어의 틀은 겹쳐놓았을 때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각 세대의 언어와 언어 사용 양상을 비교해본다면 마치 활동사진처럼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언어의 변화는 언어 사회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언어 사회의 변화는 언어사회 구성원들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언어 사회 구성원의 변화는 언어사회 내부 구성원들의 출생과 성장, 노화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있고, 20세기 한국 사회처럼 언어 사회 외부 발생한 요인들(인구이동, 언어접촉,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언어 사회 구성원들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까지 논의한 바에 의하면 연령 집단간의 차이는 언어변이와 변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연령 집단을 어느 시기에서 구분해야 하는가. 즉 세대의 간격에 관한 문제이다.

세대의 간격과 세대가 구분되는 전환점은 언어 사회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일제의 강제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된 해는 1945년이다. 1945년 이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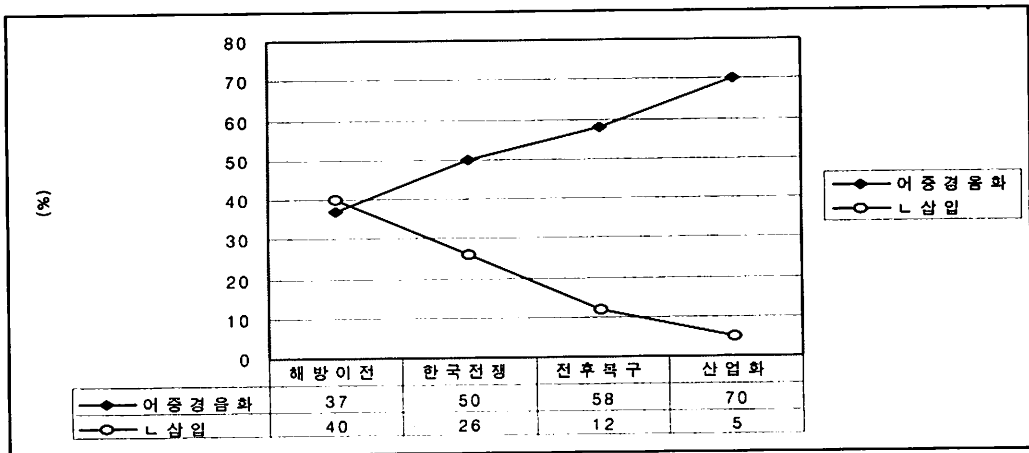
태어나 일제 시대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1950년 이후에 태어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단 다섯 살의 나이 차이가 나지만 본고의 분석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변이형 실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반면에 1975년 출생자와 1980년 출생자 집단 간에는 역시 다섯 살의 차이가 나지만 변이형 실현에 큰 차이가 없다. 이들은 같은 세대로 묶을 수 있는 것이다.

본고의 제보자 집단에 대한 각 세대별 사회문화적 배경을 개관해 보자. 한국 전쟁 이전에는 봉건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가 병존하던 시대이다. 1950년대 이후는 한국 전쟁에 의해 기성 세대의 상당수가 사망하고, 전쟁에 의한 전국적인 인구 이동이 있었으며, 국토가 분단된 시기이다. 1960년대부터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전국민에게 확대되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산업화와 출산율 급증으로 인해 서울 인구의 평균 연령이 매우 낮아지는 시기였다. 서울과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행정,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시기는 19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제보자 집단을 포함하여 20세기에 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난 화자들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로 나눌 수 있고, 1950년대 이전 출생자와 1950년대 이후 출생자에게서 상당한 변이형 실현의 차이가 나타나리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본고의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어중경음화와 ㄴ삽입 현상에서도 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고의 제보자 집단에서 어중경음화는 상승하는 추세로 파악되고 ㄴ삽입은 약화되는 추세로 파악된다. 3.1의 (표 5)와 4.1의 (표 21)의 자료에서 세대별 어중경음화와 ㄴ삽입 실현 비율을 꺾은선 그래프로 그리면 (표 37)이 된다.

(표 37) 본고 제보자 집단의 세대별 어중경음화와 ㄴ삽입 실현의 전체적인 경향성



(표 37)에 의하면 산업화 세대, 즉 1965년 이후 출생자 집단의 경우 ㄴ삽입이 실현되는 어형에 대해서는 연음형으로 통일하려는 경향이 있고, 어중경음화가 실현되는 어형에 대해서는 경음형으로 통일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산업화 세대의 통일성에 대해서는 본고

의 2장과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 인구집중과 산업화, 도시화라는 사회경제적 사회 구조개편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변이형을 다양성을 줄이고 다수변이형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변이형 평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하였다.

어중경음화의 확산과 ㄴ삽입의 약화는 1960년대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세력을 얻고 있는 언어 현상들이 사회변동에 의해 변이형이 평준화되는 과정에서 어중경음화는 경음형이 힘을 얻고, ㄴ삽입 현상에서는 ㄴ삽입형이 약화되는 속도가 가속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화, 산업화 이후 출생한 1960년대 이후 출생자 그룹에서 나타난 방언형 평준화는 언어 사용자들이 소속된 언어 사회에서 진행 중인 음운 현상의 가속화라고 할 수 있고, 어휘개별적으로는 다수 변이형의 평준화, 세력을 얻고 있는 언어 활동의 일반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간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20세기의 경음화 증가 추세가 지적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사회언어학적 연구가 아닌 선행연구에서 경음화의 증가에 대해 '사회적, 심리적 원인'을 들었다는 것이다. 오정란(1988:16-17)을 살펴보도록 한다.

> 이러한 경음의 확산 뒤에는 사회 심리학적 요인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듯하다. 즉 아노미 현상에 대한 보상심리가 그것이다. 현대 사회로 올수록 소외감,무력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은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 표현효과가 강한 경음으로 발음하게 된다. 이처럼 경음화는 내부의 불안감을 위장하고 상대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으리라는 보상심리를 가지기 때문에 경음은 증가추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오정란 1988:16-17)

오정란(1988:16-17)에서 제기한 문제를 사회언어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보자 집단에 대한 정밀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 소외감, 무력감, 불안감, 자기 보호 본능 등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 요인들을 추출해내야 한다. 또한 "경음화에는 내부의 불안감을 위장하고 상대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으리라는 보상심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학, 인지심리학, 언어학 등등이 동원되는 것으로 언어연구자가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언어연구자가 경음화의 증가에 대해 기술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언어적 요인을 중심으로 20세기 언어 사회의 구성원 중 누가 경음화를 주로 실현하고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여 언어의 보편성과 개별성에 비추어 해석하는 편이 훨씬 용이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중경음화의 증가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인 최호철(1991)의[64] 설명에는 어중경음화의

64) 최호철(1991)에서는 화자가 의미상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앞, 뒤), 구성성분을 무엇으로 인식하는가(어근/접사)에 따라 어중경음화의 변이형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복합어 구성요소를 모두 어근으로 인식하고, 의미의 중심을 선행요소로 잡은 화자는 '좀도둑, 좀스럽다, 참되다,치과, 인권'의 단어 구조를 '좀, 스럽다, 참, 되다, 치, 과, 인,권'을 모두 어근으로 인식하고 있고, 선행 요소에 의미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경음화를 실현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인식의 단계를 넘어가서 어휘 항목

변이형 실현에서 현대 국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언어 행동에 대한 논평이 들어 있다. 이 논평에는 본고에서 다룬 다수변이형의 형성, Labov(1994)의 균일성 원리(uniformitarian principle)65) 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 흥미롭다.

> 대부분의 단어들은 의미상의 중심 위치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공통성을 보이거나 이른 시기에 어휘화되어 어느 한 쪽으로 발음이 정착된 것이다. 따라서 발음의 혼란을 보이는 단어들은 공통된 의미상의 중심을 갖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말끔히 정돈될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혼돈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편으로는 한 가지 발음으로 정착될 것이다.(최호철 1991:326- 327)

최호철(1991)에서의 설명을 받아들이면 고유어나 한자어의 어휘 구성 요소들을 모두 어근으로 인식하여 변이형을 실현하는 방식이 언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그렇게 언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경음형으로 굳어진 어형들은 언어 사회 구성원 내부에서 계속 경음형으로 실현되면서 어중경음화가 굳어진다고 할 수 있다. 최호철(1991)의 설명은 어중경음화에서 1965년 이후 출생자들의 변이형 평준화를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전까지 '발음이 정착'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1965년 이후 출생자로 경음화 실현율이 높은 화자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도 없다. 다만 최호철(1991)의 해석을 사회언어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중경음화의 변이형 실현에서 다양한 경쟁형을 보여주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ㄴ삽입 현상의 약화를 언어 내적인 원인으로 분석한 박선우(2006:123)에 따르면 ㄴ삽입 현상은 두음법칙과 관련이 있다. 어두에 ㄴ이나 ㄹ이 오는 것을 회피하는 현상이 복합어나 구의 내부에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휘의 첫머리에 ㄴ이나 ㄹ을 삽입하는 현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 박선우(2006)의 해석이다. 따라서 어두에 ㄴ이나 ㄹ이 오는 두음법칙을 피하는 경향이 사라지면 ㄴ삽입 현상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고 있다. 박선우(2006)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본고의 제보자 집단 중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은 어두에 유음이 오는 데 대해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어의 어두 유음 사용에 나타나는 영어의 영향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인 채서영(2002)에서는 유음의 실현이 현대인들에게 젊고, 여성적이고, 유행에 민감하며, 이국적이기에 거부감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에 대해 특정 변이형이 굳어지면 어휘화의 단계가 된다. 어휘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변이가 나타나는 어휘 항목은 공통된 의미상의 중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65) Labov(1994) 균일성 원리(uniformitarian principle) : 과거의 언어변화과정은 현재의 언어변화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균일성 의 반대말은 카타스트로피즘이다. 카타스트로피란 '불의의 사고'라는 뜻으로, 카타스트로피즘에서 발생하는 변이는 급작스럽고 독특하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균일성원리에 인간언어의 변화과정은 반복되며, 과거 일어난 음운변화의 과정도, 최근에 발생한 음운변화의 과정을 통해 복원할 수 있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음운변화의 변화방향도 과거의 음운변화과정을 회고하는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제보자 집단의 연령에 의한 변이형 실현의 차이가 사회언어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회언어학적으로 설명해 보았다. 우선 사회언어학에서의 연령과 언어변이에 대한 모형들을 설명하고, 사회언어학에서의 연령과 언어변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화자의 연령이 변이형 실현의 차이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대 간의 언어 차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가상의 세대 n을 기준으로 한 세대 이전 집단과 이후 집단이 있을 때 언어능력과 언어보편성이라는 불변의 요소를 제외하고 가변의 가능성을 내포한 상태에서 언어 전수가 일어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언어 사회나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 언어 사회에서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식민지, 전쟁, 분단,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사회구조의 개편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겪은 한국 사회에서 본고의 제보자 집단 구성원들은 세대별로 다른 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변이형 실현이라는 언어행동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된 1965년 이후 출생자 집단의 경우, 토속 방언의 도시 방언화 현상에 의해 경쟁적인 변이형들이 다수형과 소수형으로 통일되는 변이형 평준화가 일어난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어중경음화의 경우는 경음화가 우세하고, ㄴ삽입 현상의 경우는 연음화가 우세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세력을 얻고 있는 언어 현상들이 사회변동에 의해 변이형이 평준화되는 과정에서 어중경음화는 경음형이 힘을 얻고, ㄴ삽입 현상에서는 ㄴ삽입형이 약화되는 속도가 가속화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어중경음화의 확산과 ㄴ 삽입 현상의 약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요인을 중심으로 언어 연구자가 증명 가능한 위치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결 론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 출신으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구축된 자료에서 고유어 사잇소리 환경에서의 어중 경음화 현상, 한자어 내부에서 유성음과 무성음 연쇄의 어중 경음화 현상, 고유어와 한자어에서의 ㄴ삽입 현상, 한자어 내부 ㄴㄹ 연쇄에서의 유음화 또는 비음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제보자 집단의 특징과 변이형 실현 유형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고는 20세기 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이 언어 내적 요인과 언어 외적 요인과 모두 관련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 내적 요인만으로 보았을 경우에 유형화하기 어려운 음운 변이 현상에 대해 언어 외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언어학적 분석 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고가 사회언어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자료는 2003년에 국립국어원의 김선철, 권미영, 황연신 팀에서 구축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나서 현재 거주하는 20대에서 70대 화자 349명의 발음에 대한 녹취조사 자료의 일부이다. 이 자료 중 일부를 통계 처리하여 어중경음화, ㄴ삽입,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변이형 실현에 대해 제보자의 성별, 연령, 출생 시기, 사회학적 개념의 세대, 출생지, 거주지, 부계 선대 거주지, 모계 선대 거주지, 제보자의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언어 변이의 양적 분석 방법 이론을 적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사회언어학의 변이 이론과 사회구조의 변동에 의해 언어사회 구성원들의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언어사회유형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해석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개별 음운 현상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중경음화>

① 20세기 수도권 지역의 어중경음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음형 또는 평음형으로 다수형이 통일되는 평준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이형 평준화를 이끌어가는 사회 집단은 부모 세대부터 서울에 진입하였거나 서울에 생활의 기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람들, 여성들, 고학력자들,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청장년층으로 판단된다. 이들 사회 집단의 특징은 언어 행동에서 강한 동조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② 수도권 지역 출신 수도권지역 거주자들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과 관련이 있는 언어 외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보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최종 학력이 높아질수록 어중경음화 현상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 어중경음화 변이현상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요인의 위계
제보자의 세대/연령> 최종학력> 성별, 지역적 배경

㉡ 고유어의 어중경음화 변이현상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요인의 위계
연령, 세대, 출생시점> 출생지, 거주지> 최종 학력> 부계, 모계 거주지 > 성별

㉢ 한자어의 어중경음화 변이현상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요인의 위계
연령, 세대, 출생시점> 최종 학력

③ 102개 어휘의 경음화 실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제보자의 80% 이상이 해당 어휘 항목에 대해 경음 또는 평음으로 통일하여 변이형을 실현하는 고정적 변이형 36개 항목을 찾을 수 있었다. 고정적 변이형은 이 지역의 말을 근간으로 한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어중경음화에서 표준 발음과 무관하게 해당 어휘에 대해 이 지역 출신 제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변이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지역 화자들의 어중경음화 실현에 대한 언어 내적 질서가 표준 발음의 질서와 상이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④ 제보자의 성별에 의해 어중경음화 실현에 차이가 있는 어휘 항목의 교차 분석을 통해 이 지역에서 어휘 개별적으로 여성들의 어중 경음화 실현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성의 경음화 실현은 표준 발음이 평음인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이 결과를 Labov의 언어변이와 성차에 대한 원리에 비추어 보면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이며 현재 변화를 겪고 있는 진행 중인 음운 변화(change in progress)로 여성이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중경음화에서 어중경음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⑤ 제보자들의 지역적 배경을 사회적 요인으로 설정하여 어중경음화의 실현을 교차분석한 결과 제보자의 현 거주지와 제보자의 출생지, 선대 거주지와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서울 지역 출신 제보자들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출신 제보자들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 차이를 언어 외적으로 해석해 보면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언어 행동과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언어 내적으로 해석하자면 복합어 환경의 어중경음화의 변이형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언어 사회에 따라서 어휘 개별적으로 변이형을 실현하는 데 상이한 내적 규범(norm)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어중경음화 현상에서 성별이나 지역적 배경보다 세대가 언어분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 것은 이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단기간의 외부 인구집중과 사회적 변화를 겪은 사회의 경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행동 양식의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

<ㄴ삽입 현상>

① ㄴ삽입 현상은 이 지역에서 어휘 개별적으로,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다.

㉠ ㄴ삽입 현상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요인의 위계

세대(나이, 출생시점) > 제보자 출생지역> 사회적 배경(학력, 직업)> 부계 지역적 배경> 제보자 거주 지역 > 제보자 모계 지역적 배경 > 성별

② ㄴ삽입의 약화는 후행 모음이 단모음인 경우, 어휘 항목을 구성하는 음절수가 3음절 이상일 경우에 ㄴ삽입의 약화가 가속된다. 후행 모음이 이중모음인 경우, 어휘 항목을 구성하는 음절수가 3음절 이하인 경우에는 ㄴ삽입 현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한자어의 경우 음절수가 3음절 이상이고 후행모음이 이중모음인 경우에도 ㄴ삽입 현상이 실현된다.

③ 지역적인 요인에 한정하여 ㄴ삽입의 약화는 서울 지역 제보자들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서울 지역 제보자의 경우 연령이나 최종학력, 이 지역의 다수형과 무관하게 ㄴ삽입 현상을 실현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④ 본고의 분석 대상 제보자 중 수도권 지역 출신 대졸자 집단에서 ㄴ삽입의 실현이 어휘개별적으로 낮아진다는 관찰 결과는 앞으로 수도권 지역 출신 화자들의 복합어 내 ㄴ삽입 실현 경향성이 점점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가 된다.

⑤ ㄴ삽입현상에서도 196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변이형 실현의 평준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지역 30대 이하 세대에서 ㄴ삽입 현상의 변이형은 다수형과 소수형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어 ㄴㄹ연쇄>

① 한자어 ㄴㄹ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의 경우, 이 지역 전체 응답자의 성향으로 보아 비음화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본고의 제보자 집단에 한정하여 지역의 한자어 ㄴㄹ연쇄에서의 유음화와 비음화에 대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음화에서 비음화의 방향으로 변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1960년대 이후 출생자와 서울 출신, 최종 학력이 대졸자인 사람들이 어중경음화와 ㄴ삽입, 한자어 ㄴㄹ연쇄의 변이형 실현에서 대체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 지역의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 집단별 언어사용의 동조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단기간의 인구집중과 도시화, 사회구조의 변화가 세대별 언어 차이와 변이형 사용의 통일화를 일으켰으며 사회행동에서 동조성이 강한 집단이 이 지역의 언어 변화를 주도한

다고 해석하였다.

참고문헌

강신항(1987) 현대국어의 특징.「방송언어 변천사」. 한국방송공사. pp.353-378

강옥미(1998) 전남지역 대학생의 표준어 수용태도,「숙명어문논집」 제 1집, 숙명어문학회.

강정희(2002) 언어접촉과 언어변화.「국어학」40. 국어학회. pp. 139-170

국경아, 이호영, 김주원(2004) 선호도 조사를 통한 ㄴ첨가 현상의 실현 양상 연구 , 「말소리」 53집. 대한음성학회. pp 37-60

국립국어원(1997)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I)」,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연구원(2000)「서울토박이말자료집(III)」.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2002) 「표준 발음 실태 조사(I)」,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권경근(2002) 음운론과 형태론의 인접 현상: 복합어의 경음화 현상을 중심으로."「문법과 텍스트」 113-135, 서울대학교출판부.

권용우(2002)「수도권 공간 연구」, 한울아카데미

권태환 · 김두섭(1990)「인구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김규남(1998), 전북 정읍시 정해마을 언어사회의 음운 변이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방한(1986), 언어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글 194호」, 한글학회. 205-227

김방한(1998), 「언어와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봉국(2001) 중부 방언, 「방언학 사전」, 태학사. pp. 322-328

김선철 · 권미영 · 황연신(2003), 표준 발음 실태 조사(II), 국립국어연구원

김선철(2006) 「중앙어의 음운론적 변이양상」, 경진문화사

김성렬(1995) 국어 음절간의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유범(2000), 현대국어 음운론의 통시적 조망- 100여년간의 음운론적 특징에 대한 조망을 중심으로 -, 「현대 국어의 형성과 변천 1」, 박이정, 63-86

김웅렬(2001)「사회조사방법론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회

김태경(1996) 사잇소리의 실현 과정과 개재 원인, 「한양어문」 14, pp 135-162

김태경(2000) 비음화와 유음화의 적용 기제에 대하여, 「한국어학」 11. pp 227-259
남광우(1979) 서울말의 발음경향과 표준말 재사정시안의 문제점, "국어의 순화와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현식(1995)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34, 숙명여대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
박경래(1993) 충주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경래(2001) 언어적 변항, 「방언학 사전」, 태학사
박경래(2001) 사회 방언. 「방언학 사전」, 태학사 pp. 209-221
박경래(2004) 연령과 언어 변이, 새국어생활 제 14권 제 4호 2004년 겨울호, 국립국어원.
박경래(2005) 사회방언 연구를 위한 조사질문지, 「방언학 2」, 한국방언학회. pp. 171-214
박선우(2006) 국어의 유추적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영순(1978) AGE VARIABLES IN SOCIOLINGUISTICS, 「언어」 Vol.3 No.2, 한국언어학회. pp 87-145.
박영순(1985) 한국어 복자음 발음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어문논집」 24. 안암어문학회
박영순(2004) 『한국어의 사회언어학(개정판)』, 한국문화사.
박재홍(2005) 『한국의 세대문제』, 나남출판
변미리(2005) 2004 서울 서베이를 통해 본 서울시민의 정체성과 사회적 태도, 「서울연구포커스 제31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백경원(1997) 언어 접촉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서울에 거주하는 대구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송철의 · 유필재(2000), 서울방언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학연구』 15.서울시립대학교 pp 5-53.
신광영(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신승용(2003)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 국어학 총서 43. 국어학회
신승용(2003) 標準發音의 실제와 표준발음법 敎育의 필요성, 「語文硏究」Vol.31 No.2, pp.97-116
신지영 · 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안소진(2005) '한자어의 경음화'에 대한 재론, 「국어학」 제 45집, 국어학회 pp. 69-93
오새내(2000) 현대국어 어중 이화에 관한 음운론적 연구,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오새내(2003) 한국어의 지각방언학 연구에 대하여. 『한국어학회 제29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어학회.
오새내(2004), 현대 서울말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한민족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오새내(2005), 20세기 초 서울말 모음 음운 현상과 계층적 지표, 『국어문학 40집』 국어문학회.
오새내(2005) 20세기 서울지역어 형성의 사회언어학적 변인, 『한국학연구 19』, 고려대학교 한

국학연구소
오정란(1988)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한신문화사
오정란(2002) 국어 경음화 연구의 과제와 전망, 「한국어학」 제 17집, 한국어학회 pp, 91-110
우인섭(1976), 경음화 현상과 감정의 경화, 「어문연구」 제 12호, 한국 어문교육연구회.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이근영(2005) ㄴ의 ㄹ 되기' 발음 실태 연구 - 표준발음법과 언어 현실을 중심으로 - 「한말연구 16」.pp.159-173.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이기문(2000), 현대 한국어의 변화들에 대한 단상, 「서울말연구 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동석(2005) 「국어 음운 현상의 공시성과 통시성」, 한국문화사
이동석(2005) 국어 경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 「清大學術論集」 vol. 6. 清州大學敎 學術硏究所. pp. 239-262
이봉원(2002) 현대국어 음성·음운 현상에 대한 사용 기반적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상규(2004) 「국어방언학」, 학연사
이승재(2004) 「방언연구 -자료에서 이론으로」, 태학사
이익섭(1983) 한국어 표준어의 저문제, 「한국어문의 저문제」, 이기문 외 공저. 일지사.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이주행(2002), 서울 방언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07호, 한국어교육학회.
이주행(2003) 사회계층별 언어의 특성,「언어와 사회」, 역락.. pp 61-87.
이주행(2005) 한국 사회계층별 언어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 사회방언과 지역방언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진호(1998) 국어 유음화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어학」 41. 국어학회 pp. 81-120
이현복(1976) 달라지는 서울말 . 「뿌리깊은 나무」. 1976년 6월호.
이현복(1977) 서울말과 표준말의 음성학적 비교 연구. 「언어학」 2 한국언어학회 pp.167-184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임홍빈(1981),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 국어학회 pp.1-35
전병철(2004), 「금산지역어연구」, 국학자료원
전철웅(2002) 방언, 사회언어학, 「국어학 연감」, 국립국어원
정명숙(2002), 현대 국어 말소리의 통시적 변화 - 1950년대 이후 방송 자료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정해경(2003) 「섹시즘」, 휴머니스트
조성문(2002) 국어 어문규정에 대한 신세대의 인지도 분석, 「사회언어학」 10-1. 한국사회언어학회.

조태린(2005) 사회언어학의 기원에 대한 소고, 「사회언어학」 13-2, 한국사회언어학회. pp. 235-256
채서영(2002) 우리말 어두 유음 사용에 나타난 영어의 영향,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pp.319-338
채서영(2004)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이론과 방법, 「새국어생활」 14-4. 국립국어원
최전승(2001), 1930년대 표준어의 형성과 수용과정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국어문학」 36집.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2004)」에 재수록. pp. 245-316
최전승(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역락
최호철(1991) 의미상의 중심과 경음화, 「어문논집」, Vol.30 No.1. 민족어문학회 pp. 313-329
하세경·문양수 (2005) 국어의 사잇소리 현상과 최적성이론. 「언어학」 41. 한국언어학회 pp. 267-303
하세경(2006) 현대국어 사잇소리 현상의 형태론과 음운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방언자료집(I) - 경기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眞田信治(1992), 속성과 언어, 「사회언어학의 방법」, 시사일본어사. pp 19-31
中井精一(2006), 「사회언어학적 조사와 연구 방법」, 이상규 · 이순형 · 김경숙 공역, 이회
이노우에 후미오(井上史雄)(2005), 「일본어 관찰하기」, 강인선 옮김, 박이정

Anttila (2002) Variation and Phonological Theory. In Chambers, Jack, Peter Trudgill, and Natalie Schilling-Estes, (eds.), Handbook of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Blackwell, Oxford, UK, and Malden, Mass. pp. 206-243
Bayley, R(2002) The Quantitative paradiam, The handbook of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ed. J.K. Chambers, Peter trudgill and Natalie Shilling-Estes.Oxford, UK, and Camberdge, US: Blackwell. pp.117-42
Cedergren, H.; and Sankoff, D. (1974) Variable rules: Performance as a statistical reflection of competence. Language, 50, 333-355.
Cheshire, J. (2002) Sex and gender in variationist research. In J.K.Chambers, P. Trudgill and N. Schilling-Estes (eds.) Handbook of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Oxford: Blackwell, pp. 423-43.
Chae seo-young (1997) External constraints on sound change: the raising of /O/ in Seoul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cognitive scie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Chambers, J.K. (1992) Dialect acquisition, Language 68(3)
Chambers, J.K (1998) TV makes people sound the same, Language myth, Edited by Laurie Bauer & Peter Trudgill, Penguin books.

Chambers, J.K. (2000) Region and language variation. English World-Wide 21: 1-31.
Chambers, J.K (2003) Sociolinguistic theory; Second edition, Blackwell publishing.
Eckert, P. (1997) Age as a sociolinguistic variable. In F. Coulmas(ed.)The Handbook of Sociolinguistics. Oxford:Blackwell, pp.151-67
Coulmas(2005) Sociolinguistics: The Study of Speakers' Choices,Cambridge University Press
Cutillas-Esponosa, J.(2004) Meaningful variability : A sociolinguistcally- grounded apporach to variation in optimility theory, IJES, Vol. 4(2), 2004, pp.165-84
Downes, w. (1984) Language and society : London : Fontana
Dubois, Sylvie and Barbara Horvath. (1999) When the Music Changes, You Change Too: Genderand Language Change in Cajun English.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1:287-313.
Hock, H.H. (1991)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Berlin: Mouton de Gruyter.
Janda R.D & Joseph B.(2003) On Language, Change, and Language Change - Or, Of History, Linguistics, and Historical Linguistics, JOSEPH, BRIAN D. and RICHARD D. JANDA, Editors.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Oxford: Blackwell. 'pp. 3-180
Kerswill, P. E. & Williams, A. (2000a) Creating a new town koine: children and language change in Milton Keynes. Language in Society 29(1): 65-115.
Kerswill, P. E. & Williams, A. (2000b). Mobility and social class in dialect levelling: evidence from new and old towns in England. In K. Mattheier (ed.) Dialect and migration in a changing Europe. Frankfurt: Peter Lang. 1-13.
Kerswill, P. (2002) Koineization and Accomodation, The handbook of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Blackwell.669-702
Labov, (1972) The social motivation of a sound change. Sociolinguistic Patter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42.
Labov (1994)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vol. 1: Internal factors. Oxford: Blackwell.
Labov (1990) The Intersection of Sex and Social Class in the Course ofLinguistic Change.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2:205-254.
McMahon (2006) Getting the measure of English accents, SICOL 2006, Seoul.
Meillet(1997) Linguistique generale et Linguistique historique(일반언어학과 역사언어학), 김현권 번역, 언어학사.
Nevalainen, Raumolin-Brunberg(2003) Historical Sociolinguistics, Pearson Longman
Niedzielski, N.A & Preston, D.R. 2000. Folk linguistics, Moton de Gruyter, Berlin · New york.

Milroy, J. (1992) 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언어변이와 변화). 정영인 외 6인 공역, 1998. 태학사

Milroy. L. and Gordon. M (2003) Sociolinguistics- Method and Interpretation. Cambridge, US: Blackwell.

Paolillo, J.C(2002) Analyzing Lingusitic Variation : Statistical Models and Methods, CSLI Publications, Stanford CA

Preston, Dennis. (2000) Three kinds of sociolinguistics and SLA: A psycholinguistic perspective. B. Swierzbin & F. Morris & M. Anderson & C. Klee & E. Tarone(2000) Social and Cognitive Factor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lected proceedings of the 1999 Second Language Research Forum. Cascadilla Press. 3-30.

Sebba. M (1997) Contact languages; pidgins and creoles, Macmillan press LTD.

Siegel, J.(1985) Koines and Koineization. Language in Society 14 : 357-378

Tagliamonte & Mesthrie(2006) Analysing Sociolinguistic Varia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udgill(2002a) The Sociolinguistics of Modern RP, Socio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pp. 171-180

Trudgill, P.(2002b) Linguistc and social typology, The handbook of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ed. J.K. Chambers, Peter Trudgill and Natalie Shilling-Estes.Oxford, UK, and Camberdge, US: Blackwell. pp.705-28

Weinreich, U., W. Labov & M. Herzog (1968) Empirical foundations for a theory of language change. In W. Lehmann & Y. Malkiel (eds.), Directions for historical linguistics. 97-195.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부록>

(1) 제보자 현재 거주지(도시별)와 경음화 실현 교차표 (P < .05)

어휘	거주지	변이형	제보자(명)	제보자 비율(%)	변이형 실현 비율(%)	카이제곱	유의확률	표준발음	다수변이형	비고
돌솥	서울	평음	108	58.7	62.1	12.59	0.006	평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76	41.3	43.4					
	경기	평음	35	42.2	20.1					
		경음	48	57.8	27.4					
	인천	평음	30	37.5	17.2					
		경음	50	62.5	28.6					
미아리	서울	평음	26	14.1	55.3	13.97	0.003	평음	경음	경기

고개		경음	158	85.9	52.3					경음
	경기	평음	8	9.6	17.0					
		경음	75	90.4	24.8					
	인천	평음	11	13.8	23.4					
		경음	69	86.3	22.8					
당고개	서울	평음	149	81.0	58.9	18.59	0.000	없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35	19.0	36.5					
	경기	평음	57	68.7	22.5					
		경음	26	31.3	27.1					
	인천	평음	45	56.3	17.8					
		경음	35	43.8	36.5					
얼음주머니	서울	평음	76	41.3	60.8	9.45	0.024	평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108	58.7	48.2					
	경기	평음	24	28.9	19.2					
		경음	59	71.1	26.3					
	인천	평음	23	28.8	18.4					
		경음	57	71.3	25.4					
감방	서울	평음	79	42.9	60.3	9.52	0.023	평음	없음	경기 경음
		경음	105	57.1	48.2					
	경기	평음	23	27.7	17.6					
		경음	60	72.3	27.5					
	인천	평음	27	33.8	20.6					
		경음	53	66.3	24.3					
선가	서울	평음	120	65.2	46.7	22.37	0.000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64	34.8	69.6					
	경기	평음	67	80.7	26.1					
		경음	16	19.3	17.4					
	인천	평음	70	87.5	27.2					
		경음	10	12.5	10.9					
간단하다	서울	평음	105	57.1	59.0	9.93	0.019	평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79	42.9	46.2					
	경기	평음	32	38.6	18.0					
		경음	51	61.4	29.8					
	인천	평음	39	48.8	21.9					
		경음	51	51.3	24.0					
섬곡식	서울	평음	164	89.1	56.4	11.03	0.012	경음	평음	서울 평음
		경음	20	10.9	34.5					
	경기	평음	66	79.5	20.3					
		경음	17	20.5	36.2					
	인천	평음	59	73.8	22.7					
		경음	21	26.3	29.3					
손도끼	서울	평음	171	92.9	54.6	8.52	0.036	경음	평음	서울 평음
		경음	13	7.1	36.1					

	경기	평음	75	90.4	24.0					
		경음	8	9.6	22.2					
	인천	평음	65	81.3	20.8					
		경음	15	18.8	41.7					
발뒤꿈치	서울	평음	137	74.5	61.4	24.00	0.001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47	25.5	37.6					
	경기	평음	45	54.2	20.2					
		경음	38	45.8	30.4					
	인천	평음	39	48.8	17.5					
		경음	40	50.0	32.0					
사발술	서울	평음	126	68.5	60.0	16.05	0.001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58	31.5	41.7					
	경기	평음	47	56.6	22.4					
		경음	36	43.4	25.9					
	인천	평음	35	43.8	16.7					
		경음	45	56.3	32.4					
발자취	서울	평음	158	85.9	57.5	14.41	0.002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26	14.1	35.1					
	경기	평음	62	74.7	22.5					
		경음	21	25.3	28.4					
	인천	평음	53	66.3	19.3					
		경음	27	33.8	36.5					
날갯짓	서울	평음	100	54.3	45.7	16.29	0.001	경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84	45.7	64.6					
	경기	평음	60	72.3	27.4					
		경음	23	27.7	17.7					
	인천	평음	59	73.8	26.9					
		경음	21	26.3	16.2					
막냇동생	서울	평음	125	68.3	56.6	17.87	0.007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58	31.7	47.2					
	경기	평음	50	60.2	22.6					
		경음	33	39.8	26.8					
	인천	평음	44	55.0	19.9					
		경음	32	40.0	26.0					
단결심	서울	평음	52	28.3	65.8	8.77	0.032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132	71.7	48.9					
	경기	평음	15	18.1	19.0					
		경음	68	81.9	25.2					
	인천	평음	11	13.8	13.9					
		경음	69	86.3	25.6					
반발심	서울	평음	62	33.7	67.4	11.50	0.009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122	66.3	47.5					
	경기	평음	17	20.5	18.5					
		경음	66	79.5	25.7					

	인천	평음	13	16.3	14.1					
		경음	67	83.8	26.1					
후일담	서울	평음	39	21.2	53.4	10.79	0.013	경음	없음	인천 평음
		경음	145	78.8	52.5					
	경기	평음	9	10.8	12.3					
		경음	74	89.2	26.8					
	인천	평음	25	31.3	34.2					
		경음	55	68.8	19.9					
십년공부	서울	평음	98	53.8	60.9	8.55	0.036	평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84	46.2	45.4					
	경기	평음	30	36.6	18.6					
		경음	52	63.4	28.1					
	인천	평음	32	40.0	19.9					
		경음	48	60.0	25.9					

(2) 서울지역 거주자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 교차표 (P < .05)

어휘	거주지	변이형	제보자(명)	제보자 비율(%)	변이형 실현 비율(%)	카이제곱	유의 확률	표준 발음	다수 변이형	비고
돌솥	서울	평음	108	58.7	62.1	12.16	0.000	평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76	41.3	43.4					
	서울제외	평음	66	40.0	37.9					
		경음	99	60.0	56.6					
얼음주머니	서울	평음	76	41.3	60.8	5.09	0.024	평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108	58.7	48.2					
	서울제외	평음	49	29.7	39.2					
		경음	116	70.3	51.8					
감방	서울	평음	79	42.9	60.3	4.83	0.028	평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105	57.1	48.2					
	서울제외	평음	52	31.5	39.7					
		경음	113	68.5	51.8					
간단하다	서울	평음	105	57.1	59.0	5.72	0.017	평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79	42.9	46.2					
	서울제외	평음	73	44.2	41.0					
		경음	92	55.8	53.8					
반창고	서울	평음	54	30.0	65.9	7.23	0.007	평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126	70.0	48.8					
	서울제외	평음	28	17.5	34.1					
		경음	132	82.5	51.2					
섬곡식	서울	평음	164	89.1	56.4	9.28	0.002	경음	평음	서울 평음
		경음	20	10.9	34.5					
	서울제외	평음	127	77.0	43.6					

		경음	38	23.0	65.5					
속임수	서울	평음	107	58.2	48.0	5.56	0.018	경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77	41.8	61.1					
	서울제외	평음	116	70.3	52.0					
		경음	49	29.7	38.9					
손도끼	서울	평음	171	92.9	54.6	4.44	0.035	경음	평음	서울 평음
		경음	12	7.1	36.1					
	서울제외	평음	142	86.1	45.4					
		경음	23	13.9	63.9					
생되다	서울	평음	173	94.0	51.5	5.51	0.019	경음	평음	서울 경음
		경음	11	6.0	84.6					
	서울제외	평음	163	98.8	48.5					
		경음	2	1.2	15.4					
발뒤꿈치	서울	평음	137	74.5	61.4	19.37	0.000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47	25.5	37.6					
	서울제외	평음	86	52.1	38.6					
		경음	78	47.3	62.4					
사발술	서울	평음	126	68.5	60.0	11.20	0.001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58	31.5	41.7					
	서울제외	평음	84	50.9	40.0					
		경음	81	49.1	58.3					
발자취	서울	평음	158	85.9	57.5	11.65	0.001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26	14.1	35.1					
	서울제외	평음	117	70.9	42.5					
		경음	48	29.1	64.9					
막냇동생	서울	평음	125	68.3	56.6	7.29	0.026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58	31.7	47.2					
	서울제외	평음	96	58.2	43.4					
		경음	65	39.4	52.8					
막냇삼촌	서울	평음	179	97.3	54.2	5.62	0.018	경음	평음	서울 평음
		경음	5	2.7	26.3					
	서울제외	평음	151	91.5	45.8					
		경음	14	8.5	73.7					
함수	서울	평음	138	75.0	56.3	4.28	0.038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46	25.0	44.2					
	서울제외	평음	107	64.8	43.7					
		경음	58	35.2	55.8					
단결심	서울	평음	52	28.3	65.8	7.03	0.008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132	71.7	48.9					
	서울제외	평음	27	16.4	34.2					
		경음	138	83.6	51.1					
반발심	서울	평음	62	33.7	67.4	10.78	0.001	경음	없음	서울

		경음	122	66.3	47.5					
	서울제외	평음	30	18.2	32.6					평음
		경음	135	81.8	52.5					
당고개	서울	평음	149	81.0	58.9	14.05	0.000	없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35	19.0	36.5					
	서울제외	평음	104	63.0	41.1					
		경음	61	37.0	63.5					
십년공부	서울	평음	63	38.4	39.1	8.25	0.004	평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101	61.6	54.6					
	서울제외	평음	98	53.8	60.9					
		경음	84	46.2	45.4					

(3) 수도권 도시별 제보자 출생지와 어중 경음화 실현 교차표 (P < .05)

어휘	제보자 출생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율	카이제곱	유의 확률	표준 발음	다수 변이형	비고
돌솥	서울	평음	111	57.8	63.8	11.45	0.003	평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81	42.2	46.3					
	경기	평음	39	42.9	22.4					
		경음	52	57.1	29.7					
	인천	평음	24	36.4	13.8					
		경음	42	63.6	24.0					
동아줄	서울	평음	14	7.3	31.1	13.58	0.009	평음	경음	서울 경음
		경음	177	92.2	58.4					
	경기	평음	20	22.0	44.4					
		경음	71	78.0	23.4					
	인천	평음	11	16.7	24.4					
		경음	55	83.3	18.2					
말장구	서울	평음	75	39.1	46.9	12.68	0.002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117	60.9	61.9					
	경기	평음	56	61.5	35.0					
		경음	35	38.5	18.5					
	인천	평음	29	43.9	18.1					
		경음	37	56.1	19.6					
반값	서울	평음	25	13.0	41.7	9.29	0.010	평음	경음	서울 경음
		경음	167	87.0	57.8					
	경기	평음	25	27.5	41.7					
		경음	66	72.5	22.8					
	인천	평음	10	15.2	16.7					
		경음	56	84.8	19.4					
발장구	서울	평음	93	48.4	47.9	10.94	0.004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99	51.6	63.9					

	경기	평음	63	69.2	32.5					
		경음	28	30.8	18.1					
	인천	평음	38	57.6	19.6					
		경음	28	42.4	18.1					
버선발	서울	평음	80	41.7	44.7	15.83	0.000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112	58.3	65.9					
	경기	평음	42	63.6	31.8					
		경음	24	36.4	20.0					
	인천	평음	57	62.6	23.5					
		경음	34	37.4	14.1					
사랑방	서울	평음	113	58.9	49.3	12.49	0.002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79	41.1	65.8					
	경기	평음	73	80.2	31.9					
		경음	18	19.8	15.0					
	인천	평음	43	65.2	18.8					
		경음	23	34.8	19.2					
솜바지	서울	평음	139	72.4	51.9	14.35	0.006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53	27.6	66.3					
	경기	평음	81	89.0	30.2					
		경음	9	9.9	11.3					
	인천	평음	48	72.7	17.9					
		경음	18	27.3	22.5					
교과서	서울	평음	85	44.3	58.6	7.81	0.020	평음	없음	경기 경음
		경음	107	55.7	52.5					
	경기	평음	27	29.7	18.6					
		경음	64	70.3	31.4					
	인천	평음	33	50.0	22.8					
		경음	33	50.0	16.2					
등기	서울	평음	134	69.8	56.5	18.84	0.000	평음	없음	경기 평음 인천 경음
		경음	58	30.2	51.8					
	경기	평음	72	79.1	30.4					
		경음	19	20.9	17.0					
	인천	평음	31	47.0	13.1					
		경음	35	53.0	31.3					
선가	서울	평음	118	61.5	45.9	33.41	0.000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74	38.5	80.4					
	경기	평음	83	91.2	32.3					
		경음	8	8.8	8.7					
	인천	평음	56	84.8	21.8					
		경음	10	15.2	10.9					
소과	서울	평음	89	46.4	47.8	9.75	0.008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103	53.6	63.2					
	경기	평음	60	65.9	32.3					

		경음	31	34.1	19.0					
	인천	평음	37	56.1	19.9					
		경음	29	43.9	17.8					
음조	서울	평음	135	70.3	50.8	11.77	0.019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57	29.7	69.5					
	경기	평음	76	83.5	28.6					
		경음	14	15.4	17.1					
	인천	평음	55	83.3	20.7					
		경음	11	16.7	13.4					
체증	서울	평음	138	71.9	50.2	12.63	0.002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54	28.1	73.0					
	경기	평음	81	89.0	29.5					
		경음	10	11.0	13.5					
	인천	평음	56	84.8	20.4					
		경음	10	15.2	13.5					
열병	서울	평음	86	44.8	46.0	16.39	0.000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106	55.2	65.4					
	경기	평음	64	70.3	34.2					
		경음	27	29.7	16.7					
	인천	평음	37	56.1	19.8					
		경음	29	43.9	17.9					
날갯짓	서울	평음	110	57.3	50.2	7.39	0.025	경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82	42.7	63.1					
	경기	평음	59	64.8	26.9					
		경음	32	35.2	24.6					
	인천	평음	50	75.8	22.8					
		경음	16	24.2	12.3					
막냇동생	서울	평음	137	72.1	62.0	28.74	0.000	경음	없음	경기 경음
		경음	53	27.9	43.1					
	경기	평음	41	45.1	18.6					
		경음	50	54.9	40.7					
	인천	평음	43	68.3	19.5					
		경음	20	31.7	16.3					
발뒤꿈치	서울	평음	132	68.8	59.2	10.07	0.039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60	31.3	48.0					
	경기	평음	57	62.6	25.6					
		경음	34	37.4	27.2					
	인천	평음	34	51.5	15.2					
		경음	31	47.0	24.8					
발자취	서울	평음	163	84.9	59.3	12.11	0.002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29	15.1	39.2					
	경기	평음	69	75.8	25.1					
		경음	22	24.2	29.7					

	인천	평음	43	65.2	15.6					
		경음	23	34.8	31.1					
발짐작	서울	평음	110	57.3	53.4	9.86	0.007	경음	없음	경기 평음
		경음	80	41.7	56.7					
	경기	평음	65	71.4	31.6					
		경음	26	28.6	18.4					
	인천	평음	31	47.0	15.0					
		경음	35	53.0	24.8					
봄가물	서울	평음	87	46.0	47.5	12.36	0.002	경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102	54.0	65.4					
	경기	평음	60	68.2	32.8					
		경음	28	31.8	17.9					
	인천	평음	36	58.1	19.7					
		경음	26	41.9	16.7					
사발술	서울	평음	128	66.7	61.0	13.60	0.001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64	33.3	46.0					
	경기	평음	55	60.4	26.2					
		경음	36	39.6	25.9					
	인천	평음	27	40.9	12.9					
		경음	39	59.1	28.1					
술주정	서울	평음	60	31.3	46.9	10.75	0.030	경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132	68.8	60.3					
	경기	평음	44	48.4	34.4					
		경음	46	50.5	21.0					
	인천	평음	24	36.4	18.8					
		경음	41	62.1	18.7					
백일재	서울	평음	16	8.3	32.7	19.64	0.000	경음	경음	인천 평음
		경음	176	91.7	58.7					
	경기	평음	13	14.3	26.5					
		경음	78	85.7	26.0					
	인천	평음	20	30.3	40.8					
		경음	46	69.7	15.3					
사살선	서울	평음	66	34.4	53.7	7.40	0.025	평음	없음	경기 평음
		경음	126	65.6	55.8					
	경기	평음	41	45.1	33.3					
		경음	50	54.9	22.1					
	인천	평음	16	24.2	13.0					
		경음	50	75.8	22.1					
실세계	서울	평음	60	31.3	48.4	13.87	0.008	평음	없음	경기 평음
		경음	132	68.8	59.2					
	경기	평음	43	47.3	34.7					
		경음	46	50.5	20.6					
	인천	평음	21	31.8	16.9					

		경음	45	68.2	20.2					
함수	서울	평음	148	77.1	60.4	10.62	0.005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44	22.9	42.3					
	경기	평음	59	64.8	24.1					
		경음	32	35.2	30.8					
	인천	평음	38	57.6	15.5					
		경음	28	42.4	26.9					
후일담	서울	평음	30	15.6	41.1	7.81	0.020	경음	없음	경기 인천 평음
		경음	162	84.4	58.7					
	경기	평음	23	25.3	31.5					
		경음	68	74.7	24.6					
	인천	평음	20	30.3	27.4					
		경음	46	69.7	16.7					
당고개	서울	평음	154	80.2	60.9	18.48	0.000	없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38	19.8	39.6					
	경기	평음	64	70.3	25.3					
		경음	27	29.7	28.1					
	인천	평음	35	53.0	13.8					
		경음	31	47.0	32.3					

(4) 서울지역 출생자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출생자의 어중경음화 변이형 실현 교차표 (P < .05)

어휘	제보자 출생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 비율(%)	카이제곱	유의 확률	표준 발음	다수 변이형	비고
돌솥	서울	평음	111	57.8	63.8	10.80	0.001	평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81	42.2	57.8					
	서울제외	평음	63	40.1	36.2					
		경음	94	59.9	53.7					
동아줄	서울	평음	14	7.3	31.1	12.62	0.002	평음	경음	서울 경음
		경음	177	92.2	58.4					
	서울제외	평음	31	19.7	68.9					
		경음	126	80.3	41.6					
말장구	서울	평음	75	39.1	46.9	7.90	0.005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117	60.9	61.9					
	서울제외	평음	85	54.1	53.1					
		경음	72	45.9	38.1					
미아리고개	서울	평음	33	17.2	70.2	5.06	0.024	평음	경음	서울 평음
		경음	159	82.8	52.6					
	서울제외	평음	14	8.9	29.8					
		경음	143	91.1	47.4					

반값	서울	평음	25	13.0	41.7	5.21	0.022	평음	경음	서울 경음
		경음	167	87.0	57.8					
	서울제외	평음	35	22.3	58.3					
		경음	122	77.7	42.2					
발장구	서울	평음	93	48.4	47.9	7.42	0.003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99	51.6	63.9					
	서울제외	평음	101	64.3	52.1					
		경음	56	35.7	36.1					
버선발	서울	평음	80	41.7	44.7	15.81	0.000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112	58.3	65.9					
	서울제외	평음	99	63.1	55.3					
		경음	58	36.9	34.1					
사랑방	서울	평음	113	58.9	49.3	17.87	0.003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79	41.1	65.8					
	서울제외	평음	116	73.9	50.7					
		경음	41	26.1	34.2					
옴벌레	서울	평음	68	35.4	47.2	7.50	0.024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124	64.6	60.8					
	서울제외	평음	76	48.4	52.8					
		경음	80	51.0	39.2					
선가	서울	평음	118	61.5	45.9	32.62	0.000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74	38.5	80.4					
	서울제외	평음	139	88.5	54.1					
		경음	18	11.5	19.6					
소과	서울	평음	89	46.4	47.8	8.26	0.004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103	53.6	63.2					
	서울제외	평음	97	61.8	52.2					
		경음	60	38.2	36.8					
음조	서울	평음	135	70.3	50.8	10.14	0.006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57	29.7	69.5					
	서울제외	평음	131	83.4	49.2					
		경음	25	15.9	30.5					
쟁탈전	서울	평음	119	62.0	51.1	4.40	0.036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73	38.0	62.9					
	서울제외	평음	114	72.6	48.9					
		경음	43	27.4	37.1					
체증	서울	평음	138	71.9	50.2	12.23	0.000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54	28.1	73.0					
	서울제외	평음	137	87.3	49.8					
		경음	20	12.7	27.0					
행려병자	서울	평음	118	61.5	50.4	7.72	0.021	평음	없음	서울

		경음	74	38.5	64.9					경음
	서울제외	평음	116	73.9	49.6					
		경음	40	25.5	35.1					
열병	서울	평음	86	44.8	46.0	13.25	0.000	평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106	55.2	65.4					
	서울제외	평음	101	64.3	54.0					
		경음	56	35.7	34.6					
날갯짓	서울	평음	110	57.3	50.2	5.44	0.020	경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82	42.7	63.1					
	서울제외	평음	109	69.4	49.8					
		경음	48	30.6	36.9					
막냇동생	서울	평음	137	72.1	62.0	12.86	0.001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53	27.9	43.1					
	서울제외	평음	84	54.5	38.0					
		경음	70	45.5	56.9					
발자취	서울	평음	163	84.9	59.3	9.50	0.002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29	15.1	39.2					
	서울제외	평음	112	71.3	40.7					
		경음	45	28.7	60.8					
봄가뭄	서울	평음	87	46.0	47.5	10.86	0.001	경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102	54.0	65.4					
	서울제외	평음	96	64.0	52.5					
		경음	54	36.0	34.6					
사발술	서울	평음	128	66.7	61.0	7.51	0.006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64	33.3	46.0					
	서울제외	평음	82	52.2	39.0					
		경음	75	47.8	54.0					
술주정	서울	평음	60	31.3	46.9	8.32	0.015	경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132	68.8	60.3					
	서울제외	평음	68	43.9	53.1					
		경음	87	56.1	39.7					
인기척	서울	평음	134	69.8	60.1	7.61	0.022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57	29.7	45.6					
	서울제외	평음	89	56.7	39.9					
		경음	68	43.3	54.4					
백일재	서울	평음	16	8.3	32.7	11.51	0.001	경음	경음	서울 경음
		경음	176	91.7	58.7					
	서울제외	평음	33	21.0	67.3					
		경음	124	79.0	41.3					
함수	서울	평음	148	77.1	60.4	9.66	0.002	경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44	22.9	42.3					

	서울제외	평음	97	61.8	39.6				
		경음	60	38.2	57.7				
후일담	서울	평음	30	15.6	41.1	7.22	0.007	경음	없음	서울 경음
		경음	162	84.4	58.7					
	서울제외	평음	43	27.4	58.9					
		경음	114	72.6	41.3					
당고개	서울	평음	154	80.2	60.9	12.74	0.000	없음	없음	서울 평음
		경음	38	19.8	39.6					
	서울제외	평음	99	63.1	39.1					
		경음	58	36.9	60.4					

(5) 제보자의 부계 선대 거주지(도시별)와 어중 경음화 실현의 교차표 (P> 0.05)

어휘	부계 거주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율 (%)	카이 제곱	유의 확률	표준 발음	다수 변이형
돌솥	서울	평음	101	60.8	58.0	15.97	0.001	평음	없음
		경음	65	39.2	37.1				
	경기	평음	50	40.7	28.7				
		경음	73	59.3	41.7				
	인천	평음	23	39.0	13.2				
		경음	36	61.0	20.6				
버선발	서울	평음	72	43.4	40.2	9.48	0.023	평음	없음
		경음	94	56.6	55.3				
	경기	평음	41	57.7	39.7				
		경음	52	42.3	30.6				
	인천	평음	36	61.0	20.1				
		경음	23	39.0	13.5				
교과서	서울	평음	77	46.4	53.1	10.16	0.017	평음	없음
		경음	89	53.6	43.6				
	경기	평음	38	30.9	26.2				
		경음	85	69.1	41.7				
	인천	평음	30	50.8	20.7				
		경음	29	49.2	14.2				
간단하다	서울	평음	100	60.2	56.2	11.55	0.009	평음	없음
		경음	66	39.8	38.6				
	경기	평음	53	43.1	29.8				
		경음	70	56.9	40.9				
	인천	평음	25	42.4	14.0				
		경음	34	57.6	19.9				
감방	서울	평음	73	44.0	55.7	10.98	0.012	평음	없음
		경음	93	56.0	42.7				

	경기	평음	46	37.4	35.1				
		경음	77	62.6	35.3				
	인천	평음	12	20.3	9.2				
		경음	47	79.7	21.6				
등기	서울	평음	118	71.1	49.8	11.88	0.008	평음	없음
		경음	48	28.9	42.9				
	경기	평음	89	72.4	37.6				
		경음	34	27.6	30.4				
	인천	평음	29	49.2	12.2				
		경음	30	50.8	26.8				
선가	서울	평음	104	62.7	40.5	19.84	0.000	평음	없음
		경음	62	37.3	67.4				
	경기	평음	103	83.7	40.1				
		경음	20	16.3	21.7				
	인천	평음	49	83.1	19.1				
		경음	10	16.9	10.9				
체중	서울	평음	113	68.1	41.1	22.08	0.000	평음	없음
		경음	53	31.9	71.6				
	경기	평음	110	89.4	40.0				
		경음	12	10.6	17.6				
	인천	평음	51	86.4	18.5				
		경음	8	13.6	10.8				
날갯짓	서울	평음	93	56.0	42.5	9.76	0.021	경음	없음
		경음	73	44.0	56.2				
	경기	평음	79	64.2	36.1				
		경음	44	35.8	33.8				
	인천	평음	46	78.0	21.0				
		경음	13	22.0	10.0				
발뒤꿈치	서울	평음	119	71.7	53.4	16.39	0.012	경음	없음
		경음	47	28.3	37.6				
	경기	평음	75	61.0	33.6				
		경음	48	39.0	38.4				
	인천	평음	28	47.5	12.6				
		경음	30	50.8	24.0				
발자취	서울	평음	140	84.3	50.9	10.67	0.014	경음	없음
		경음	26	15.7	35.1				
	경기	평음	96	78.0	34.9				
		경음	27	22.0	36.5				
	인천	평음	38	64.4	13.8				
		경음	21	35.6	28.4				
사발술	서울	평음	114	68.7	54.3	15.33	0.002	경음	없음
		경음	52	31.3	37.4				
	경기	평음	71	57.7	33.8				

		경음	52	42.3	37.4				
	인천	평음	24	40.7	11.4				
		경음	35	59.3	25.2				
속임수	서울	평음	92	55.4	41.3	10.21	0.017	경음	없음
		경음	74	44.6	58.7				
	경기	평음	88	71.5	39.5				
		경음	35	28.5	27.8				
	인천	평음	42	71.2	18.8				
		경음	17	28.8	13.5				
반발심	서울	평음	52	31.3	56.5	14.72	0.002	경음	없음
		경음	114	68.7	44.4				
	경기	평음	34	27.6	37.0				
		경음	89	72.4	34.6				
	인천	평음	5	8.5	5.4				
		경음	54	91.5	21.0				
백일재	서울	평음	16	9.6	32.7	23.33	0.000	경음	경음
		경음	150	90.4	50.0				
	경기	평음	13	10.6	26.5				
		경음	110	89.4	36.7				
	인천	평음	20	33.9	40.8				
		경음	39	66.1	13.0				
후일담	서울	평음	39	21.2	53.4	32.96	0.013	경음	없음
		경음	145	78.8	52.5				
	경기	평음	9	10.8	12.3				
		경음	74	89.2	26.8				
	인천	평음	25	31.3	34.2				
		경음	55	68.8	19.9				

(6) 제보자의 부계 선대 거주지(지역별)와 어중 경음화 실현의 교차표 (P> 0.05)

어휘	부계 거주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 비율(%)	카이제곱	유의 확률	표준 발음	다수 변이형
돌솥	서울	평음	111	57.8	63.8	15.28	0.001	평음	없음
		경음	81	42.2	57.8				
	서울제외	평음	63	40.1	36.2				
		경음	94	59.9	53.7				
동아줄	서울	평음	12	7.2	26.7	10.02	0.007	평음	경음
		경음	153	92.2	50.5				
	서울제외	평음	33	18.0	73.3				
		경음	150	82.0	49.5				
말장구	서울	평음	66	39.8	41.3	4.72	0.030	평음	없음

		경음	100	60.2	52.9				
	서울제외	평음	94	51.4	58.8				
		경음	89	48.6	47.1				
버선발	서울	평음	72	43.4	40.2	7.94	0.005	평음	없음
		경음	94	56.6	55.3				
	서울제외	평음	107	58.5	59.8				
		경음	76	41.5	44.7				
간단하다	서울	평음	100	60.2	56.2	10.81	0.001	평음	없음
		경음	66	39.8	38.6				
	서울제외	평음	78	42.6	43.8				
		경음	105	57.4	61.4				
감방	서울	평음	73	44.0	55.7	5.60	0.018	평음	없음
		경음	93	56.0	42.7				
	서울제외	평음	58	31.7	44.3				
		경음	125	68.3	57.3				
선가	서울	평음	104	62.7	40.5	19.69	0.000	평음	없음
		경음	62	37.3	67.4				
	서울제외	평음	153	83.6	59.5				
		경음	30	16.4	32.6				
체증	서울	평음	113	68.1	41.1	21.79	0.000	평음	없음
		경음	53	31.9	71.6				
	서울제외	평음	162	88.5	58.9				
		경음	21	11.5	28.4				
행려병자	서울	평음	100	60.2	42.7	7.97	0.019	평음	없음
		경음	66	39.8	57.9				
	서울제외	평음	134	73.2	57.3				
		경음	48	26.2	42.1				
날갯짓	서울	평음	93	56.0	42.5	6.12	0.013	경음	없음
		경음	73	44.0	56.2				
	서울제외	평음	126	68.9	57.5				
		경음	57	31.1	43.8				
막냇동생	서울	평음	115	70.1	52.0	4.72	0.030	경음	없음
		경음	49	29.9	39.8				
	서울제외	평음	106	58.9	48.0				
		경음	74	41.1	60.2				
발뒤꿈치	서울	평음	119	71.7	53.4	8.89	0.012	경음	없음
		경음	47	28.3	37.6				
	서울제외	평음	104	56.8	46.6				
		경음	78	42.6	62.4				
발자취	서울	평음	140	84.3	50.9	5.81	0.016	경음	없음
		경음	26	15.7	35.1				
	서울제외	평음	135	73.8	49.1				
		경음	48	26.2	64.9				

봄가물	서울	평음	78	47.3	42.6	5.82	0.016	경음	없음
		경음	87	52.7	55.8				
	서울제외	평음	105	60.3	57.4				
		경음	69	39.7	44.2				
사발술	서울	평음	114	68.7	54.3	9.55	0.002	경음	없음
		경음	52	31.3	37.4				
	서울제외	평음	96	52.5	45.7				
		경음	87	47.5	62.6				
속임수	서울	평음	92	55.4	41.3	9.85	0.002	경음	없음
		경음	74	44.6	58.7				
	서울제외	평음	131	71.6	58.7				
		경음	52	28.4	41.3				
백일재	서울	평음	16	9.6	32.7	5.08	0.024	경음	경음
		경음	150	90.4	50.0				
	서울제외	평음	33	18.0	67.3				
		경음	150	82.0	50.0				
함수	서울	평음	126	75.9	51.4	4.92	0.027	경음	없음
		경음	40	24.1	38.5				
	서울제외	평음	119	65.0	48.6				
		경음	64	35.0	61.5				

(7) 제보자의 모계 선대 거주지(도시별)와 어중 경음화 실현의 교차표

어휘	모계 거주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율 (%)	유의 확률	표준 발음	다수 변이형
돌솥	서울	평음	91	57.2	52.3	0.015	평음	없음
		경음	68	42.8	38.9			
	경기	평음	55	44.7	31.6			
		경음	68	55.3	38.9			
	인천	평음	22	37.3	12.6			
		경음	37	62.7	21.1			
말장구	서울	평음	62	39.0	38.8	0.037	평음	없음
		경음	97	61.0	51.3			
	경기	평음	69	56.1	43.1			
		경음	54	43.9	28.6			
	인천	평음	26	44.1	16.3			
		경음	33	55.9	17.5			
버선발	서울	평음	64	40.3	35.8	0.001	평음	없음
		경음	95	59.7	55.9			
	경기	평음	75	61.0	41.9			
		경음	48	39.0	28.2			
	인천	평음	37	62.7	20.7			
		경음	22	37.3	12.9			
반값	서울	평음	18	11.3	30.0	0.002	평음	경음

		경음	141	88.7	48.8			
	경기	평음	34	27.6	56.7			
		경음	89	72.4	30.8			
	인천	평음	7	11.9	11.7			
		경음	52	88.1	18.0			
둥기	서울	평음	113	71.1	47.7	0.003	평음	없음
		경음	46	28.9	41.1			
	경기	평음	90	73.2	38.0			
		경음	33	26.8	29.5			
	인천	평음	28	47.5	11.8			
		경음	31	52.5	27.7			
선가	서울	평음	98	61.6	38.1	0.000	평음	없음
		경음	61	38.4	66.3			
	경기	평음	105	85.4	40.9			
		경음	18	14.6	19.6			
	인천	평음	49	83.1	19.1			
		경음	10	16.9	10.9			
체중	서울	평음	111	69.8	40.4	0.003	평음	없음
		경음	48	30.2	64.9			
	경기	평음	106	86.2	38.5			
		경음	17	13.8	23.0			
	인천	평음	51	86.4	18.5			
		경음	8	13.6	10.8			
날갯짓	서울	평음	85	53.5	38.8	0.007	경음	없음
		경음	74	46.5	56.9			
	경기	평음	83	67.5	37.9			
		경음	40	32.5	30.8			
	인천	평음	45	76.3	20.5			
		경음	14	23.7	10.8			
막냇동생	서울	평음	111	70.7	50.2	0.003	경음	없음
		경음	46	29.3	37.4			
	경기	평음	63	51.2	28.5			
		경음	60	48.8	48.8			
	인천	평음	41	73.2	18.6			
		경음	15	26.8	12.2			
사발술	서울	평음	107	67.3	51.0	0.001	경음	없음
		경음	52	32.7	37.4			
	경기	평음	70	56.9	33.3			
		경음	53	43.1	38.1			
	인천	평음	25	42.4	11.9			
		경음	34	57.6	24.5			
인기척	서울	평음	110	69.2	49.3	0.027	경음	없음
		경음	48	30.2	38.4			
	경기	평음	64	52.0	28.7			
		경음	59	48.0	47.2			

	인천	평음	42	71.2	18.8			
		경음	17	28.8	13.6			
반발심	서울	평음	47	29.6	51.1	0.006	경음	없음
		경음	112	70.4	43.6			
	경기	평음	33	26.8	35.9			
		경음	90	73.2	35.0			
	인천	평음	7	11.9	7.6			
		경음	52	88.1	20.2			
백일재	서울	평음	13	8.2	26.5	0.000	경음	경음
		경음	146	91.8	48.7			
	경기	평음	16	13.0	32.7			
		경음	107	87.0	35.7			
	인천	평음	19	32.2	38.8			
		경음	40	67.8	13.3			
함수	서울	평음	121	76.1	49.4	0.004	경음	없음
		경음	38	23.9	36.5			
	경기	평음	84	68.3	34.3			
		경음	39	31.7	37.5			
	인천	평음	32	54.2	13.1			
		경음	27	45.8	26.0			

(8) 제보자의 모계 선대 거주지(지역별)와 어중 경음화 실현의 교차표

어휘	모계 거주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 비율(%)	유의 확률	표준 발음	다수 변이형
돌솥	서울	평음	111	57.8	63.8	0.001	평음	없음
		경음	81	42.2	57.8			
	서울제외	평음	63	40.1	36.2			
		경음	94	59.9	53.7			
동아줄	서울	평음	13	8.2	28.9	0.032	평음	경음
		경음	145	91.2	47.9			
	서울제외	평음	32	16.8	71.1			
		경음	158	83.2	52.1			
말장구	서울	평음	62	39.0	38.8	0.019	평음	없음
		경음	97	61.0	51.3			
	서울제외	평음	98	51.6	61.3			
		경음	92	48.4	48.7			
반값	서울	평음	18	11.3	30.0	0.008	평음	경음
		경음	141	88.7	48.8			
	서울제외	평음	42	22.1	70.0			
		경음	148	22.1	51.2			
버선발	서울	평음	64	40.3	35.8	0.000	평음	없음

		경음	95	59.7	55.9			
	서울제외	평음	115	60.5	64.2			
		경음	75	39.5	44.1			
선가	서울	평음	98	61.6	38.1	0.000	평음	없음
		경음	61	38.4	66.3			
	서울제외	평음	159	83.7	61.9			
		경음	31	16.3	33.7			
소과	서울	평음	73	45.9	39.2	0.011	평음	없음
		경음	86	54.1	52.8			
	서울제외	평음	113	59.5	60.8			
		경음	77	40.5	47.2			
쟁탈전	서울	평음	94	59.1	40.3	0.006	평음	없음
		경음	65	40.9	56.0			
	서울제외	평음	139	73.2	59.7			
		경음	51	26.8	44.0			
체증	서울	평음	111	69.8	40.4	0.000	평음	없음
		경음	48	30.2	64.9			
	서울제외	평음	164	86.3	59.6			
		경음	26	13.7	35.1			
행려병자	서울	평음	94	59.1	40.2	0.011	평음	없음
		경음	64	40.3	56.1			
	서울제외	평음	140	73.7	59.8			
		경음	50	26.3	43.9			
날갯짓	서울	평음	85	53.5	38.8	0.001	경음	없음
		경음	74	46.5	56.9			
	서울제외	평음	134	70.5	61.2			
		경음	56	29.5	43.1			
막냇동생	서울	평음	111	70.7	50.2	0.022	경음	없음
		경음	46	29.3	37.4			
	서울제외	평음	110	58.8	49.8			
		경음	77	41.2	62.6			
발자취	서울	평음	134	84.3	48.7	0.022	경음	없음
		경음	25	15.7	33.8			
	서울제외	평음	141	74.2	51.3			
		경음	49	25.8	66.2			
사발술	서울	평음	107	67.3	51.0	0.013	경음	없음
		경음	52	32.7	37.4			
	서울제외	평음	103	54.2	49.0			
		경음	87	45.8	62.6			
속임수	서울	평음	90	56.6	40.4	0.009	경음	없음
		경음	69	43.4	54.8			
	서울제외	평음	133	70.0	59.6			
		경음	57	30.0	45.2			

백일재	서울	평음	13	8.2	26.5	0.004	경음	경음
		경음	146	91.8	48.7			
	서울제외	평음	36	18.9	73.5			
		경음	154	81.1	51.3			
함수	서울	평음	121	76.1	49.4	0.027	경음	없음
		경음	38	23.9	36.5			
	서울제외	평음	124	65.3	50.6			
		경음	66	34.7	63.5			

(9) 제보자의 연령과 어중 경음화 변이형 실현 비율

어휘	변이형	20대 (68명)	30대 (62명)	40대 (72명)	50대 (67명)	60대 (64명)	70대 (16명)	합계	유의확률
간단하다	평음 비율 경음 비율	23 33.8% 45 66.2%	33 53.2% 29 46.8%	29 40.3% 43 59.7%	35 52.2% 32 47.8%	47 73.4% 17 26.6%	11 68.8% 5 31.3%	178 51.0% 171 49.0%	0.000
감방	평음 비율 경음 비율	10 14.7% 58 85.3%	25 40.3% 37 59.7%	20 27.8% 52 72.2%	25 37.3% 42 62.7%	40 62.5% 24 37.5%	11 68.8% 5 31.3%	131 37.5% 218 62.5%	0.000
관건	평음 비율 경음 비율	2 2.9% 66 97.1%	4 6.5% 58 93.5%	11 15.3% 61 84.7%	6 9.0% 61 91.0%	18 28.1% 46 71.9%	10 62.5% 6 37.5%	51 14.6% 298 85.4%	0.000
교과서	평음 비율 경음 비율	25 36.8% 43 63.2%	18 29.0% 44 71.0%	26 36.1% 46 63.9%	32 47.8% 35 52.2%	37 57.8% 27 42.2%	7 43.8% 9 56.3%	145 41.5% 204 58.5%	0.018
날갯짓	평음 비율 경음 비율	36 52.9% 32 47.1%	50 80.6% 12 19.4%	57 79.2% 15 20.8%	35 52.2% 32 47.8%	34 53.1% 30 46.9%	7 43.8% 9 56.3%	219 62.8% 130 37.2%	0.000
날다람쥐	평음 비율 경음 비율	59 86.8% 9 13.2%	58 93.5% 4 6.5%	69 95.8% 3 4.2%	64 95.5% 3 4.5%	64 100.0% 0 0%	16 100.0% 0 0%	330 94.6% 19 5.4%	0.022
대과	평음 비율 경음 비율	22 32.4% 46 67.6%	23 37.1% 39 62.9%	37 51.4% 35 48.6%	43 64.2% 24 35.8%	54 84.4% 10 15.6%	10 62.5% 6 37.5%	189 54.2% 160 45.8%	0.000
돌담	평음 비율 경음 비율	19 27.9% 49 72.1%	14 22.6% 48 77.4%	27 37.5% 45 62.5%	31 46.3% 36 53.7%	32 50.0% 32 50.0%	7 43.8% 9 56.3%	130 37.2% 219 62.8%	0.009
동아줄	평음 비율	3 4.4%	3 4.8%	3 4.2%	8 11.9%	22 34.4%	6 37.5%	45 12.9%	0.000

	경음	65	58	69	59	42	10	303	
	비율	95.6%	93.5%	95.8%	88.1%	65.6%	62.5%	86.8%	
둥기	평음	39	34	52	52	49	11	237	0.015
	비율	57.4%	54.8%	72.2%	77.6%	76.6%	68.8%	67.9%	
	경음	29	28	20	15	15	5	112	
	비율	42.6%	45.2%	27.8%	22.4%	23.4%	31.3%	32.1%	
막냇동생	평음	58	48	53	33	20	9	221	0.000
	비율	85.3%	77.4%	74.6%	49.3%	31.3%	56.3%	63.5%	
	경음	10	11	17	34	44	7	123	
	비율	14.7%	17.7%	23.9%	50.7%	68.8%	43.8%	35.3%	
말솜씨	평음	13	17	39	37	30	8	144	0.000
	비율	19.1%	27.4%	54.2%	55.2%	46.9%	50.0%	41.3%	
	경음	55	45	33	30	34	8	205	
	비율	80.9%	72.6%	45.8%	44.8%	53.1%	50.0%	58.7%	
말장구	평음	14	18	46	41	34	7	160	0.000
	비율	20.6%	29.0%	63.9%	61.2%	53.1%	43.8%	45.8%	
	경음	54	44	26	26	30	9	189	
	비율	79.4%	71.0%	36.1%	38.8%	46.9%	56.3%	54.2%	
말장난	평음	12	15	44	42	39	9	161	0.000
	비율	17.6%	24.2%	61.1%	62.7%	60.9%	56.3%	46.1%	
	경음	56	47	27	25	25	7	187	
	비율	82.4%	75.8%	37.5%	37.3%	39.1%	43.8%	53.6%	
바퀴살	평음	9	11	24	32	23	8	107	0.000
	비율	13.2%	17.7%	33.3%	47.8%	35.9%	50.0%	30.7%	
	경음	59	51	48	35	40	8	241	
	비율	86.8%	82.3%	66.7%	52.2%	62.5%	50.0%	69.1%	
반값	평음	1	1	15	13	26	4	60	0.000
	비율	1.5%	1.6%	20.8%	19.4%	40.6%	25.0%	17.2%	
	경음	67	61	57	54	38	12	289	
	비율	98.5%	98.4%	79.2%	80.6%	59.4%	75.0%	82.8%	
반창고	평음	12	7	16	15	26	6	82	0.002
	비율	18.2%	11.3%	22.9%	23.4%	41.9%	37.5%	24.1%	
	경음	54	55	54	49	36	10	258	
	비율	81.8%	88.7%	77.1%	76.6%	58.1%	62.5%	75.9%	
발그림자	평음	59	53	63	55	46	6	282	0.000
	비율	86.8%	85.5%	87.5%	82.1%	71.9%	37.5%	80.8%	
	경음	9	9	9	12	18	10	67	
	비율	13.2%	14.5%	12.5%	17.9%	28.1%	62.5%	19.2%	
발장구	평음	21	24	50	48	45	6	194	0.000
	비율	30.9%	38.7%	69.4%	71.6%	70.3%	37.5%	55.6%	
	경음	47	38	22	19	19	10	155	
	비율	69.1%	61.3%	30.6%	28.4%	29.7%	62.5%	44.4%	
밤사이	평음	53	53	54	33	38	8	239	0.000
	비율	77.9%	85.5%	75.0%	49.3%	59.4%	50.0%	68.5%	
	경음	15	9	18	34	26	8	110	
	비율	22.1%	14.5%	25.0%	50.7%	40.6%	50.0%	31.5%	
밤새	평음	66	57	64	49	49	11	296	0.000
	비율	97.1%	91.9%	88.9%	73.1%	76.6%	68.8%	84.8%	
	경음	2	5	8	18	15	5	53	
	비율	2.9%	8.1%	11.1%	26.9%	23.4%	31.3%	15.2%	

방울등	평음	34	25	50	41	52	12	214	0.000
	비율	50.0%	40.3%	69.4%	61.2%	81.3%	75.0%	61.3%	
	경음	34	37	22	26	12	4	135	
	비율	50.0%	59.7%	30.6%	38.8%	18.8%	25.0%	38.7%	
버선발	평음	32	27	32	32	45	11	179	0.011
	비율	47.1%	43.5%	44.4%	47.8%	70.3%	68.8%	51.3%	
	경음	36	35	40	35	19	5	170	
	비율	52.9%	56.5%	55.6%	52.2%	29.7%	31.3%	48.7%	
보온병	평음	6	9	17	10	20	6	68	0.005
	비율	8.8%	14.5%	23.6%	14.9%	31.3%	37.5%	19.5%	
	경음	62	53	55	57	44	10	281	
	비율	91.2%	85.5%	76.4%	85.1%	68.8%	62.5%	80.5%	
봄가물	평음	27	27	40	39	38	12	183	0.049
	비율	40.9%	45.8%	59.7%	58.2%	59.4%	75.0%	54.0%	
	경음	39	32	27	28	26	4	156	
	비율	59.1%	54.2%	40.3%	41.8%	40.6%	25.0%	46.0%	
봄소식	평음	42	38	37	26	22	6	171	0.004
	비율	61.8%	61.3%	51.4%	38.8%	34.4%	37.5%	49.0%	
	경음	26	24	35	41	42	10	178	
	비율	38.2%	38.7%	48.6%	61.2%	65.6%	62.5%	51.0%	
불법	평음	1	1	6	6	15	3	32	0.000
	비율	1.5%	1.6%	8.3%	9.0%	23.4%	18.8%	9.2%	
	경음	67	61	66	61	49	13	317	
	비율	98.5%	98.4%	91.7%	91.0%	76.6%	81.3%	90.8%	
불제자	평음	18	22	35	28	34	5	142	0.023
	비율	26.5%	35.5%	48.6%	41.8%	53.1%	31.3%	40.7%	
	경음	50	40	37	39	30	11	207	
	비율	73.5%	64.5%	51.4%	58.2%	46.9%	68.8%	59.3%	
빨가죽	평음	28	30	46	51	56	12	223	0.000
	비율	41.2%	48.4%	63.9%	76.1%	87.5%	75.0%	63.9%	
	경음	40	32	25	15	8	4	124	
	비율	58.8%	51.6%	34.7%	22.4%	12.5%	25.0%	35.5%	
사랑방	평음	33	30	40	58	55	13	229	0.000
	비율	48.5%	48.4%	55.6%	86.6%	85.9%	81.3%	65.6%	
	경음	35	32	32	9	9	3	120	
	비율	51.5%	51.6%	44.4%	13.4%	14.1%	18.8%	34.4%	
사살선	평음	14	18	25	23	32	11	123	0.001
	비율	20.6%	29.0%	34.7%	34.3%	50.0%	68.8%	35.2%	
	경음	54	44	47	44	32	5	226	
	비율	79.4%	71.0%	65.3%	65.7%	50.0%	31.3%	64.8%	
산들바람	평음	29	21	31	26	47	14	168	0.000
	비율	42.6%	33.9%	43.1%	38.8%	73.4%	87.5%	48.1%	
	경음	39	41	41	41	17	2	181	
	비율	57.4%	66.1%	56.9%	61.2%	26.6%	12.5%	51.9%	
생활담	평음	14	13	29	32	32	12	132	0.000
	비율	20.6%	21.0%	40.3%	47.8%	50.0%	75.0%	37.8%	
	경음	54	49	43	35	32	4	217	
	비율	79.4%	79.0%	59.7%	52.2%	50.0%	25.0%	62.2%	
선가(船價)	평음	37	43	59	56	50	12	257	0.001
	비율	54.4%	69.4%	81.9%	83.6%	78.1%	75.0%	73.6%	
	경음	31	19	13	11	14	4	92	

	비율	45.6%	30.6%	18.1%	16.4%	21.9%	25.0%	26.4%	
소과	평음	13	24	48	39	48	14	186	0.000
	비율	19.1%	38.7%	66.7%	58.2%	75.0%	87.5%	53.3%	
	경음	55	38	24	28	16	2	163	
	비율	80.9%	61.3%	33.3%	41.8%	25.0%	12.5%	46.7%	
소슬바람	평음	25	20	31	25	37	12	150	0.004
	비율	36.8%	32.3%	43.1%	37.3%	57.8%	75.0%	43.0%	
	경음	43	42	41	42	27	4	199	
	비율	63.2%	67.7%	56.9%	62.7%	42.2%	25.0%	57.0%	
속임수	평음	48	46	52	37	32	8	223	0.009
	비율	70.6%	74.2%	72.2%	55.2%	50.0%	50.0%	63.9%	
	경음	20	16	20	30	32	8	126	
	비율	29.4%	25.8%	27.8%	44.8%	50.0%	50.0%	36.1%	
솜바지	평음	42	32	57	62	61	14	268	0.000
	비율	61.8%	51.6%	79.2%	92.5%	95.3%	87.5%	76.8%	
	경음	26	30	14	5	3	2	80	
	비율	38.2%	48.4%	19.4%	7.5%	4.7%	12.5%	22.9%	
수입인지	평음	49	29	28	18	13	3	140	0.000
	비율	72.1%	46.8%	38.9%	26.9%	20.3%	18.8%	40.1%	
	경음	18	32	44	49	51	12	206	
	비율	26.5%	51.6%	61.1%	73.1%	79.7%	75.0%	59.0%	
술주정	평음	11	13	32	31	33	8	128	0.000
	비율	16.2%	21.0%	44.4%	46.3%	51.6%	50.0%	36.7%	
	경음	57	49	40	35	31	7	219	
	비율	83.8%	79.0%	55.6%	52.2%	48.4%	43.8%	62.8%	
실세계	평음	17	22	31	27	25	2	124	0.022
	비율	25.0%	35.5%	43.1%	40.3%	39.1%	12.5%	35.5%	
	경음	51	40	41	39	39	13	223	
	비율	75.0%	64.5%	56.9%	58.2%	60.9%	81.3%	63.9%	
양념간장	평음	22	20	24	24	36	8	134	0.035
	비율	32.4%	32.3%	33.3%	35.8%	56.3%	50.0%	38.4%	
	경음	46	42	47	40	27	8	210	
	비율	67.6%	67.7%	65.3%	59.7%	42.2%	50.0%	60.2%	
양담배	평음	19	24	31	33	39	7	153	0.007
	비율	27.9%	38.7%	43.1%	49.3%	60.9%	43.8%	43.8%	
	경음	49	38	41	34	25	9	196	
	비율	72.1%	61.3%	56.9%	50.7%	39.1%	56.3%	56.2%	
열병	평음	13	26	37	47	50	14	187	0.000
	비율	19.1%	41.9%	51.4%	70.1%	78.1%	87.5%	53.6%	
	경음	55	36	35	20	14	2	162	
	비율	80.9%	58.1%	48.6%	29.9%	21.9%	12.5%	46.4%	
옴벌레	평음	18	19	32	25	39	11	144	0.001
	비율	26.5%	30.6%	44.4%	37.3%	60.9%	68.8%	41.3%	
	경음	50	43	40	41	25	5	204	
	비율	73.5%	69.4%	55.6%	61.2%	39.1%	31.3%	58.5%	
음조	평음	38	40	56	57	61	14	266	0.000
	비율	55.9%	64.5%	77.8%	85.1%	95.3%	87.5%	76.2%	
	경음	30	22	16	9	3	2	82	
	비율	44.1%	35.5%	22.2%	13.4%	4.7%	12.5	23.5%	
촌색시	평음	64	54	65	57	43	10	293	0.000

	비율	94.1%	87.1%	90.3%	86.4%	68.3%	62.5%	84.4%	
	경음	4	8	7	9	20	6	54	
	비율	5.9%	12.9%	9.7%	13.6%	31.7%	37.5%	15.6%	
촌샌님	평음	67	62	68	61	54	16	328	0.005
	비율	98.5%	100.0%	94.4%	92.4%	85.7%	100.0%	94.5%	
	경음	1	0	4	5	9	0	19	
	비율	1.5%	0	5.6%	7.6%	14.3%	0	5.5%	
치마저고리	평음	52	55	67	66	63	16	319	0.000
	비율	76.5%	88.7%	93.1%	98.5%	98.4%	100.0%	91.4%	
	경음	16	7	5	1	1	0	30	
	비율	23.5%	11.3%	6.9%	1.5%	1.6%	0	8.6%	
필연적	평음	47	48	65	58	58	12	288	0.005
	비율	69.1%	77.4%	90.3%	86.6%	90.6%	75.0%	82.5%	
	경음	21	14	7	9	6	4	61	
	비율	30.9%	22.6%	9.7%	13.4%	9.4%	25.0%	17.5%	
후일담	평음	5	4	20	11	25	8	73	0.000
	비율	7.4%	6.5%	27.8%	16.4%	39.1%	50.0%	20.9%	
	경음	63	58	52	56	39	8	276	
	비율	92.6%	93.5%	72.2%	83.6%	60.9%	50.0%	79.1%	

(10) 제보자의 출생 시기와 어중 경음화 변이형 실현 비율

어휘	변이형	1920 (9명)	1930 (40명)	1940 (69명)	1950 (79명)	1960 (55명)	1970 (84명)	1980 (13명)
간단하다	평음	6	28	47	37	24	29	7
	비율	66.7%	70.0%	68.1%	46.8%	43.6%	34.5%	53.8%
	경음	3	12	22	42	31	55	6
	비율	33.3%	30.0%	31.9%	53.2%	56.4%	65.5%	46.2%
감방	평음	6	27	36	23	22	16	1
	비율	66.7%	67.5%	52.2%	29.1%	40.0%	19.0%	7.7%
	경음	3	13	33	56	33	68	12
	비율	33.3%	32.5%	47.8%	70.9%	60.0%	81.0%	92.3%
관건	평음	5	17	10	11	4	4	0
	비율	55.6%	42.5%	14.5%	13.9%	7.3%	4.8%	0%
	경음	4	23	59	68	51	80	13
	비율	44.4%	57.5%	85.5%	86.1%	92.7%	95.2%	100.0%
교과서	평음	3	24	36	33	14	31	4
	비율	33.3%	60.0%	52.2%	41.8%	25.5%	36.9%	30.8%
	경음	6	16	33	46	41	53	9
	비율	66.7%	40.0%	47.8%	58.2%	74.5%	63.1%	69.2%
날갯짓	평음	5	17	36	56	50	48	7
	비율	55.6%	42.5%	52.2%	70.9%	90.9%	57.1%	53.8%
	경음	4	23	33	23	5	36	6
	비율	44.4%	57.5%	47.8%	29.1%	9.1%	42.9%	46.2%
날다람쥐	평음	9	40	66	77	53	74	11
	비율	100.0%	100.0%	95.7%	97.5%	96.4%	88.1%	84.6%
	경음	0	0	3	2	2	10	2
	비율	0	0	4.3%	2.5%	3.6%	11.9%	15.4%

대과	평음	5	33	50	47	22	29	3
	비율	55.6%	82.5%	72.5%	59.5%	40.0%	34.5%	23.1%
	경음	4	7	19	32	33	55	10
	비율	44.4%	17.5%	27.5%	40.5%	60.0%	65.5%	76.9%
돌담	평음	6	18	31	35	12	25	3
	비율	66.7%	45.0%	44.9%	44.3%	21.8%	29.8%	23.1%
	경음	3	22	38	44	43	59	10
	비율	33.3%	55.0%	55.1%	55.7%	78.2%	70.2%	76.9%
동아줄	평음	5	17	11	5	2	5	0
	비율	55.6%	42.5%	15.9%	6.3%	3.6%	6.0%	0%
	경음	4	23	58	74	52	79	13
	비율	44.4%	57.5%	84.1%	93.7%	94.5%	94.0%	100%
등기	평음	7	30	54	56	36	45	9
	비율	77.8%	75.0%	78.3%	70.9%	65.5%	53.6%	69.2%
	경음	2	10	15	23	19	39	4
	비율	22.2%	25.0%	21.7%	29.1%	34.5%	46.4%	30.8%
막냇동생	평음	4	16	29	52	36	72	12
	비율	44.4%	40.0%	42.0%	66.7%	65.5%	85.7%	92.3%
	경음	5	24	40	26	15	12	1
	비율	55.6%	60.0%	58.0%	33.3%	27.3%	14.3%	7.7%
말솜씨	평음	5	20	35	42	22	18	2
	비율	55.6%	50.0%	50.7%	53.2%	40.0%	21.4%	15.4%
	경음	4	20	34	37	33	66	11
	비율	44.4%	50.0%	49.3%	46.8%	60.0%	78.6%	84.6%
말장구	평음	5	18	43	52	20	21	1
	비율	55.6%	45.0%	62.3%	65.8%	36.4%	25.0%	7.7%
	경음	4	22	26	27	35	63	12
	비율	44.4%	55.0%	37.7%	34.2%	63.6%	75.0%	92.3%
말장난	평음	5	23	45	52	17	18	1
	비율	55.6%	57.5%	65.2%	65.8%	30.9%	21.4%	7.7%
	경음	4	17	24	26	38	66	12
	비율	44.4%	42.5%	34.8%	32.9%	69.1%	78.6%	92.3%
목양말	평음	5	26	46	50	32	66	13
	비율	55.6%	68.4%	66.7%	64.1%	59.3%	79.5%	100.0%
	경음	4	12	23	28	22	17	0
	비율	1.2%	3.5%	6.7%	8.1%	6.4%	4.9%	0%
바퀴살	평음	4	16	32	29	11	13	2
	비율	44.4%	40.0%	46.4%	36.7%	20.0%	15.5%	15.4%
	경음	5	23	37	50	44	71	11
	비율	55.6%	57.5%	53.6%	63.3%	80.0%	84.5%	84.6%
반값	평음	3	16	18	18	4	1	0
	비율	33.3%	40.0%	26.1%	22.8%	7.3%	1.2%	0%
	경음	6	24	51	61	51	83	13
	비율	66.7%	60.0%	73.9%	77.2%	92.7%	98.8%	100%
반창고	평음	4	15	21	18	7	15	2
	비율	44.4%	38.5%	31.8%	23.7%	12.7%	18.3%	15.4%
	경음	5	24	45	58	48	67	11
	비율	55.6%	61.5%	68.2%	76.3%	87.3%	81.7%	84.6%
발그림자	평음	3	28	53	66	49	72	11
	비율	33.3%	70.0%	76.8%	83.5%	89.1%	85.7%	84.6%
	경음	6	12	16	13	6	12	2

	비율	66.7%	30.0%	23.2%	16.5%	10.9%	14.3%	15.4%
발장구	평음	2	25	49	59	29	27	3
	비율	22.2%	62.5%	71.0%	74.7%	52.7%	32.1%	23.1%
	경음	7	15	20	20	26	57	10
	비율	77.8%	37.5%	29.0%	25.3%	47.3%	67.9%	76.9%
밤사이	평음	6	19	44	46	46	67	11
	비율	66.7%	47.5%	63.8%	58.2%	83.6%	79.8%	84.6%
	경음	3	21	25	33	9	17	2
	비율	33.3%	52.5%	36.2%	41.8%	16.4%	20.2%	15.4%
밤새	평음	8	27	50	71	49	78	13
	비율	88.9%	67.5%	72.5%	89.9%	89.1%	92.9%	100%
	경음	1	13	19	8	6	6	0
	비율	11.1%	32.5%	27.5%	10.1%	10.9%	7.1%	0%
방울등	평음	7	34	49	51	26	41	6
	비율	77.8%	85.0%	71.0%	64.6%	47.3%	48.8%	46.2%
	경음	2	6	20	28	29	43	7
	비율	22.2%	15.0%	29.0%	35.4%	52.7%	51.2%	53.8%
버선발	평음	6	30	39	36	25	36	7
	비율	66.7%	75.0%	56.5%	45.6%	45.5%	42.9%	53.8%
	경음	3	10	30	43	30	48	6
	비율	33.3%	25.0%	43.5%	54.4%	54.5%	57.1%	46.2%
보온병	평음	4	13	14	17	10	10	0
	비율	44.4%	32.5%	20.3%	21.5%	18.2%	11.9%	0%
	경음	5	27	55	62	45	74	13
	비율	55.6%	67.5%	79.7%	78.5%	81.8%	88.1%	100%
봄가뭄	평음	7	27	37	47	25	36	4
	비율	77.8%	67.5%	53.6%	61.8%	50.0%	43.9%	30.8%
	경음	2	13	32	29	25	46	9
	비율	22.2%	32.5%	46.4%	38.2%	50.0%	56.1%	69.2%
봄소식	평음	5	12	27	37	29	53	8
	비율	55.6%	30.0%	39.1%	46.8%	52.7%	63.1%	61.5%
	경음	4	28	42	42	26	31	5
	비율	44.4%	70.0%	60.9%	53.2%	47.3%	36.9%	38.5%
불법	평음	2	12	7	7	2	1	1
	비율	22.2%	30.0%	10.1%	8.9%	3.6%	1.2%	7.7%
	경음	7	28	62	72	53	83	12
	비율	77.8%	70.0%	89.9%	91.1%	96.4%	98.8%	92.3%
빰가죽	평음	7	35	59	52	35	32	3
	비율	77.8%	87.5%	85.5%	65.8%	63.6%	38.1%	23.1%
	경음	2	5	9	27	19	52	10
	비율	22.2%	12.5%	13.0%	34.2%	34.5%	61.9%	76.9%
사랑방	평음	7	35	58	54	29	41	5
	비율	77.8%	87.5%	84.1%	68.4%	52.7%	48.8%	38.5%
	경음	2	5	11	25	26	43	8
	비율	22.2%	12.5%	15.9%	31.6%	47.3%	51.2%	61.5%
사살선	평음	7	23	25	27	19	19	3
	비율	77.8%	57.5%	36.2%	34.2%	34.5%	22.6%	23.1%
	경음	2	17	44	52	36	65	10
	비율	22.2%	42.5%	63.8%	65.8%	65.5%	77.4%	76.9%
산그늘	평음	5	24	35	48	31	34	2

	비율	55.6%	60.0%	50.7%	61.5%	58.5%	41.0%	15.4%
	경음	4	16	34	30	22	49	11
	비율	44.4%	40.0%	49.3%	38.5%	41.5%	59.0%	84.6%
산들바람	평음	8	29	39	33	21	34	4
	비율	88.9%	72.5%	56.5%	41.8%	38.2%	40.5%	30.8%
	경음	1	11	30	46	34	50	9
	비율	11.1%	27.5%	43.5%	58.2%	61.8%	59.5%	69.2%
생활담	평음	7	27	26	41	10	19	2
	비율	77.8%	67.5%	37.7%	51.9%	18.2%	22.6%	15.4%
	경음	2	13	43	38	45	65	11
	비율	22.2%	32.5%	62.3%	48.1%	81.8%	77.4%	84.6%
선가(船價)	평음	7	31	55	65	44	49	6
	비율	77.8%	77.5%	79.7%	82.3%	80.0%	58.3%	46.2%
	경음	2	9	14	14	11	35	7
	비율	22.2%	22.5%	20.3%	17.7%	20.0%	41.7%	53.8%
소과	평음	7	30	45	56	28	19	1
	비율	77.8%	75.0%	65.2%	70.9%	50.9%	22.6%	7.7%
	경음	2	10	24	23	27	65	12
	비율	22.2%	25.0%	34.8%	29.1%	49.1%	77.4%	92.3%
소슬바람	평음	8	24	32	31	22	31	2
	비율	88.9%	60.0%	46.4%	39.2%	40.0%	36.9%	15.4%
	경음	1	16	37	48	33	53	11
	비율	11.1%	40.0%	53.6%	60.8%	60.0%	63.1%	84.6%
속임수	평음	5	21	34	53	41	59	10
	비율	55.6%	52.5%	49.3%	67.1%	74.5%	70.2%	76.9%
	경음	4	19	35	26	14	25	3
	비율	44.4%	47.5%	50.7%	32.9%	25.5%	29.8%	23.1%
솜바지	평음	7	39	64	69	34	46	9
	비율	77.8%	97.5%	92.8%	87.3%	61.8%	54.8%	69.2%
	경음	2	1	5	9	21	38	4
	비율	22.2%	2.5%	7.2%	11.4%	38.2%	45.2%	30.8%
수입인지	평음	1	7	16	29	26	51	10
	비율	11.1%	17.5%	23.2%	36.7%	47.3%	60.7%	76.9%
	경음	7	33	53	50	29	31	3
	비율	77.8%	82.5%	76.8%	63.3%	52.7%	36.9%	23.1%
술주정	평음	6	19	37	35	15	14	2
	비율	66.7%	47.5%	53.6%	44.3%	27.3%	16.7%	15.4%
	경음	2	21	31	44	40	70	11
	비율	22.2%	52.5%	44.9%	55.7%	72.7%	83.3%	84.6%
실세계	평음	2	12	28	37	21	23	1
	비율	22.2%	30.0%	40.6%	46.8%	38.2%	27.4%	7.7%
	경음	6	28	41	41	34	61	12
	비율	66.7%	70.0%	59.4%	51.9%	61.8%	72.6%	92.3%
양념간장	평음	4	25	32	27	15	23	8
	비율	44.4%	62.5%	46.4%	34.2%	27.3%	27.4%	61.5%
	경음	5	15	36	48	40	61	5
	비율	55.6%	37.5%	52.2%	60.8%	72.7%	72.6%	38.5%
양담배	평음	4	23	39	35	25	23	4
	비율	44.4%	57.5%	56.5%	44.3%	45.5%	27.4%	30.8%
	경음	5	17	30	44	30	61	9

	비율	55.6%	42.5%	43.5%	55.7%	54.5%	72.6%	69.2%
열병	평음	9	31	51	48	25	22	1
	비율	100.0%	77.5%	73.9%	60.8%	45.5%	26.2%	7.7%
	경음	0	9	18	31	30	62	12
	비율	0%	22.5%	26.1%	39.2%	54.5%	73.8%	92.3%
옴벌레	평음	6	26	31	35	21	23	2
	비율	66.7%	65.0%	44.9%	44.3%	38.2%	27.4%	15.4%
	경음	3	14	38	43	34	61	11
	비율	33.3%	35.0%	55.1%	54.4%	61.8%	72.6%	84.6%
음조	평음	8	38	64	63	38	49	6
	비율	88.9%	95.0%	92.8%	79.7%	69.1%	58.3%	46.2%
	경음	1	2	5	15	17	35	7
	비율	11.1%	5.0%	7.2%	19.0%	30.9%	41.7%	53.8%
인기척	평음	7	20	45	42	34	63	12
	비율	77.8%	50.0%	65.2%	53.2%	61.8%	75.0%	92.3%
	경음	2	20	24	37	21	20	1
	비율	22.2%	50.0%	34.8%	46.8%	38.2%	23.8%	7.7%
쟁탈전	평음	8	27	57	52	35	46	8
	비율	88.9%	67.5%	82.6%	65.8%	63.6%	54.8%	61.5%
	경음	1	13	12	27	20	38	5
	비율	11.1%	32.5%	17.4%	34.2%	36.4%	45.2%	38.5%
치마저고리	평음	9	40	67	76	51	67	9
	비율	100.0%	100.0%	97.1%	96.2%	92.7%	79.8%	69.2%
	경음	0	0	2	3	4	17	4
	비율	0%	0%	2.9%	3.8%	7.3%	20.2%	30.8%
촌색시	평음	6	26	54	71	48	76	12
	비율	66.7%	66.7%	78.3%	91.0%	87.3%	90.5%	92.3%
	경음	3	13	15	7	7	8	1
	비율	33.3%	33.3%	21.7%	9.0%	12.7%	9.5%	7.7%
촌샌님	평음	9	36	58	75	54	83	13
	비율	100.0%	92.3%	84.1%	96.2%	98.2%	98.8%	100.0%
	경음	0	3	11	3	1	1	0
	비율	0	7.7%	15.9%	3.8%	1.8%	1.2%	0
필연적	평음	7	37	60	69	50	55	10
	비율	77.8%	92.5%	87.0%	87.3%	90.9%	65.5%	76.9%
	경음	2	3	9	10	5	29	3
	비율	22.2%	7.5%	13.0%	12.7%	9.1%	34.5%	23.1%
후일담	평음	6	17	18	17	8	6	1
	비율	66.7%	42.5%	26.1%	21.5%	14.5%	7.1%	7.7%
	경음	3	23	51	62	47	78	12
	비율	33.3%	57.5%	73.9%	78.5%	85.5%	92.9%	92.3%

(11) 제보자의 세대와 어중 경음화 변이형 실현 비율

어휘	세대	변이형	제보자(명)	제보자 비율(%)	전체 비율(%)	유의확률	표준발음	고정형
간단하다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63	70.8	35.4	0.000	평음	없음
		경음	26	29.2	15.2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37	52.1	20.8			
		경음	34	47.9	19.9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30	41.7	16.9			
		경음	42	58.3	24.6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48	41.0	27.0			
		경음	69	59.0	40.4			
감방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54	60.7	41.2	0.000	평음	없음
		경음	35	39.3	16.1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24	33.8	18.3			
		경음	47	66.2	21.6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25	34.7	19.1			
		경음	47	65.3	21.6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28	23.9	21.4			
		경음	89	76.1	40.8			
관건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29	32.6	56.9	0.000	평음	경음
		경음	60	67.4	20.1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6	7.0	9.8			
		경음	55	93.0	22.1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12	16.7	23.5			
		경음	60	83.3	20.1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5	4.3	9.8			
		경음	112	95.7	37.6			
교과서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48	53.9	33.1	0.007	평음	없음
		경음	41	46.1	20.1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34	47.9	23.4			
		경음	37	52.1	18.1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25	34.7	17.2			
		경음	47	65.3	23.0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38	32.5	26.2			
		경음	79	67.5	38.7			
날갯짓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46	51.7	21.0	0.004	경음	없음
		경음	43	48.3	33.1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42	59.2	19.2			
		경음	29	40.8	22.3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57	79.2	26.0			
		경음	15	20.8	11.5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74	63.2	33.8			
		경음	43	36.8	33.1			
날다람쥐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88	98.9	26.7	0.008	경음	평음
		경음	1	1.1	5.3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69	97.2	20.9			
		경음	2	2.8	10.5			
	전후복구(72명)	평음	69	95.8	20.9			

	(1956-1965)	경음	3	4.2	15.8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104	88.9	31.5			
		경음	13	11.1	68.4			
당고개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59	66.3	23.3	0.017	없음	없음
		경음	30	33.7	31.3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44	62.0	17.4			
		경음	17	38.0	28.1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57	79.2	22.5			
		경음	15	20.8	15.6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93	79.5	36.8			
		경음	24	20.5	25.0			
대과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69	77.5	36.5	0.000	평음	없음
		경음	20	22.5	12.5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44	62.0	23.3			
		경음	27	38.0	16.9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38	52.8	20.1			
		경음	34	47.2	21.3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38	32.5	20.1			
		경음	79	67.5	49.4			
돌담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42	47.2	32.3	0.013	평음	없음
		경음	47	52.8	21.5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31	43.7	23.8			
		경음	40	56.3	18.3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26	36.1	20.0			
		경음	46	63.9	21.0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31	26.5	23.8			
		경음	86	73.5	39.3			
동아줄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29	32.6	64.4	0.000	평음	경음
		경음	60	67.4	19.8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8	11.3	17.8			
		경음	63	88.7	20.8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2	2.8	4.4			
		경음	69	95.8	22.8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6	5.1	13.3			
		경음	111	94.9	36.6			
등기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66	74.2	27.8	0.003	평음	없음
		경음	23	25.8	20.5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56	78.9	23.6			
		경음	15	21.1	13.4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50	69.4	21.1			
		경음	22	30.6	19.6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65	55.6	27.4			
		경음	52	44.4	46.4			

막냇동생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32	36.0	14.5	0.000	경음	없음
		경음	57	64.0	46.3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40	57.1	18.1			
		경음	30	42.9	24.4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51	70.8	23.1			
		경음	18	25.0	14.6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98	83.8	44.3			
		경음	18	15.4	14.6			
말솜씨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41	46.1	28.5	0.000	경음	없음
		경음	48	53.9	23.4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40	56.3	27.8			
		경음	31	43.7	15.1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38	52.8	26.4			
		경음	34	47.2	16.6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25	21.4	17.4			
		경음	92	78.6	44.9			
말장구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47	52.8	29.4	0.000	평음	없음
		경음	42	47.2	22.2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45	63.4	28.1			
		경음	26	36.6	13.8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39	54.2	24.4			
		경음	33	45.8	17.5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29	24.8	18.1			
		경음	88	75.2	46.6			
말장난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53	59.6	32.9	0.000	평음	없음
		경음	36	40.4	19.3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47	66.2	29.2			
		경음	24	33.8	12.8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37	51.4	23.0			
		경음	34	47.2	18.2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24	20.5	14.9			
		경음	93	79.5	49.7			
목양말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56	64.4	23.5	0.032	ㄴ 삽입	없음
		경음	31	35.6	29.2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43	61.4	18.1			
		경음	27	38.6	25.5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47	66.2	19.7			
		경음	24	33.8	22.6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92	79.3	38.7			
		경음	24	20.7	22.6			
바퀴살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35	39.3	32.7	0.001	평음	없음
		경음	53	59.6	22.0			
	한국전쟁(71명)	평음	30	42.3	28.0			

	(1945-1955)	경음	41	57.7	17.0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24	33.3	22.4			
		경음	48	66.7	19.9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18	15.4	16.8			
		경음	99	84.6	41.1			
반값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35	39.3	58.3	0.000	평음	경음
		경음	54	60.7	18.7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10	14.1	16.7			
		경음	61	85.9	21.1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14	19.4	23.3			
		경음	58	80.6	20.1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1	0.9	1.7			
		경음	116	99.1	40.1			
반창고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35	40.2	42.7	0.001	평음	없음
		경음	52	59.8	20.2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14	20.6	17.1			
		경음	54	79.4	20.9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15	21.4	78.6			
		경음	55	18.3	21.3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18	15.7	22.0			
		경음	97	84.3	37.6			
발그림자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60	67.4	21.3	0.002	경음	평음
		경음	29	32.6	43.3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58	81.7	20.6			
		경음	13	18.3	19.4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63	87.5	22.3			
		경음	9	12.5	13.4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101	86.3	35.8			
		경음	16	13.7	23.9			
발장구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56	62.9	28.9	0.000	평음	없음
		경음	33	37.1	21.3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54	76.1	27.8			
		경음	17	23.9	11.0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44	61.1	22.7			
		경음	28	38.9	18.1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40	34.2	20.6			
		경음	77	65.8	49.7			
밤사이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51	57.3	21.3	0.000	경음	없음
		경음	38	42.7	34.5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36	50.7	15.1			
		경음	35	49.3	31.8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58	80.6	24.3			
		경음	14	19.4	12.7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94	80.3	39.3			
		경음	23	19.7	20.9			
밤새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66	74.2	22.3	0.000	경음	평음
		경음	23	25.8	43.4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56	78.9	18.9			
		경음	15	21.1	28.3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63	87.5	21.3			
		경음	9	12.5	17.0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111	94.9	37.5			
		경음	6	5.1	11.3			
방울등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70	78.7	32.7	0.000	평음	없음
		경음	19	21.3	14.1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45	63.4	21.0			
		경음	26	36.6	19.3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45	62.5	21.0			
		경음	27	37.5	20.0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54	46.2	25.2			
		경음	63	53.8	46.7			
버선발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62	69.7	34.6	0.001	평음	없음
		경음	27	30.3	15.9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30	42.3	16.8			
		경음	41	57.7	24.1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32	44.4	17.9			
		경음	40	55.6	23.5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55	47.0	30.7			
		경음	62	53.0	36.5			
보온병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27	30.3	39.7	0.016	평음	경음
		경음	62	69.7	22.1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12	16.9	17.6			
		경음	59	83.1	21.0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14	19.4	20.6			
		경음	58	80.6	20.6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15	12.8	22.1			
		경음	102	87.2	36.3			
봄가뭄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56	62.9	30.6	0.021	경음	없음
		경음	33	37.1	21.2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39	56.5	21.3			
		경음	30	43.5	19.2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40	58.8	21.9			
		경음	28	41.2	17.9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48	42.5	26.2			
		경음	65	57.5	41.7			
봄소식	해방 이전(89명)	평음	31	34.8	18.1	0.003	평음	없음

	(1945년 이전)	경음	58	65.2	32.6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31	43.7	18.1			
		경음	40	56.3	22.5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39	54.2	22.8			
		경음	33	45.8	18.5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70	59.8	40.9			
		경음	47	40.2	26.4			
불법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19	21.3	59.4	0.000	평음	경음
		경음	70	78.7	22.1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6	8.5	18.8			
		경음	65	91.5	20.5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5	6.9	15.6			
		경음	67	93.1	21.1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2	1.7	6.3			
		경음	115	98.3	36.3			
불제자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43	48.3	30.3	0.004	평음	없음
		경음	46	51.7	22.2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32	45.1	22.5			
		경음	39	54.9	18.8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35	48.6	24.6			
		경음	37	51.4	17.9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32	27.4	22.5			
		경음	85	72.6	41.1			
빵가죽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76	85.4	34.1	0.000	경음	없음
		경음	13	14.6	10.5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51	71.8	22.9			
		경음	19	26.8	15.3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49	68.1	22.0			
		경음	22	30.6	17.7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47	40.2	21.1			
		경음	70	59.8	56.5			
사랑방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75	84.3	32.8	0.000	평음	없음
		경음	14	15.7	11.7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57	80.3	24.9			
		경음	14	19.7	11.7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40	55.6	17.5			
		경음	32	44.4	26.7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57	48.7	24.9			
		경음	60	51.3	50.0			
사살선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45	50.6	36.6	0.001	평음	없음
		경음	44	49.4	19.5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25	35.2	20.3			
		경음	46	64.8	20.4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25	34.7	20.3			
		경음	47	65.3	20.8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28	23.9	22.8			
		경음	89	76.1	39.4			
산그늘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50	56.2	27.9	0.037	경음	없음
		경음	39	43.8	23.5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41	57.7	22.9			
		경음	30	42.3	18.1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41	58.6	22.9			
		경음	29	41.4	17.5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47	40.9	26.3			
		경음	68	59.1	41.0			
산들바람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65	73.0	38.7	0.000	평음	없음
		경음	24	27.0	13.3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26	36.6	15.5			
		경음	45	63.4	24.9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31	43.1	18.5			
		경음	41	56.9	22.7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46	39.3	27.4			
		경음	71	60.7	39.2			
생활담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48	53.9	36.4	0.000	평음	없음
		경음	41	46.1	18.9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34	47.9	25.8			
		경음	37	52.1	17.1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27	37.5	20.5			
		경음	45	62.5	20.7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23	19.7	17.4			
		경음	94	80.3	43.3			
선가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70	78.7	27.2	0.003	평음	없음
		경음	19	21.3	20.7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59	83.1	23.0			
		경음	12	16.9	13.0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56	77.8	21.8			
		경음	16	22.2	17.4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72	61.5	28.0			
		경음	45	38.5	48.9			
소과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66	74.2	35.5	0.000	평음	없음
		경음	23	25.8	14.1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44	62.0	23.7			
		경음	27	38.0	16.6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47	65.3	25.3			
		경음	25	34.7	15.3			
	산업화(117명)	평음	29	24.8	15.6			

	(1966년 이후)	경음	88	75.2	54.0			
소슬바람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55	61.8	36.7	0.000	평음	없음
		경음	34	38.2	17.1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25	35.2	16.7			
		경음	46	64.8	23.1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29	40.3	19.3			
		경음	43	59.7	21.6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41	35.0	27.3			
		경음	76	65.0	38.2			
속임수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46	51.7	20.6	0.002	경음	없음
		경음	43	48.3	34.1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39	54.9	17.5			
		경음	32	45.1	25.4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53	73.6	23.8			
		경음	19	26.4	15.1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85	72.6	38.1			
		경음	32	27.4	25.4			
솜바지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84	94.4	31.3	0.000	평음	없음
		경음	5	5.6	6.3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64	90.1	23.9			
		경음	6	8.5	7.5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53	73.6	19.8			
		경음	19	26.4	23.8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67	57.3	25.0			
		경음	50	42.7	62.5			
수입인지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17	19.1	12.1	0.000	평음	없음
		경음	71	79.8	34.5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23	32.4	16.4			
		경음	48	67.6	23.3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27	37.5	19.3			
		경음	45	62.5	21.8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73	62.4	52.1			
		경음	42	35.9	20.4			
술주정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45	50.6	35.2	0.000	경음	없음
		경음	43	48.3	19.6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31	43.7	24.2			
		경음	39	54.9	17.8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33	45.8	25.8			
		경음	39	54.2	17.8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19	16.2	14.8			
		경음	98	83.8	44.7			
양념간장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49	55.1	36.6	0.002	평음	없음
		경음	39	43.8	18.6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23	32.4	17.2			
		경음	45	63.4	21.4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26	36.1	19.4			
		경음	45	62.5	21.4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36	30.8	26.9			
		경음	81	69.2	38.6			
양담배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50	56.2	32.7	0.003	평음	없음
		경음	39	43.8	19.9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33	46.5	21.6			
		경음	38	53.5	19.4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34	47.2	22.2			
		경음	38	52.8	19.4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36	30.8	23.5			
		경음	81	69.2	41.3			
열병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72	80.9	38.5	0.000	평음	없음
		경음	17	19.1	10.5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47	66.2	25.1			
		경음	24	33.8	14.8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34	47.2	18.2			
		경음	38	52.8	23.5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34	29.1	18.2			
		경음	83	70.9	51.2			
옴벌레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52	58.4	36.1	0.001	평음	없음
		경음	37	41.6	18.1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29	40.8	20.1			
		경음	41	57.7	20.1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30	41.7	20.8			
		경음	42	58.3	20.6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33	28.2	22.9			
		경음	84	71.8	41.2			
음조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83	93.3	31.2	0.000	평음	없음
		경음	6	6.7	7.3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60	84.5	22.6			
		경음	10	14.1	12.2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53	73.6	19.9			
		경음	19	26.4	23.2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70	59.8	26.3			
		경음	47	40.2	57.3			
인기척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54	60.7	24.2	0.022	경음	없음
		경음	35	39.3	28.0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41	57.7	18.4			
		경음	30	42.3	24.0			
	전후복구(72명)	평음	39	54.2	17.5			

	(1956-1965)	경음	33	45.8	26.4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89	76.1	39.9			
		경음	27	23.1	21.6			
쟁탈전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68	76.4	29.2	0.043	평음	없음
		경음	21	23.6	18.1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50	70.4	21.5			
		경음	21	29.6	18.1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47	65.3	20.2			
		경음	25	34.7	21.6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68	58.1	29.2			
		경음	49	41.9	42.2			
치마저고리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87	97.8	27.3	0.000	평음	평음
		경음	2	2.2	6.7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71	100.0	22.3			
		경음	0	0	0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67	93.1	21.0			
		경음	5	6.9	16.7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94	80.3	29.5			
		경음	23	19.7	76.7			
촌색시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62	70.5	21.2	0.000	경음	평음
		경음	26	29.5	48.1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60	85.7	20.5			
		경음	10	14.3	18.5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66	91.7	22.5			
		경음	6	8.3	11.1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105	89.7	35.8			
		경음	12	10.3	22.2			
촌샌님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77	87.5	23.5	0.004	경음	평음
		경음	11	12.5	57.9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66	94.3	20.1			
		경음	4	5.7	21.1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69	95.8	21.0			
		경음	3	4.2	15.8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116	99.1	35.4			
		경음	1	.9	5.3			
필연적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78	87.6	27.1	0.001	평음	평음
		경음	11	12.4	18.0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62	87.3	21.5			
		경음	9	12.7	14.8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65	90.3	22.6			
		경음	7	9.7	11.5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83	70.9	28.8			
		경음	34	29.1	55.7			

후일담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평음	35	39.3	47.9	0.000	경음	
		경음	54	60.7	19.6			
	한국전쟁(71명) (1945-1955)	평음	10	14.1	13.7			
		경음	61	85.9	22.1			
	전후복구(72명) (1956-1965)	평음	21	29.2	28.8			
		경음	51	70.8	18.5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평음	7	6.0	9.6			
		경음	110	94.0	39.9			

<부록 2>

(1) 제보자의 연령과 ㄴ삽입 현상 변이형 실현 비율

어휘	변이형	20대 (68명)	30대 (62명)	40대 (72명)	50대 (67명)	60대 (64명)	70대 (16명)	전체	유의 확률
끝말잇기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65 95.6% 3 4.4%	57 93.4% 4 6.6%	52 75.4% 17 24.6%	37 58.7% 26 41.3%	25 43.1% 33 56.9%	9 64.3% 5 35.7%	245 73.6% 88 26.4%	0.000
논이랑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63 92.6% 5 7.4%	54 87.1% 8 12.9%	56 81.2% 13 18.8%	53 82.8% 11 17.2%	42 65.6% 22 34.4%	11 68.8% 5 31.3%	279 81.3% 64 18.7%	0.002
맞잇다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47 81.0% 11 19.0%	27 50.9% 26 49.1%	35 56.5% 27 43.5%	34 58.6% 24 41.4%	29 51.8% 27 48.2%	11 73.3% 4 26.7%	183 60.6% 119 39.4%	0.008
비단잉어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64 97.0% 2 3.0%	54 87.1% 8 12.9%	58 81.7% 13 18.3%	50 74.6% 17 25.4%	44 68.8% 20 31.3%	9 56.3% 7 43.8%	279 80.6% 67 19.4%	0.000
산열매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27 39.7% 41 60.3%	12 20.0% 48 80.0%	16 23.2% 53 76.8%	10 15.2% 56 84.8%	9 14.1% 55 85.9%	2 12.5% 14 87.5%	76 22.2% 267 77.8%	0.004
산이마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55 80.9% 13 19.1%	48 81.4% 11 18.6%	56 82.4% 12 17.6%	42 65.6% 22 34.4%	37 62.7% 22 37.3%	6 40.0% 9 60.0%	244 73.3% 89 26.7%	0.001
설익다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47 70.1% 20 29.9%	39 66.1% 20 33.9%	42 61.8% 26 38.2%	28 43.1% 37 56.9%	25 40.3% 37 59.7%	5 35.7% 9 64.3%	186 55.5% 149 44.5%	0.001
솔이끼	연음 비율	65 95.6%	48 82.8%	46 66.7%	30 48.4%	25 41.0%	7 50.0%	221 66.6%	0.000

	ㄴ삽입	3	10	23	32	36	7	111	
	비율	4.4%	17.2%	33.3%	51.6%	59.0%	50.0%	33.4%	
안팎일	연음	15	22	33	39	32	9	150	0.000
	비율	23.4%	37.3%	52.4%	63.9%	57.1%	64.3%	47.3%	
	ㄴ삽입	49	37	30	22	24	5	167	
	비율	76.6%	62.7%	47.6%	36.1%	42.9%	35.7%	52.7%	
연잇다	연음	60	49	50	41	32	11	243	0.000
	비율	89.6%	79.0%	69.4%	61.2%	50.0%	68.8%	69.8%	
	ㄴ삽입	7	13	22	26	32	5	105	
	비율	10.4%	21.0%	30.6%	38.8%	50.0%	31.3%	30.2%	
옆잇기	연음	46	39	30	32	31	7	185	0.027
	비율	83.6%	78.0%	60.0%	64.0%	58.5%	70.0%	69.0%	
	ㄴ삽입	9	11	20	18	22	3	83	
	비율	16.4%	22.0%	40.0%	36.0%	41.5%	30.0%	31.0%	
음이름	연음	63	55	54	54	50	8	284	0.013
	비율	94.0%	91.7%	79.4%	85.7%	82.0%	61.5%	85.5%	
	ㄴ삽입	4	5	14	9	11	5	48	
	비율	6.0%	8.3%	20.6%	14.3%	18.0%	38.5%	14.5%	
차렵이불	연음	51	48	37	34	29	8	207	0.000
	비율	89.5%	87.3%	63.8%	57.6%	50.9%	53.3%	68.8%	
	ㄴ삽입	6	7	21	25	28	7	94	
	비율	10.5%	12.7%	36.2%	42.4%	49.1%	46.7%	31.2%	
첫이레	연음	41	30	25	32	24	6	158	0.000
	비율	83.7%	71.4%	46.3%	58.2%	46.2%	46.2%	59.6%	
	ㄴ삽입	8	12	29	23	28	7	107	
	비율	16.3%	28.6%	53.7%	41.8%	53.8%	53.8%	40.4%	
힘입다	연음	65	54	62	52	45	12	290	0.002
	비율	95.6%	87.1%	87.3%	78.8%	70.3%	75.0%	83.6%	
	ㄴ삽입	3	8	9	14	19	4	57	
	비율	4.4%	12.9%	12.7%	21.2%	29.7%	25.0%	16.4%	
몰이해	연음	48	28	37	19	20	5	157	0.000
	비율	71.6%	49.1%	54.4%	30.6%	34.5%	33.3%	48.0%	
	ㄴ삽입	19	29	31	43	38	10	170	
	비율	28.4%	50.9%	45.6%	69.4%	65.5%	66.7%	52.0%	
불이익	연음	20	10	9	2	1	5	47	0.000
	비율	29.9%	16.1%	12.5%	3.0%	1.6%	31.3%	13.5%	
	ㄴ삽입	47	52	63	64	63	11	400	
	비율	70.1%	83.9%	87.5%	97.0%	98.4%	68.8%	86.5%	
순이익	연음	59	54	48	42	31	7	241	0.000
	비율	89.4%	88.5%	71.6%	70.0%	54.4%	53.8%	74.4%	
	ㄴ삽입	7	7	19	18	26	6	83	
	비율	10.6%	11.5%	28.4%	30.0%	45.6%	46.2%	25.6%	
인간이별	연음	59	59	60	48	39	8	273	0.000
	비율	86.8%	95.2%	90.9%	85.7%	68.4%	61.5%	84.8%	
	ㄴ삽입	9	3	6	8	18	5	49	
	비율	13.2%	4.8%	9.1%	14.3%	31.6%	38.5%	15.2%	
공염불	연음	64	56	66	53	44	13	296	0.000
	비율	94.1%	91.8%	91.7%	79.1%	68.8%	81.3%	85.1%	
	ㄴ삽입	4	5	6	14	20	3	52	
	비율	5.9%	8.2%	8.3%	20.9%	31.3%	18.8%	14.9%	

늑막염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60 88.2% 8 11.8%	38 61.3% 24 38.7%	35 48.6% 37 51.4%	19 28.4% 48 71.6%	15 23.4% 49 76.6%	3 18.8% 13 81.3%	170 48.7% 179 51.3%	0.000
문학예술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8 11.9% 59 88.1%	7 11.9% 52 88.1%	15 22.1% 53 77.9%	27 45.8% 32 54.2%	28 50.0% 28 50.0%	8 57.1% 6 42.9%	93 28.8% 230 71,2%	0.000
즉석요리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14 20.6% 54 79.4%	5 8.2% 56 91.8%	16 22.5% 55 77.5%	24 38.1% 39 61.9%	29 48.3% 31 51.7%	5 35.7% 9 64.3%	93 27.6% 244 72.4%	0.000
한이레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50 78.1% 14 21.9%	46 76.7% 14 23.3%	41 58.6% 29 41.4%	31 47.7% 34 52.3%	30 48.4% 32 51.6%	6 40.0% 9 60.0%	204 60.7% 132 39.3%	0.000
불유쾌하다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20 29.9% 47 70.1%	10 16.1% 52 83.9%	9 12.5% 63 87.5%	2 3.0% 64 97.0%	1 1.6% 63 98.4%	5 31.3% 11 68.8%	47 13.5% 300 86.5%	0.000
불연속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60 90.9% 6 9.1%	41 66.1% 21 33.9%	43 60.6% 28 39.4%	40 60.6% 26 39.4%	39 62.9% 23 37.1%	10 62.5% 6 37.5%	233 67.9% 110 32.1%	0.001
정약용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37 54.4% 31 45.6%	39 62.9% 23 37.1%	42 58.3% 30 41.7%	34 50.7% 33 49.3%	20 31.3% 44 68.8%	6 37.5% 10 62.5%	178 51.0% 171 49.0%	0.005
일목요연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42 70.0% 18 30.0%	43 76.8% 13 23.2%	50 89.3% 6 10.7%	42 85.7% 7 14.3%	50 96.2% 2 3.8%	9 100.0% 0 0%	236 83.7% 46 16.4%	0.002
열일곱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48 76.2% 15 23.8%	45 75.0% 15 25.0%	30 45.5% 36 54.5%	17 27.9% 44 72.1%	14 23.7% 45 76.3%	4 26.7% 11 73.3%	158 48.8% 166 51.2%	0.000

(2) 제보자의 출생 시기와 ㄴ삽입 현상 변이형 실현 비율

어휘	변이형	1920 (9명)	1930 (40명)	1940 (69명)	1950 (79명)	1960 (55명)	1970 (84명)	1980 (13명)
끝말잇기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6 75.0% 2 25.0%	19 55.9% 15 44.1%	31 47.0% 35 53.0%	53 69.7% 23 30.3%	42 80.8% 10 19.2%	81 96.4% 3 3.6%	13 100.0% 0 0%
공업용수	연음 비율 ㄴ삽입 비율	3 33.3% 6 66.7%	15 40.5% 22 59.5%	24 38.7% 38 61.3%	20 27.0% 54 73.0%	7 14.0% 43 86.0%	16 20.0% 64 80.0%	5 38.5% 8 61.5%

논이랑	연음	6	27	50	60	46	77	13
	비율	66.7%	67.5%	74.6%	80.0%	83.6%	91.7%	100.0%
	ㄴ삽입	3	13	17	15	9	7	0
	비율	33.3%	32.5%	25.4%	20.0%	16.4%	8.3%	0%
맞잇다	연음	5	19	33	43	21	54	8
	비율	62.5%	51.4%	55.9%	65.2%	42.9%	73.0%	88.9%
	ㄴ삽입	3	18	26	23	28	20	1
	비율	37.5%	48.6%	44.1%	34.8%	57.1%	27.0%	11.1%
비단잉어	연음	5	30	46	64	46	77	11
	비율	55.6%	75.0%	66.7%	82.1%	83.6%	92.8%	91.7%
	ㄴ삽입	4	10	23	14	9	6	1
	비율	44.4%	25.0%	33.3%	17.9%	16.4%	7.2%	8.3%
산열매	연음	2	6	9	16	8	28	7
	비율	22.2%	15.0%	13.2%	21.1%	15.1%	33.3%	53.8%
	ㄴ삽입	7	34	59	60	45	56	6
	비율	77.8%	85.0%	86.8%	78.9%	84.9%	66.7%	46.2%
산이마	연음	4	19	44	57	40	72	8
	비율	50.0%	52.8%	67.7%	74.0%	80.0%	85.7%	61.5%
	ㄴ삽입	4	17	21	20	10	12	5
	비율	50.0%	47.2%	32.3%	26.0%	20.0%	14.3%	38.5%
설익다	연음	3	16	29	46	22	64	6
	비율	33.3%	44.4%	42.0%	62.2%	43.1%	77.1%	46.2%
	ㄴ삽입	6	20	40	28	29	19	7
	비율	66.7%	55.6%	58.0%	37.8%	56.9%	22.9%	53.8%
솔이끼	연음	3	18	29	48	32	78	13
	비율	42.9%	47.4%	43.3%	64.9%	65.3%	92.9%	100.0%
	ㄴ삽입	4	20	38	26	17	6	0
	비율	57.1%	52.6%	56.7%	35.1%	34.7%	7.1%	0%
안팎일	연음	3	21	40	38	22	22	4
	비율	42.9%	58.3%	64.5%	55.9%	43.1%	26.8%	36.4%
	ㄴ삽입	4	15	22	30	29	60	7
	비율	57.1%	41.7%	35.5%	44.1%	56.9%	73.2%	63.6%
연잇다	연음	6	22	41	51	39	73	11
	비율	66.7%	55.0%	59.4%	64.6%	70.9%	88.0%	84.6%
	ㄴ삽입	3	18	28	28	16	10	2
	비율	33.3%	45.0%	40.6%	35.4%	29.1%	12.0%	15.4%
옆잇기	연음	2	23	33	31	29	60	7
	비율	40.0%	67.6%	66.0%	55.4%	65.9%	85.7%	77.8%
	ㄴ삽입	3	11	17	25	15	10	2
	비율	60.0%	32.4%	34.0%	44.6%	34.1%	14.3%	22.2%
차렵이불	연음	2	25	27	38	40	66	9
	비율	25.0%	65.8%	45.0%	60.3%	81.6%	90.4%	90.0%
	ㄴ삽입	6	13	33	25	9	7	1
	비율	75.0%	34.2%	55.0%	39.7%	18.4%	9.6%	10.0%
첫이레	연음	3	19	25	32	22	50	7
	비율	50.0%	55.9%	44.6%	54.2%	55.0%	82.0%	77.8%
	ㄴ삽입	3	15	31	27	18	11	2
	비율	50.0%	44.1%	55.4%	45.8%	45.0%	18.0%	22.2%
힘입다	연음	6	29	53	65	46	78	13
	비율	66.7%	72.5%	76.8%	84.4%	83.6%	92.9%	100.0%

	ㄴ삽입	3	11	16	12	9	6	0
	비율	33.3%	27.5%	23.2%	15.6%	16.4%	7.1%	0%
몰이해	연음	3	12	19	36	21	58	8
	비율	37.5%	33.3%	28.4%	51.4%	42.0%	69.9%	61.5%
	ㄴ삽입	5	24	48	34	29	25	5
	비율	62.5%	66.7%	71.6%	48.6%	58.0%	30.1%	38.5%
불이익	연음	6	13	25	45	27	68	12
	비율	85.7%	34.2%	37.3%	57.0%	49.1%	81.9%	92.3%
	ㄴ삽입	1	25	42	34	28	15	1
	비율	14.3%	65.8%	62.7%	43.0%	50.9%	18.1%	7.7%
순이론	연음	3	17	27	44	26	50	11
	비율	42.9%	51.5%	45.8%	66.7%	56.5%	62.5%	91.7%
	ㄴ삽입	4	16	32	22	20	30	1
	비율	57.1%	48.5%	54.2%	33.3%	43.5%	37.5%	8.3%
순이익	연음	3	19	38	54	41	73	13
	비율	50.0%	55.9%	60.3%	74.0%	77.4%	89.0%	100.0%
	ㄴ삽입	3	15	25	19	12	9	0
	비율	50.0%	44.1%	39.7%	26.0%	22.6%	11.0%	0%
인간이별	연음	6	23	42	65	50	75	12
	비율	75.0%	69.7%	70.0%	92.9%	92.6%	89.3%	92.3%
	ㄴ삽입	2	10	18	5	4	9	1
	비율	25.0%	30.3%	30.0%	7.1%	7.4%	10.7%	7.7%
공염불	연음	9	25	51	70	51	79	11
	비율	100.0%	62.5%	73.9%	88.6%	92.7%	94.0%	84.6%
	ㄴ삽입	0	15	18	9	3	5	2
	비율	0%	37.5%	26.1%	11.4%	5.5%	6.0%	15.4%
늑막염	연음	3	9	17	28	34	68	11
	비율	33.3%	22.5%	24.6%	35.4%	61.8%	81.0%	84.6%
	ㄴ삽입	6	31	52	51	21	16	2
	비율	66.7%	77.5%	75.4%	64.6%	38.2%	19.0%	15.4%
문학예술	연음	4	18	33	20	7	7	4
	비율	44.4%	54.5%	55.0%	26.7%	13.7%	8.5%	30.8%
	ㄴ삽입	5	15	27	55	44	75	9
	비율	55.6%	45.5%	45.0%	73.3%	86.3%	91.5%	69.2%
즉석요리	연음	3	20	26	20	9	12	3
	비율	33.3%	55.6%	40.0%	26.3%	16.7%	14.3%	23.1%
	ㄴ삽입	6	16	39	56	45	72	10
	비율	66.7%	44.4%	60.0%	73.7%	83.3%	85.7%	76.9%
한이레	연음	3	17	32	46	33	62	11
	비율	37.5%	44.7%	47.1%	59.7%	63.5%	77.5%	84.6%
	ㄴ삽입	5	21	36	31	19	18	2
	비율	62.5%	55.3%	52.9%	40.3%	36.5%	22.5%	15.4%
불유쾌하다	연음	3	3	2	7	8	23	1
	비율	33.3%	7.5%	2.9%	9.0%	14.5%	27.7%	7.7%
	ㄴ삽입	6	37	67	71	47	60	12
	비율	66.7%	92.5%	97.1%	91.0%	85.5%	72.3%	92.3%
불연속	연음	7	25	43	48	26	73	11
	비율	77.8%	65.8%	62.3%	61.5%	48.1%	89.0%	84.6%
	ㄴ삽입	2	13	26	30	28	9	2
	비율	22.2%	34.2%	37.7%	38.5%	51.9%	11.0%	15.4%

정약용	연음	3	12	28	47	34	46	8
	비율	33.3%	30.0%	40.6%	59.5%	61.8%	54.8%	61.5%
	ㄴ삽입	6	28	41	32	21	38	5
	비율	66.7%	70.0%	59.4%	40.5%	38.2%	45.2%	38.5%
일목요연	연음	5	30	49	50	41	52	9
	비율	100.0%	96.8%	92.5%	84.7%	83.7%	72.2%	69.2%
	ㄴ삽입	0	1	4	9	8	20	4
	비율	0%	3.2%	7.5%	15.3%	16.3%	27.8%	30.8%
열일곱	연음	2	9	13	32	33	61	8
	비율	22.2%	25.0%	20.3%	45.1%	61.1%	79.2%	61.5%
	ㄴ삽입	7	27	51	39	21	16	5
	비율	77.8%	75.0%	79.7%	54.9%	38.9%	20.8%	38.5%
총연맹	연음	6	22	28	39	31	47	12
	비율	66.7%	55.0%	41.2%	52.0%	57.4%	56.6%	92.3%
	ㄴ삽입	3	18	40	36	23	36	1
	비율	33.3%	45.0%	58.8%	48.0%	42.6%	43.4%	7.7%

(3) 제보자의 세대와 ㄴ삽입 현상 변이형 실현 비율(결측제외)

어휘	세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율 (%)	유의 확률	표준 발음	고정형
끝말잇기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40	50.0	16.3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40	50.0	45.5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41	61.2	16.7			
		ㄴ삽입	26	38.8	29.5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53	76.8	21.6			
		ㄴ삽입	16	23.2	18.2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111	94.9	45.3			
		ㄴ삽입	6	5.1	6.8			
낯익다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35	44.9	21.5	0.021	ㄴ삽입	없음
		ㄴ삽입	43	55.1	31.6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28	46.7	17.2			
		ㄴ삽입	32	53.3	23.5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34	55.7	20.9			
		ㄴ삽입	27	44.3	19.9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66	66.0	40.5			
		ㄴ삽입	34	34.0	25.0			
논이랑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59	67.0	21.1	0.000	ㄴ삽입	연음
		ㄴ삽입	29	33.0	45.3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59	85.5	21.1			
		ㄴ삽입	10	14.5	15.6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54	78.3	19.4			
		ㄴ삽입	15	21.7	23.4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107	91.5	38.4			
		ㄴ삽입	10	8.5	15.6			

비단잉어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60	67.4	21.5	0.000	ㄴ삽입	연음
		ㄴ삽입	29	32.6	43.3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54	76.1	19.4			
		ㄴ삽입	17	23.9	25.4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59	83.1	21.1			
		ㄴ삽입	12	16.9	17.9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106	92.2	38.0			
		ㄴ삽입	9	7.8	13.4			
산열매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12	13.5	15.8	0.013	ㄴ삽입	없음
		ㄴ삽입	77	86.5	28.8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13	18.8	17.1			
		ㄴ삽입	56	81.2	21.0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14	20.3	18.4			
		ㄴ삽입	55	79.7	20.6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37	31.9	48.7			
		ㄴ삽입	79	68.1	29.6			
산이마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50	60.2	20.5	0.002	ㄴ삽입	없음
		ㄴ삽입	33	39.8	37.1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45	67.2	18.4			
		ㄴ삽입	22	32.8	24.7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53	79.1	21.7			
		ㄴ삽입	14	20.9	15.7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96	82.8	39.3			
		ㄴ삽입	20	17.2	22.5			
설익다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33	38.8	17.7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52	61.2	34.9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34	50.0	18.3			
		ㄴ삽입	34	50.0	22.8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39	57.4	21.0			
		ㄴ삽입	29	42.6	19.5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80	70.2	43.0			
		ㄴ삽입	34	29.8	22.8			
솔이끼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38	45.2	17.2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46	54.8	41.4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32	48.5	14.5			
		ㄴ삽입	34	51.5	30.6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45	68.2	20.4			
		ㄴ삽입	21	31.8	18.9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106	91.4	48.0			
		ㄴ삽입	10	8.6	9.0			
안팎일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46	58.2	30.7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33	41.8	19.8			
	한국전쟁(71명)	연음	41	65.1	27.3			

	(1945-1955)	ㄴ삽입	22	34.9	13.2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31	48.4	20.7			
		ㄴ삽입	33	51.6	19.8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32	28.8	21.3			
		ㄴ삽입	79	71.2	47.3			
연잇다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48	53.9	19.8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41	46.1	39.0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45	63.4	18.5			
		ㄴ삽입	26	36.6	24.8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49	68.1	20.2			
		ㄴ삽입	23	31.9	21.9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101	87.1	41.6			
		ㄴ삽입	15	12.9	14.3			
옆잇기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42	60.9	22.7	0.013	ㄴ삽입	없음
		ㄴ삽입	27	39.1	32.5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31	59.6	16.8			
		ㄴ삽입	21	40.4	25.3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35	67.3	18.9			
		ㄴ삽입	17	32.7	20.5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77	81.1	41.6			
		ㄴ삽입	18	18.9	21.7			
음이름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63	77.8	22.2	0.020	ㄴ삽입	연음
		ㄴ삽입	18	22.2	37.5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61	88.4	21.5			
		ㄴ삽입	8	11.6	16.7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54	80.6	19.0			
		ㄴ삽입	13	19.4	27.1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106	92.2	37.3			
		ㄴ삽입	9	7.8	18.8			
차렵이불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40	50.0	19.3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49	50.0	42.6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36	58.1	17.4			
		ㄴ삽입	26	41.9	27.7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42	71.2	20.3			
		ㄴ삽입	17	28.8	18.1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89	89.0	43.0			
		ㄴ삽입	11	11.0	11.7			
첫이레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33	45.2	20.9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40	54.8	37.4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34	58.6	21.5			
		ㄴ삽입	24	41.4	22.4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26	51.0	16.5			
		ㄴ삽입	25	49.0	23.4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65	78.3	41.1			
		ㄴ삽입	18	21.7	16.8			
힘입다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61	68.5	21.0	0.000	ㄴ삽입	연음
		ㄴ삽입	28	31.5	49.1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59	84.3	20.3			
		ㄴ삽입	11	15.7	19.3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63	88.7	21.7			
		ㄴ삽입	8	11.3	14.0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107	91.5	36.9			
		ㄴ삽입	10	8.5	17.5			
몰이해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26	31.7	16.6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56	68.3	32.9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25	38.5	15.9			
		ㄴ삽입	40	61.5	23.5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33	49.3	21.0			
		ㄴ삽입	34	50.7	20.0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73	64.6	46.5			
		ㄴ삽입	40	35.4	23.5			
불이익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32	38.1	16.3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52	61.9	35.6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31	44.3	15.8			
		ㄴ삽입	39	55.7	26.7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43	59.7	21.9			
		ㄴ삽입	29	40.3	19.9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90	77.6	17.8			
		ㄴ삽입	26	22.4	45.9			
순이론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33	43.4	18.5	0.018	ㄴ삽입	없음
		ㄴ삽입	43	56.6	34.4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35	61.4	19.7			
		ㄴ삽입	22	38.6	17.6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39	65.0	21.9			
		ㄴ삽입	21	35.0	16.8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71	64.5	39.9			
		ㄴ삽입	39	35.5	31.2			
순이익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44	56.4	18.3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34	43.6	41.0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45	71.4	18.7			
		ㄴ삽입	18	28.6	21.7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50	72.5	20.7			
		ㄴ삽입	19	27.5	22.9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102	89.5	42.3			
		ㄴ삽입	12	10.5	14.5			
인간이별	해방 이전(89명)	연음	50	65.8	18.3	0.000	ㄴ삽입	연음

	(1945년 이전)	ㄴ삽입	26	34.2	53.1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55	91.7	20.1			
		ㄴ삽입	5	8.3	10.2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63	91.3	23.1			
		ㄴ삽입	6	8.7	12.2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105	89.7	38.5			
		ㄴ삽입	12	10.3	24.5			
공염불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64	71.9	21.6	0.000	ㄴ삽입	연음
		ㄴ삽입	25	28.1	48.1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59	83.1	19.9			
		ㄴ삽입	12	16.9	23.1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65	90.3	22.0			
		ㄴ삽입	7	9.7	13.5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108	93.1	36.5			
		ㄴ삽입	8	6.9	15.4			
늑막염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21	23.6	12.4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68	76.4	38.0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19	26.8	11.2			
		ㄴ삽입	52	73.2	29.1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38	52.8	22.4			
		ㄴ삽입	34	47.2	19.0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92	78.6	54.1			
		ㄴ삽입	25	21.4	14.0			
문학예술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40	51.3	43.0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38	48.7	16.5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25	39.1	26.9			
		ㄴ삽입	39	60.9	17.0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15	22.4	16.1			
		ㄴ삽입	52	77.6	22.6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13	11.4	14.0			
		ㄴ삽입	101	88.6	43.9			
즉석요리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37	45.1	39.8	0.000	ㄴ삽입	없음
		ㄴ삽입	45	54.9	18.4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25	36.8	26.9			
		ㄴ삽입	43	63.2	17.6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12	16.9	12.9			
		ㄴ삽입	59	83.1	24.2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19	16.4	20.4			
		ㄴ삽입	97	83.6	39.8			
한이레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39	45.9	19.1	0.000	연음	없음
		ㄴ삽입	46	54.1	34.8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35	50.0	17.2			
		ㄴ삽입	35	50.0	26.5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42	60.9	20.6			
		ㄴ삽입	27	39.1	20.5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88	78.6	43.1			
		ㄴ삽입	24	21.4	18.2			
불유쾌하다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6	6.7	12.8	0.000	연음	ㄴ삽입
		ㄴ삽입	83	93.3	27.7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4	5.7	8.5			
		ㄴ삽입	66	94.3	22.0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9	12.5	19.1			
		ㄴ삽입	63	87.5	21.0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28	24.1	59.6			
		ㄴ삽입	88	75.9	29.3			
불연속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56	64.4	24.0	0.000	연음	없음
		ㄴ삽입	31	35.6	28.2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41	58.6	17.6			
		ㄴ삽입	29	41.4	26.4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40	56.3	17.2			
		ㄴ삽입	31	43.7	28.2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96	83.5	41.2			
		ㄴ삽입	19	16.5	17.3			
정약용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29	32.6	16.3	0.001	연음	없음
		ㄴ삽입	60	67.4	35.1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37	52.1	20.8			
		ㄴ삽입	34	47.9	19.9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44	61.1	24.7			
		ㄴ삽입	28	38.9	16.4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68	58.1	38.2			
		ㄴ삽입	49	41.9	28.7			
일목요연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65	95.6	27.5	0.001	연음	연음
		ㄴ삽입	3	4.4	6.5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45	86.5	19.1			
		ㄴ삽입	7	13.5	15.2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50	86.2	21.2			
		ㄴ삽입	8	13.8	17.4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76	73.1	32.2			
		ㄴ삽입	28	26.9	60.9			
열일곱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21	25.6	13.3	0.000	없음	없음
		ㄴ삽입	61	74.4	36.7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19	29.2	12.0			
		ㄴ삽입	46	70.8	27.7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34	50.7	21.5			
		ㄴ삽입	33	49.3	19.9			
	산업화(117명)	연음	84	76.4	53.2			

	(1966년 이후)	ㄴ삽입	26	23.6	15.7			
총연맹	해방 이전(89명) (1945년 이전)	연음	46	51.7	24.9	0.018	없음	없음
		ㄴ삽입	43	48.3	27.4			
	한국전쟁(71명) (1945-1955)	연음	27	39.1	14.6			
		ㄴ삽입	42	60.9	26.8			
	전후복구(72명) (1956-1965)	연음	43	63.2	23.2			
		ㄴ삽입	25	36.8	15.9			
	산업화(117명) (1966년 이후)	연음	69	59.5	37.3			
		ㄴ삽입	47	40.5	29.9			

(4) 제보자 거주지(도시별)와 ㄴ삽입 실현 교차표 ($P < .05$)

어휘	제보자 거주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율	유의 확률	표준 발음	고정적 변이형	비고
공업용수	서울	연음	59	33.5	65.6	0.004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117	66.5	49.8				
	경기	연음	14	17.9	15.6				
		ㄴ삽입	64	82.1	27.2				
	인천	연음	15	21.7	16.7				
		ㄴ삽입	54	78.3	23.0				
동성연애자	서울	연음	87	47.8	48.1	0.031	ㄴ삽입	없음	서울ㄴ삽입
		ㄴ삽입	95	52.2	57.6				
	경기	연음	42	51.2	23.2				
		ㄴ삽입	40	48.8	24.2				
	인천	연음	52	65.0	28.7				
		ㄴ삽입	28	35.0	17.0				
막일	서울	연음	97	52.7	27.2	0.008	ㄴ삽입	없음	인천 ㄴ삽입
		ㄴ삽입	87	47.3	20.6				
	경기	연음	47	56.6	56.1				
		ㄴ삽입	36	43.4	49.7				
	인천	연음	27	34.2	15.6				
		ㄴ삽입	52	65.8	29.7				
목양말	서울	연음	136	74.7	57.1	0.013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46	25.3	43.4				
	경기	연음	57	69.5	23.9				
		ㄴ삽입	25	30.5	30.5				
	인천	연음	43	55.1	18.1				
		ㄴ삽입	35	44.9	33.0				
몰이해	서울	연음	72	41.6	45.9	0.019	ㄴ삽입	없음	서울ㄴ삽입
		ㄴ삽입	101	58.4	59.4				
	경기	연음	41	51.3	26.1				
		ㄴ삽입	39	48.8	22.9				

	인천	연음	44	61.1	28.0				
		ㄴ삽입	28	38.9	16.5				
문학예술	서울	연음	61	34.7	65.6	0.004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115	65.3	50.0				
	경기	연음	13	17.1	14.0				
		ㄴ삽입	63	82.9	27.4				
	인천	연음	17	24.6	18.3				
		ㄴ삽입	52	75.4	22.6				
반영구적	서울	연음	49	27.2	43.0	0.014	ㄴ삽입	없음	서울ㄴ삽입
		ㄴ삽입	131	72.8	57.7				
	경기	연음	28	35.0	24.6				
		ㄴ삽입	52	65.0	22.9				
	인천	연음	37	46.8	32.5				
		ㄴ삽입	42	53.2	18.5				
불연속	서울	연음	140	77.3	20.2	0.001	연음	없음	인천ㄴ삽입
		ㄴ삽입	41	22.7	30.0				
	경기	연음	47	58.8	60.1				
		ㄴ삽입	33	41.3	37.3				
	인천	연음	44	55.0	18.9				
		ㄴ삽입	36	45.0	32.7				
새벽이슬	서울	연음	171	93.4	53.1	0.018	ㄴ삽입	연음	인천 ㄴ삽입
		ㄴ삽입	12	6.6	46.2				
	경기	연음	81	97.6	25.2				
		ㄴ삽입	2	2.4	7.7				
	인천	연음	68	85.0	21.1				
		ㄴ삽입	12	15.0	46.2				
얄팍얄팍	서울	연음	88	50.0	11.1	0.000	ㄴ삽입	연음	서울연음
		ㄴ삽입	88	50.0	28.0				
	경기	연음	23	20.6	69.8				
		ㄴ삽입	50	79.4	45.6				
	인천	연음	14	31.5	18.3				
		ㄴ삽입	54	68.5	25.9				
즉석요리	서울	연음	61	33.3	65.6	0.024	ㄴ삽입	연음	서울연음
		ㄴ삽입	122	66.7	50.0				
	경기	연음	12	15.4	12.9				
		ㄴ삽입	66	84.6	27.0				
	인천	연음	19	25.7	20.4				
		ㄴ삽입	55	74.3	22.5				
총연맹	서울	연음	107	59.1	57.8	0.004	없음	연음	서울연음
		ㄴ삽입	74	40.9	47.1				
	경기	연음	48	60.0	25.9				
		ㄴ삽입	32	40.0	20.4				
	인천	연음	30	38.0	16.2				

		ㄴ삽입	49	62.0	31.2				
큰일01	서울	연음	133	72.3	62.1	0.000	연음	연음	서울연음
		ㄴ삽입	51	27.7	38.1				
	경기	연음	48	57.8	22.4				
		ㄴ삽입	35	42.2	26.1				
	인천	연음	31	39.2	14.5				
		ㄴ삽입	48	60.8	35.8				
큰일02	서울	연음	86	47.5	62.8	0.006	ㄴ삽입	연음	서울연음
		ㄴ삽입	95	52.5	45.7				
	경기	연음	30	36.6	21.9				
		ㄴ삽입	52	63.4	25.0				
	인천	연음	21	26.3	15.3				
		ㄴ삽입	59	73.8	28.4				
한용운	서울	연음	80	43.7	60.2	0.023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103	56.3	47.9				
	경기	연음	21	25.3	15.8				
		ㄴ삽입	62	74.7	28.8				
	인천	연음	32	40.0	24.1				
		ㄴ삽입	48	60.0	22.3				

(5) 제보자 거주지(지역별)와 ㄴ삽입 실현 교차표 (P < .05)

어휘	제보자 거주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 비율(%)	유의 확률	표준 발음	고정적 변이형	비고
공업용수	서울	연음	59	33.5	65.6	0.011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117	66.5	49.8				
	서울제외	연음	31	20.8	34.4				
		ㄴ삽입	118	79.2	50.2				
목양말	서울	연음	136	74.7	57.1	0.018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46	25.3	43.4				
	서울제외	연음	102	63.0	42.9				
		ㄴ삽입	60	37.0	56.6				
몰이해	서울	연음	72	41.6	45.9	0.014	ㄴ삽입	없음	서울ㄴ삽입
		ㄴ삽입	101	58.4	59.4				
	서울제외	연음	85	55.2	54.1				
		ㄴ삽입	69	44.8	40.6				
문화예술	서울	연음	61	34.7	65.6	0.011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115	65.3	50.0				
	서울제외	연음	32	21.8	34.4				
		ㄴ삽입	115	78.2	50.0				
반영구적	서울	연음	49	27.2	43.0	0.010	ㄴ삽입	없음	서울ㄴ삽입
		ㄴ삽입	131	72.8	57.7				

	서울제외	연음	65	40.4	57.0				
		ㄴ삽입	96	59.6	42.3				
불연속	서울	연음	140	77.3	60.1	0.000	연음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41	22.7	37.3				
	서울제외	연음	93	57.4	39.9				
		ㄴ삽입	69	42.6	62.7				
불이익	서울	연음	118	63.1	60.2	0.017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69	36.9	47.3				
	서울제외	연음	78	50.3	39.8				
		ㄴ삽입	77	49.7	52.7				
산열매	서울	연음	50	27.3	65.8	0.014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133	72.7	49.8				
	서울제외	연음	26	16.3	34.2				
		ㄴ삽입	134	83.8	50.2				
얄팍얄팍	서울	연음	88	50.0	69.8	0.000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88	50.0	45.6				
	서울제외	연음	38	26.6	30.2				
		ㄴ삽입	105	73.4	54.4				
즉석요리	서울	연음	61	33.3	65.6	0.010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122	66.7	50.0				
	서울제외	연음	32	20.8	34.4				
		ㄴ삽입	122	79.2	50.0				
차렵이불	서울	연음	119	62.4	42.5	0.025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41	37.6	56.4				
	서울제외	연음	88	74.4	57.5				
		ㄴ삽입	53	25.6	43.6				
총연맹	서울	연음	107	59.1	57.8	0.048	없음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74	40.9	47.1				
	서울제외	연음	78	48.4	42.2				
		ㄴ삽입	83	51.6	52.9				
큰일01	서울	연음	133	72.3	62.1	0.000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51	27.7	38.1				
	서울제외	연음	81	49.4	37.9				
		ㄴ삽입	83	50.6	61.9				
큰일02	서울	연음	86	47.5	62.8	0.002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95	52.5	45.7				
	서울제외	연음	51	31.1	37.2				
		ㄴ삽입	113	68.9	54.3				
한용운	서울	연음	80	43.7	60.2	0.026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103	56.3	47.9				
	서울제외	연음	53	32.1	39.8				
		ㄴ삽입	112	67.9	52.1				
한이레	서울	연음	119	66.9	58.3	0.014	연음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59	33.1	44.7				
	서울제외	연음	85	53.8	41.7				
		ㄴ삽입	73	46.2	55.3				

(6) 제보자 출생지(도시별)와 ㄴ삽입 실현 교차표 (P < .05)

어휘	제보자 출생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율	유의 확률	표준 발음	고정적 변이형	비고
감언이설	서울	연음	176	92.6	58.7	0.001	ㄴ삽입	연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14	7.4	35.0				
	경기	연음	67	77.0	22.3				
		ㄴ삽입	20	23.0	50.0				
	인천	연음	57	90.5	19.0				
		ㄴ삽입	6	9.5	15.0				
공업용수	서울	연음	61	33.5	67.8	0.030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121	66.5	51.5				
	경기	연음	17	19.8	18.9				
		ㄴ삽입	69	80.2	29.4				
	인천	연음	12	21.1	13.3				
		ㄴ삽입	45	78.9	19.1				
근본이념	서울	연음	172	95.0	60.4	0.000	ㄴ삽입	연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9	5.0	33.3				
	경기	연음	56	76.7	19.6				
		ㄴ삽입	17	23.3	63.0				
	인천	연음	57	98.3	20.0				
		ㄴ삽입	1	1.7	3.7				
늑막염	서울	연음	102	53.1	18.2	0.005	ㄴ삽입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90	46.9	33.5				
	경기	연음	31	34.1	60.0				
		ㄴ삽입	60	65.9	50.3				
	인천	연음	37	56.1	21.8				
		ㄴ삽입	29	43.9	16.2				
목양말	서울	연음	143	75.3	60.1	0.017	ㄴ삽입	없음	인천 ㄴ삽입
		ㄴ삽입	47	24.7	44.3				
	경기	연음	58	64.4	24.4				
		ㄴ삽입	32	35.6	30.2				
	인천	연음	37	57.8	15.5				
		ㄴ삽입	27	42.2	25.5				
몰이해	서울	연음	87	47.5	55.4	0.018	ㄴ삽입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96	52.5	56.5				
	경기	연음	33	38.8	21.0				
		ㄴ삽입	52	61.2	30.6				
	인천	연음	37	62.7	23.6				
		ㄴ삽입	22	37.3	12.9				

반영구적	서울	연음	51	27.1	30.7	0.022	ㄴ삽입	없음	인천ㄴ삽입
		ㄴ삽입	137	72.9	23.3				
	경기	연음	35	39.8	44.7				
		ㄴ삽입	53	60.2	60.4				
	인천	연음	28	43.1	24.6				
		ㄴ삽입	37	56.9	16.3				
본임자	서울	연음	174	92.6	57.8	0.020	ㄴ삽입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14	7.4	38.9				
	경기	연음	70	81.4	23.3				
		ㄴ삽입	16	18.6	44.4				
	인천	연음	57	90.5	18.9				
		ㄴ삽입	6	9.5	16.7				
불연속	서울	연음	143	75.7	22.3	0.003	연음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46	24.3	32.7				
	경기	연음	52	59.1	61.4				
		ㄴ삽입	36	40.9	41.8				
	인천	연음	38	57.6	16.3				
		ㄴ삽입	28	42.4	25.5				
불이익	서울	연음	118	63.1	60.2	0.010	ㄴ삽입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69	36.9	47.3				
	경기	연음	40	44.0	20.4				
		ㄴ삽입	51	56.0	34.9				
	인천	연음	38	59.4	19.4				
		ㄴ삽입	26	40.6	17.8				
비단잉어	서울	연음	161	84.7	57.7	0.026	ㄴ삽입	연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29	15.3	43.3				
	경기	연음	64	71.1	22.9				
		ㄴ삽입	26	28.9	38.8				
	인천	연음	54	81.8	19.4				
		ㄴ삽입	12	18.2	17.9				
산열매	서울	연음	52	27.1	14.5	0.025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140	72.9	28.5				
	경기	연음	11	12.6	68.4				
		ㄴ삽입	76	87.4	52.4				
	인천	연음	13	20.3	17.1				
		ㄴ삽입	51	79.7	19.1				
산이마	서울	연음	150	80.6	61.5	0.003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36	19.4	40.4				
	경기	연음	54	62.8	22.1				
		ㄴ삽입	32	37.2	36.0				
	인천	연음	40	65.6	16.4				
		ㄴ삽입	21	34.4	23.6				
생이별	서울	연음	155	81.2	59.6	0.012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36	18.8	41.4				
	경기	연음	61	67.8	23.5				

		ㄴ삽입	29	32.2	33.3				
	인천	연음	44	66.7	16.9				
		ㄴ삽입	22	33.3	25.3				
선이자	서울	연음	168	87.5	58.3	0.013	ㄴ삽입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24	12.5	40.7				
	경기	연음	66	73.3	22.9				
		ㄴ삽입	24	26.7	40.7				
	인천	연음	54	83.1	18.8				
		ㄴ삽입	11	16.9	18.6				
솔이끼	서울	연음	133	71.5	60.2	0.017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53	28.5	47.7				
	경기	연음	46	54.1	20.8				
		ㄴ삽입	39	45.9	35.1				
	인천	연음	42	68.9	19.0				
		ㄴ삽입	19	31.1	17.1				
순이론	서울	연음	116	66.7	65.2	0.001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58	33.3	46.4				
	경기	연음	31	41.9	17.4				
		ㄴ삽입	43	58.1	34.4				
	인천	연음	31	56.4	17.4				
		ㄴ삽입	24	43.6	19.2				
순이익	서울	연음	145	78.8	60.2	0.004	ㄴ삽입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39	21.2	47.0				
	경기	연음	49	60.5	20.3				
		ㄴ삽입	32	39.5	38.6				
	인천	연음	47	79.7	19.5				
		ㄴ삽입	12	20.3	14.5				
얄팍얄팍	서울	연음	84	46.2	22.2	0.012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98	53.8	28.0				
	경기	연음	28	34.1	66.7				
		ㄴ삽입	54	65.9	50.8				
	인천	연음	14	25.5	11.1				
		ㄴ삽입	41	74.5	21.2				
연잇다	서울	연음	146	76.4	60.1	0.011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45	23.6	42.9				
	경기	연음	55	60.4	22.6				
		ㄴ삽입	36	39.6	34.3				
	인천	연음	42	63.6	17.3				
		ㄴ삽입	24	36.4	22.9				
열일곱	서울	연음	101	55.2	63.9	0.019	없음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82	44.8	49.4				
	경기	연음	29	36.7	18.4				
		ㄴ삽입	50	63.3	30.1				
	인천	연음	28	45.2	17.7				
		ㄴ삽입	34	54.8	20.5				

음이름	서울	연음	168	89.4	59.2	0.034	ㄴ삽입	연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20	10.6	41.7				
	경기	연음	65	77.4	22.9				
		ㄴ삽입	19	22.6	39.6				
	인천	연음	51	85.0	18.0				
		ㄴ삽입	9	15.0	18.8				
인간이별	서울	연음	158	85.4	57.9	0.007	ㄴ삽입	연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27	14.6	55.1				
	경기	연음	59	75.6	21.6				
		ㄴ삽입	19	24.4	38.8				
	인천	연음	56	94.9	20.5				
		ㄴ삽입	3	5.1	6.1				
일목요연	서울	연음	154	88.5	65.3	0.016	연음	연음	서울 연음
		ㄴ삽입	20	11.5	43.5				
	경기	연음	50	78.1	21.2				
		ㄴ삽입	14	21.9	30.4				
	인천	연음	32	72.7	13.6				
		ㄴ삽입	12	27.3	26.1				
큰일01	서울	연음	138	71.9	64.5	0.000	연음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54	28.1	40.3				
	경기	연음	47	51.6	22.0				
		ㄴ삽입	44	48.4	32.8				
	인천	연음	29	44.6	13.6				
		ㄴ삽입	36	55.4	26.9				
한용운	서울	연음	86	44.8	64.7	0.019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106	55.2	49.3				
	경기	연음	28	31.1	21.1				
		ㄴ삽입	62	68.9	28.8				
	인천	연음	19	28.8	14.3				
		ㄴ삽입	47	71.2	21.9				
한이레	서울	연음	129	69.7	63.2	0.000	연음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56	30.3	42.4				
	경기	연음	39	45.3	19.1				
		ㄴ삽입	47	54.7	35.6				
	인천	연음	36	55.4	17.6				
		ㄴ삽입	29	44.6	22.0				

(7) 제보자 출생지(지역별)와 ㄴ삽입 실현 교차표 (P < .05)

어휘	제보자 출생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 비율(%)	유의 확률	표준 발음	고정적 변이형	비고
감언이설	서울	연음	176	92.6	58.7	0.005	ㄴ삽입	연음	서울연음
		ㄴ삽입	14	7.4	35.0				
	서울제외	연음	124	82.7	41.3				

		ㄴ삽입	26	17.3	65.0				
공업용수	서울	연음	61	33.5	67.8	0.008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121	66.5	51.5				
	서울제외	연음	29	20.3	32.2				
		ㄴ삽입	114	79.7	48.5				
근본이념	서울	연음	172	95.0	60.4	0.007	ㄴ삽입	연음	서울연음
		ㄴ삽입	9	5.0	33.3				
	서울제외	연음	113	86.3	39.6				
		ㄴ삽입	18	13.7	66.7				
동성연애자	서울	연음	89	46.6	49.2	0.018	ㄴ삽입	없음	서울ㄴ삽입
		ㄴ삽입	102	53.4	61.8				
	서울제외	연음	92	59.4	50.8				
		ㄴ삽입	63	40.6	38.2				
목양말	서울	연음	143	75.3	60.1	0.007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47	24.7	44.3				
	서울제외	연음	95	61.7	39.9				
		ㄴ삽입	59	38.3	55.7				
반영구적	서울	연음	51	27.1	44.7	0.006	ㄴ삽입	없음	서울ㄴ삽입
		ㄴ삽입	137	72.9	60.4				
	서울제외	연음	63	41.2	55.3				
		ㄴ삽입	90	58.8	39.6				
본임자	서울	연음	174	92.6	57.8	0.031	ㄴ삽입	연음	서울연음
		ㄴ삽입	14	7.4	38.9				
	서울제외	연음	127	85.2	42.2				
		ㄴ삽입	22	14.8	61.1				
불연속	서울	연음	143	75.7	61.4	0.001	연음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46	24.3	41.8				
	서울제외	연음	90	58.4	38.6				
		ㄴ삽입	64	41.6	58.2				
산열매	서울	연음	52	27.1	68.4	0.013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140	72.9	52.4				
	서울제외	연음	24	15.9	31.6				
		ㄴ삽입	127	84.1	47.6				
산이마	서울	연음	150	80.6	61.5	0.001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36	19.4	40.4				
	서울제외	연음	94	63.9	38.5				
		ㄴ삽입	53	36.1	59.6				
생이별	서울	연음	155	81.2	59.6	0.003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36	18.8	41.4				
	서울제외	연음	105	67.3	40.4				
		ㄴ삽입	51	32.7	58.6				
선이자	서울	연음	168	87.5	58.3	0.013	ㄴ삽입	연음	서울연음
		ㄴ삽입	24	12.5	40.7				

	서울제외	연음	120	77.4	41.7				
		ㄴ삽입	35	22.6	59.3				
설익다	서울	연음	113	61.4	60.8	0.017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71	38.6	47.7				
	서울제외	연음	73	48.3	39.2				
		ㄴ삽입	78	51.7	52.3				
솔이끼	서울	연음	133	71.5	60.2	0.031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53	28.5	47.7				
	서울제외	연음	88	60.3	39.8				
		ㄴ삽입	58	39.7	52.3				
순이론	서울	연음	116	66.7	65.2	0.001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58	33.3	46.4				
	서울제외	연음	62	48.1	34.8				
		ㄴ삽입	67	51.9	53.6				
순이익	서울	연음	145	78.8	60.2	0.037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39	21.2	47.0				
	서울제외	연음	96	68.6	39.8				
		ㄴ삽입	44	31.4	53.0				
얄팍얄팍	서울	연음	84	46.2	66.7	0.005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98	53.8	50.8				
	서울제외	연음	42	30.7	33.3				
		ㄴ삽입	95	69.3	49.2				
연잇다	서울	연음	146	76.4	60.1	0.003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45	23.6	42.9				
	서울제외	연음	97	61.8	39.9				
		ㄴ삽입	60	38.2	57.1				
열일곱	서울	연음	101	55.2	63.9	0.008	없음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82	44.8	49.4				
	서울제외	연음	57	40.4	36.1				
		ㄴ삽입	84	59.6	50.6				
옆잇기	서울	연음	105	75.5	56.8	0.017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34	24.5	41.0				
	서울제외	연음	80	62.0	43.2				
		ㄴ삽입	49	38.0	59.0				
음이름	서울	연음	168	89.4	59.2	0.024	ㄴ삽입	연음	서울연음
		ㄴ삽입	20	10.6	41.7				
	서울제외	연음	116	80.6	40.8				
		ㄴ삽입	28	19.4	58.3				
일목요연	서울	연음	154	88.5	65.3	0.005	연음	연음	서울연음
		ㄴ삽입	20	11.5	43.5				
	서울제외	연음	82	75.9	34.7				
		ㄴ삽입	26	24.1	56.5				
차렵이불	서울	연음	122	73.9	58.9	0.033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43	26.1	45.7				
	서울제외	연음	85	62.5	41.1				
		ㄴ삽입	51	37.5	54.3				
큰일01	서울	연음	138	71.9	64.5	0.000	연음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54	28.1	40.3				
	서울제외	연음	76	48.7	35.5				
		ㄴ삽입	80	51.3	59.7				
한용운	서울	연음	86	44.8	64.7	0.005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106	55.2	49.3				
	서울제외	연음	47	30.1	35.3				
		ㄴ삽입	109	69.9	50.7				
한이레	서울	연음	129	69.7	63.2	0.000	연음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56	30.3	42.4				
	서울제외	연음	75	49.7	36.8				
		ㄴ삽입	76	50.3	57.6				

(5) 제보자의 부계 선대 거주지(도시별)와 ㄴ삽입 실현 교차표 (P < .05)

어휘	부계 거주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 비율(%)	유의 확률	표준 발음	다수 변이 형	비고
감언이설	서울	연음	152	92.7	50.7	0.004	ㄴ삽입	연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12	7.3	30.0				
	경기	연음	93	79.5	31.0				
		ㄴ삽입	24	20.5	60.0				
	인천	연음	454	93.1	18.0				
		ㄴ삽입	4	6.9	10.0				
근본이념	서울	연음	149	95.5	52.3	0.017	ㄴ삽입	연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7	4.5	25.9				
	경기	연음	85	84.2	29.8				
		ㄴ삽입	16	15.8	59.3				
	인천	연음	50	92.6	17.5				
		ㄴ삽입	4	7.4	14.8				
동성연애자	서울	연음	74	44.8	40.9	0.036	ㄴ삽입	없음	서울 ㄴ삽입
		ㄴ삽입	91	55.2	55.2				
	경기	연음	71	58.7	39.2				
		ㄴ삽입	50	41.3	30.3				
	인천	연음	36	61.0	19.9				
		ㄴ삽입	23	39.0	13.9				
몰이해	서울	연음	72	44.7	45.9	0.004	ㄴ삽입	없음	인천 연음
		ㄴ삽입	89	55.3	52.4				
	경기	연음	47	42.0	29.9				
		ㄴ삽입	65	58.0	38.2				

	인천	연음	37	69.8	23.6				
		ㄴ삽입	16	30.2	9.4				
반영구적	서울	연음	41	25.2	36.0	0.003	ㄴ삽입	없음	서울 ㄴ삽입
		ㄴ삽입	122	74.8	53.7				
	경기	연음	44	36.7	38.6				
		ㄴ삽입	76	63.3	33.5				
	인천	연음	29	50.9	25.4				
		ㄴ삽입	28	49.1	12.3				
불연속	서울	연음	124	75.2	53.2	0.017	연음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41	24.8	37.3				
	경기	연음	76	64.4	32.6				
		ㄴ삽입	42	35.6	38.2				
	인천	연음	32	54.2	13.7				
		ㄴ삽입	27	45.8	24.5				
순이론	서울	연음	99	65.6	55.6	0.016	ㄴ삽입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52	34.4	41.6				
	경기	연음	47	47.0	26.4				
		ㄴ삽입	53	53.0	42.4				
	인천	연음	32	62.7	18.0				
		ㄴ삽입	19	37.3	15.2				
순이익	서울	연음	129	81.1	53.5	0.001	ㄴ삽입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30	18.9	36.1				
	경기	연음	68	61.3	28.2				
		ㄴ삽입	43	38.7	51.8				
	인천	연음	43	81.1	17.8				
		ㄴ삽입	10	18.9	12.0				
얄팍얄팍	서울	연음	75	47.8	59.5	0.011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82	52.2	42.5				
	경기	연음	39	35.1	31.0				
		ㄴ삽입	72	64.9	37.3				
	인천	연음	12	24.0	9.5				
		ㄴ삽입	38	76.0	19.7				
연잇다	서울	연음	129	78.2	53.1	0.010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36	21.8	34.3				
	경기	연음	75	61.0	30.9				
		ㄴ삽입	48	39.0	45.7				
	인천	연음	38	64.4	15.6				
		ㄴ삽입	21	35.6	20.0				
일목요연	서울	연음	136	90.1	57.6	0.014	연음	연음	서울 연음
		ㄴ삽입	15	9.9	32.6				
	경기	연음	70	77.8	29.7				
		ㄴ삽입	20	22.2	43.5				
	인천	연음	29	72.5	12.3				

		ㄴ삽입	11	27.5	23.9				
큰일01	서울	연음	123	74.1	57.5	0.000	연음	없음	인천 ㄴ삽입
		ㄴ삽입	43	25.9	32.1				
	경기	연음	63	51.2	29.4				
		ㄴ삽입	60	48.8	44.8				
	인천	연음	27	46.6	12.6				
		ㄴ삽입	31	53.4	23.1				
큰일02	서울	연음	79	48.2	57.7	0.007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85	51.8	40.9				
	경기	연음	44	36.1	32.1				
		ㄴ삽입	78	63.9	37.5				
	인천	연음	14	24.1	10.2				
		ㄴ삽입	44	75.9	21.2				
한이레	서울	연음	111	68.5	54.4	0.015	연음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51	31.5	38.6				
	경기	연음	58	50.0	28.4				
		ㄴ삽입	58	50.0	43.9				
	인천	연음	34	59.6	16.7				
		ㄴ삽입	23	40.4	17.4				

(8) 제보자의 부계 선대 거주지(지역별)와 ㄴ삽입 변이형 교차표

어휘	부계 거주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 비율(%)	유의 확률	표준 발음	다수 변이 형	비고
감언이설	서울	연음	152	92.7	50.7	0.014	ㄴ삽입	연음	서울 연음
		ㄴ삽입	12	7.3	30.0				
	서울제외	연음	148	84.1	49.3				
		ㄴ삽입	28	15.9	70.0				
공업용수	서울	연음	55	34.4	61.1	0.008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105	65.6	44.7				
	서울제외	연음	35	21.2	38.9				
		ㄴ삽입	130	78.8	55.3				
공염불	서울	연음	134	80.7	45.3	0.030	ㄴ삽입	연음	서울 ㄴ삽입
		ㄴ삽입	32	19.3	61.5				
	서울제외	연음	162	89.0	54.7				
		ㄴ삽입	20	11.0	38.5				
근본이념	서울	연음	149	95.5	52.3	0.009	ㄴ삽입	연음	서울 연음
		ㄴ삽입	7	4.5	25.9				
	서울제외	연음	136	87.2	47.7				
		ㄴ삽입	20	12.8	74.1				
동성연애자	서울	연음	74	44.8	40.9	0.008	ㄴ삽입	없음	서울 ㄴ삽입
		ㄴ삽입	91	55.2	55.2				

	서울제외	연음	107	59.1	59.1				
		ㄴ삽입	74	40.9	44.8				
반영구적	서울	연음	41	25.2	36.0	0.002	ㄴ삽입	없음	서울 ㄴ삽입
		ㄴ삽입	122	74.8	53.7				
	서울제외	연음	73	41.0	64.0				
		ㄴ삽입	105	59.0	46.3				
본임자	서울	연음	151	93.2	50.2	0.026	ㄴ삽입	연음	서울 연음
		ㄴ삽입	11	6.8	30.6				
	서울제외	연음	150	85.7	49.8				
		ㄴ삽입	25	14.3	69.4				
불연속	서울	연음	124	75.2	53.2	0.006	연음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41	24.8	37.3				
	서울제외	연음	109	61.2	46.8				
		ㄴ삽입	69	38.8	62.7				
산이마	서울	연음	126	68.2	48.4	0.030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35	31.8	61.8				
	서울제외	연음	118	78.8	51.6				
		ㄴ삽입	55	21.3	38.2				
선이자	서울	연음	146	88.0	50.7	0.019	ㄴ삽입	연음	서울연음
		ㄴ삽입	20	12.0	33.9				
	서울제외	연음	142	78.5	49.3				
		ㄴ삽입	39	21.5	66.1				
순이론	서울	연음	99	65.6	55.6	0.016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52	34.4	41.6				
	서울제외	연음	79	52.0	44.4				
		ㄴ삽입	73	48.0	58.4				
순이익	서울	연음	129	81.1	53.5	0.006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30	18.9	36.1				
	서울제외	연음	112	67.9	46.5				
		ㄴ삽입	53	32.1	63.9				
얄팍얄팍	서울	연음	75	47.8	59.5	0.003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82	52.2	42.5				
	서울제외	연음	51	31.5	40.5				
		ㄴ삽입	111	68.5	57.5				
연잇다	서울	연음	129	78.2	53.1	0.001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36	21.8	34.3				
	서울제외	연음	114	62.3	46.9				
		ㄴ삽입	69	37.7	65.7				
엿잇기	서울	연음	93	75.6	50.3	0.032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30	24.4	36.1				
	서울제외	연음	92	63.4	49.7				
		ㄴ삽입	53	36.6	63.9				
일목요연	서울	연음	136	90.1	57.6	0.002	연음	연음	서울 연음

		ㄴ삽입	15	9.9	32.6				
	서울제외	연음	100	76.3	42.4				
		ㄴ삽입	31	23.7	67.4				
차렵이불	서울	연음	109	74.7	52.7	0.032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37	25.3	39.4				
	서울제외	연음	98	63.2	47.3				
		ㄴ삽입	57	36.8	60.6				
첫인상	서울	연음	115	98.3	44.6	0.005	연음	연음	서울 연음
		ㄴ삽입	2	1.7	11.1				
	서울제외	연음	143	89.9	55.4				
		ㄴ삽입	16	10.1	88.9				
큰일01	서울	연음	123	74.1	57.5	0.000	연음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43	25.9	32.1				
	서울제외	연음	91	50.0	42.5				
		ㄴ삽입	91	50.0	67.9				
큰일02	서울	연음	79	48.2	57.7	0.002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85	51.8	40.9				
	서울제외	연음	58	32.0	42.3				
		ㄴ삽입	123	68.0	59.1				
한이레	서울	연음	111	68.5	54.4	0.005	연음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51	31.5	38.6				
	서울제외	연음	93	53.4	45.6				
		ㄴ삽입	81	46.6	61.4				

(9) 제보자의 모계 선대 거주지(도시별)와 ㄴ삽입 변이형 교차표

어휘	모계 거주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 비율(%)	유의 확률	표준 발음	다수 변이 형	비고
감언이설	서울	연음	147	93.6	49.0	0.000	ㄴ삽입	연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10	6.4	25.0				
	경기	연음	92	78.6	30.7				
		ㄴ삽입	25	21.4	62.5				
	인천	연음	55	94.8	18.3				
		ㄴ삽입	3	5.2	7.5				
공업용수	서울	연음	55	36.4	61.1	0.010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96	63.6	40.9				
	경기	연음	24	21.1	26.7				
		ㄴ삽입	90	78.9	38.3				
	인천	연음	9	17.0	10.0				
		ㄴ삽입	44	83.0	18.7				

근본이념	서울	연음	143	96.0	50.2	0.007	ㄴ삽입	연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6	4.0	22.2				
	경기	연음	89	85.6	31.2				
		ㄴ삽입	15	14.4	55.6				
	인천	연음	48	92.3	16.8				
		ㄴ삽입	4	7.7	14.8				
늑막염	서울	연음	75	47.2	44.1	0.003	ㄴ삽입	없음	인천 연음
		ㄴ삽입	84	52.8	46.9				
	경기	연음	50	40.7	29.4				
		ㄴ삽입	73	59.3	40.8				
	인천	연음	38	64.4	22.4				
		ㄴ삽입	21	35.6	11.7				
동성연애자	서울	연음	72	45.3	39.8	0.020	ㄴ삽입	없음	서울 ㄴ삽입
		ㄴ삽입	87	54.7	52.7				
	경기	연음	70	58.3	38.7				
		ㄴ삽입	50	41.7	30.3				
	인천	연음	37	62.7	20.4				
		ㄴ삽입	22	37.3	13.3				
막일	서울	연음	85	53.5	49.1	0.010	ㄴ삽입	없음	인천 ㄴ삽입
		ㄴ삽입	74	46.5	42.3				
	경기	연음	64	52.0	37.0				
		ㄴ삽입	59	48.0	33.7				
	인천	연음	18	31.0	10.4				
		ㄴ삽입	40	69.0	22.9				
몰이해	서울	연음	72	44.7	45.9	0.004	ㄴ삽입	없음	인천 연음
		ㄴ삽입	89	55.3	52.4				
	경기	연음	47	42.0	29.9				
		ㄴ삽입	65	58.0	38.2				
	인천	연음	37	69.8	23.6				
		ㄴ삽입	16	30.2	9.4				
반영구적	서울	연음	38	24.5	33.3	0.003	ㄴ삽입	없음	서울 ㄴ삽입
		ㄴ삽입	117	75.5	51.5				
	경기	연음	43	35.8	37.7				
		ㄴ삽입	77	64.2	33.9				
	인천	연음	29	50.0	25.4				
		ㄴ삽입	29	50.0	12.8				
불연속	서울	연음	121	76.6	51.9	0.018	연음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37	23.4	33.6				
	경기	연음	72	60.5	30.9				
		ㄴ삽입	47	39.5	42.7				
	인천	연음	35	60.3	15.0				
		ㄴ삽입	23	39.7	20.9				
산열매	서울	연음	44	27.7	57.9	0.005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115	72.3	43.1				
	경기	연음	15	12.6	19.7				
		ㄴ삽입	104	87.4	39.0				
	인천	연음	13	22.8	17.1				
		ㄴ삽입	44	77.2	16.5				
선이자	서울	연음	143	89.9	49.7	0.011	ㄴ삽입	연음	서울 연음
		ㄴ삽입	16	10.1	27.1				
	경기	연음	92	75.4	31.9				
		ㄴ삽입	30	24.6	50.8				
	인천	연음	46	79.3	16.0				
		ㄴ삽입	12	20.7	20.3				
설익다	서울	연음	93	61.6	50.0	0.033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58	38.4	38.9				
	경기	연음	59	49.2	31.7				
		ㄴ삽입	61	50.8	40.9				
	인천	연음	27	48.2	14.5				
		ㄴ삽입	29	51.8	19.5				
솔이끼	서울	연음	108	70.1	48.9	0.035	ㄴ삽입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46	29.9	41.4				
	경기	연음	67	58.3	30.3				
		ㄴ삽입	48	41.7	43.2				
	인천	연음	38	69.1	17.2				
		ㄴ삽입	17	30.9	15.3				
순이론	서울	연음	100	69.0	56.2	0.000	ㄴ삽입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45	31.0	36.0				
	경기	연음	41	41.0	23.0				
		ㄴ삽입	59	59.0	47.2				
	인천	연음	32	62.7	18.0				
		ㄴ삽입	19	37.3	15.2				
순이익	서울	연음	122	80.3	50.6	0.007	ㄴ삽입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30	19.7	36.1				
	경기	연음	69	62.7	28.6				
		ㄴ삽입	41	37.3	49.4				
	인천	연음	43	79.6	17.8				
		ㄴ삽입	11	20.4	13.3				
얄팍얄팍	서울	연음	70	47.0	55.6	0.003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79	53.0	40.9				
	경기	연음	37	33.3	29.4				
		ㄴ삽입	74	66.7	38.3				
	인천	연음	13	25.5	10.3				
		ㄴ삽입	38	74.5	19.7				
일목요연	서울	연음	129	89.0	54.7	0.008	연음	연음	인천 ㄴ삽입
		ㄴ삽입	16	11.0	34.8				

	경기	연음	70	80.5	29.7				
		ㄴ삽입	17	19.5	37.0				
	인천	연음	29	69.0	12.3				
		ㄴ삽입	13	31.0	28.3				
차렵이불	서울	연음	106	75.2	51.2	0.004	ㄴ삽입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35	24.8	37.2				
	경기	연음	58	56.3	28.0				
		ㄴ삽입	45	43.7	47.9				
	인천	연음	36	72.0	17.4				
		ㄴ삽입	14	28.0	14.9				
첫이레	서울	연음	75	65.8	47.5	0.001	ㄴ삽입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39	34.2	36.4				
	경기	연음	44	44.4	27.8				
		ㄴ삽입	55	55.6	51.4				
	인천	연음	33	73.3	20.9				
		ㄴ삽입	12	26.7	11.2				
큰일01	서울	연음	114	71.7	53.3	0.001	연음	없음	인천 ㄴ삽입
		ㄴ삽입	45	28.3	33.6				
	경기	연음	67	54.5	31.3				
		ㄴ삽입	56	45.5	41.8				
	인천	연음	27	46.6	12.6				
		ㄴ삽입	31	53.4	23.1				
한이레	서울	연음	107	69.0	52.5	0.006	연음	없음	경기 ㄴ삽입
		ㄴ삽입	48	31.0	36.4				
	경기	연음	56	48.3	27.5				
		ㄴ삽입	60	51.7	45.5				
	인천	연음	36	62.1	17.6				
		ㄴ삽입	22	37.9	16.7				

(10) 제보자의 모계 선대 거주지(지역별)와 ㄴ삽입 변이형 교차표

어휘	모계 거주지	변이형	제보자 (명)	제보자 비율 (%)	변이형 실현 비율(%)	유의 확률	표준 발음	다수 형	메모
감언이설	서울	연음	147	93.6	49.0	0.004	ㄴ삽입	연음	서울 연음
		ㄴ삽입	10	6.4	25.0				
	서울제외	연음	153	83.6	51.0				
		ㄴ삽입	30	16.4	75.0				
공업용수	서울	연음	55	36.4	61.1	0.001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96	63.6	40.9				
	서울제외	연음	35	20.1	38.9				
		ㄴ삽입	139	79.9	59.1				
공염불	서울	연음	128	80.5	43.2	0.029	ㄴ삽입	연음	서울 ㄴ삽입

		ㄴ삽입	31	19.5	59.6				
	서울제외	연음	168	88.9	56.8				
		ㄴ삽입	21	11.1	40.4				
근본이념	서울	연음	143	96.0	50.2	0.005	ㄴ삽입	연음	서울 연음
		ㄴ삽입	6	4.0	22.2				
	서울제외	연음	142	87.1	49.8				
		ㄴ삽입	21	12.9	77.8				
동성연애자	서울	연음	72	45.3	39.8	0.016	ㄴ삽입	없음	서울ㄴ삽입
		ㄴ삽입	87	54.7	52.7				
	서울제외	연음	109	58.3	60.2				
		ㄴ삽입	78	41.7	47.3				
반영구적	서울	연음	38	24.5	33.3	0.001	ㄴ삽입	없음	서울 ㄴ삽입
		ㄴ삽입	117	75.5	51.5				
	서울제외	연음	76	40.9	66.7				
		ㄴ삽입	110	59.1	48.5				
불연속	서울	연음	121	76.6	51.9	0.002	연음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37	23.4	33.6				
	서울제외	연음	112	60.5	48.1				
		ㄴ삽입	73	39.5	66.4				
산열매	서울	연음	44	27.7	57.9	0.022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115	72.3	43.1				
	서울제외	연음	32	17.4	42.1				
		ㄴ삽입	152	82.6	56.9				
생이별	서울	연음	127	80.4	48.8	0.032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31	19.6	35.6				
	서울제외	연음	133	70.4	51.2				
		ㄴ삽입	56	29.6	64.4				
선이자	서울	연음	143	89.9	49.7	0.002	ㄴ삽입	없음	서울연음
		ㄴ삽입	16	10.1	27.1				
	서울제외	연음	145	77.1	50.3				
		ㄴ삽입	43	22.9	72.9				
순이론	서울	연음	100	69.0	56.2	0.001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45	31.0	36.0				
	서울제외	연음	78	49.4	43.8				
		ㄴ삽입	80	50.6	64.0				
순이익	서울	연음	122	80.3	50.6	0.023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30	19.7	36.1				
	서울제외	연음	119	69.2	49.4				
		ㄴ삽입	53	30.8	63.9				
얄팍얄팍	서울	연음	70	47.0	55.6	0.010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79	53.0	40.9				
	서울제외	연음	56	32.9	44.4				
		ㄴ삽입	114	67.1	59.1				

연잇다	서울	연음	121	76.6	49.8	0.012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37	23.4	35.2				
	서울제외	연음	122	64.2	50.2				
		ㄴ삽입	68	35.8	64.8				
옆잇기	서울	연음	88	75.9	47.6	0.035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28	24.1	33.7				
	서울제외	연음	97	63.8	52.4				
		ㄴ삽입	55	36.2	66.3				
일목요연	서울	연음	129	89.0	54.7	0.014	연음	연음	서울 연음
		ㄴ삽입	16	11.0	34.8				
	서울제외	연음	107	78.1	45.3				
		ㄴ삽입	30	21.9	65.2				
차렵이불	서울	연음	106	75.2	51.2	0.024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35	24.8	37.2				
	서울제외	연음	101	63.1	48.8				
		ㄴ삽입	59	36.9	62.8				
첫인상	서울	연음	111	97.4	43.0	0.028	연음	연음	서울 연음
		ㄴ삽입	3	2.6	16.7				
	서울제외	연음	147	90.7	57.0				
		ㄴ삽입	15	9.3	83.3				
큰일01	서울	연음	114	71.7	53.3	0.000	연음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45	28.3	33.6				
	서울제외	연음	100	52.9	46.7				
		ㄴ삽입	89	47.1	66.4				
큰일02	서울	연음	72	46.2	52.6	0.026	ㄴ삽입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84	53.8	40.4				
	서울제외	연음	65	34.4	47.4				
		ㄴ삽입	124	65.6	59.6				
한이레	서울	연음	107	69.0	52.5	0.004	연음	없음	서울 연음
		ㄴ삽입	48	31.0	36.4				
	서울제외	연음	97	53.6	47.5				
		ㄴ삽입	84	46.4	63.6				

Abstract

A Sociolinguistic study on the Morphophonological vari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urban dialect

Oh, Sae Na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June 2006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s several morphophonological variations of t he Seoul Metropolitan urban dialec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dis cuss issues related to the variation of complex word -medial Fortis epen thesis, complex word -medial /n/-insertion and word -medial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of Sino-Korean.

I investigate these morphophonological variations as sociolinguistic typol ogy of 20th century's Seoul metropolitan. The approach taken for this p urpose is the social dialectology. For this dissertation, Sociolinguistic dat a were based on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standard Korean p ronunciation 2003" from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 e.

The Method used herein is the sociolinguistic statistical analysis. The stu

dy uses a qualitative method of sociolinguistics. Social factors which est ablished are sex, age (age, cohort, and generation), place (domicile, birth place, paternal domicile, maternal domicile) and educational background of 349 informants live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 Age of informants has correlationsh ip with of complex word -medial Fortis epenthesis and complex word -medial/n/-insertion. 1960s – 1980s cohorts and college graduate group i ncrease word -medial Fortis epenthesis. Women, young generation group, collage educated group, Soulite group have conformity to use the variati on of word -medial Fortis epenthesis. (b) Social factors related to 'comp lex word -medial /n/-insertion' are age, place and educational backgroun d. Young generation group, collage graduate group and especially Seouli te group are diminished '/n/-insertion'. Therefore /n/-insertion have regio nal effect. (c) Young generation group have variation leveling. These r esults could apply to koineisation. Increasing fortition and decreasing /n/ -insertion are change on progress Seoul metropolitan area nowadays. (d) 'Word-medial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of sino-Korean' could not fi nd find a correlation with age of informants in apparent time. Much of informants use Nasalization than Lateralization. It is similar to traditional dialect data. The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Word -medial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of Sino-Korean' variations have regional effect. (E) Th e leading groups of word -medial fortis epenthesis and complex word -medial /n/-insertion are young generation. Character of young generation is conformity which has completely different socio-cultural and socioeco nomic background than elder generations.